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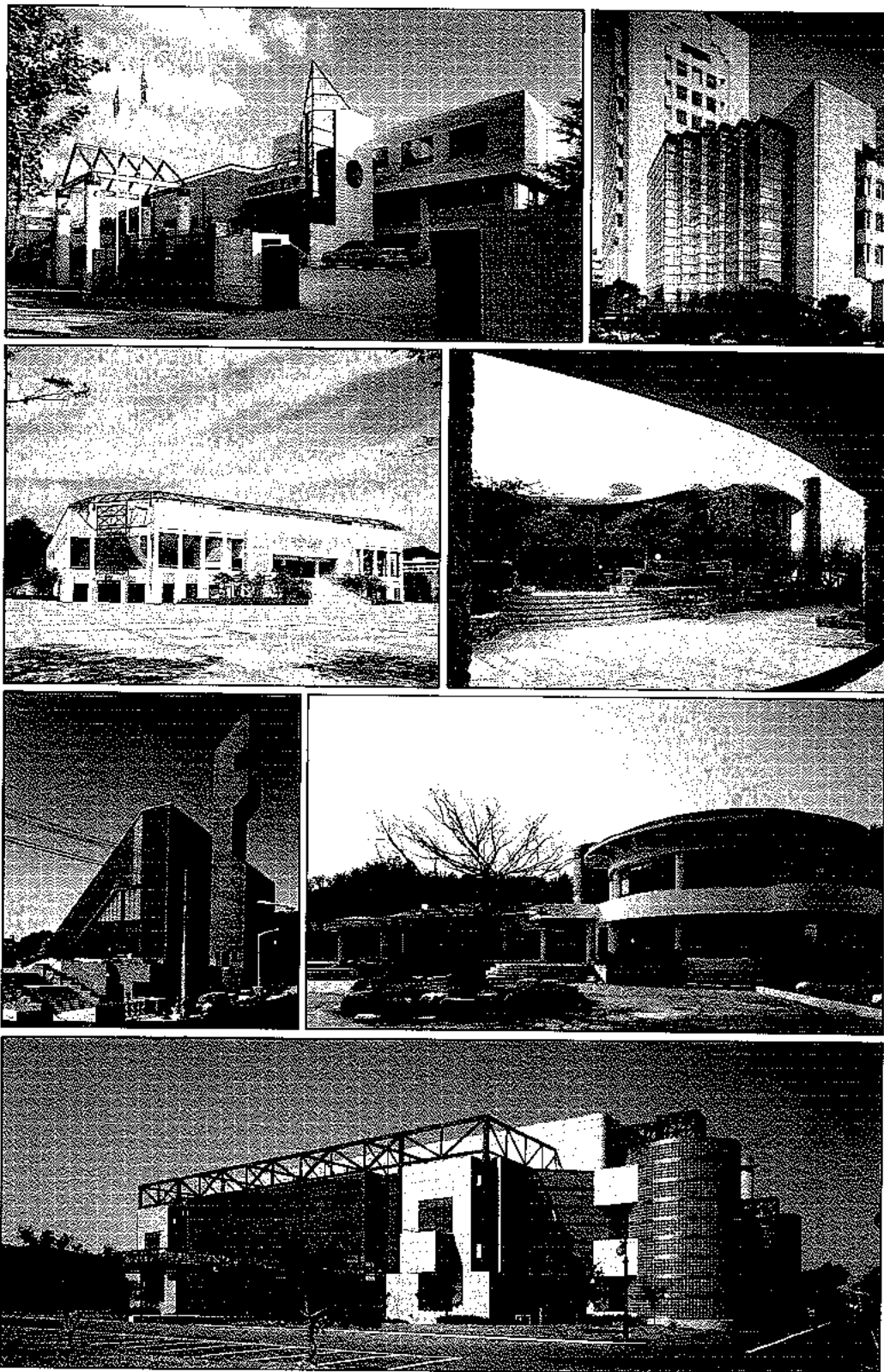
KOREAN ARCHITECT

月刊 建築士 1992년 4월호
 통권 276호 (매월 15일 발행)
 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 · 1967년 3월 23일
 등록번호 · (사)라-26
 1995년 12월 31일 제3종우편물
 (나)급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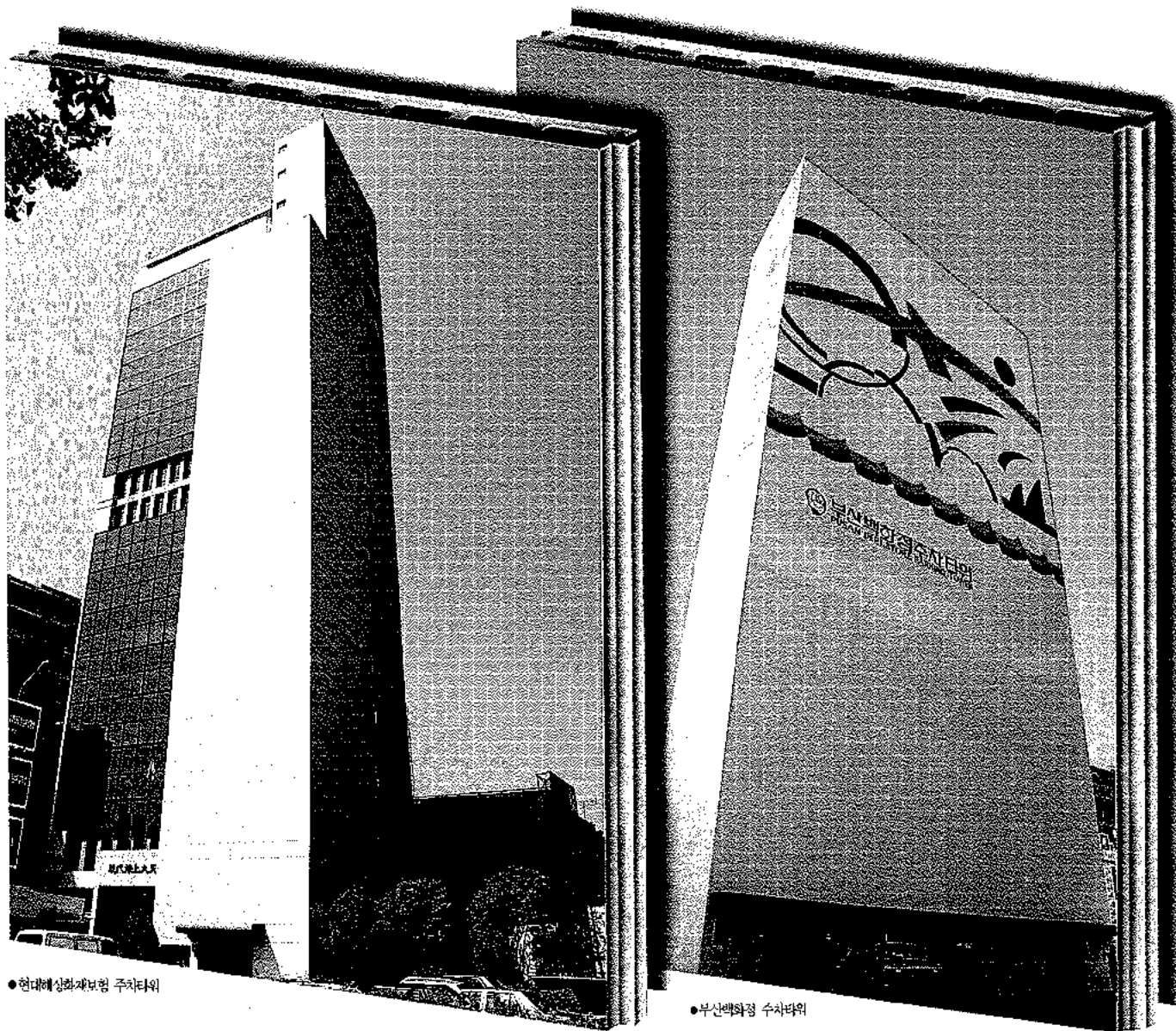
建築士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pril 1992

특집
 '92 韓國建築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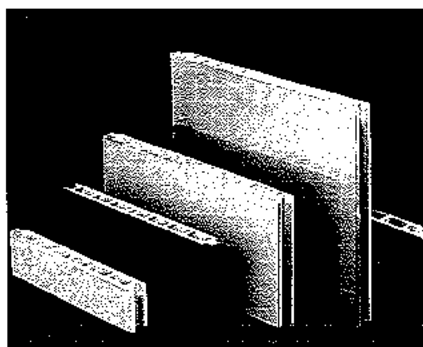
4
 APRIL



●현대백화점주요 주차타워

●부산백화점 주차타워

가장 이상적인 외장재 베이스판넬 - 주차타워에도 잘 어울립니다.



베이스판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용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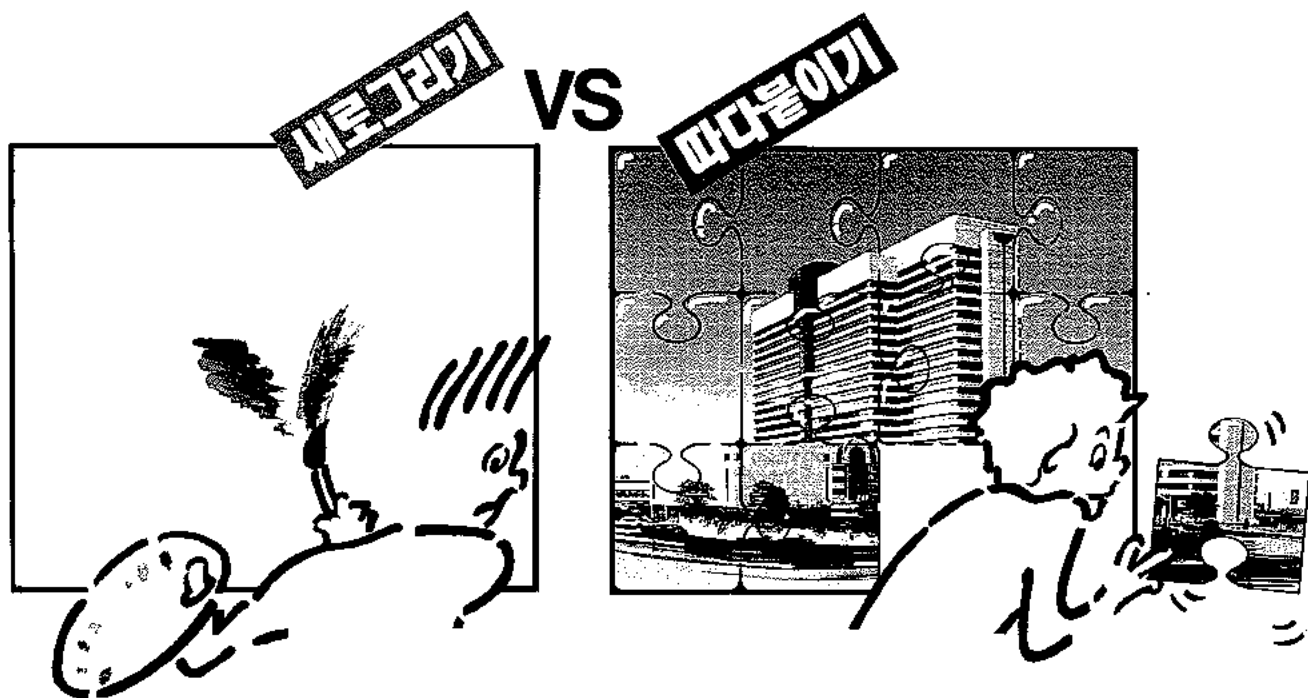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응도/건축물의 외벽·간막아·계단·도로변의 치음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벽산 베이스

“어느 쪽이 쉽습니까?”



Detail Library

국내 유명 건축설계사무소인 (주)우일건축에서 활용중인 건축표준상세의 CAD Library 중 일반적이고 사용빈도가 높은 상세의 도해와 CAD Data입니다.
함께 제공되는 CAD Library Data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합하여 CAD 실시도면에 활용한다면

- 1) 사용자측의 도면 Quality 향상
- 2) 표준화로 인한 회사 Q.C 업무의 기준 마련
- 3) 체계적인 등록 Code 제공으로 사용자가 새로운 상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자료의 회사자산화” 이룩 등 효율적인 건축설계 업무진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어지는 CAD Library

- 일반사항 : 건축 및 구조도면의 Format Sheet와 폭립기초, 기둥, 웅벽, 철골조의 기둥 및 보의 기본적인 집합상세 - 15개
- 실내마감 : 천정과 벽 그리고 바닥에 이르는 각 부위별 마감에 의한 상세 - 53개
- 바닥, 천정 : 바닥 및 천정에 있어서 바탕의 조건이나 마감재료에 따른 상세 - 42개
- 벽 : 벽체를 구성하는 재료 및 각종 System에 따른 상세 - 83개
- 지붕 : 지붕 구성 재료 및 각종 Accessories들의 집합과 방수의 종류에 따른 상세 - 41개
- 계단, 운송설비 : 계단을 구성하는 재료에 따른 부분별 상세 및 가다운송설비 상세 60개
- 창호 : Door 및 Window 등 각종 Opening의 재료에 따른 상세 - 48개
- 단위설, 가구 : 화장실, 주방, 클린룸, 방통실 및 카운터에 관한 상세 - 27개
- 외부시설, 기타 : 건물의 외부시설물에 관한 상세 - 69개 등 총 438개의 상세 제공



Authorized Distributor

CADSPEED®

AutoLISP로 작성된 건축전용 S/W, CADSPED는 범용 CAD S/W인 AutoCAD를 건축설계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AD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Block (미리 그려진 그림을 필요할 때 불러쓰는 AutoCAD명령어의 하나)의 경우 일일이 작성할 필요없이 폭, 높이 등의 가변치수만 입력하면 지정된 그림을 그려 치수까지 기입하므로 수많은 Block들을 하나의 명령어로 대신할 수 있으며, 벽체선의 경우에는 여러 선들의 간격, 색 및 Layer만을 정해주면 한꺼번에 여러 선들의 모서리 처리까지 해가면서 그려나갈 수 있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AutoCAD 활용의 폭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주는 S/W입니다.

CADSPEED®의 주요기능

복선제도, 복선중간부분 자르기, 복선 끝부분 늘리기 및 정리, 복선 동시 자르기 및 붙이기, 창호평면상세의 자동설계입력, 출입문 간편그리기, 창호입면, 설계, 평면도 중심축선의 자동작도 및 치수기입, 구조단면 List, 층고로 최적계단설계, 지적도 확대, Line그림과 동시에 치수기입, 치수만의 가입, 면적계산 기입, 글씨제어기능, 지정 Color 및 Layer로의 변환, Skip Line, Point용이, 기둥평면제도, 2점간의 Array 기능, 기설정 평면계획 등 수십 종의 기능보유

* 본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프로그램등록을 필히하였음

* AutoCAD는 Auto Desk사의 등록상표임

* CADSPED는 동인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상표임

가 격 혁 명 품 질 혁 명 A/S 혁 명

Turn-Key 무상A/S 15개월

서통AI사업부는 AutoCAD, ARRIS등 CAD S/W와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COBRA386, 486PC 및 모니터, 디지털타이저, 플로터 등 CAD주변기기를 Turn-Key Base로 일괄 공급합니다.

H/W, S/W, 주변기기는 물론 A/S와 교육을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는 편리한 선전구매방식과 더불어 강력한 AutoCAD 3rd Party를 활용해 보십시오.

Turn-Key Base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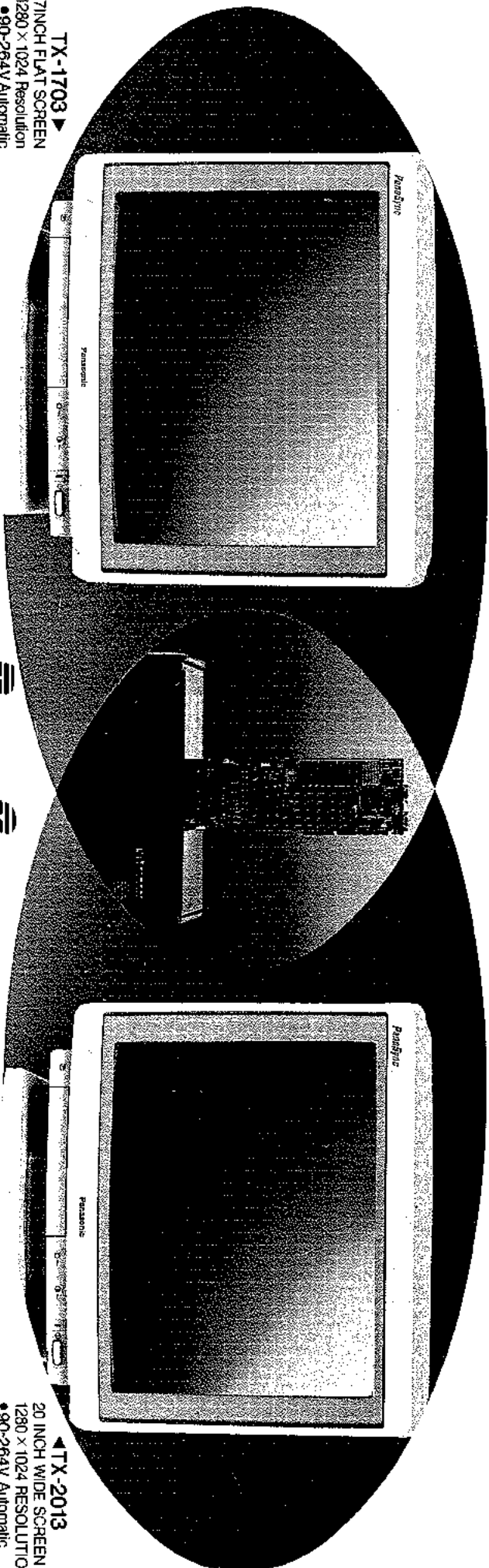
- | | |
|----------------|--|
| ■ SYSTEM | ● COBRA 386S ● COBRA 486 |
| ■ MONITOR | ● NEC-2A(14"), 3D(14"), 4D(16"), XL(20"), 5D(20") ● HITACHI CM2085 |
| ■ GRAPHIC CARD | ● AutoPACK ● X-series16, 256 ● Cobra Plus386-HS16, 256 |
| ■ PLOTTER | ● MUTOCH iP-530E, iP-530EL, F-920E, F-920ER |
| ■ DIGITIZER | ● CTCO SketchMaster 12 x 12, 12 x 18 ● Super L 24 x 36, 36 x 48, 42 x 60 |
| ■ S/W | ● AutoCAD ● ARRIS ● AutoCAD 3rd-Party |

시스템 공급 전문회사 : (주)빌리언시스템 325-1623

● 대리점 : (부산) 태창 캐드팩스 464-6450, (서울) 준시스텔즈 718-1103 ● CAD TOWN : (강남) 서통AI사업부 514-0386, 한국스카디시스템 (주) 576-0322~6 (강북) 세운삼기 L.E.T.S 컴시스텔 274-7091~2 (용산) 나진성기 테크컴퓨터 711-8561~2, 삼안상기 퍼지컴 703-2905, 원웅상기 한광건설 715-2775, 진자원도 운시스텔 718-1103, 티마일상기 동산전시장 703-7763 (여의도) 동남C & C 768-3701~4, 세림양행 783-5344, 원대인컴 632-4642, (부산) 태창캐드팩스 464-6450/ (대구) 대구전시장 421-2856, 동부전산 556-2438, 원원시스텔 421-8425, (이리) 만우시스텔 857-6842/ (포항) 현대컴퓨터랜드 72-3644



천연의 COLOR를 파나소닉모니터에 실현한다!



Panasync

- ▶ **TX-1703**
17INCH FLAT SCREEN
1280 X 1024 Resolution
● 90-264V Automatic
Power Control
● 30-64 KHz Horizontal
Frequency
● 50-90Hz Vertical
Frequency
- ▶ **TX-1713**
17INCH FLAT SCREEN
1024 X 768 Resolution
● 90-264V Automatic
Power Control
● 30-64 KHz Horizontal
Frequency
● 50-90Hz Vertical
Frequency

저 넓은 우주에 만물이 형성된 이후로...

이제까지 모든이들은 마쓰시다사가 **Panasync** 라는 기술력으로 천연의 컬러를 모니터에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 우리는 **파나소닉 브랜드**의 칼라모니터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을 한국내 **서동 AI사업부**를 통하여 하니씩, 하나씩 펼쳐 가고져 합니다.

또한, 모든이들이 원하는 많은 정보를 **고해상도 칼라모니터**에 담기위해

언제라도 우리는 모든이들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5140-386으로 문의하십시오,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 ▶ **TX-2013**
20 INCH WIDE SCREEN
1280 X 1024 RESOLUTION
● 90-264V Automatic
Power Control
● 30-64KHz Horizontal
Frequency
● 50-90Hz Vertical
Frequency

- ▶ **TX-2103**
21 INCH FLAT SCREEN
1280 X 1024 RESOLUTION
● 90-264V Automatic
Power Control
● 30-64KHz Horizontal
Frequency
● 50-90Hz Vertical
Frequency
- ▶ **C1381**
14INCH WIDE SCREEN
1024 X 768 RESOLUTION

파나소닉 칼라모니터 전시장

- **전문취급점** : 별미인시스템 : 미포구 삼수동 304-1 무성B/D 1~2층 325-1623 ● 엑소일 시스템 : 진지랜드 본관 3층 A366호 706-2467~8 세운상가 4층 나일 415호 274-7091~2
● 세원광학 : 여의도동 36-4 오르비빌 804호 783-5344 ● 원원퓨터 : 나진상가 17동 기 341 기3-8237 ● 태호시스템 : 나진상가 19동 3F 디320호 711-6561~2 ● 퍼지랩 : 신원상가 21동 4층 93-94호 703-2335~6 ● 한광전선 : 원호상가 6층 3F-35호 715-2776 ● 대진코리아시스템 : 대전시 중구 중촌동 20-10 255-9838
■ **전 문 점** : ● 동대문시장 : 터미널상가 2F-35호 703-7762 ● 문기시스템 : 진지랜드 3F-1B-318호 718-1103 ● 대구전자점 : 대구시 중구 동안동 3가 271-17 421-2856
● 태원카드핀스 : 부산시 송구 송양동 4가 76-21 동도빌딩 1층 464-6430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 | | |
|------------|-----------------|-------------|
| ● 세종문화회관 | ● 유원순기념관 | ● 안양문화예술회관 |
| ● 국립극장 | ● 충현교회 본당 |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 ● 웨라본워커힐 |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 세종센터 예술극장 |
| ● 롯데호텔 | ● 라플 엔젤스 전용공연장 | ● 육군박물관 |
| ● 부산문화예술회관 | ● 서울·제주 산라호텔 | ● 대전시민회관 |
| ● 이화여대강당 | ● 수안보와이키키관광호텔 | ● 부곡하와이 등 |

주요생산품목

- | | |
|---|------------------------|
| ● STAGE & STUDIO
BASIC EQUIPMENT SYSTEMS | — CONFERENCE ROOM |
| — THEATRE STAGE | — SCHOOL STAGE |
| — TELEVISION STUDIO | ● DESIGN & ENGINEERING |
| — OPERA HOUSE | ● MANUFACTURE |
| | ● TURN-KEY PROJECT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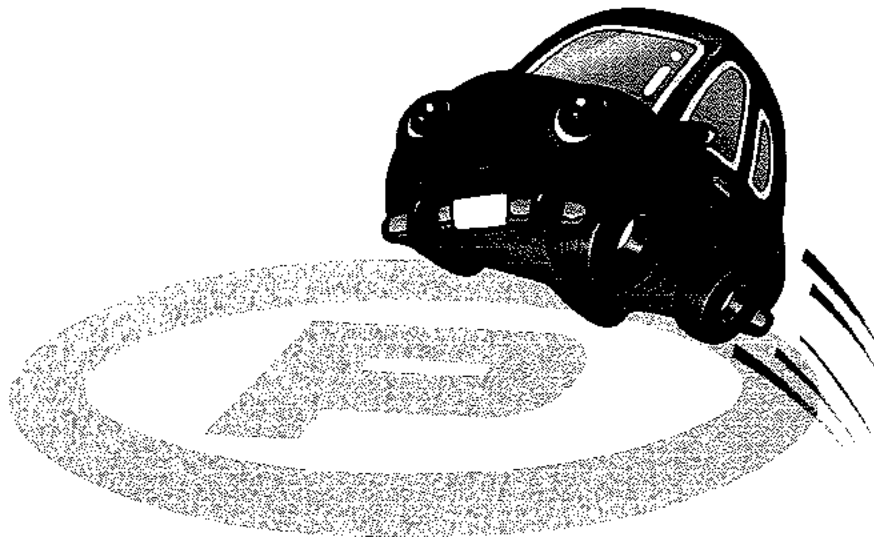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
서울特別市 麻浦区 城山洞 108-1
TEL. (02)332-4500(代表), (02)335-4642(代表)
FAX. (02)392-2751

工場 :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串面 山209-1 松麻里 山209-1
TEL. (0341)987-4184, (02)632-0216

쾌속입출고

어느 회사에서 만든 주차설비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설계의 차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듯, 주차시스템에 따라 효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여년전 국내에 처음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를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고객여러분의 보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식 입체주차설비 —
좁은 면적에 고수익을 생각하신다면 단연 삼성타워파킹입니다.

신속한 입출고
기존제품의 속도보다 25% 향상된 초고속형과 어느 방향에서나 출고가 가능한 턴테이블 내장형의 삼성타워파킹은 신속한 입출고를 통해 단축된 시간만큼의 이익을 고객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첨단 COMPUTER 제어시스템
삼성타워파킹전용의 Computer 제어시스템과 기계의 작동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삼성만의 특허 Panel은 자동 입출고를 통한 간편한 조작과 탁월한 운전관리를 보장합니다.

저소음, 저진동 특수감속기의 사용 및 특수방진설계의 채택으로 저소음, 저진동을 실현하였습니다.

수동출고가능 삼성만의 브레이크회계 장치와 핸드제인의 장력으로 정전 및 기계적 고장시에도 인력에 의한 차량출고가 가능합니다.

완벽 A/S 실현 최고기술진의 완벽 A/S는 언제 어디서나 고객 여러분의 긴급한 요구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다기종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은 구매자의 예산과 입지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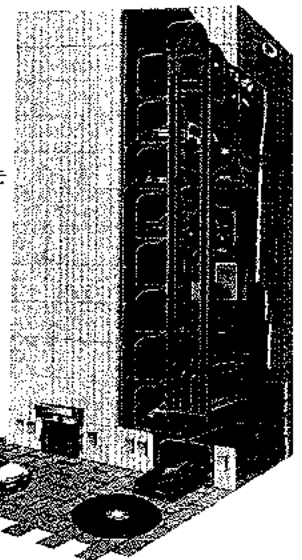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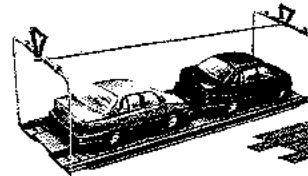
대형제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대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

- 초고속형 :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턴테이블 내장형 : 케이지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 이중탑재형 : 파렛트 하나에 두대 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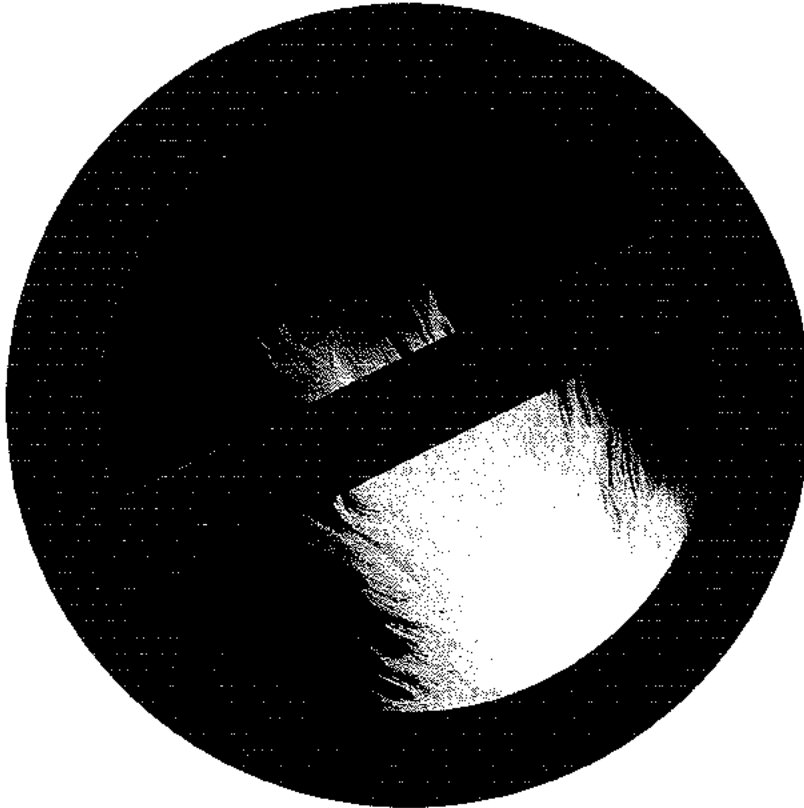
엘리베이터식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하는 시스템 (횡식, 종식)

지하 다층 순환방식 : 다층으로된 지하주차 공간에 상하수평으로 순환이동시키며 주차시키는 방식

조립식 입체평면주차방식 : 경량 철골 조립식 주차장



TOWER PARKING
삼성중공업
기계사업본부



INSU GLASS WOOL PANEL

**인슈그라스울파넬 —
더욱 우수한 1급불연파넬입니다.!**

■ 인슈그라스울파넬이란?

INSU GLASS WOOL PANEL은 내부단열재를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단열효과가 우수함은 물론 화재시 불에 타지않는 불연성이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화재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특히 유리섬유의 입자들이 음의 진동을 완충시켜주므로, 차음 및 방음, 흡음능력이 더욱 우수한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 인슈그라스울파넬의 3대 우수성

1. 우수한 불연성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부단열재가 KSF2271, BS476 Part4의 관련 규격에 의하여 1급 불연재로 인정받은 무기질 단열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하므로써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불연파넬이며 내화 구조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우수한 견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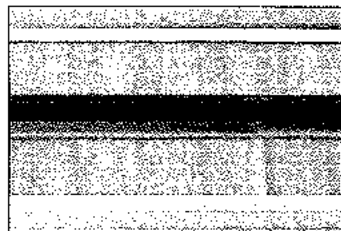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부단열재인 유리섬유의 결합 수직으로 세워 성형한 제품이므로 기존의 섬유 결합 수평으로 성형한 제품보다 압축강도가 10배나 뛰어나 매우 견고하고 균일한 두께유지가 가능하며 박리현상을 완전방지합니다.

3. 우수한 단열성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부단열재가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로 되어 섬유질이 가늘고 균일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안전함은 물론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효과가 우수하여 건물의 유지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재료명	최고사용온도
스티로폼	85℃
P. U. R	110℃
P. I. R	180℃
페놀폼	200℃
그라스울	350℃

(단열재의 화재안전도)



(인슈그라스울파넬의 단면구성)

단열재명	열 전 도 율
그라스울	0.029
스티로폼	0.0285
알 연	0.053
발포 CONC.	0.15

(단열재의 열전도율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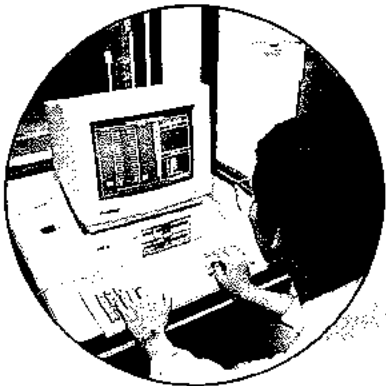


주식회사 연합인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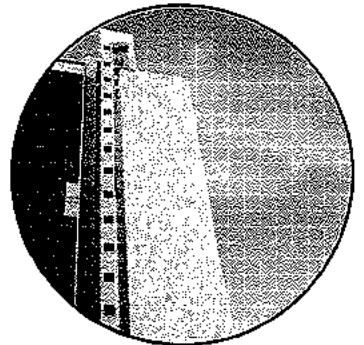


본사및공장: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령리 39-2
TEL: (02) 745-0637, (0336) 34-8880 FAX: (0336) 32-4243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TEL: (02) 555-6891, FAX: (02) 553-1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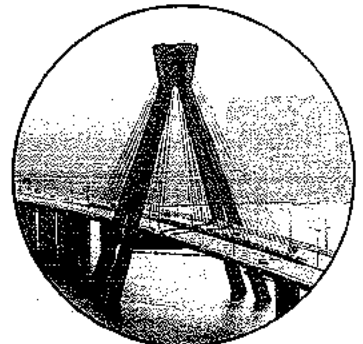
유원의 첨단기술이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 한국일보사신관 주차타워
컴퓨터 콘트롤 룸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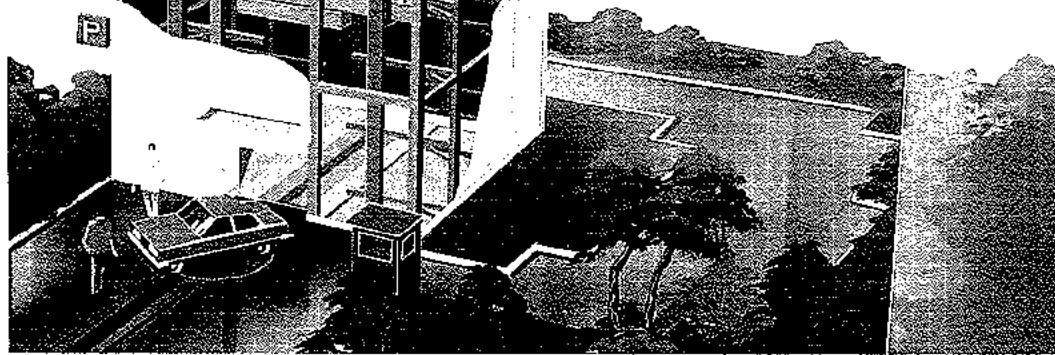


● 서울·올림픽대교

13평의 땅에 50대 주차 설비를 세운다.

올림픽대교를 건설한 유원건설이 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유원은 한국일보사 신관 주차타워와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등을 완공,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크고 작은 주차타워 설치공사를 수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원은 국내외에서 쌓은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주차설비 분야의 기획업무부터 설계, 시공, A/S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설의 특징

- 13坪에 50臺 주차설비 시설가능
- 지상, 지하에 동시 운행가능
- 트윈타입으로 설치원가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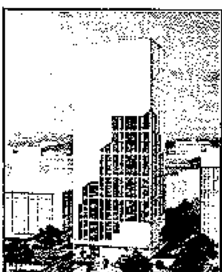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시설의 7대 장점

1. 경제성 - 저렴한 시공비, 최소의 운영관리비
2. 안전성 - 16가지 이상의 COMPUTER 안전장치
3. 신속성 - 상승속도 60m/min 이상, 1분내 입출고 처리
4. 간편성 - 차량번호만 입력, 자동으로 입출고
5. 성숙성 - 승객용 승강기에 버금가는 무소음 무진동
6. 다양성 - 대지형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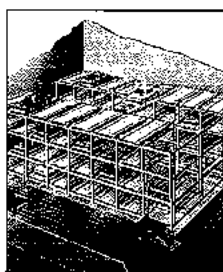
7. 독창성 - 국내 기술전에 의해 개발 100% 국산화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공 및 착공사례

- 한국일보 신관 : 2기 48대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 1기 40대
- 부산 고속터미널 : 3기 120대
- 사당 쇼핑센터 : 3기 150대
- 잠실 뉴스타관광호텔 : 1기 50대
- 평창산업주차타운 : 4기 200대



YOP-A 연립형



YOP-M형



상담전화 : (02) 756-9821, 9841 (02) 777-9821, 9841
FAX : (02) 754-8521
주차 플랜트부

焼結石이 호흡한다. 국내 최초의 신건축 소재 "BIO-HAPPY STONE"

삼화화성 30년 기술과
일본 CLAY BURN CERAMICS 신기술의 만남
"BIO-HAPPY STONE" 탄생

66

국내 유일의 종합 염기성 내화물 제조업체인 삼화화성이 30년 축적된 기술과 오랜 경험으로 '91 우수 KS업체 대상 수상과 함께 국내 최초로 건축 내외장 마감재인 소결석 "BIO-HAPPY STONE"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21세기를 앞두고 세계의 언어인 신기술과 IE 추진 강화로 2000년대 최고기업으로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99

Bio Happy Stone 은 제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바이오성분에 의하여 공기중의 유해질을 정화시키고 모든 생물의 생체리듬을 활성화시켜주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3가지 장점

1.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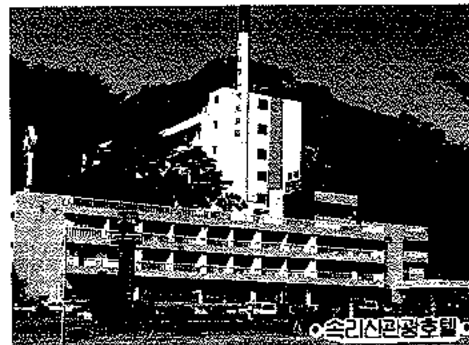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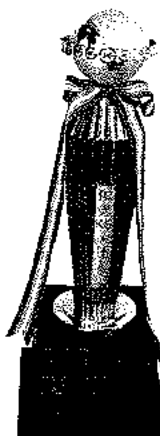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선택의 폭이 넓어 자연스럽고 건축물의 고급화를 주도합니다.

2. 뛰어난 가공성

1,200℃ 이상에서 소성한 불연제품의 수축, 팽창이 없고 가벼우며 변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절단, 구멍 뚫기 등 가공이 편리합니다.

3. 대형고급 도판

건축 내·외장 및 바닥에 사용되는 BIO-HAPPY STONE은 600×900mm/m×25^t, 600×600mm/m×25^t로 공공건물, 오피스, 호텔, 레스토랑, 갤러리, 박물관 등 어디서나 건물의 웅장함과 품격을 한층 더 세련되게 합니다.



— 삼화화성 '91우수 KS업체 대상 수상 —



三華化成株式會社

SAMHWA CHEMICAL CO., LTD.

본사·공장 : 경북 포항시 청림동 1-143 TEL.(0562) 72-2051~3, 80-0114
FAX. 72-8033 / 서울총판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89-22(국제조명빌딩 2층) TEL.(02) 516-7772~4, FAX. 516-7775

그것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흥성의 꿈입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의 창조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든 건축 내·외장재의 혁신

아키렉스

— ARCHITECKS(아키텍스) /

아키텍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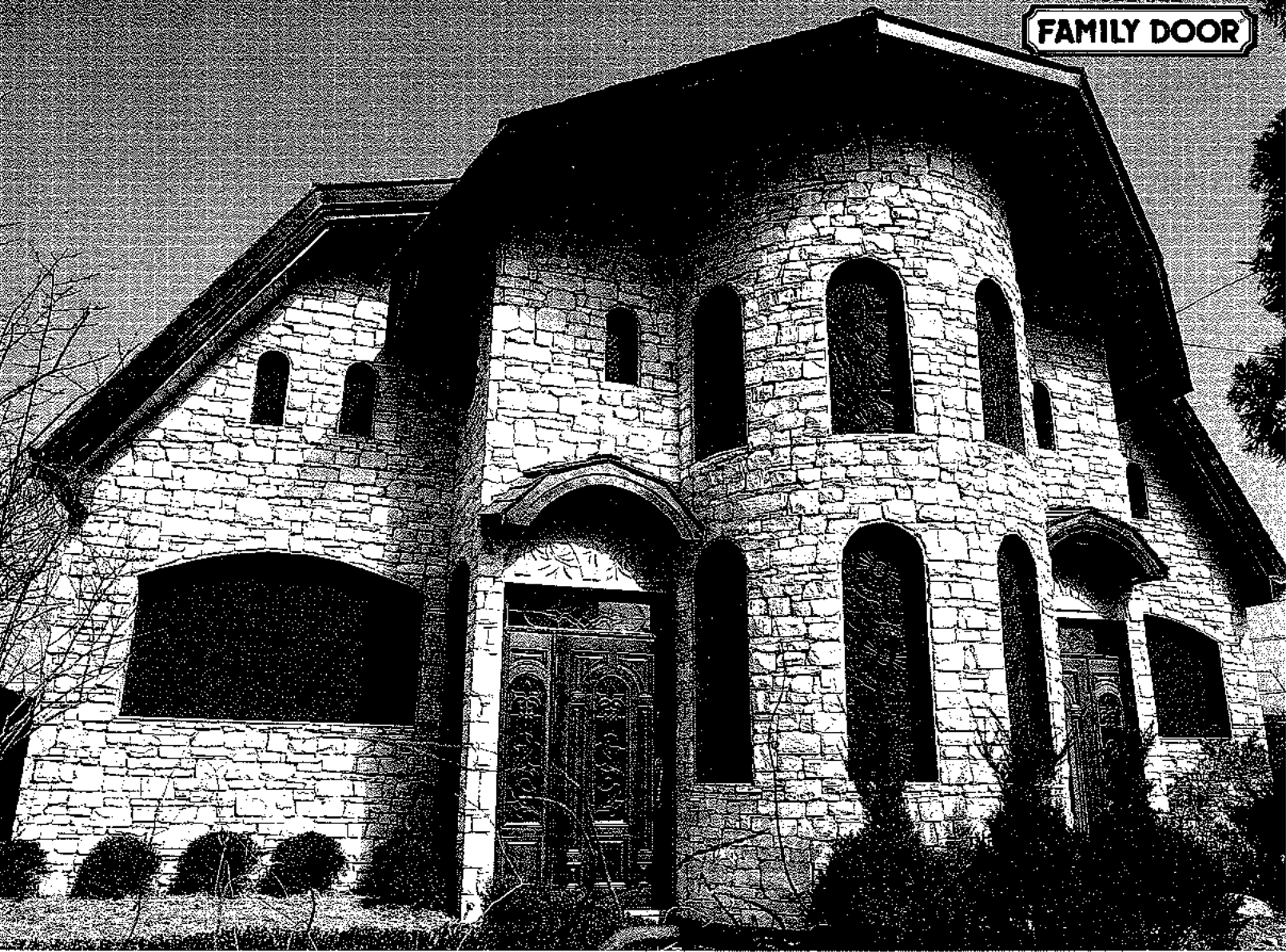
압미늄판, 아연도철판, 동철판 등 각종 금속판(0.1mm~0.5mm)을 양면으로 하고 코아부의 일정 두께를 강력한 접착력과 보강력이 있는 가열경화성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혼합물로 형성하여 겹으로써 금속합판 전체의 보강은 물론 단열, 방진, 방음 및 저음의 효과를 낼 수 있고 변질이 되지 않는 특수 금속합판의 건축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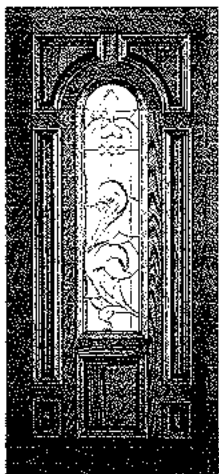
홍성판공주식회사

■ 서울사무소: 서울·강남구 대치동 1007-3 총회화관 1층 TEL. (02) 562-1264, 568-3474~6, FAX. (02) 566-0856
 ■ 본사 및 공장: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사동리 산78-2 TEL. (0336) 34-5119, 32-1903~4, FAX. (0336) 34-9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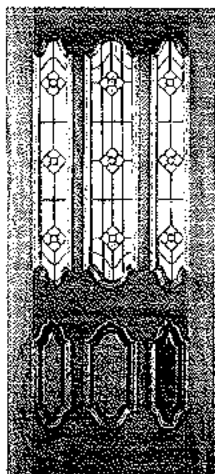




좋은 집 좋은 문 - 해밀리 통나무 현관도어



FED-525 외장도어 11799



FED-1300 외장도어 117198

미국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FAMILY EXTERIOR SOLID DOOR / 6개월이상 건조시킨 100% 천연통나무 현관용 도어로 양육의 본고장 미국의 고급 단독주택에 걸맞아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시대 최고수준의 디자인

미국의 일류 건축 디자인에 의해 탄생되어 격조높은 미국 상류층 주택시장에서 꾸준히 애용되고 있는 매우 품위있고 세련된 제품임

환상적인 채광효과

아름다운 BEVELED 조각 무늬 유리를 통해 부딪치는 햇살들의 환상적인 하모니가 집의 첫관문인 현관공간을 밝고 눈부시게 가꾸어 줌

높은 단열, 차단효과

따뜻한 느낌의 천연통나무와 3겹 진공 복층유리의 단열효과는 알루미늄 제품과는 비교될 수 없으며 문틀과 문 사이에 설치된 특수 고무 줄재(WEATHER STRIP) 장치는 비바람 먼지, 외부의 소리 등을 차단시키며 문을 여닫을시 충격방지 역할도 해줌

■ 주요시공처 : 대명건설, 강남종합교회, 문주교회, 민호상업, 주안상업, 북포유일교회, 나진교회, 영문 빌라 및 개인주택

■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국내대리점 : 서울 : 강남 549-8800 건설회원 540-0305 을지로2동 3124 본점 546-7352 문정 389-9504 사대문 388-2966 ●경기 : 원곡 655-3843 오산 72-6500 인천 422-0999 안양 55-2813 연천 402-7869 성남 757-8177 부평 519-4246 ●충청 : 대전 627-5120 다진동무 256-7117 대전동무 264-3877 청주 66-4241 충주 647-7285 충주중앙 647-3750 세천 64-4158 천안 62-8196 계천 43-7425 대천 34-7337 ●강원 : 강릉 41-3341 동해 34-5488 인제 42-2702 속초 33-4405 양양 374-4303 춘천 51-2616 춘천중앙 56-3257 ●호남 : 광주 225-9920 군산 42-6719 전주 86-3522 여수 81-4917 순천 742-2670 광주서구 675-6451 ●경남 : 부산 741-6501 동부산 464-1277 대구 763-8700 대구중앙 355-2529 마산 95-3000 구미 51-0646 포항 81-8570 안동 2-3157 영주 34-6012 김천 30-5877 김천중앙 39-4368 울산 92-3638 김해 43-1810 부산동래 663-5146 상주 535-5838 영덕 39-8484 진주 745-8992 부산서구 505-9586 울산 53-7528 ●제주 : 제주 56-4131 서귀포 33-8204

■ 해외대리점 : Tokyo ●Osaka ●Losangeles

●대리점 개설문의 : 직통 (032) 577-0122 김성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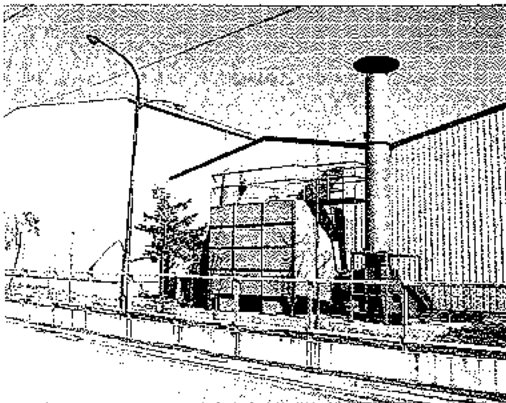
(주)삼익목재

仁川廣域市 西區 佳佐洞 178-71

PHONE : (032) 576-7070~5

FAX : 032) 577-0120

조립식패널의 품질은 중간단열재가 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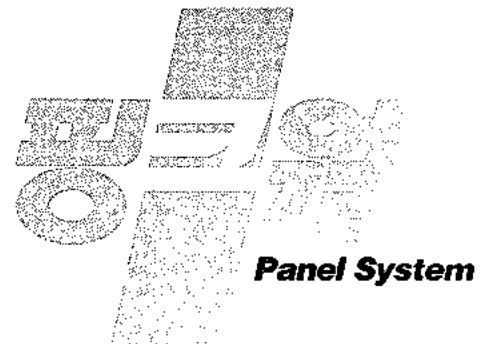


최고급 난연·방수단열재 아이소핑크가 중간단열재로 사용되는 핑크월-그 명성에 걸맞는 품질로 조립식패널의 새로운 시대를 리드합니다.

핑크월은 세계 최고의 단열재 메이커인 미국 유씨 인터스트리(UCI)사의 진공 압출발포공법으로 생산하는 최고급 단열재인 아이소핑크를 중간 단열재로 사용하여 세계적 명성의 조립식패널 메이커인 네델란드 아이소월 인터내셔널(ISOWALL INTERNATIONAL B.V.)사의 샌드위치 라미네이트 기술로 생산하는 고품질 조립식패널입니다.

핑크월의 특성

- ☐ 핑크월은 냉·난방비용을 대폭 절감해 줍니다.
- ☐ 핑크월은 견고한 구조강도에 비해 가볍습니다.
- ☐ 핑크월은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 ☐ 핑크월은 방수·방습·방음효과가 있습니다.
- ☐ 핑크월은 모든 면에서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차례/1992년 4월호 통권 제276호

특집 : '92한국건축전 수상작

건축사부문

대상

수원곡전동 사무소 / 金義成

19

우수상

구룡 휴게소 / 李珪杓

20

남천성당 / 姜錫元

21

삼성체육관 / 金昌壽 + 朴昇 + 韓相默

22

한국은행 강남전산센터 / 李永熙

23

포항공대 테니스장 / 崔寬泳

24

MBC 인력개발센터 / 金基雄

28

신인부문

32

학생부문

37

심사평 / 李光魯, 安瑛培, 李慶會

50

논단 전통과 문화적 동의 / 李廷根

52

기획연재 패러다임, 건축적 사고유형 및 디자인 특성(1) / 吉成鎬

58

연구 병원건축개론 / 鄭賢和

70

해외건축 21세기 건축을 향하여 / Niel M. Denari

80

계회작품 삼척시 종합문화회관 / 崔相龍

86

자료 1991년 2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88

協會消息

90

新入會員

96

發行人 : 吳雲東

編輯企劃 : 編纂委員會

委員長 : 李義求

委員 : 徐千植, 李瓊榮, 金文圭, 崔英集,
宋洙九

編輯 : 出版事業部

發行處 :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 서울 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 137-170

電話 : 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 (02)586-8823

登錄番號 : 서울 라-26(月刊)

登錄 : 1967年 3月 23日

U. D. C. : 69/72(054-2) : 0612(519)

印刷人 : 李鳳秀 / 正文社

Publisher : Oh, Woon-Dong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Eui-Koo

Member : Suh, Chun-Sik/Rhee, Chan-Young
Kim, Moon-Kyu/Choi, Young-Jeep/Song, Soo-Koo

Assistant Editor :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 581-57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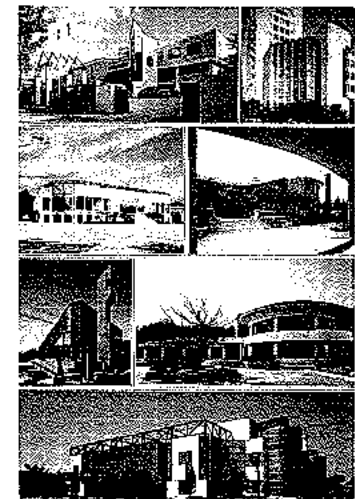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u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 D. C. : 691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표지 : '92한국건축전 건축사부문 수상작

'92韓國建築展 受賞作 發表

本協會가 우리나라 建築文化의 發展과 새로운 建築風土 造成 및 後進養成에 이바지 하고자 開催하는 '92韓國建築展 各部門別 受賞作이 選定되었다.

총 65작품이 출품된 建築士 部門에서는 우리나라 建築文化 발전에 공헌한 우수작품 7점을 선정, 대상 1점과 우수상 6점을 시상키로 하였으며, 新人·學生部門에 있어서는 新人部門 31점과 學生部門 응모작 179점을 엄중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하고 일 정수준 이상의 우수작에 대하여 입선을 선정하였다.

심사위원 및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應募 現況

- 建築士部門 : 전국에서 65작품 출품
- 新人部門 : 총 31작품 응모
- 學生部門 : 전국 47개교에서 총 179작품 응모

▶ 審査日時

- 建築士部門 : 1992년 3월 25일 ~ 26일
- 新人·學生部門 : 1992년 4월 1일 ~ 2일

▶ 審査委員

• 建築士部門

委員長 - 李光魯 (서울大 建築科 教授)
 委 員 - 吳雲東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尹道根 (弘益大 建築科 教授)
 劉熙俊 (漢陽大 建築科 教授)
 安箕泰 (건축사사무소 동화건축 대표)
 姜泰錫 (本協會 이사)
 金知德 (本協會 이사)

• 新人·學生部門

委員長 - 吳雲東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委 員 - 辛鉉植 (大韓建築學會 會長)
 張錫雄 (韓國建築家協會 會長)
 安敏培 (서울市立大 建築科 教授)
 李璵會 (延世大 建築工學科 教授)
 金枝泰 (삼아건축사사무소 대표)
 宋基德 (정일엔지니어링 대표)
 李義求 (本協會 이사)
 李京男 (本協會 이사)
 李文雨 (서울 建築士會 會長)

▶ 建築士部門 受賞作

시상구분	작 품 명	출품자	소 속
大 賞	곡선동사사무소	김의성	건축사사무소 예일 (경기도)
優 秀 賞	구룡휴게소	이각표	임이종합건축사사무소
	삼성 체육관	김창수	(주)삼우종합건축사 사무소
	MBC인력개발센터	김기웅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
	한국은행 강남전산센터	이영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남천성당	강석원	건축사사무소 구름가
	포항공대 테니스장	최관영	일전종합건축사사무소

▶ 新人部門 受賞作

시상구분	작 품 명	응 모 자	소 속
最優秀賞	STRATIFI-CATION	최명철, 최문규	자전건축사사무소
優 秀 賞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지역 Community Center	강옥현	(주)원도시종합 건축사사무소
獎 勵 賞	호혜(互惠)	이명희, 강형찬	비전종합건축사 사무소
	Community Center	이재민, 허영권	아람광장, 구름가
	Search for Identity	임중근, 김우성	연세대학교원
入 選	지역문화회관	전창선, 송형규	금상건축기획
	Community Center	허정만, 배수근	한국조형, 나리울 건축
	Wall and Mass	정철수, 박해숙	성림, 중원건축
	가로벽의 형성과 중앙광장	민경태, 정인중	연세대 대학원
	핵과 역동성	이인범, 심재경	단국대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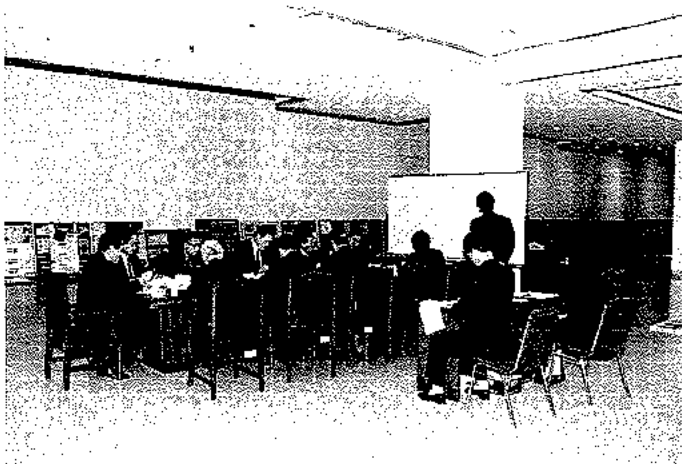
▶ 學生部門 受賞作

시상구분	작 품 명	응 모 자	소 속
最優秀賞	Teenage Community	김태훈, 정은성	한 양 대
優秀賞	J. Story	장형순	아 주 대
	산행열차	박용성, 명재범	고 려 대
獎 勵 賞	물고기는 물 밖에서만 물을 말할 수 있다.	정재일	경 남 대
	Space of Dream	이재훈, 유석형	한 양 대
	The start Spot of Traditional Succesion	변분수, 오미숙	충 북 대
	Completion of Youth	이재진, 박홍태	동 아 대
	Forest and Light	이현욱, 정준수	경 원 대
	하나됨을 향하여	김상훈, 박태성	충 북 대
	Simple Modern, and...	김태선, 신화종	청 주 대
	흐르는 공간 숨쉬는 장소	윤인보, 임성필	금 오 공 대
	전인교육을 위한 청소년 수련장소	이종구, 이민창	연 세 대
	Approach	서승완, 최종석	고 려 대
서울회장상	To the Nature	강현석, 이성준	홍 익 대
	Feeling	이상룡, 김현수	건 국 대
	Youth Center	신은영, 박소정	동 국 대
부산회장상	땅, 물, 불, 바람	김동조, 정순자	부산공업대
경북회장상	A Song of Youth Life	이상현, 김기석	영 남 대
인천회장상	Experience	박상희, 이정희	인 천 대
광주회장상	청소년 수련회관	이광호, 김진희	전 남 대
대전회장상	어떤이의 꿈	백재동, 강전호	목 원 대
경기회장상	Sfvmato	김종진	수 원 대
전북회장상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	공주석	원 광 대
경남회장상	Flight	하동렬, 구석미	경 상 대

▶ 學生部門 入選

시상구분	작 품 명	응 모 자	소 속
入 選	四節有宅	이인규	충 북 대
	With The Nature	진문호, 이철우	경 남 대
	알바트로스의 낙원	송재현	홍 익 대
	Pathos	김대영, 노승범	목 원 대
	비상	박인규, 김형일	광 운 대
	호연지기의 場	황현하, 박희진	목 원 대
	또하나의 경험	구경우, 김예환	아 주 대
	San - Guine Space	김법철, 한용진	동 양 공 전
	Forward March / (앞으로가)	박미정	동 의 대
	Expectation	이명섭, 이지해	충 북 대
	청소년 수련시설	남용식	연 세 대
	Into The Nature	전영훈, 원영근	서 울 대
	April 1992	김선주, 김주봉	건 국 대
	Village of Youthcult	곽동찬	청 주 대
	The Union of The Fir - st & Second Birth	남건수, 정용석	연 세 대
	젊은 시지프스의 축제	최지호, 배규환	홍 익 대
	Media	김수현, 구본재	경 원 대
	Story in the Stream	임우진, 홍윤기	홍 익 대
	Youth Center	정승권, 황진상	홍 익 대
	Mountain Water & Wood	김중인	서울산업대
	Hoy ! (House of Youth)	이영섭, 곽윤석	홍 익 대
	소집단 활동을 위한 연수원	안경두, 권종근	홍 익 대
	Corridor in Nature	김경희, 최민아	건 국 대
	Enclosed Space	임진호, 조지영	부 산 대
	Skin - Ship With Nature	김혁, 최준호	경 원 대
	Castle 17 - 24	구연희, 조은전	건 국 대
	Clustering and Break up of the Cell	이규혁, 신정섭	명 지 대
	Natural Complex	강성식, 최진욱	동 국 대
	New Youthourt	홍재승, 김중섭	홍 익 대
	Separate Peace	이장술, 강덕호	서울산업대
	Massage	강기민, 오수인	단 국 대
	Youth Castle	김성남, 박혁준	동 국 대
	청소년 수련회관	고광표, 김기영	홍 익 대
	어우러짐	오승현, 김원기	국 민 대
	Symphony	김오진, 오준택	국 민 대
	하늘 · 땅 · 여기	정용우, 채혜선	대전공업대

'92 韓國建築展



▶ 建築士 部門

大賞

수원곡선동 사무소	19
-----------	----

優秀賞

구룡 휴게소	20
남천 성당	21
삼성 체육관	22
한국은행 강남전산센터	23
포항공대 테니스장	24
MBC 인력개발센터	28

▶ 新人 部門

最優秀賞

Stratification	32
----------------	----

優秀賞

Community Center	33
------------------	----

奨勵賞

Community Center	34
Search for Identity	35
호혜(互惠)	36

▶ 學生 部門

最優秀賞

Teenage Community	37
-------------------	----

優秀賞

산행열차	38
J. Story	39

奨勵賞

Space of Dream	40
The Start Spot of ...	41
Completion of Youth	42
Forest & Light	43
흐르는 공간 숨쉬는 장소	44
물고기는 물밖에서만 ...	45
하나됨을 향하여	46
Simple, Modern, And ...	47
Approach	48
전인교육을 위한 청소년 수련회관	49

수원곡선동 사무소

Koksun - dong Suburban Office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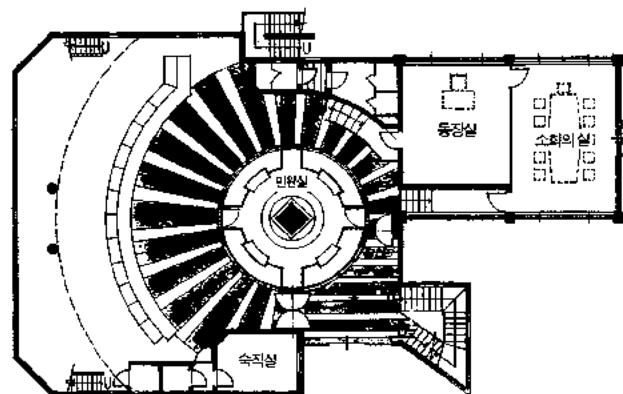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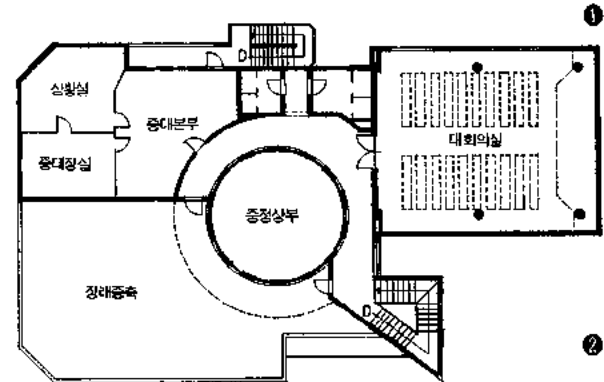
金義成 / 건축사사무소 예일건축
Designed by Kim, Eui - Sung

< 본지 91년 10월호 참조 >



'92 韓國建築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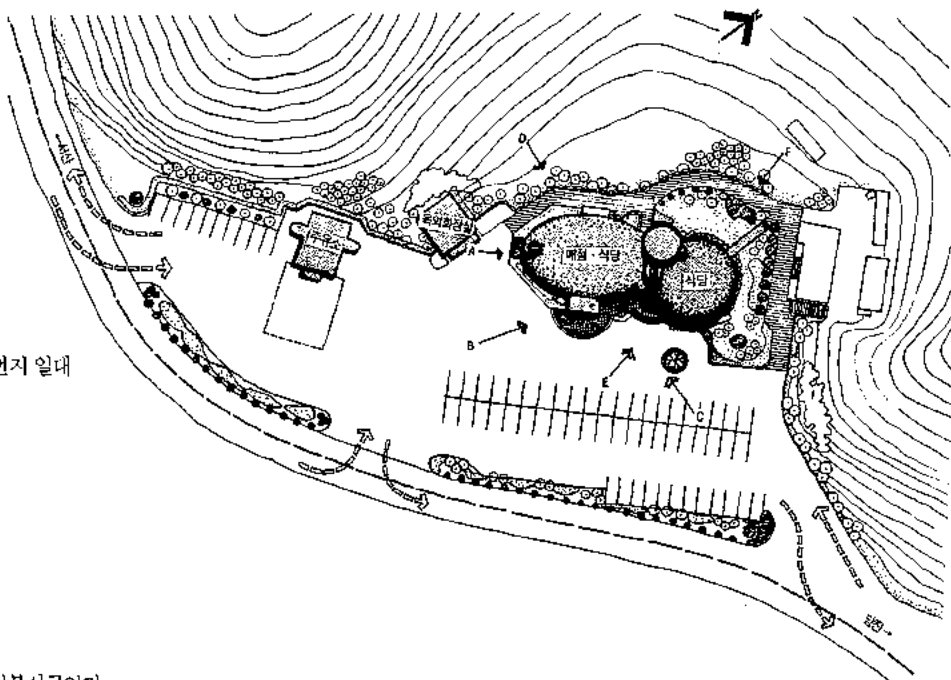
■
대지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1165
대지면적 / 1,193m²
건축면적 / 414.45m²
연면적 / 694.01m²
건폐율 / 34.71%
용적률 / 53.43%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R.C조
외부미감 / 외장타일 및 수성페인트
설계담당 / 단희철, 김문섭, 강숙형, 이형근, 최승국



- ① 전경
- ② 2층 평면도
- ③ 1층 평면도

구룡 휴게소 Kooryong Resting Place

< 본지 92년 3월호 참조 >



■
대지위치 / 충남 당진군 당진읍 구룡리 32-5번지 일대
지역·지구 / 도시계획 이외지역
대지면적 / 8,748m²
건축면적 / 878.81m²
연면적 / 1,146.14m²
건폐율 / 10.04%
용적률 / 11.51%
용도 / 휴게소(근린생활시설)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 직벽돌 치장쌓기 + 외부본타일 + 지붕싱글릿기
부속건물 / 화장실, 주유소

남천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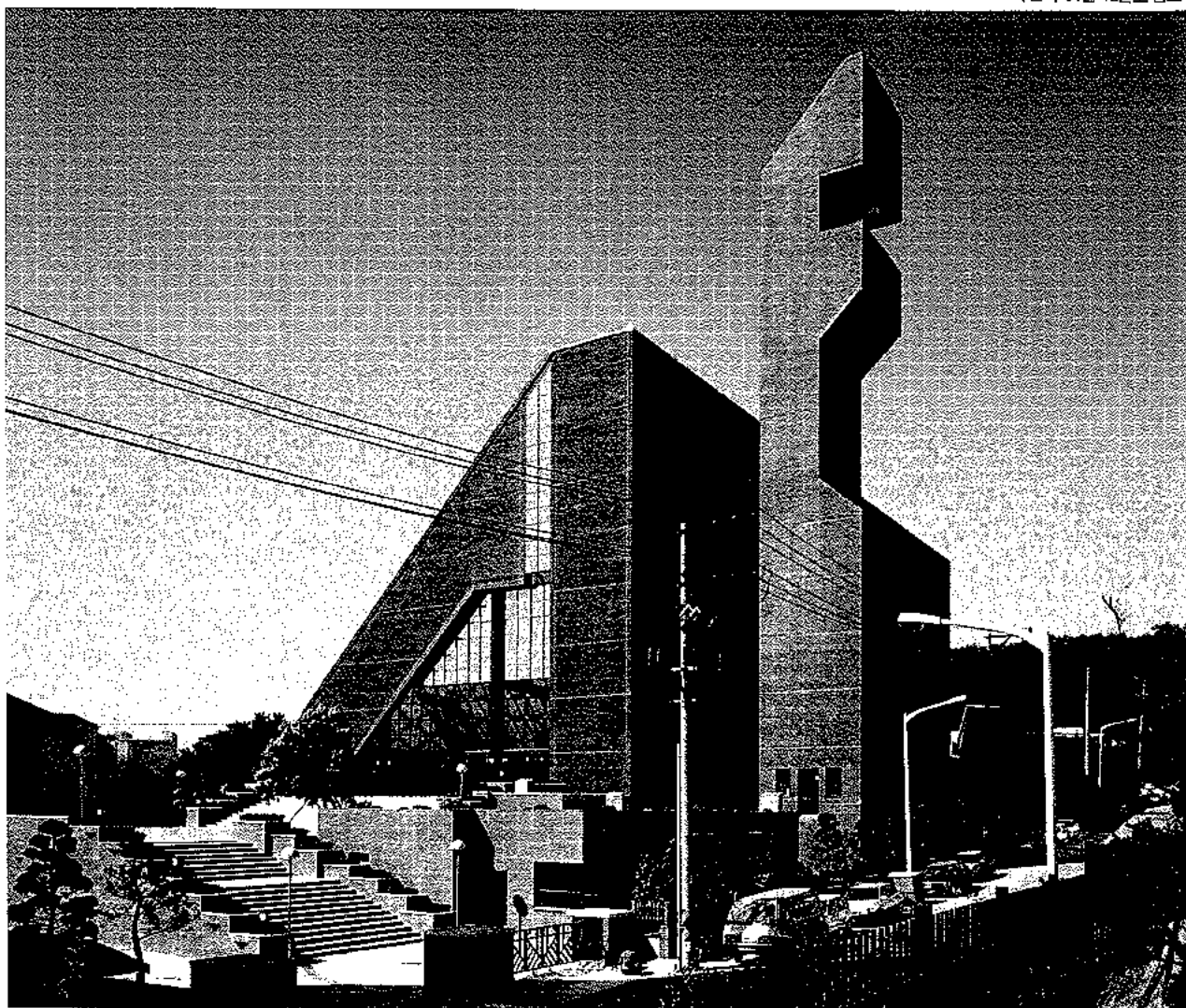
Namchon Catholic Church

우 수 상

姜錫元 / 구름가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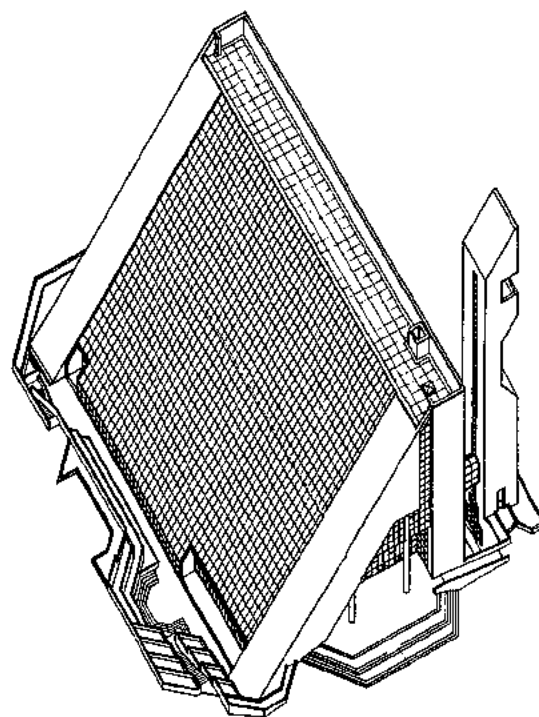
Designed by Kang, Suk - Won

〈본지 91년 12월호 참조〉



'92 韓國建築展

■
대지위치 / 부산시 남구 남천동 69-1
지역·지구 /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건축면적 / 1,935m²
연면적 / 4,473.3m²
대지면적 / 10,981.9m²
건폐율 / 17.6%
용적률 / 40.73%
구조 / 철골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외부미감 / 적벽돌 + 18mm 열선반사복층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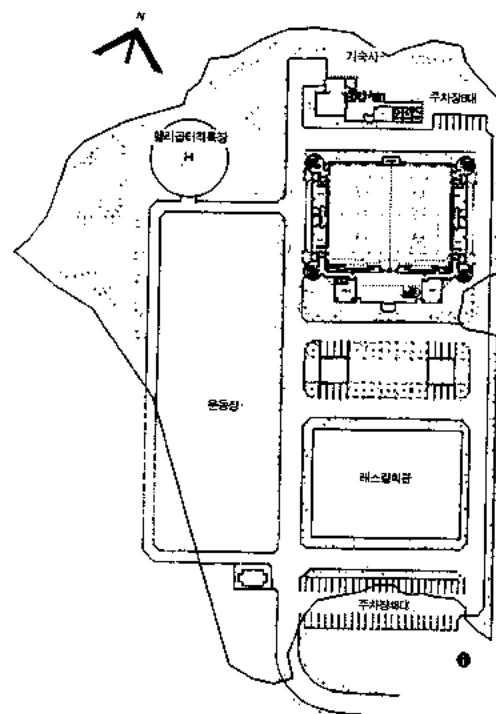
삼성체육관

Samsung Gymnasium

〈본지 91년 11월호 참조〉



■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 42-1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 29,610m²
건축면적 / 3,384.5m²
연면적 / 7,767.5m²
건폐율 / 19.38%
용적률 / 28.38%
구조 / 철골조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주요외장 / 알루미늄 복합판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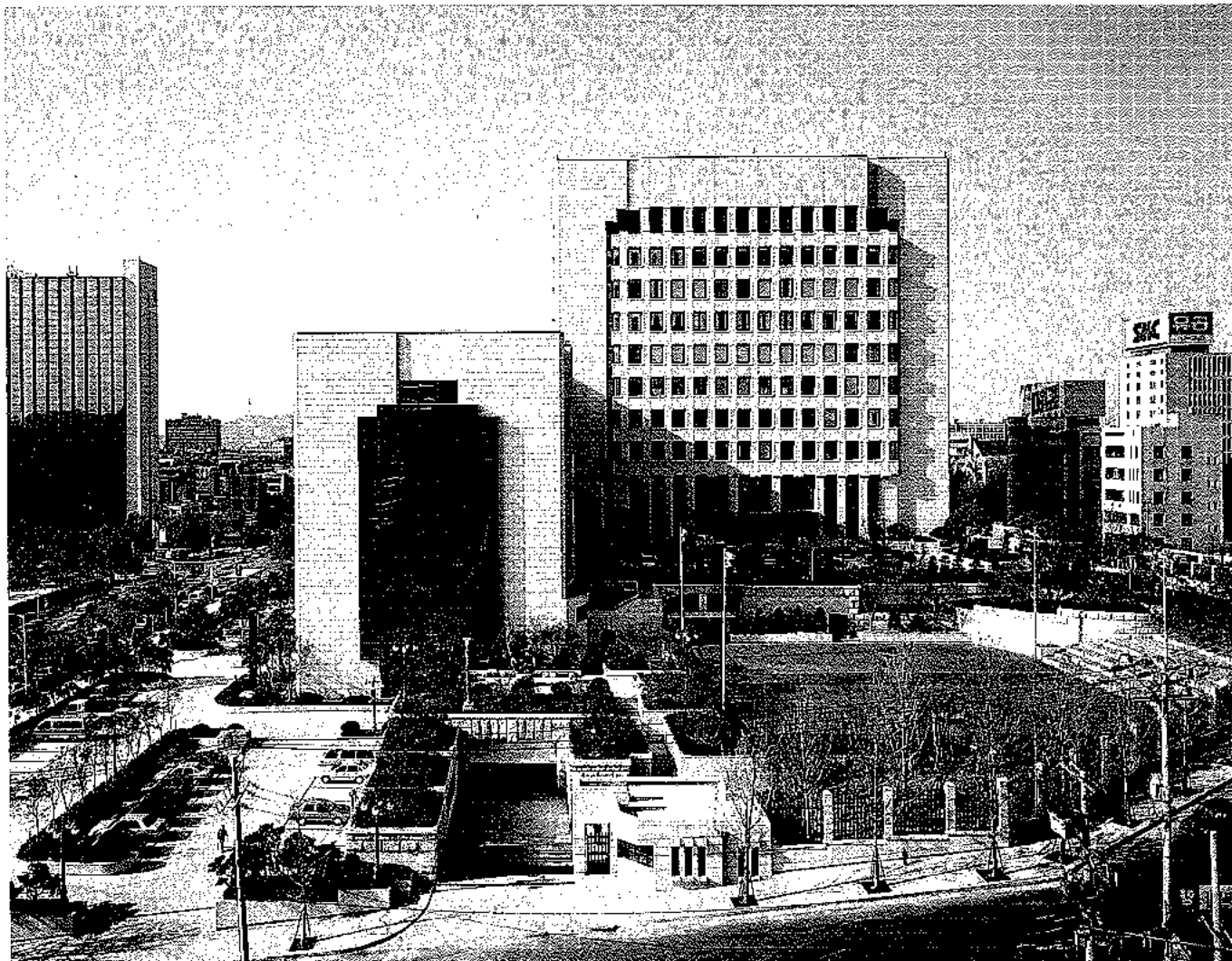
한국은행 강남전산센터

Kangnam Software Development
Center, The Bank of Korea

우 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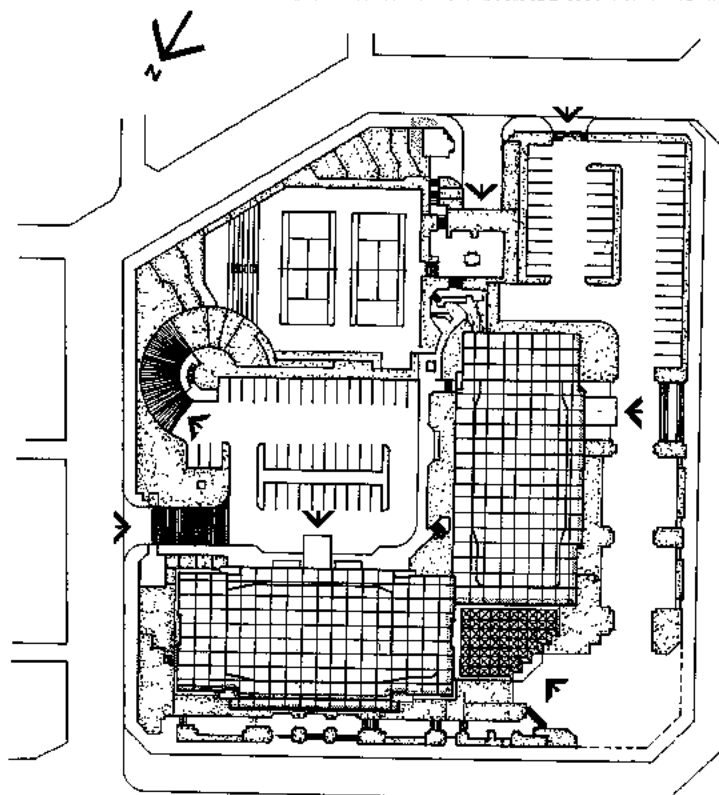
李永熙 / (주)희람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ung - Hee

〈본지 91년 11월호 참조〉



'92 韓國建築展

■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7, 717-1, 2, 3
대지면적 / 15,840m²
건축면적 / 3,677.51m²
연면적 / 45,863.62m²
건폐율 / 23.22%
용적률 / 204.18%
규모 / 지하 2층, 지상 11층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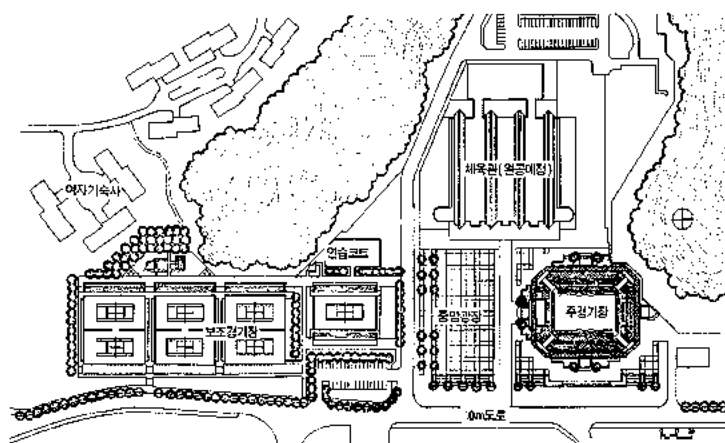
포항공대 테니스장
POSTECH Tennis Court

崔寬泳 / 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Kwan - Young

'92 韓國建築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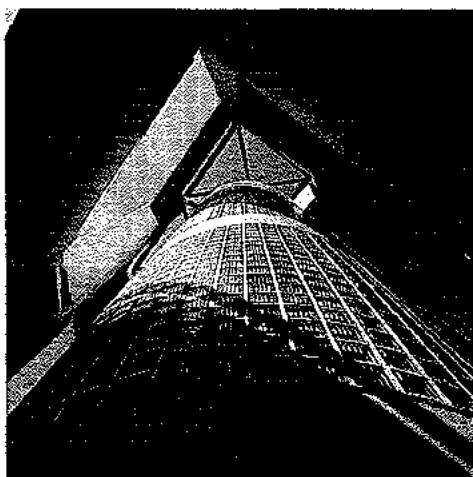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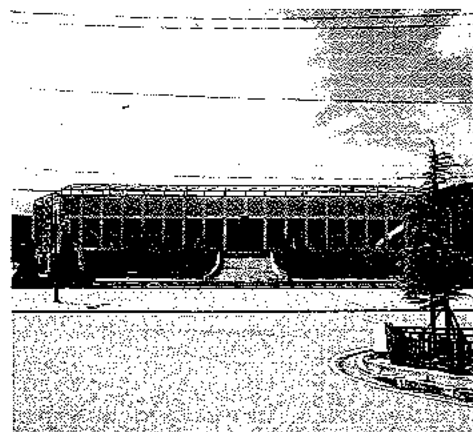
대지위치 / 경북 포항시 포항공단 내
 건축면적 / 3,121m²
 연면적 / 5,552.7m²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장재료 / 노출콘크리트 + 실리콘
 스프레이, 타일, W·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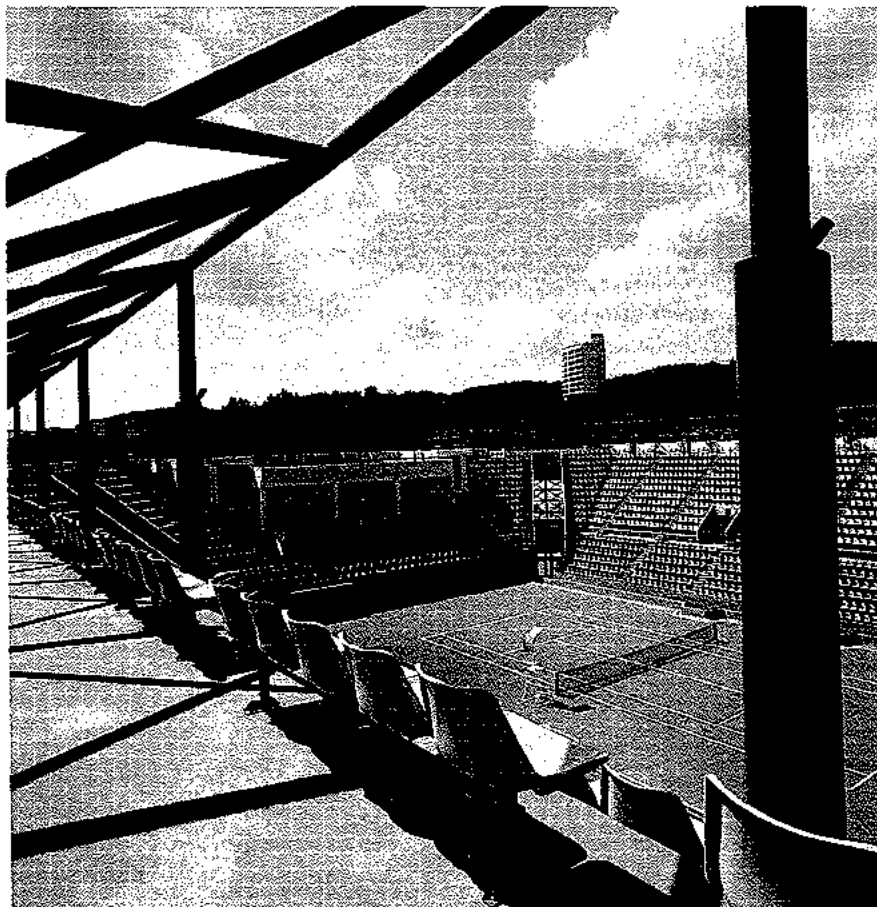
1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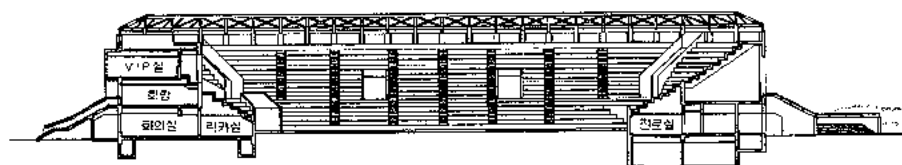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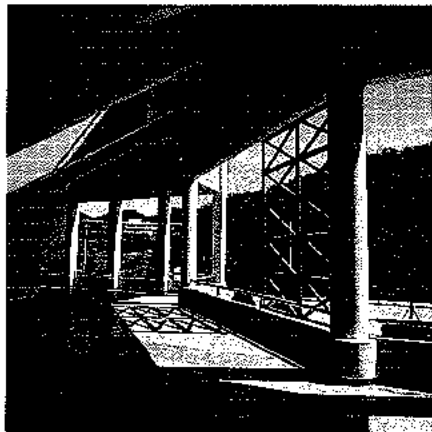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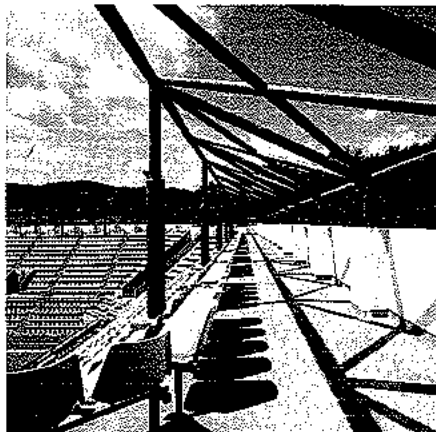


10

- ① 테니스장 정면 전경
- ② 배치도
- ③ 내려다 본 원경
- ④ 외벽 상세
- ⑤ 외부 모서리측 상세
- ⑥ 주출입구측 전경
- ⑦ 스탠드에서 본 경기장
- ⑧ 동측 입면도
- ⑨ 남측 입면도
- ⑩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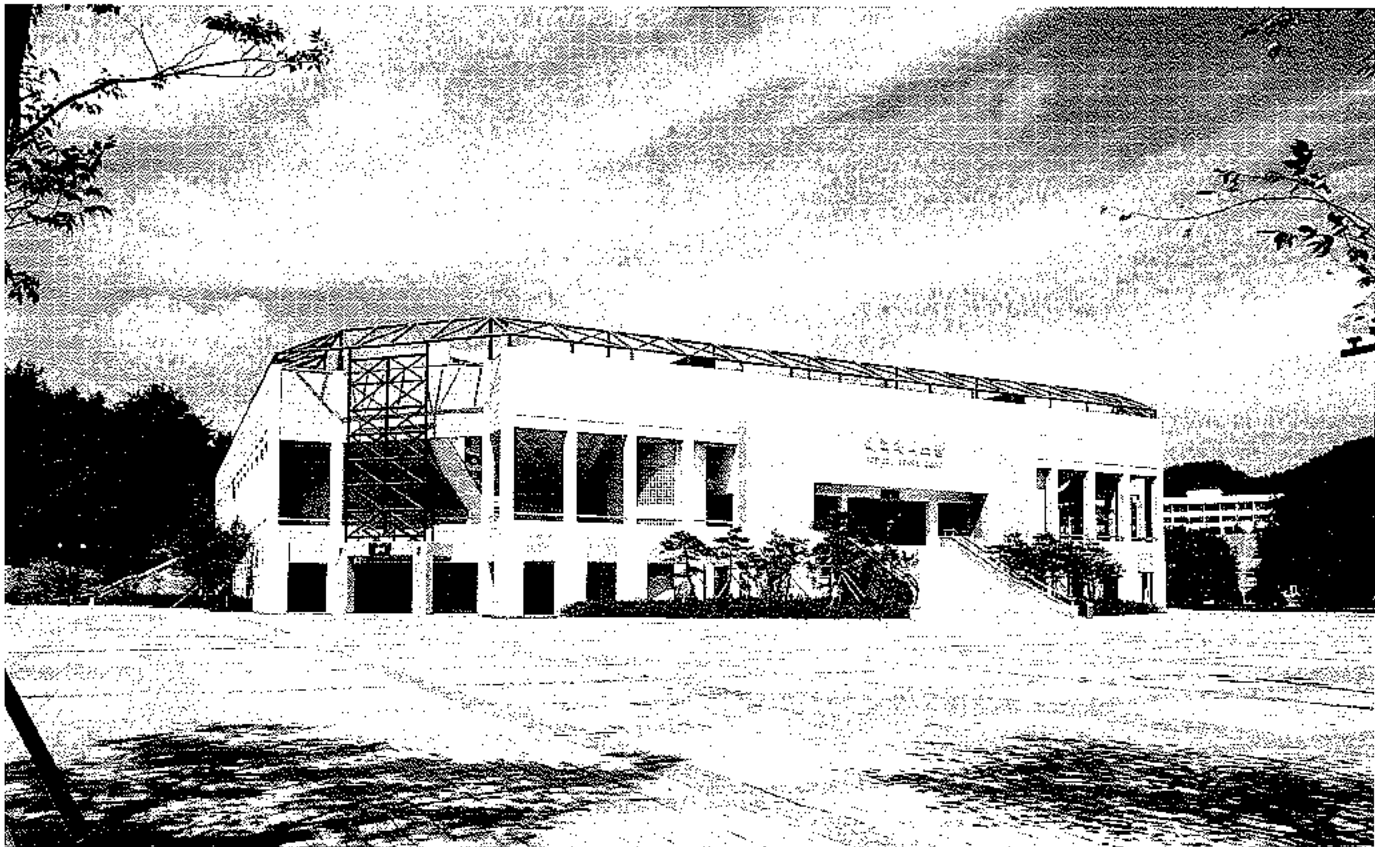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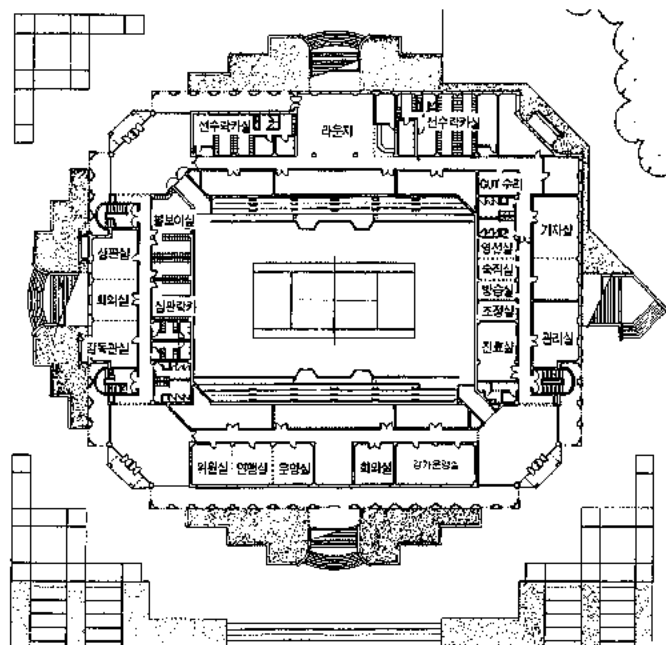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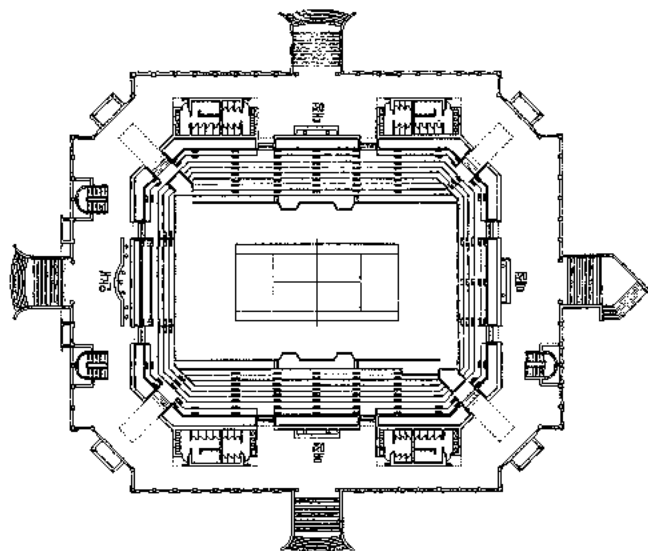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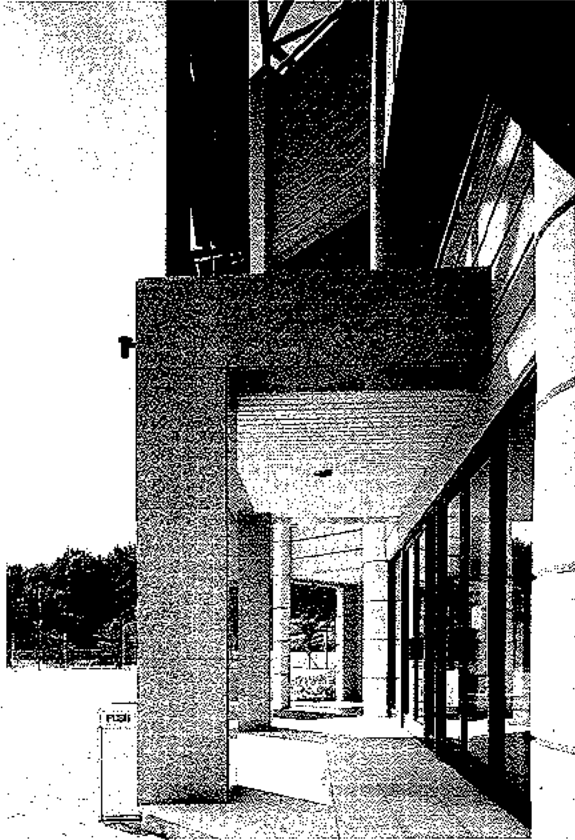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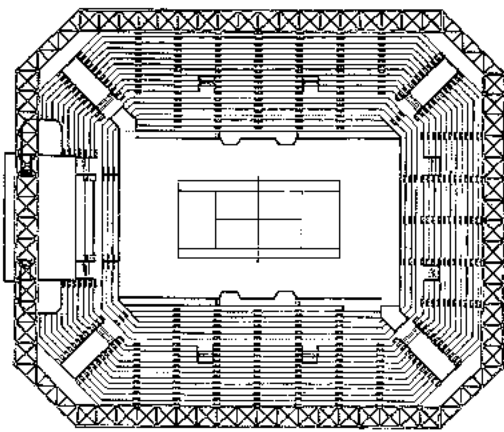
- 복도에서 본 외부
- ⑦ 스탠드측 철재 트러스
- ⑧ 외벽 철재 트러스
- ⑨ 전경
- ⑩ 1층 평면도
- ⑪ 2층 평면도
- ⑫ 외부 상세
- ⑬ 경기장 스탠드 전경
- ⑭ 지붕층 평면도
- ⑮ 남동 출입구측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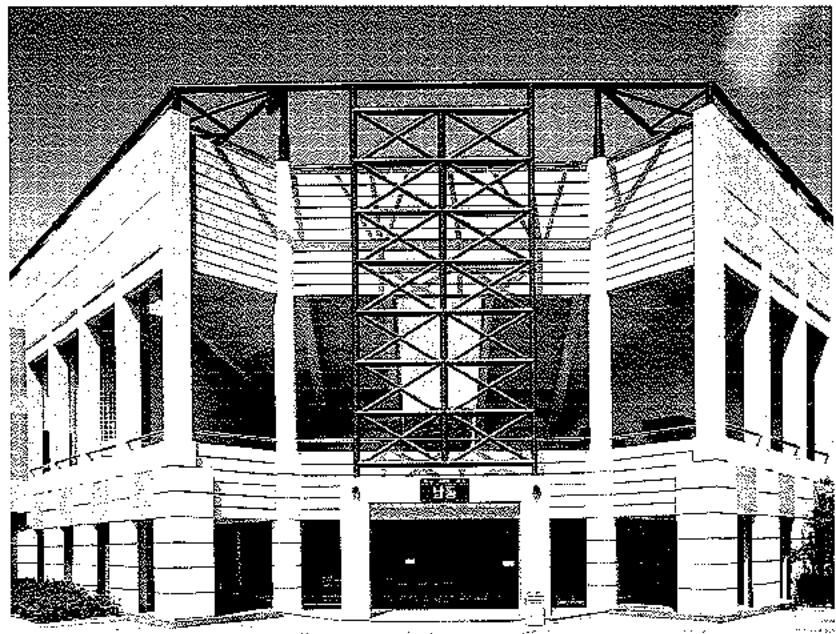
⑩



⑬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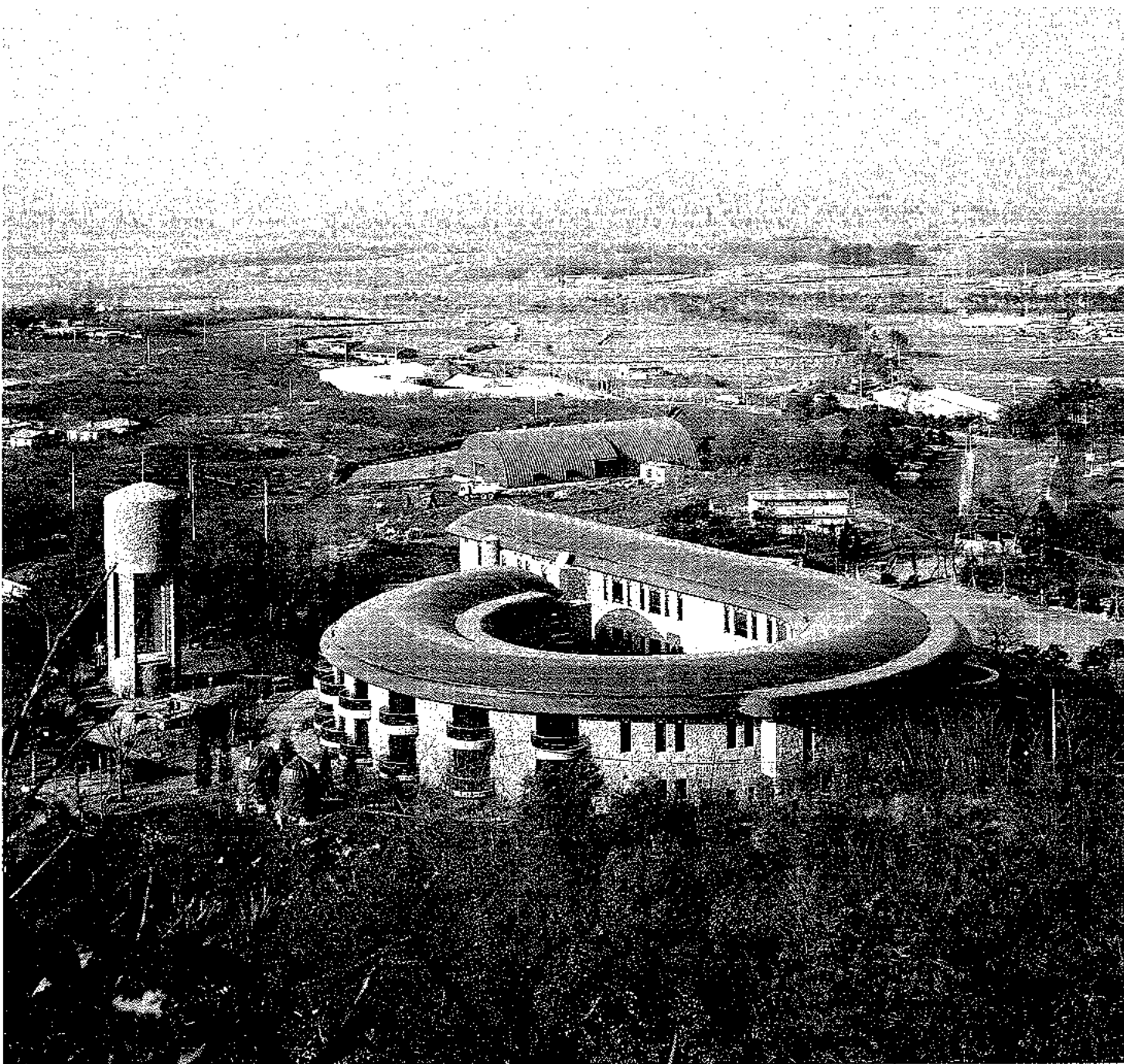


⑮

MBC 인력개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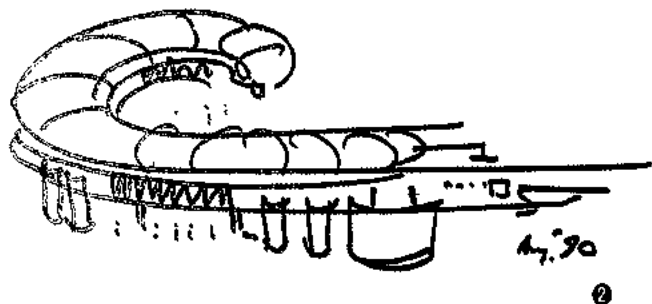
MBC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92 韓國建築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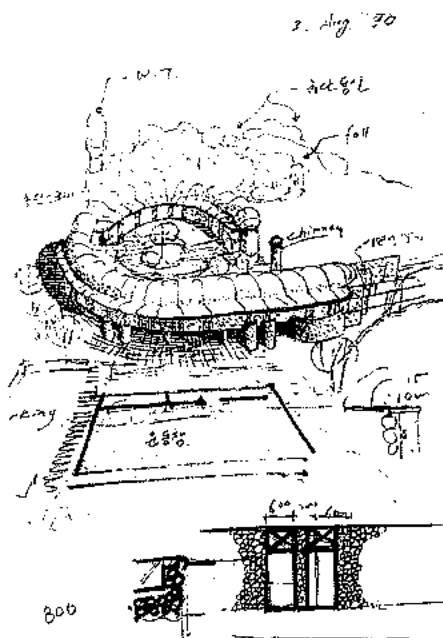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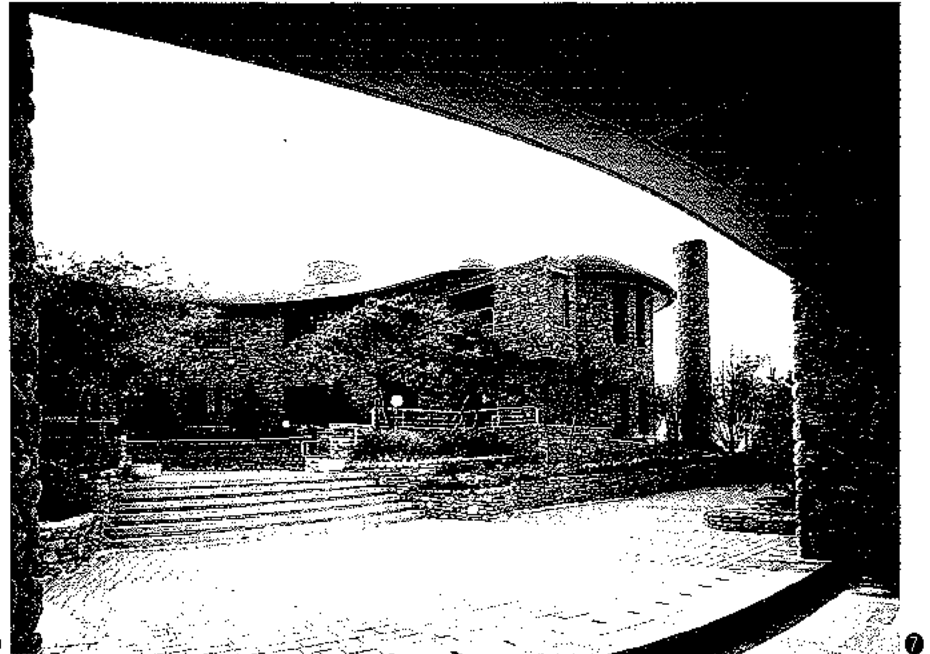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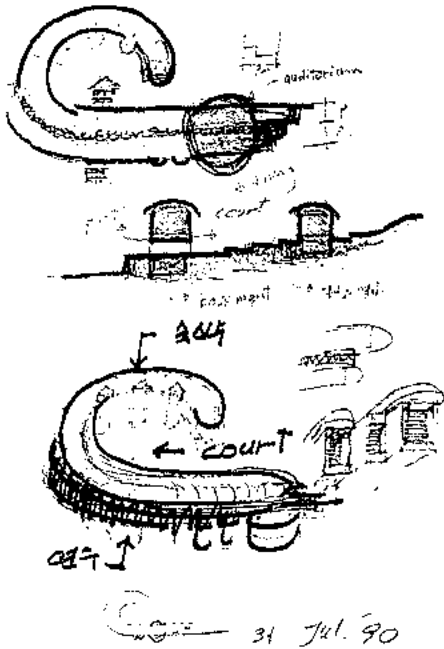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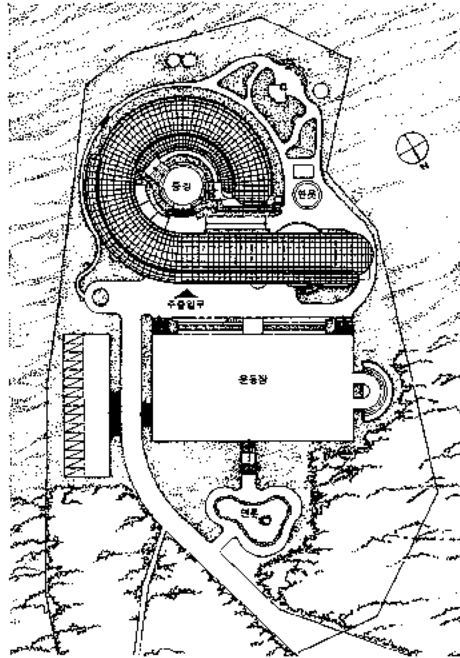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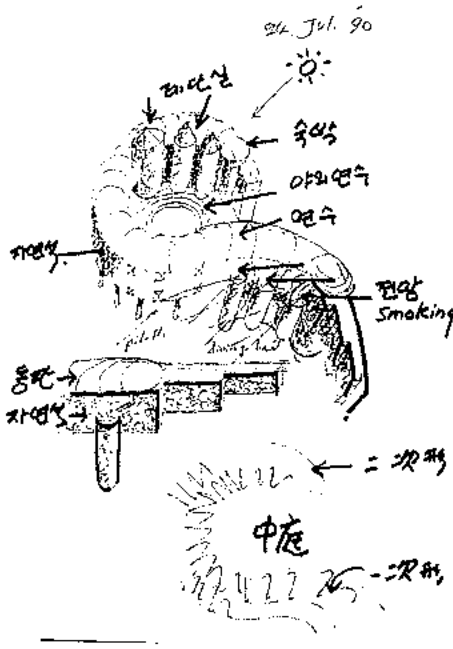
1

■
대지위치 /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산 18외
대지면적 / 16,661m²
건축면적 / 1,858.32m²
연면적 / 3,950.46m²
조경면적 / 9,048.26m²
건폐율 / 11.15%
용적률 / 18.83%
규모 / 연수동(사무, 강의)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일부 철골조
외장재료 / 지붕 - 동판
외벽 - CONC' + 강돌쌓기



2

- ① 전경
- ② 형태 이미지 스케치
- ③ 형태 개념 스케치
- ④ 동선 개념 스케치
- ⑤ 배치 개념 스케치
- ⑥ 배치도
- ⑦ 필로티를 통해 바라본 전경



우리의 건축유산

스위스 사람들은 조그맣게 세상을 살아간다. 험한 산기슭 가파른 땅, 빼막하고 조그마한 땅 위에 조그맣게 집짓고 살아간다.

독일 사람들은 단순하게 세상을 살아간다. 벽도 단순하고, 지붕도 단순하고, 창문도 단순하고, 푸른 구름위에 집한채, 그 풍경도 단순하다.

영국 사람들은 소박하게 살아간다. 수백년된 벽돌집이 때문은 채, 오래 자란 담장이나무에 싸인 채, 낮은 창틀 그대로 소박하게 산다.

항상 우중충한 하늘 밑에 비나 눈이 오락가락하고, 해미치는 시간이 짧아 작물이 풍성치 못하고, 조그맣고, 단순하고, 소박하게 세상을 살아야 한다.

이 사람들이 굶주림을 면하게 된 것도 콜롬부스 덕분이다. 인디언들이 먹던 감자를 가져다 준 콜롬부스 덕분에 감자를 주식으로 삼은 뒤부터 겨우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고, 낙농업이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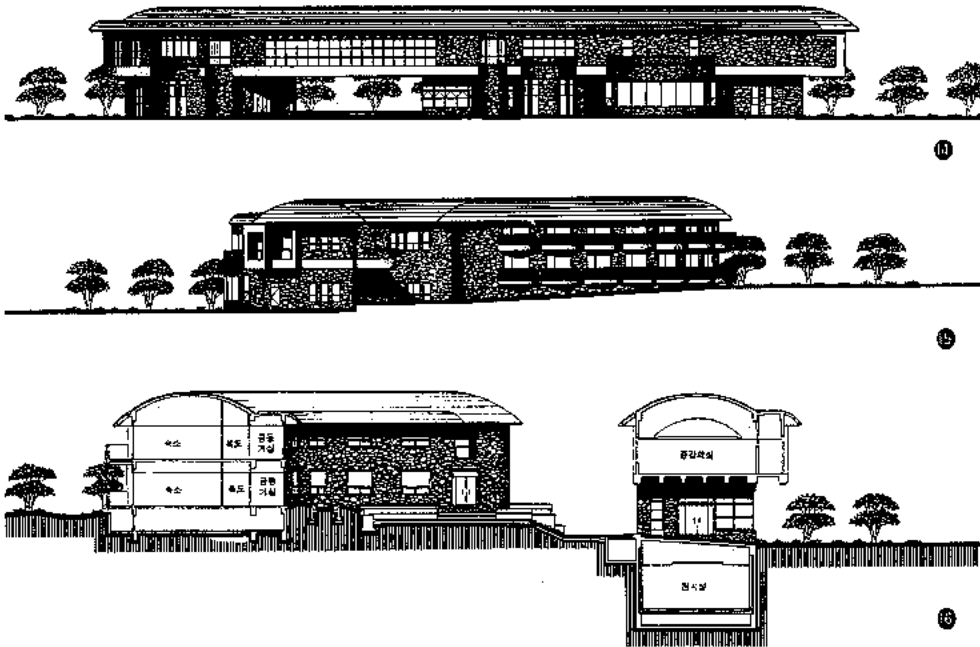
달한 뒤부터 키도 커졌고, 덩치도 커졌다. 원래 종자가 크고, 이쁘고, 우수하고 잘 생긴 것이 아니었다.

自然은 이 나라 住民들에게 自然에 순응할 지혜를 요구했고, 歷史는 또 검소를 가르쳤는지 결코 나서는 않으나 결연한 삶을 살고 있고, 더불어 사는 태도와 함께 그렇다고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갖추게 했던 것 같다.

사실 맛벌이를 하지않으면 生活水準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한 수임때문에 外食한번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중요한 것은 살벌하게 살지는 않고, 남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호의롭게 산다는 사실이다.

이 나라들은 병원 치료비가 무료다. 한푼도 안 받는다. 건강생심 의사가 돈을 많이 벌고 특권층 행세 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곳에서는 말이 안된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지금도 고생을 하는데 돈을 그리도 못벌어서 되겠느냐는 질문에



- ⑧ 배치 개념도
- ⑨ 평면 개념도
- ⑩ 식당 로비
- ⑪ 강의실 전경
- ⑫ 2층 평면도
- ⑬ 1층 평면도
- ⑭ 정면도
- ⑮ 우측면도
- ⑯ 단면도
- ⑰ 중정



였다. 그래서, 전국 어디를, 가거나 지방마다의 정취가 사라져 버렸고, 몰인정한 시멘트 물건이 만연되어 있다. 통탄스러운 일이다.

우리 건축가들이 어떻게 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말인가? 위생적인, 기술적인 문제만이라도 해결해서 그 소중한 유산들을 간직했던들 어디를 가나 특징있고, 정감서린 都市와 마을들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세계에 내놓아도 자랑스런 우리나라를 가꿀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여기 MBC 동산 부근은 서울에서 그리 멀지는 않아도 완전한 시골이다. 논과 밭과 양계장

으로 둘러싸여진 곳이고, 주위에 산들도 있다.

이 안에 있는 연수원은 그렇기 때문에 둥근산이나, 초가집들, 나무의 둥근 모습을 닮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고, 지붕재료가 동판인 것은 다른 적절한 재료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벽체에 강들을 쌓아 붙인 이유는 MBC 동산안에 있는 몇가지 구조물에 이미 강들을 사용한 이유외에는 별것이 없다.

건물이 원형으로 굽어져 있는 것은 지형에 맞추어 건물을 우겨 넣으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 이유외에도 숙박동과 교육동을 분리하지 않

고, 한채로 만들면서 중정을 두어서 두건물을 기능상 분리하려는 궁리였다.

이 건물의 실내건축은 '큐빅'의 조성열씨가 담당했다.

이 건물의 마감이 깔끔하게 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조성열씨의 노력 덕분이었고, MBC의 張兄(장용택씨)이 꼼꼼하고, 센스있게 챙겨서 부족했던 설계를 발전시키고, 보완했고, 때에 따라서는 변경까지 해서 집을 마무리 했다. 趙兄과 張兄에게 감사하고, 사실 또, 미안하다.

Stratification

최우수상

최명철 / 자선건축사사무소

최문규 / 자선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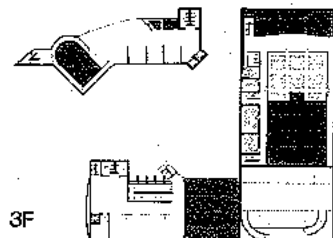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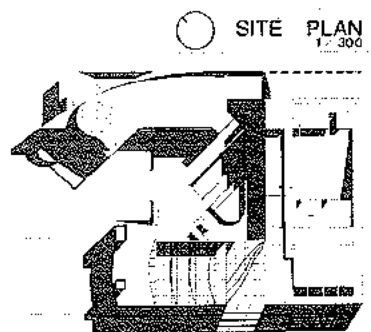


STRATIFICATION

MULTI LEVEL, SPLIT STRUCTURED COMPLEX, THAT AIMS TO EXPLORE STRATIFICATION IN FUNCTION FORM & STRUCTURE

STRAT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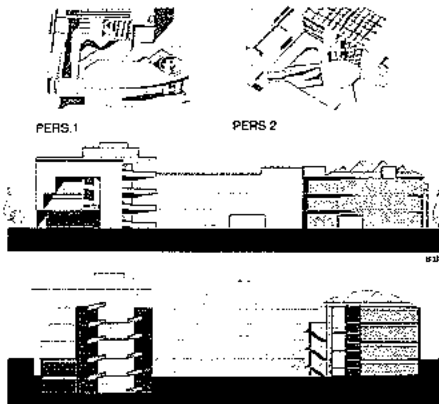
본 프로젝트는 도시 공간의 단절과
인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간을
자연스럽게 접목시켜
도시 공간의 질을 높이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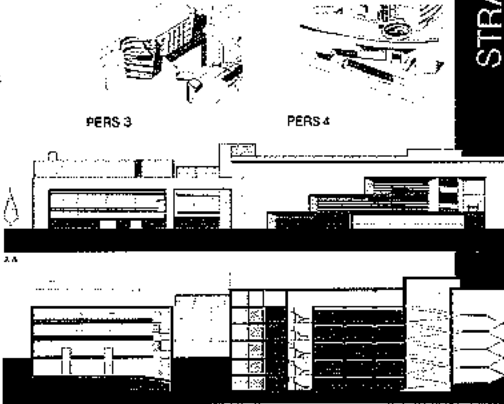
FLOOR PLAN 1/300



1. 1F 2. 3F 3. B1 4. B2 5. 지하 1층
6. 주차장 7. 엘리베이터 8. 로비
9. 사무실 10. 회의실 11. 전시실 12. 상점
13. 식당 14. 카페 15. 거실 16. 침실
17. 화장실 18. 욕조 19. 주방
20. 세탁실 21. 창고



ELEVATION 1/200



SECTION 1/200



최명철



최문규

무질서하게 난립된 문화공간과 Open space 감소로 삭막해진 도시공간에 적절한 완충적 문화공간이 필요하며, 그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고자 계획하였다. 외부의 보행자 동선의 자연스러운 유입으로 보행자공간과 지하 Shopping Mall 공간이 자연의 쾌적함과 인간미 넘치는 공간연출을 통하여 Open Mall, Enclosed Mall로서 쾌적한 공간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인과 장애자들을 위한 계단과 램프를 같이 두어 수직적이고도 유기적인 공간 분할화를 꾀하였다.

보행자 동선의 자연스런 유입이 Stratification화된 공간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평면 개념 - 사무동과 강당을 별개의 동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사용빈도가 높은 사무동은 큰길가에 두고 도서관같은 정적인 곳은 안쪽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각 Mass마다 반내부 반외부적인 공간(Void)을 통해 진입함으로써 공간의 변화감을 느끼게 했다. 입면 개념 - 대지의 모서리에 위치한 Gallery 동은 거대한 Mass가 도로에 접했을 때의 위압감을 해소하기 위해 곡선과 유기적 요소의 변화감을 주어 외부의 보행자가 건축적 산책을 통해 느낄수 있는 입면의 변화를 부여하였다.

COMMUNITY CENTER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 COMMUNITY CENTER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의 장이며, 지역 문화 공간의 핵이 될 수 있는 지역 COMMUNITY CENTER로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센터의 방향을 제안한다.

지역주민 누구나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생활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공공 건물로서 도로 - 녹지(광장) - 건물의 접근성에 따른 위계적, 개방적, 공간 전개를 충족시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지역주민의 상징적 LAND MARK가 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센터의 상징적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기능해야 하며, 지역문화의 Symbolic한 공간적, 형태적, 요소로 갖추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자치 행사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자치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가변적 공간들을 확보하고 개방하여 자연스럽게 주민활동의 중심지로 유도한다.

지역주민의 중심이며 지역 발전을 도모할 구의 회를 주민회관과 복합시켜 관·민 화합을 유도한다.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의 장이며, 지역 문화 공간의 핵이 될 수 있는 지역 COMMUNITY CENTER로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센터의 방향을 제안한다.

지역주민 누구나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생활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공공 건물로서 도로 - 녹지(광장) - 건물의 접근성에 따른 위계적, 개방적, 공간 전개를 충족시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지역주민의 상징적 LAND MARK가 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센터의 상징적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기능해야 하며, 지역문화의 Symbolic한 공간적, 형태적, 요소로 갖추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자치 행사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자치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가변적 공간들을 확보하고 개방하여 자연스럽게 주민활동의 중심지로 유도한다.

지역주민의 중심이며 지역 발전을 도모할 구의 회를 주민회관과 복합시켜 관·민 화합을 유도한다.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의 장이며, 지역 문화 공간의 핵이 될 수 있는 지역 COMMUNITY CENTER로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센터의 방향을 제안한다.

지역주민 누구나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생활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공공 건물로서 도로 - 녹지(광장) - 건물의 접근성에 따른 위계적, 개방적, 공간 전개를 충족시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지역주민의 상징적 LAND MARK가 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센터의 상징적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기능해야 하며, 지역문화의 Symbolic한 공간적, 형태적, 요소로 갖추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자치 행사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자치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가변적 공간들을 확보하고 개방하여 자연스럽게 주민활동의 중심지로 유도한다.

지역주민의 중심이며 지역 발전을 도모할 구의 회를 주민회관과 복합시켜 관·민 화합을 유도한다.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의 장이며, 지역 문화 공간의 핵이 될 수 있는 지역 COMMUNITY CENTER로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센터의 방향을 제안한다.

지역주민 누구나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생활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공공 건물로서 도로 - 녹지(광장) - 건물의 접근성에 따른 위계적, 개방적, 공간 전개를 충족시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지역주민의 상징적 LAND MARK가 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센터의 상징적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기능해야 하며, 지역문화의 Symbolic한 공간적, 형태적, 요소로 갖추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자치 행사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자치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가변적 공간들을 확보하고 개방하여 자연스럽게 주민활동의 중심지로 유도한다.

지역주민의 중심이며 지역 발전을 도모할 구의 회를 주민회관과 복합시켜 관·민 화합을 유도한다.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의 장이며, 지역 문화 공간의 핵이 될 수 있는 지역 COMMUNITY CENTER로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센터의 방향을 제안한다.

지역주민 누구나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생활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공공 건물로서 도로 - 녹지(광장) - 건물의 접근성에 따른 위계적, 개방적, 공간 전개를 충족시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지역주민의 상징적 LAND MARK가 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센터의 상징적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기능해야 하며, 지역문화의 Symbolic한 공간적, 형태적, 요소로 갖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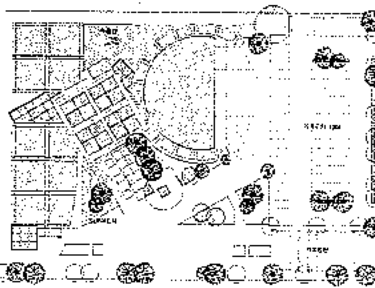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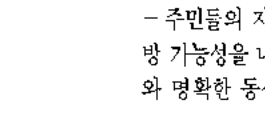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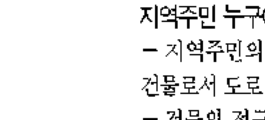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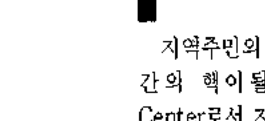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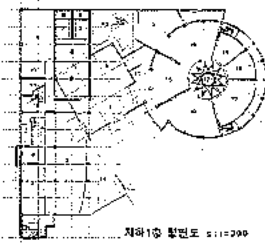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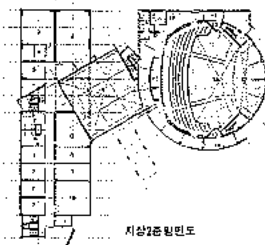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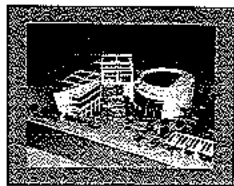
지역주민의 자치 행사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자치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가변적 공간들을 확보하고 개방하여 자연스럽게 주민활동의 중심지로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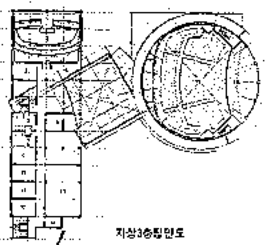
지역주민의 중심이며 지역 발전을 도모할 구의 회를 주민회관과 복합시켜 관·민 화합을 유도한다.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의 장이며, 지역 문화 공간의 핵이 될 수 있는 지역 COMMUNITY CENTER로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센터의 방향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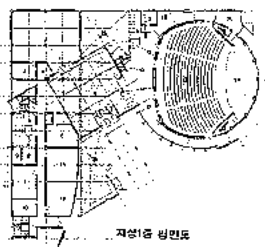
지역주민 누구나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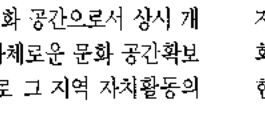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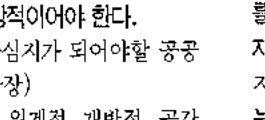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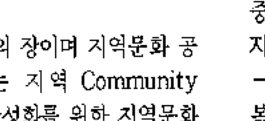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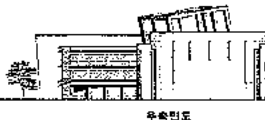
배치도 1: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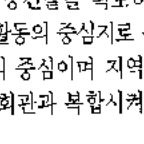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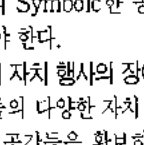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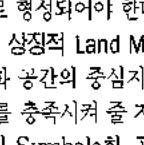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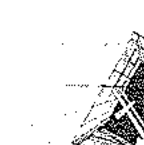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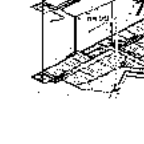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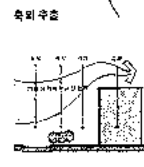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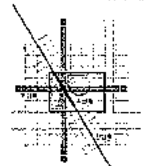
지상3층평면도



지상1층 평면도



설계개요
면적: 6,000㎡
연면적: 3,000㎡
연면적: 3,000㎡
연면적: 3,000㎡



강옥현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의 장이며 지역문화 공간의 핵이 될 수 있는 지역 Community Center로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센터의 방향을 제안한다.

지역주민 누구나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생활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공공 건물로서 도로 - 녹지(광장)

건물의 접근성에 따른 위계적, 개방적, 공간 전개를 충족시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주민들의 자치적인 문화 공간으로서 상시 개방 가능성을 내포하고 다채로운 문화 공간 확보와 명확한 동선 구분으로 그 지역 자치활동의

중심 시설로 형성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의 상징적 Land Mark가 되어야 한다.

지역문화 공간의 중심지로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지역문화 회관으로 그 지역문화의 Symbolic한 공간적, 형태적,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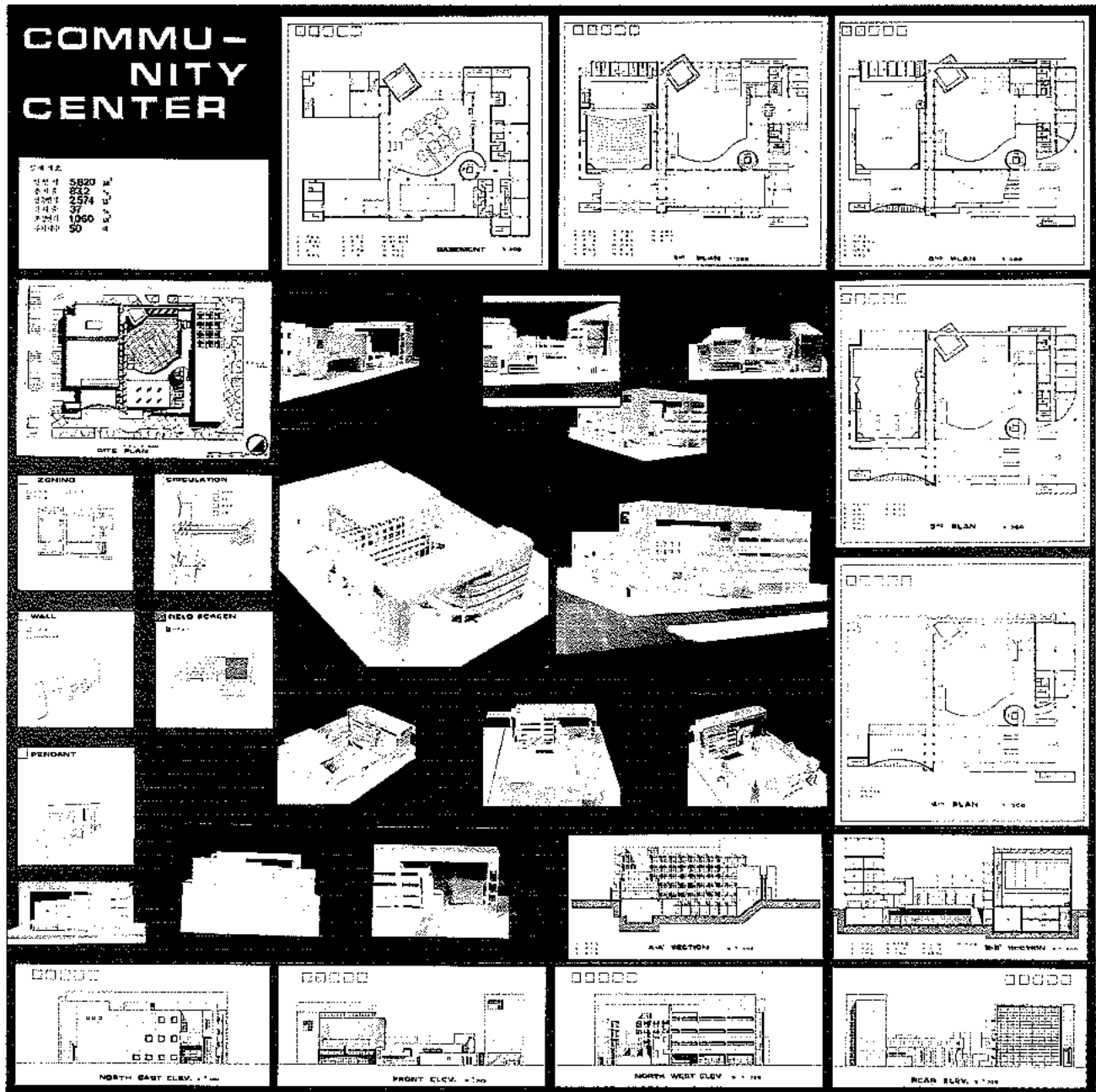
지역주민의 자치 행사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자치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가변적 공간들을 확보하고 개방하여 자연스럽게 주민활동의 중심지로 유도한다.

지역주민의 중심이며 지역 발전을 도모할 구의 회를 주민회관과 복합시켜 관·민 화합을 유도한다.

Community Center

'92 韓國建築展



계획의도

기존 구민회관 성격의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매스 자체의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요소를 자연스러운 접근요소로 친근감을 부여해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이 문화와 만날수 있는 장소로 제공한다.

- 친근적 요소 - 낮은 담장을 통한 접근성
 - ⇒ 유기적 동선에 의한 공간변화
 - ⇒ 자연추(방향)에 의한 입면 변화
 - ⇒ 차량시선에서의 유입적인 문의효과

배치의도

- 사람동선 - 구민회관의 주성격인 강당과

관리동을 분리하여 사람동선을 기능별로 분리, 불특정 다수인의 목적성 동선이 계획적 의도인 공간의 변화를 통해 선큰 광장으로 집중케 한다.

- 차량동선 - 가장단순한 동선을 통해 사람과 차량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했다.
- 정원 - 낮은담장 앞의 들과 담장안의 후정을 배치, 연속성을 두었다.

평면계획

기둥에 의한 공간의 수평분화와 계단에 의한 수직분화로 각실이 독립적으로 기능을 가지면서 언제나 필요에 의한 확장공간으로 기능케한 기둥간격(Module: 3m)과 낮은 레벨차(50cm)로 가변성을 둔다. 방화구획상 필요한 샷타(or 이)와 유사한 제품)를 이용 강당로비와 전시실이

차단필요시 활용한다.

전시실 옥상은 상징적요소와 가변요소로 야외무대로 활용된다. 기능동의 문(gate) 상부에 Roll Screen을 설치하여 상시 현수막이나 안내 광고 플랜카드의 설치장소로 이용되고 필요시에는 야외극장의 막(or Screen)이 설치된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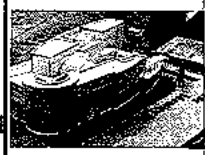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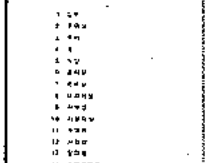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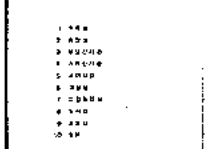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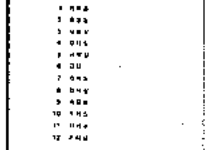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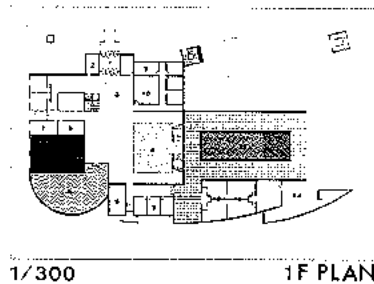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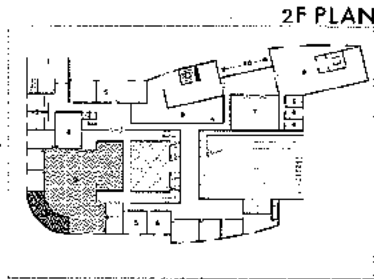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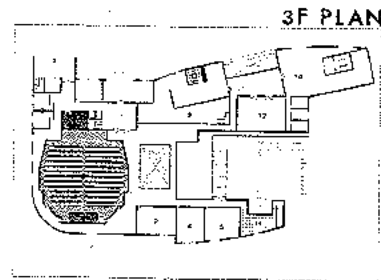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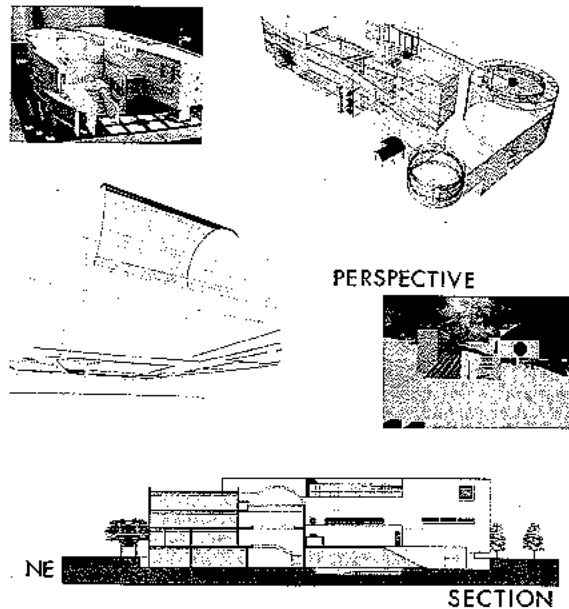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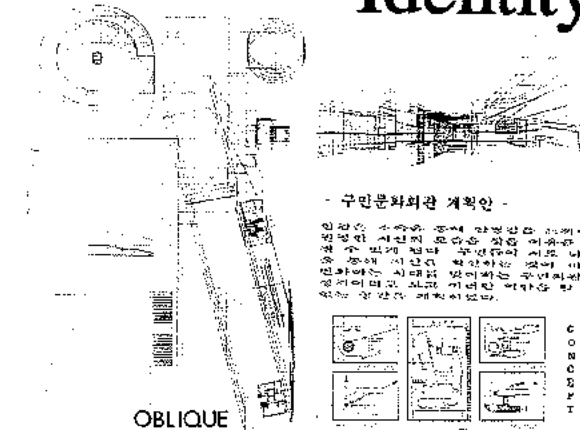
안정되고 편안한 감의 띠줄은 창으로 주입면을 구성하고 매스의 위압감을 제거하기 위해 가벼운 패턴을 사용했다.

매스계획

자연스런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대지에서의 차지비율이 높은 강당의 육중함을 나머지 동과의 유기적 연결로 하나의 매스형태로 유도했다.

Search for Identity

Search For Identity



현대인은 자신이 과거의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은 현대인들을 더욱 몰개성화와 비인간화로 몰고있다. 어디인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은 인간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하며 그 안정감이야말로 인간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본 설계에서는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한 인간이 스스로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타인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구민회관의 역할의 변이를 꾀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 구민회관이란 것의 의미가 무각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 이는 지방자치라는 정치체도의 시작과 함

게일 것이다. 그 고장에 살고 있다고는 하나 함께할 공간이 없는 작금의 현실을 볼때 행정의 중심으로서 보다는 구민들이 함께 휴식을 하는 문화공간이 앞으로 요구되는 구민회관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설계는 미술관, 소규모 극장 등의 문화공간과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강의실과 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그리고 구의원들을 위한 행정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각 공간은 별도의 동선으로 최대한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각 공간이 조화되어 사람들이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매스를 이루고 있다. 독립공간외에 아트리움을 주위로 하는 소규모 광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유도하였다. 지금의 현실은 또다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떠한 개념들도 그 하나의 의미가 강조되기 보다는 조화와의 추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개인(個人)은 서구의 개념으로서 낯날의 인간들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선조들은 인간(人間), 즉 사람들 사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인간으로서 설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차한 변론의 필요도 없이 우리는 얼마나 외로움을 쉽게 느끼며 함께할 자리를 원하던가? 건축은 바로 인간의 생활이 이루어 지는 곳이어야 하며 그 공간의 장을 통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자아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공간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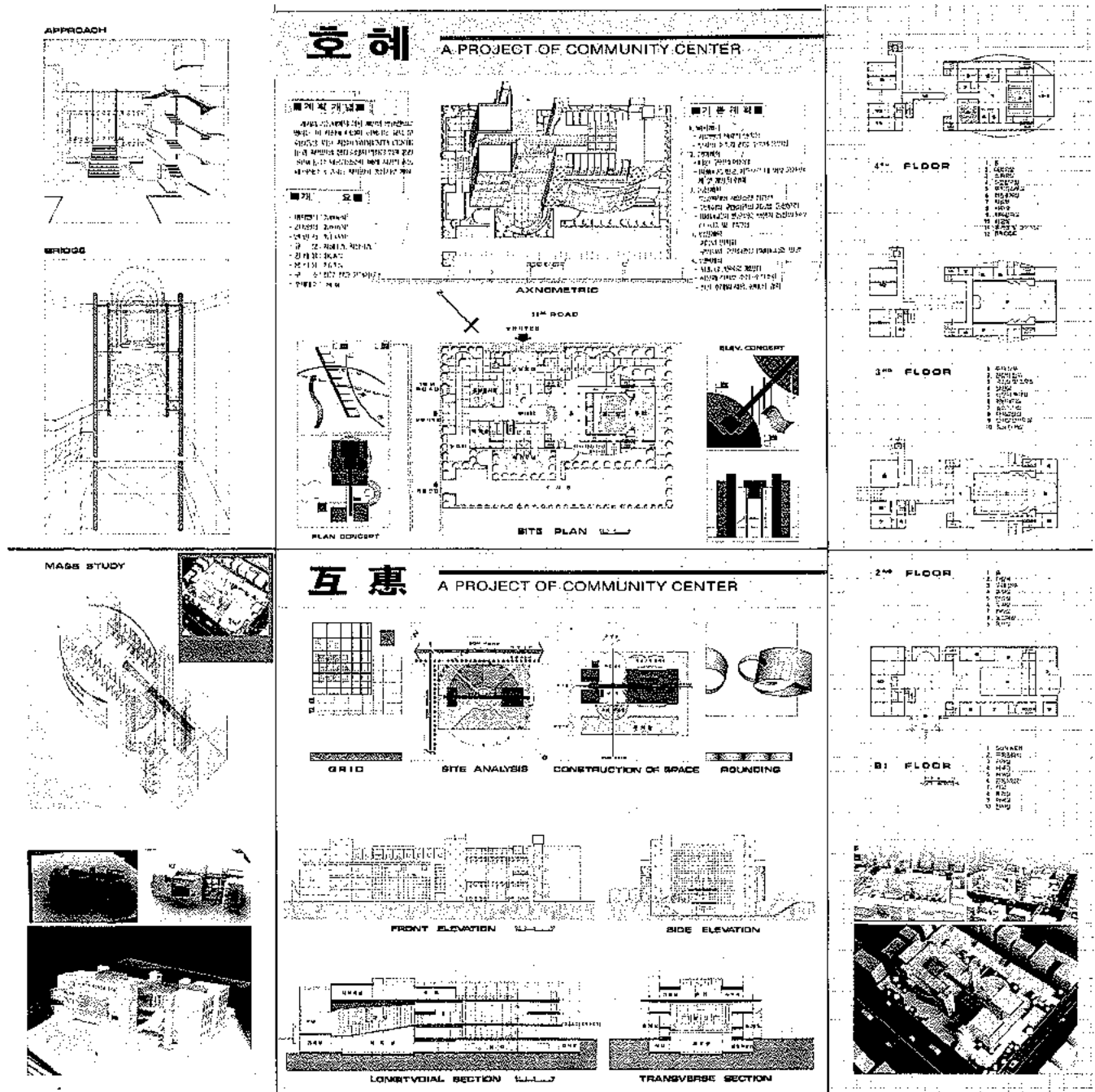
호혜(互惠)

장려상

이명희 / 비전종합건축사사무소

강형찬 / 비전종합건축사사무소

'92 韓國建築展



도시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집중된 도시 문화와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 하기위해 급속히 지방자치체가 요구되는 우리의 건축인들은 지방자치체의 활성화를 위한 Space(지역문화공간 및 교육 복지시설)의 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주어진 30미터 전면도로로 하는 직사각형 대지에 가슴 설레게하는 환희와 더불어 젊음의 열정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거듭되는 고민 속에서.....

무엇보다 동선의 명확성(구 의회와 구 회관의 기능별 동선)으로 Mass가 분리되는 동시에

Bridge로 인한 연결이라는 개념으로 정리 되었다. 한편으로 대도로(30미터 도로)에서의 시각적 연속성과 두개의 Axis(Site Axis와 Mass Axis)를 통일시키는 것을 설계 기본조건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른 계획의 요소들

- 쉽고 거리감이 없는 접근성(Approach),
- 동선의 편리성 = 옥외 계단으로 통한 동선의 편리성,
- 선경가든
- Bridge 등....

이로인해 난점에 부딪친 것은 옥외 주차장 확보이었는데 교통량이 적은 소도로(15미터 도로)

에서의 출입을 돕고 동시에 대지의 한 변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였다. 몇가지 조건들이 설계의 제약을 두었지만 파트너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젊음과 지혜로 헤쳐나가는 과정이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작업이었다.

Teenage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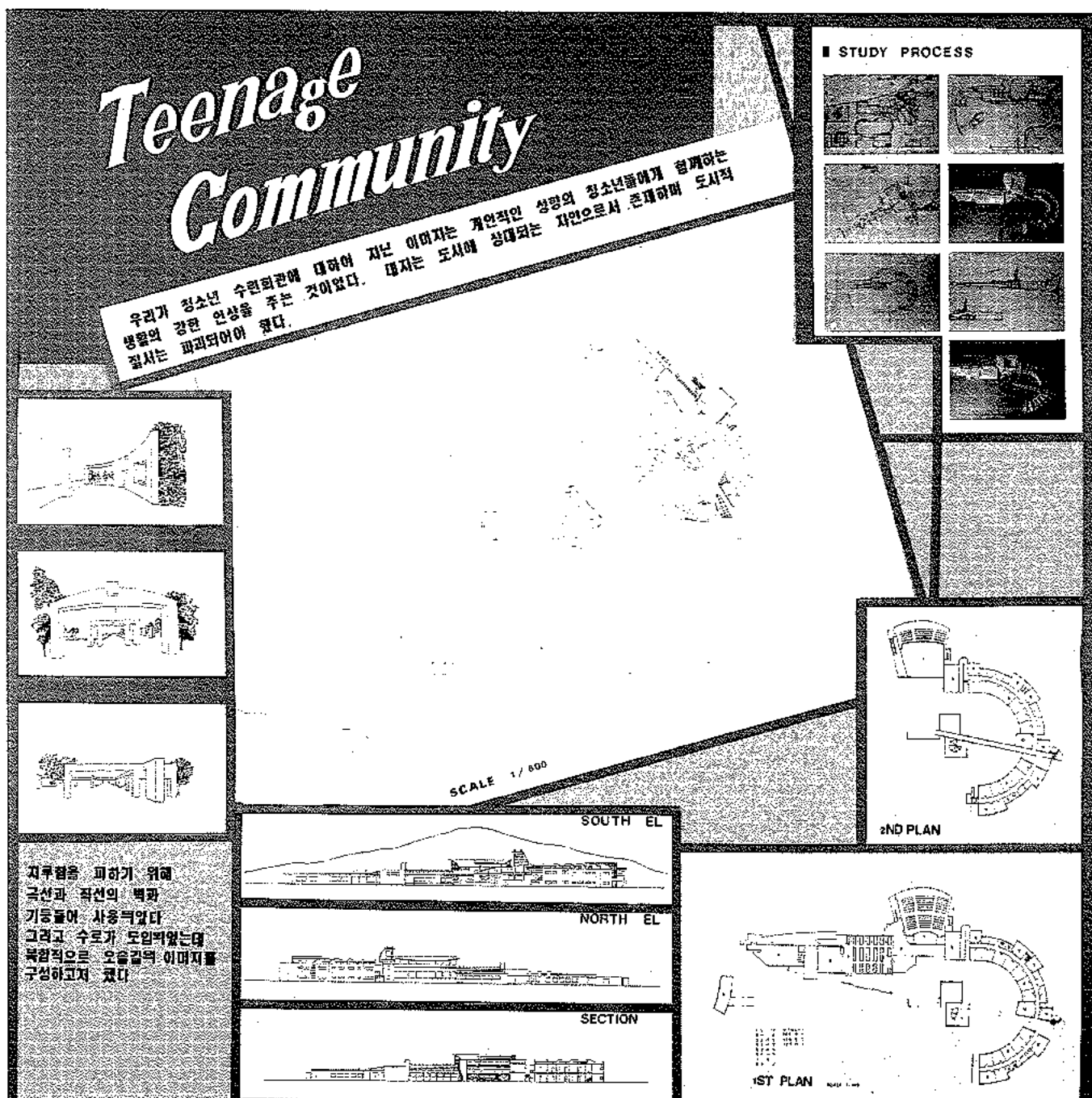
학생부문

최우수상

정은성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김태훈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92 韓國建築展



정은성



김태훈

우리가 청소년 수련회관에 대하여 지닌 이미지는 개인적인 생활의 강한 연상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대지는 도시에 상대되는 자연으로서 존재하며 도시적 질서는 파괴되어야 했다. 건물을 양쪽으로 뻗어나간 산의 중간부에 위치시켰는데, 이는 건물 뒤안의 정적인 공간과 건물 전면의 동적인 공간을 자연스레 통합하기 위해서였다. 이로부터 긴 진입축이 형성되는데,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길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벽과 기둥의 곡선이 사용되었고, 수로가 도입되었다. 축의 연장선상에 강당이 위치함으로써 주제의 부각을 피

했으며, 이는 양쪽으로 전개되는 형태들의 연결 부위이자 주요 매스가 된다. 건물은 두 개의 대조적인 이미지에서 출발했는데, 중정을 중심으로하는 곡선의 숙소동과 식당과 놀이방의 직선적 형태였다. 입면은 배경인 산의 흐름을 의식해 계획되었다. 작업의 과정에서 기능과 형태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식당과 강당의 분리되지 않은 동선과 복합성의 부족이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곡선형태를 가르는 사선통로가 계획되었고, 건물과 분리된 주입구가 설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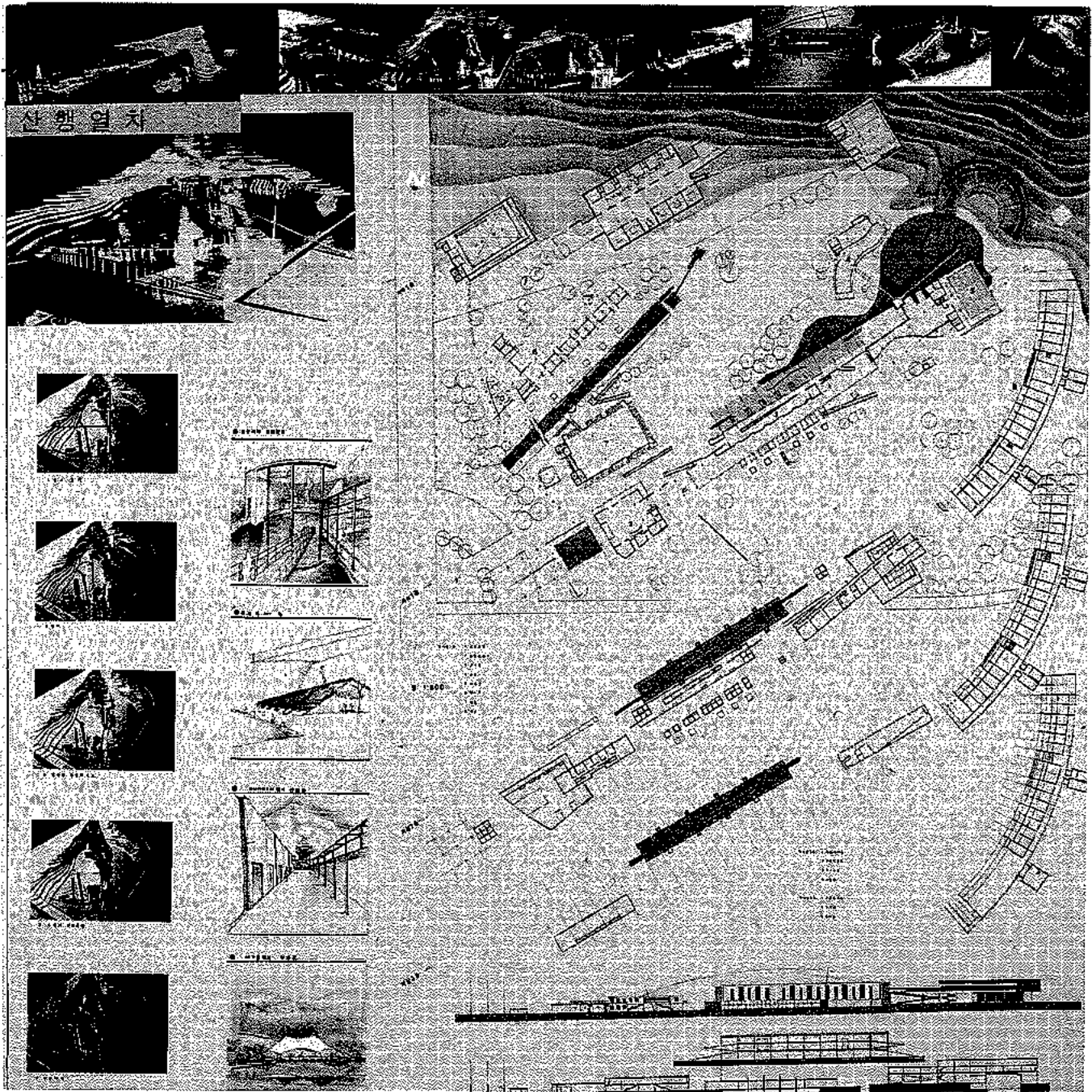
'산·행·열·차'

우수상

박용성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명재범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92 韓國 建築展



박용성



명재범

1. 경관의 해석

산의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무형의 시각적 흐름을 축으로 설정 질서화 하고, 동고선에서 유추된 흐름을 대지·외적 상황에 대한 폐합, 송림과 눈에 대해서는 개방의 요소로서 시각화한다.

2. 기대행위 유발

기대행위의 결정요인은 심리적 동기와 물리적 형태의 상호작용이라고 본다. 사물을 구조적인 힘의 관계로 파악, Identity를 결정하는 시지각 행위가 기대행위의 심리적 동기 유발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본다. 기존의 Box형 건축물에 친숙한 청소년들에게 반대적 상황-형

태적이든, 기능의 문제이든-을 시각화, 상징화함으로써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

3. 선택적 상황의 부여

행로의 연속선상에서 행로의 레벨차, 결절점적 요소, 담장, 다리 등의 요소와, 가벽, 외부공간의 자연적 요소, 한정요소 등을 통제요소로써 치환하여 청소년 선택행위의 폭을 넓힌다.

4. 공동체 부락으로서의 장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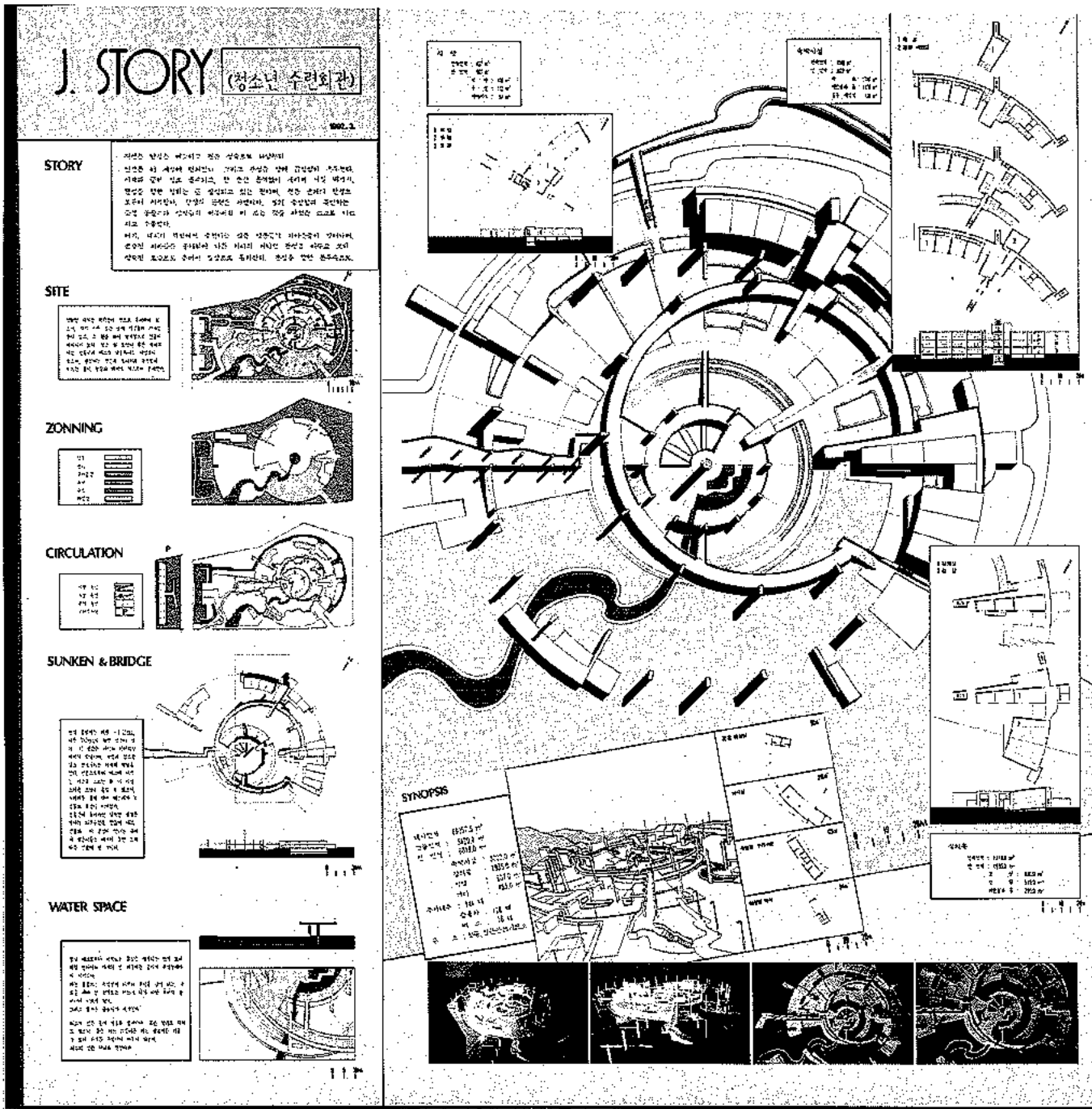
전체의 영역내에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과정적 중심공간(진입광장, 정자목, 호숫가앞의 모이광장, 공연장, MT촌앞의 캠프장)을 선상 배치하고, 숙박영역을 결절점과, 파고라 등을 이용하여 영역화한다.

J. STORY

우수상

장형순 / 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92 韓國建築展



장형순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냥 와서 2~3박 머물다 갈 곳이었지만 그 곳에 의미를 두고 싶었다. 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이 '의미'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청소년들은 주차장에서 혹은 차도와 국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대지에 접근하게 된다. 계획대지에 들어온 청소년들은 지상으로 혹은 Bridge로 대지의 중심으로 이동된다.

이곳은 배치상 대지의 중심이며 이미지상 이야기의 시발점이다. 그곳엔 Sunken이 있고, Deque가 있으며 물이 있다. 대지의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데크와 선근의 수직 공간에서 이야기(story)는 시작되며 데크에서 이어지는 브릿지는 각각 건물의 2층 부분과 통하며 이는 새로운 만남(공간과 mass)을 주도한다.

SPACE OF DREAM

정려상

이재훈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유석형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92 韓國 建築展



날로 늘어만가는 청소년의 탈선보도를 보면서
자신감의 결여로 인한 문제와 개인주의적 사고
방식에서 오는 이기주의적 생활상을 문제점으로
삼으면서 갈매기 조나단을 생각해본다.

현상 세계에서의 초월을 꿈꾸는 갈매기 그 무한
의 세계로의 몰입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날
기를 원하는 조나단

청소년들이 짧은 시간동안 이나마 동지의 포근
함을, 몸체의 강인함을, 머리의 영리함을 익혀
더불어 사는 사회인으로 성숙하기 위한 도전의
장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며 숙소, 본관, 강당, 수
영장, 캠프장, 운동장을 계획해 본다.

진입은 국도를 벗어나 기대감을 줄수 있도록 하
며 전체적인 동선의 원활을 이루며 배치는 상승
의 느낌을 갖게하고 각각의 기능별로 분리를 하
여 독립성을 살리게 하였고 남-북을 주축으로
한다.

숙소동 :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
하며 8, 12, 16인실로 구분하고 휴게
실과 목욕실을 두었다.

본관 : 수련회관의 중 핵이 되는 곳으로 관리와
분임토의실, 회의실, 도서실을 가진다.

강당 : 다목적 공간으로 실내 체육관과 공연장
을 겸한다.

수영장 :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스케이트
장으로 활용되며 양중상부에 분수대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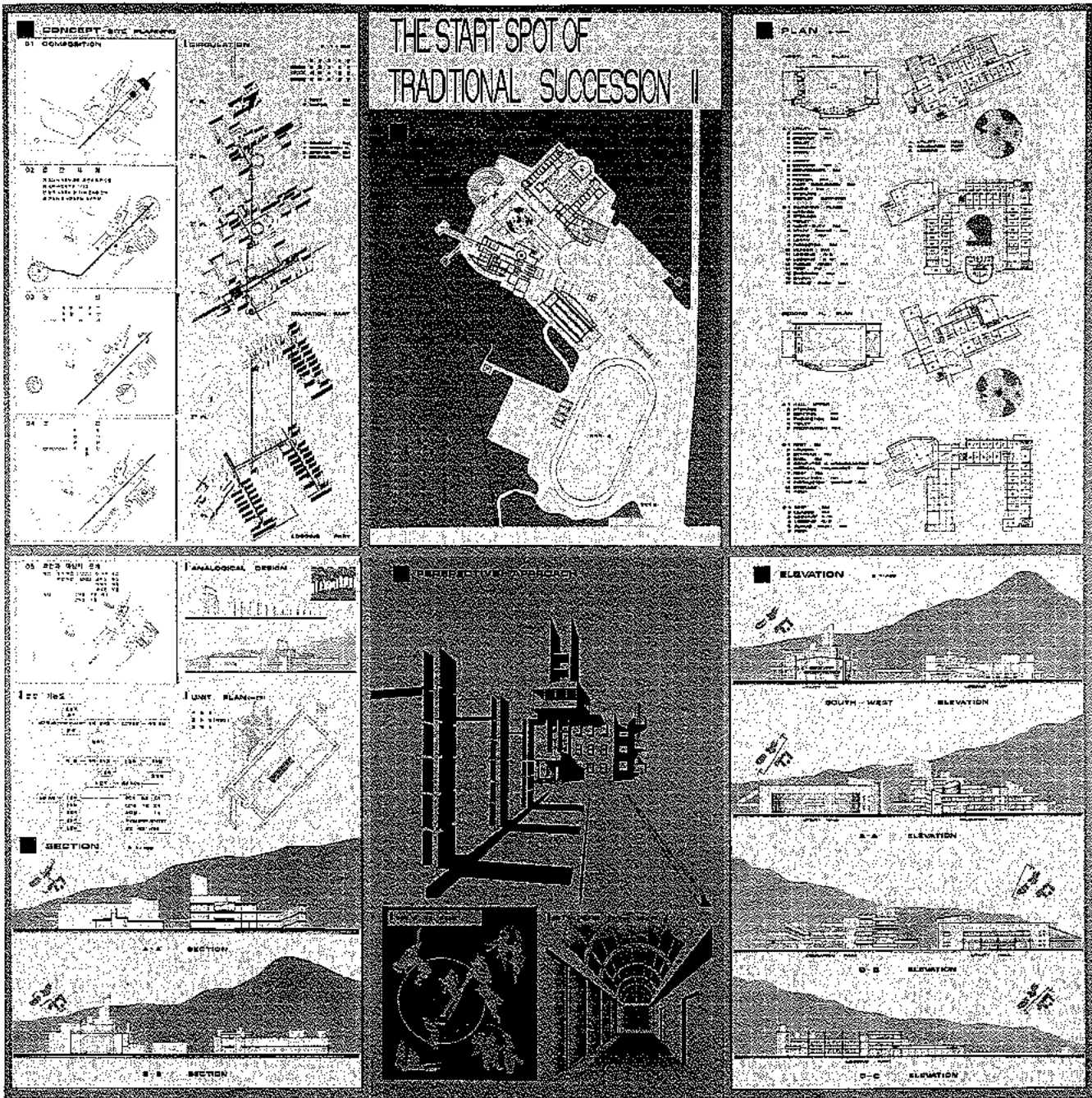
캠프장 : 텐트 이용자를 위한 취사장, 화장실이
설치되며 캠프파이어장을 끼고 있다.

운동장 : 표준규격의 축구장을 설치하며 옥외행
사의 주 공간으로 이용된다.

기타 : 호수를 끼고 있는 자연 산책로와 본건물
을 선회하는 산책로를 가지며 야외 공연
장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것에서 미래의 꿈을 키우며 자신감을 얻
을수 있게 되길 바란다.

THE START SPOT OF ...



'92 韓國建築展

건축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벽, 지붕, 창, 문 그리고 Space 등 건축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은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아직 덜 성숙되고 자아를 확립할 시기이며 감정의 기복이 심한 청소년기에 자극적인 타문화, 갑갑한 교육 방식 또 그에 따른 부모님들의 지나친 교육적 열정에 지쳐버린 불안한 정서로 인해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이때 청소년을 주제로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아주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본 계획안은 이제 우리들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전통 문화들중 청소년기에 걸맞는 몇가지 민속놀이를 빌어 사회

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어느 민족이나 그 나름 특유의 고유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전통이란 것이고, 그것은 내가 감지할수는 없어도 항상 자신의 곁에 머물고 있다. 경험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본인은 처음 듣는 장구, 북, 소리에 저절로 흥에 겨워 춤이 추어졌던 기억이 있다. 낯설은 소리에 몸이 저절로 이끌려짐... 이것은 아마도 내가 한민족이고 내몸속엔 민족 특유의 장단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잊혀져간 전통문화... 예술의 어느 한 부류에 편중됨이 아닌 우리의 정신속에서 되찾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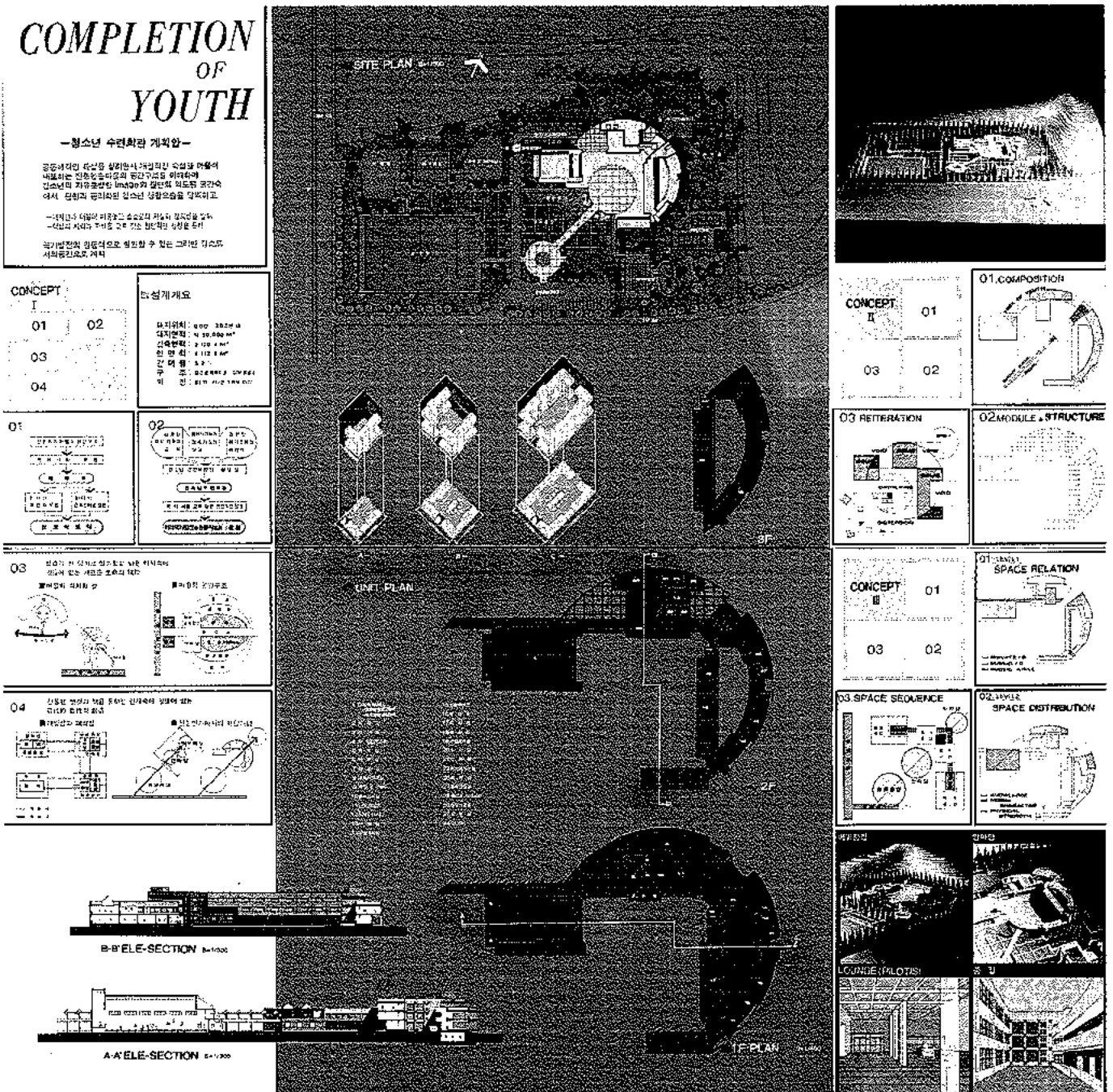
감정의 불연속, 최대의 지식 습득기인 청소년기에 우리의 전통이 무엇인가 일깨워주고 그를 위한 장을 만들어 공간 창조 건축인의 자세일 것이다. 이에 본 프로젝트에서는 216여 가지에 달하는 민속놀이중 청소년기에 행해졌던 약 50여 가지의 놀이를 주제로 공간 배치를 하였다. 매스 안에서는 로비 부분의 민속 전시장을 두고 옥외에서는 마당을 두었다.

COMPLETION OF YOUTH

장려상

박홍태 /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재진 /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
 편중된 지식위주의 교육, 통제적 기능과 생활교육기능의 상실, 여가문화의 미정착으로 인한 사회 환경이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관리화된 일상생활을 탈피해서 자연속에 몰혀 활동하는 것은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나 상실되기 쉬운 인간적 접촉, 여러 가지 발견, 창조, 이미지네이션 능력의 회복 등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불가피한 본질적 요소들을 환원 시켜보려는 중요한 발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발상에서 공동체적 특성을 살리면서 개인적인 속성을 아울러 내포하는 전통농촌 마을의 공간구조를 이해하여 자연과의 상호관입, 개방과 폐쇄, 길과 마당에 의한 공간의 연속속에서 각각의 Identity를 부여하고, 유기적이며 융통성을 가진 공간을 형성함과 동시에 덕성과 체력과 지식을 고루 갖춘 전인적인 성장을 통해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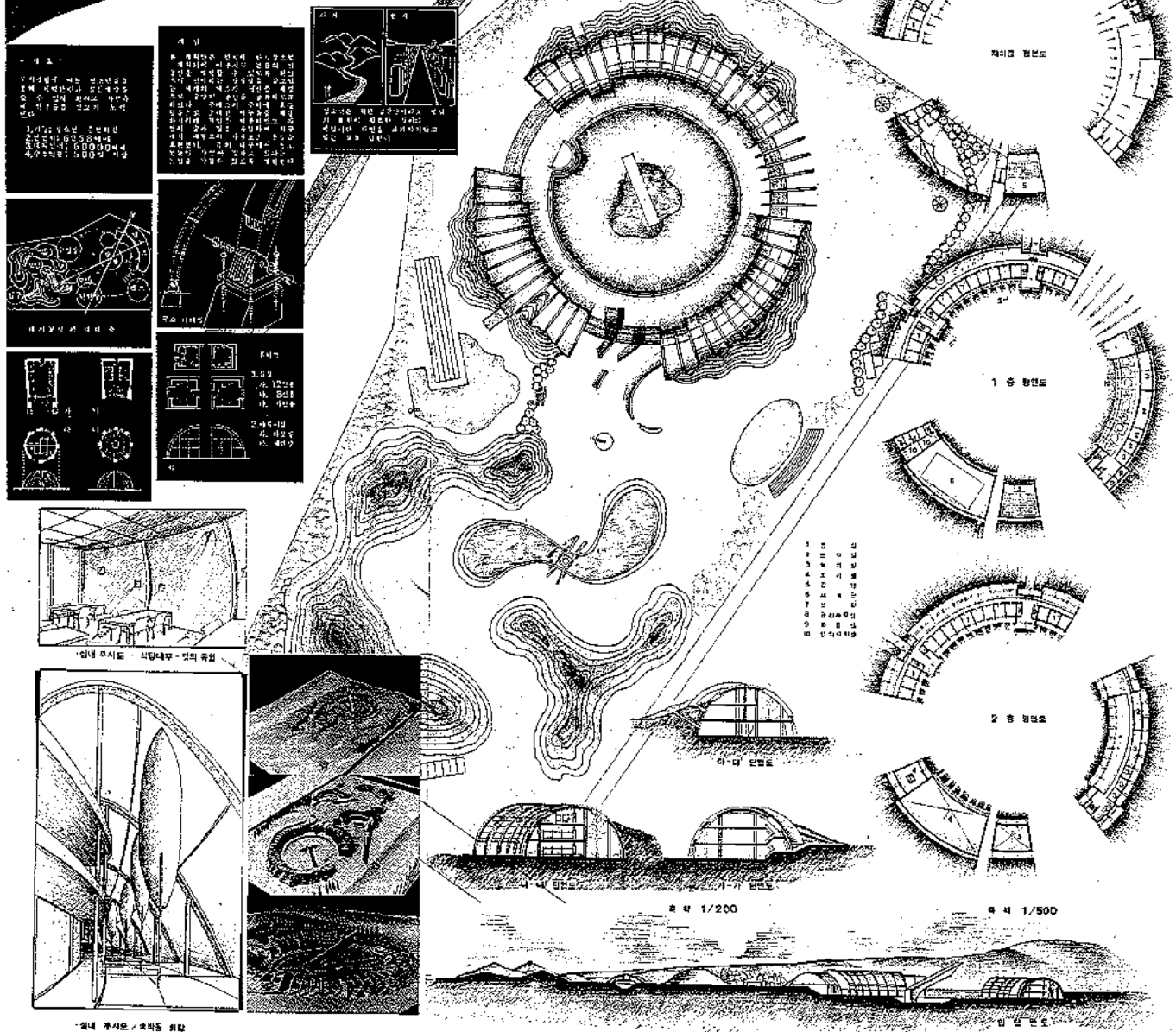
Forest & Light

장 리 상

이현옥 / 경원대학교 건축공학과

정준수 / 경원대학교 건축공학과

Forest & Light



'92 韓國 建築展

도시가 더욱 삭막해져 가기 때문인지 어린 시절 뒷동산에서의 느낌이 요즘도 가끔씩 되살아나곤 한다. 어린 시절 뒷동산은 높아 보이지만 높지않고, 우리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존재이다. 뒷동산에 대한 우리들의 느낌은 다양할지도 모른다. 다만, 동산은 친근감과 어느정도의 만만한 존재였다는 것을 모두 공감할 것이다. 수련장만이라도 청소년 그들의 공간을 주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도시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잃어버리기 쉬운 순수성과 진실성 등 심신배양의 적절한 조화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계획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실내에 자연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생기있는 청소년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부의 수직적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목과 분수를 만들어 실내의 모든 구성요소들은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의 조화된 공간 조성이라는 기본개념과 일치하도록 했다.

외부에서 내부로의 자유로운 공간유입을 계획하였다. 반지하 반지상으로 계획하여 이용자가 건물의 전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세계의 매스가

중양의 공간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주 매스 주위에 흙을 덮음으로써 초래된 어두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의 빛과 나무들을 끌어들이며 녹색공간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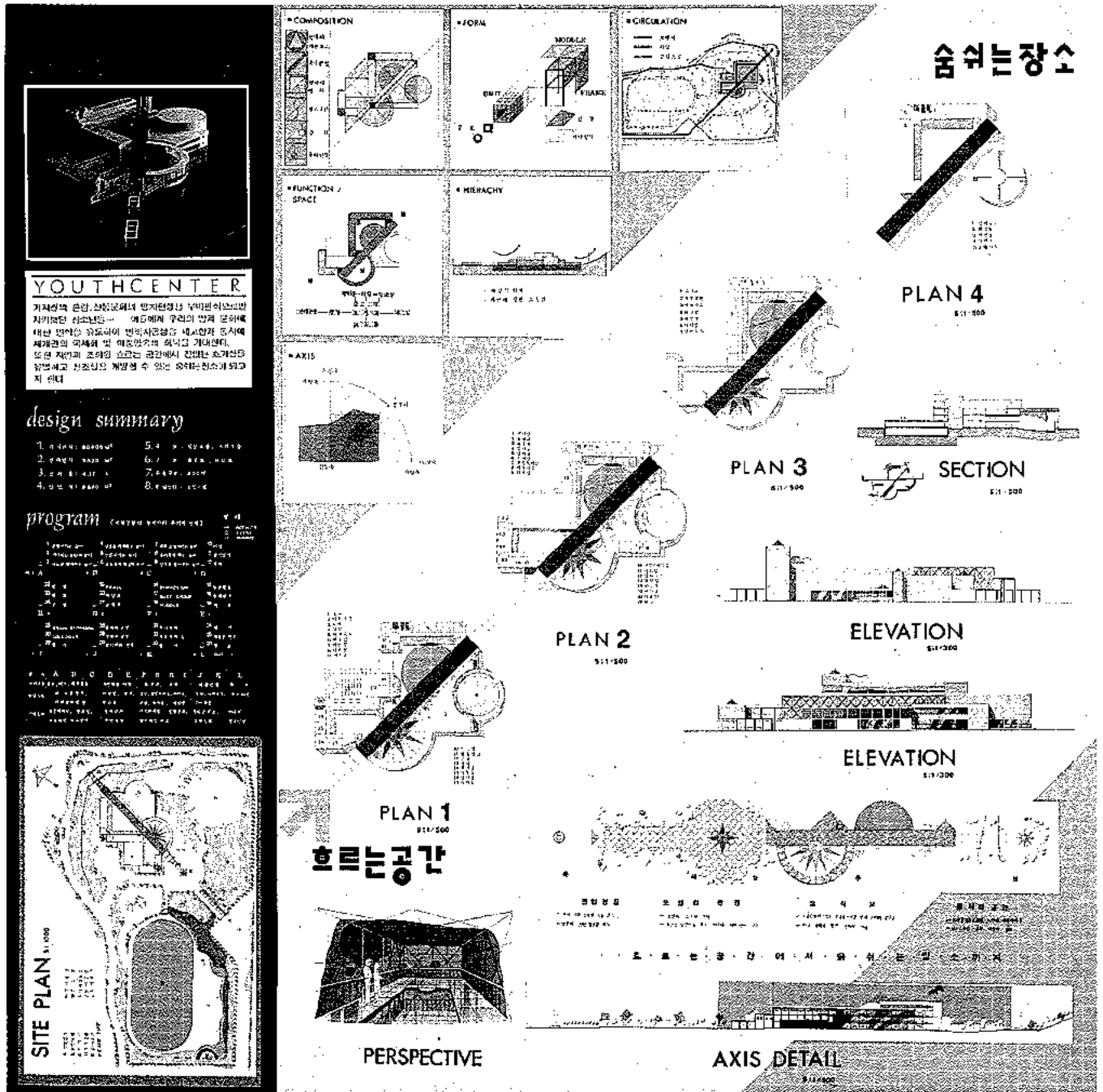
이 녹색공간은 이러한 우리의 표현이다. 이것으로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수련장의 생활로 청소년기에 잃어버리기 쉬운 모든 조건들은 이 녹색공간에서 찾길 바라며

흐르는 공간 숨쉬는 장소

장려상

윤인보 / 금오공대 건축공학과
임성필 / 금오공대 건축공학과

'92 韓國建築展



기본 방침
국립공원 內의 휴식 공간 확보와 야외 학습의 場으로서 그들의 독창성과 잠재적인 사고, 그리고 자연속에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흥미 있는 공간 구성에 중점을 두고
- 음양이 조화된 전통이 숨쉬는 공간
- 어미니티(Amenity)가 있는 공간
- 편리한 공간
- 흥미있는 공간
- 미래 지향적인 공간
- 건축적 의미를 갖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면 형태
- 연계성이 강한 기능들을 4개 콧으로 분할하고 축(오작교)에 의한 통합
- 직원과 방문자,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 분리
- 각 건물의 자연에 조화되는 파장적 위계
- 집회 시설 및 휴게 시설 사용의 편리성 확보
- Module에 의한 Unit 계획
- ●중정의 도입으로 각 공간의 완충적 역할
●사계절을 주재로한 축의 도입
●Sunken Garden 도입
⇒ 자연채광의 극대화와 다목적 활동 공간의 활용

단면 계획
- R, C, S, C에 의한 경제적 Span / 벽돌과 유리의 마무리
- 복도 공간에 천창 도입(오작교)
- 전통적 복도 개념에서 탈피 활동적이고 명량한 공간(Semi - Public Space) 창조
- 중정을 이용한 자연 채광 극대화

본 계획으로 하여금 자연과 인간, 현재와 전통의 이미지를 다소나마 표현하려고 노력했으며 끝으로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참여의 場이 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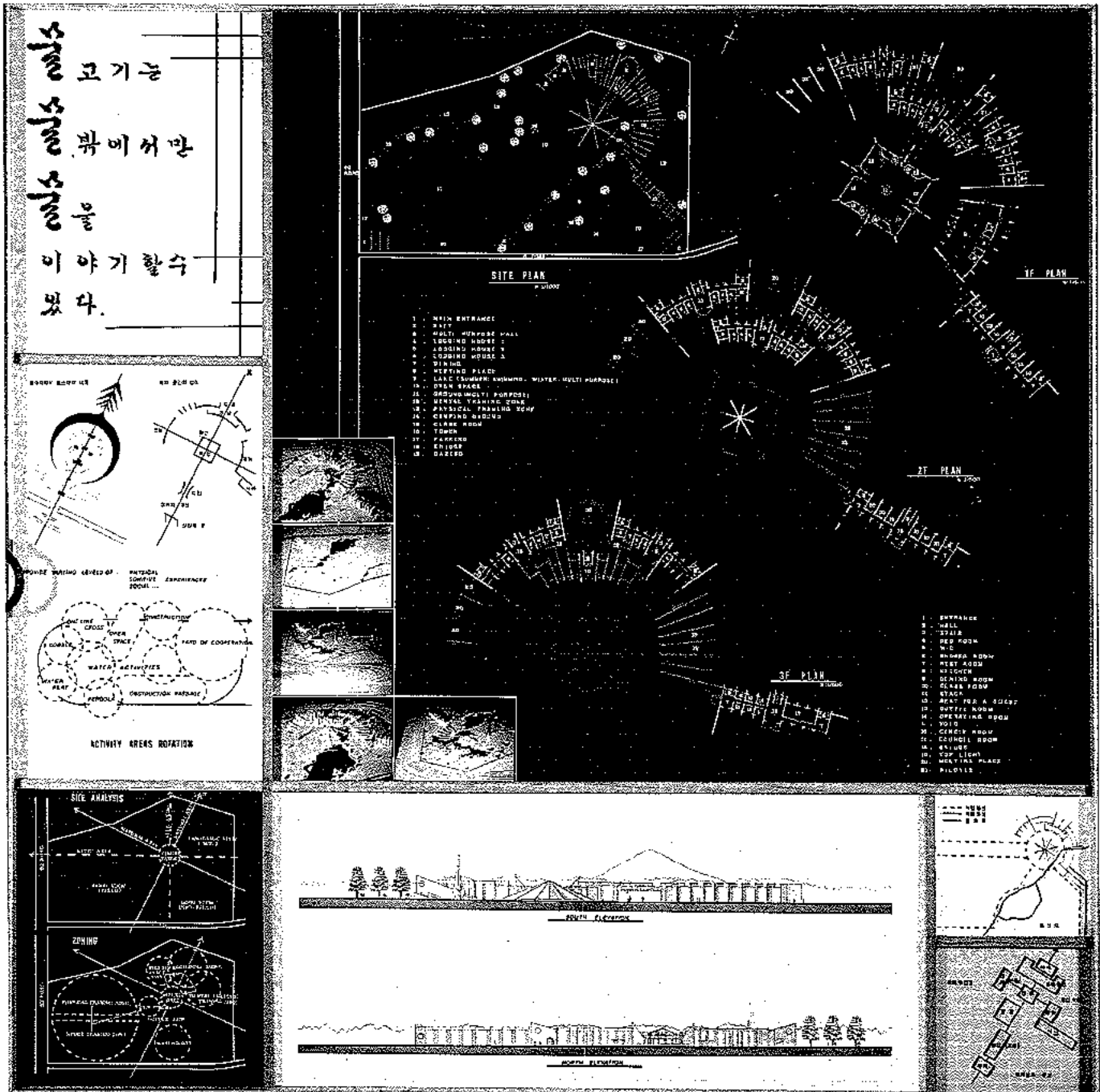
물고기는 물밖에서만 ...

장려상

정재일 / 경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정륜 / 경남대학교 건축공학과

'92 韓國建築展



본 작품은 전체 Master plan 상에서는 풍수 지리적 요소와의 적용과 대응을 주안시 했으며, 전체 배치는 각동을 대지에 분산 배치 시킴으로써 5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시 사용시에 동선의 교차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용도로서 이동과정까지도 교육과정으로 유도하려고 하였다. 진입과정에서는 물을 끼고 들어오는 정화의 과정을 두어 수련과정의 자세에 역점을 두는 반면 여름에는 각종 물놀이,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여 계절을 타지않는 수련장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전체계획에서는 인공호수에 대지레벨차를 두

어 전체평면계획에 재미를 주었으며, 평면구성에서 각 건물의 벽들이 구심점으로 향해 모여드는 목표의식을 상징화 하였으며, 단면에서는 하늘을 향해 치솟는 기상과 의지를 힘벽으로 나타내었으며, 다목적홀은 우천시의 실내경기장 및 연극, 영화, Concert등이 치루어 질수있도록 무대를 대형화, 유동화 시키고 각종 장치를 설치하였다. 숙박동은 3동으로 두어 남녀 청소년들의 동시 수용시 혹은 각 그룹의 시간적 차이에 의한 압실시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으며 후면의 2동을 앞동으로 Bridge로 연결시켜 융통성을 주었다. 학습동은 야영장과 함께 당일코스의

수련과정시에 기존 거주 학생들과의 동선교차문제를 고려하여 출구 가까이 두었으며 운동장에서 각종 구기 종목 축구, 양궁, 씨름 등의 행사가 치루어질수 있도록 하였다. 수련공간은 육체수련공간과 정신수련공간으로 구분하여 정신수양후에 다양한 Motive를 지닌 육체수련공간에 이르면서 각종 재미를 주도록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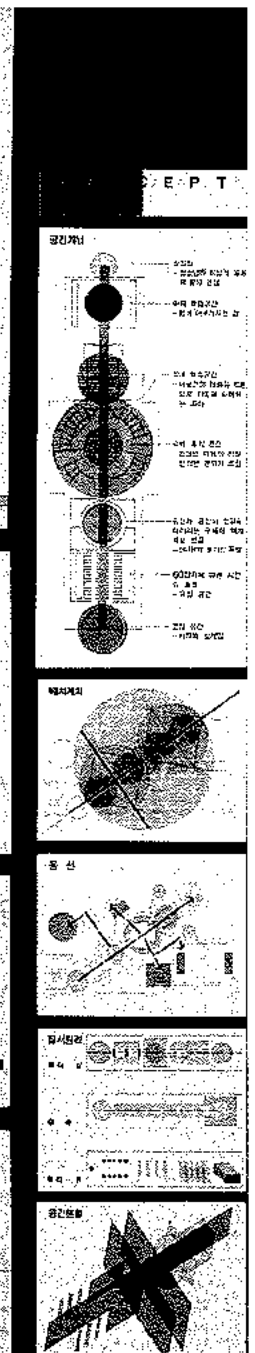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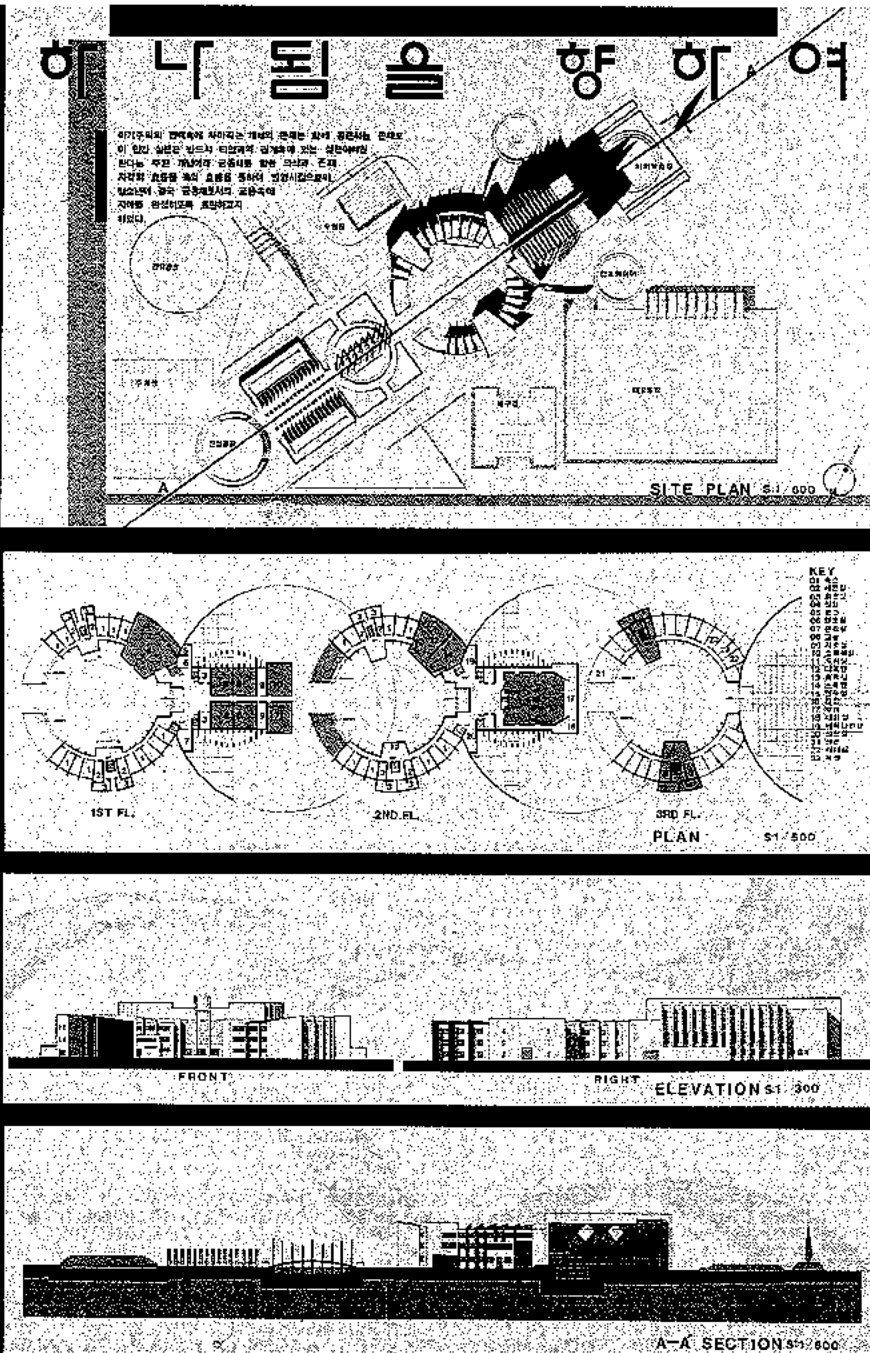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패널구성은 몬드리안의 '3원색 구성'에 우리의 전통 창호를 접합시킴으로써 조화될수 없는 이중적 모순에서 통일성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결국은 불음표(?)로 끝나고 말았다.

하나됨을 향하여

장려상

박태성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상훈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나는 또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는지, 고독, 허무, 절망 이기적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현실의 문제, 소음과 빌딩으로부터 떨어진 조그마한 자연의 한 모퉁이에서 조용히 해결하고자 하였다.

전압축의 흐름에 따라 각 장마다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결국에는 공동체의 완성과 그 나아가길 표현하고자 하였다. 즉, 이기와 혼돈의 진입 광장과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60갑자, 물로

써 조용히 자신을 돌아 보게한 지각의 장 등이 그것이다.

어울어짐의 시도, 어울어짐, 어울어진 우리가 나아갈 그 무엇, 이러한 흐름을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더 진취적이고 따스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본 건물을 최대한 압축하여 본관에서의 동선을 가깝게 해주었으며 주변 상황은 팽창의 의미로서 Mass 를 중심으로 방사형 배치를 하였다.

또한 Site 뒷면 산의 흐름을 숙박동의 구조체를 경사지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유도하였고

디자인의 태도에 있어서는 자연과의 융합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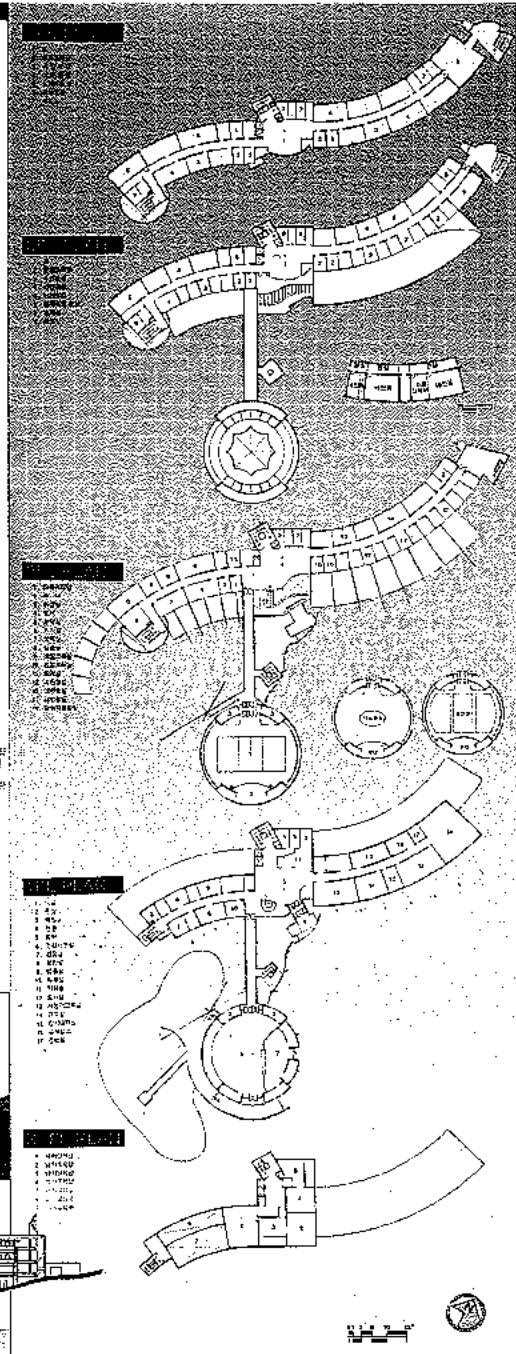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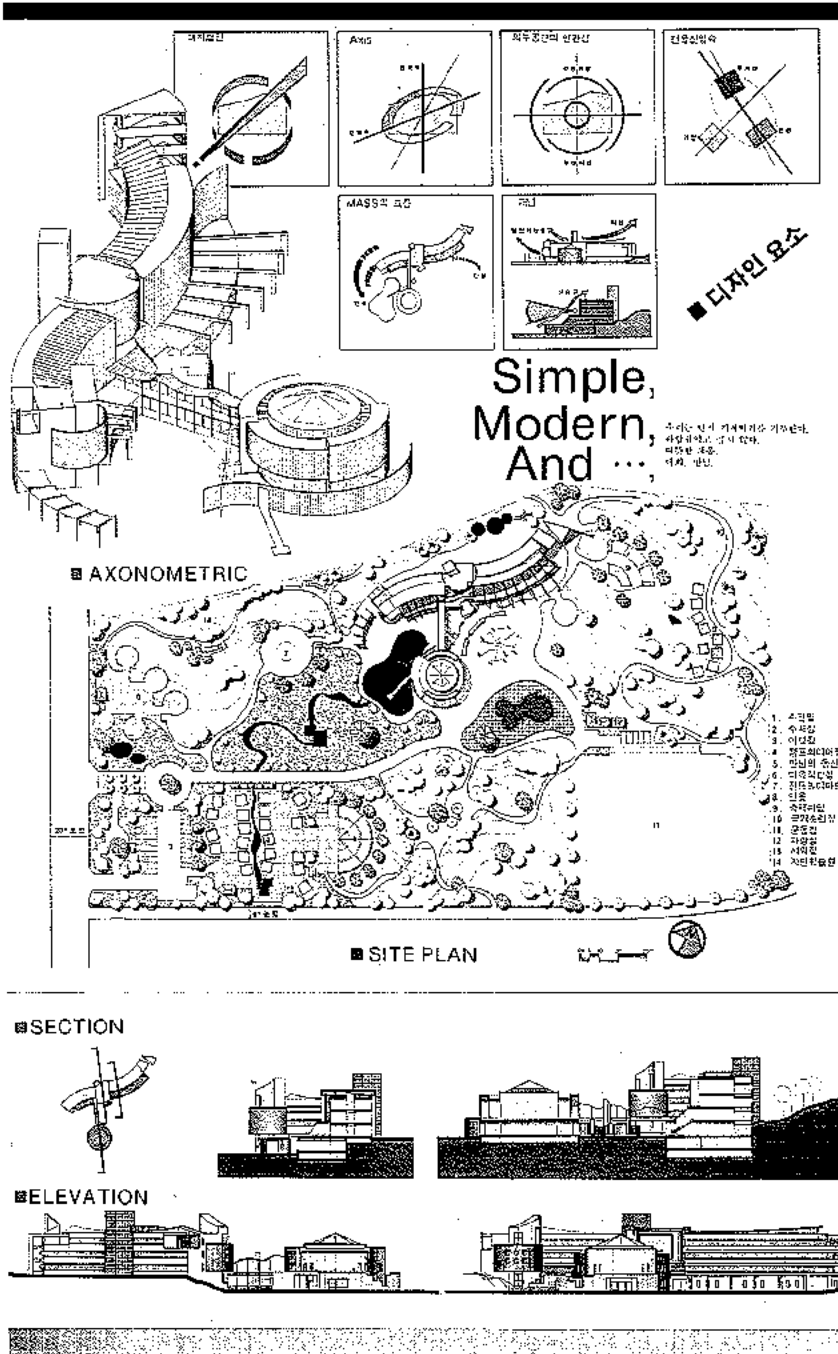
즉, 하나의 나무와 바위이고자 하였던 것이다.

Simple, Modern, And...

장려상

김태선 /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신희종 /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92 한국 건축

■ 청소년들 성장과정을 재확인하며, 현존하는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오는 욕구를 다소라도 해결하려는 의도로 작품을 시작한다.

미완성단계와 강한개성 그리고 정신, 사회경제적으로 다소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교육방법이 중요한가를 깨닫고 그들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의미를 찾아서 건축적으로 뜻을 부여하고, 지형과 주위 자연스케일이 조화되는 전통적 배치방식을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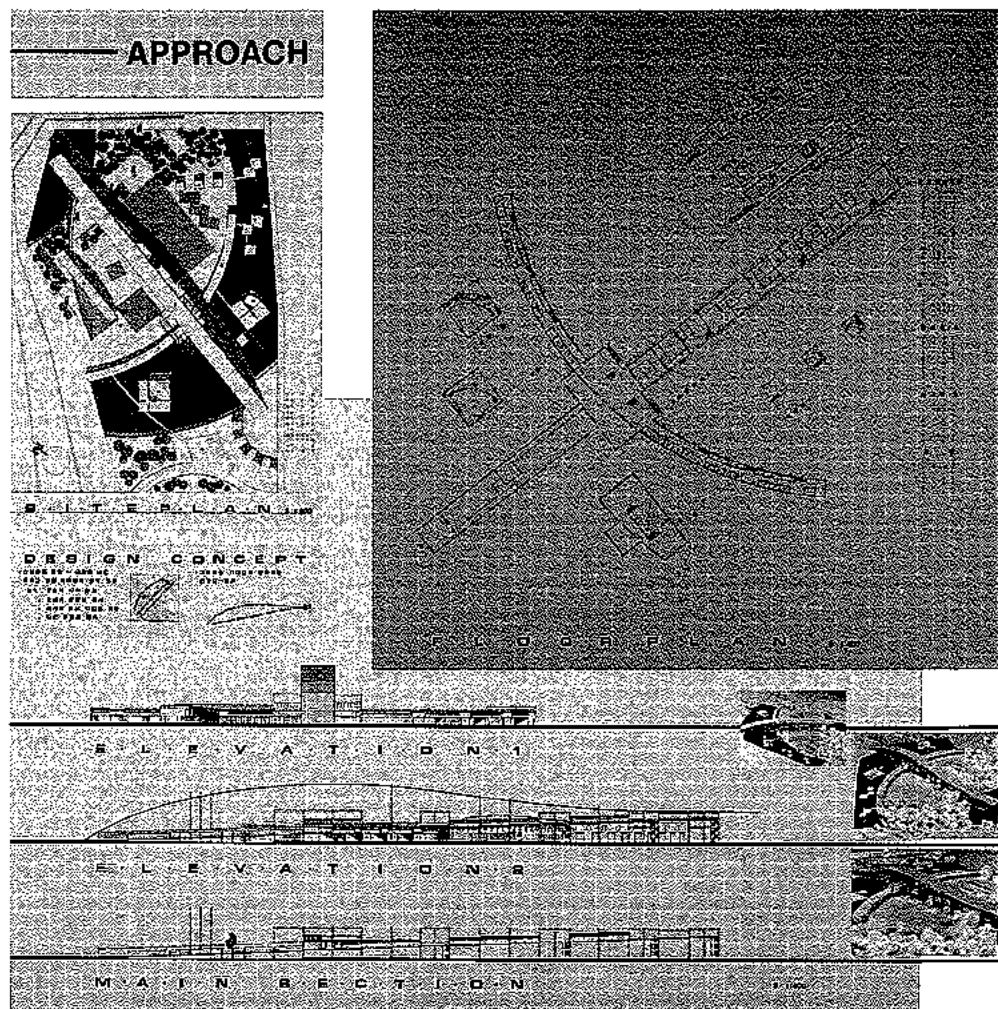
또한 조광과 일조 조건을 극대화하기위해 건물을 동남향으로 배치하고, 전경을 형성하였다.

강당을 일조와 관계없이 꺾어 배치함으로써 진입전에 외부공간과 만나게 계획하였다.

대지의 전체적인 흐름의 파악은 산맥이 갖는 "울림"에서 시작된다.

이 울림으로 인한 반복의 요소들이 외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대지에 흔적을 남기게 되고, 우리의 접근은 이 울림을 깨끗하게 듣기위한 노력이다.

최초의 공간에서는 울림의 시작을 위한 '무'와 '정적'을, 두번째 공간에서는 그 울림들의 형태가 생기고 방향성을 잡는 배움을, 세번째 공간에서는 울림의 진폭을 높이기 위해 물을 매개로한 다양성과의 접촉을, 그리고 네번째의 공간에서는 들이 형성되기 위한 다른 울림과의 접촉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울림들에 걸쳐진 다리를 통해 이에 귀를 기울이는 인간의 상반된 자세 -이기고자 하는 도전과 순응하고자 하는 겸손- 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려했다.



新人部門 심사경위

▶ 1차심사

총 응모작 31점을 대상으로 공모주제의 이해도를 중심으로 특점제로 하여 심사위원당 10점씩을 선정토록 하여 이중 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10작품을 2차심사대상으로 결정.

▶ 2차심사

대상작품 10점을 특점제로 하여 5점 이상의 특점을 한 4작품을 3차심사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6작품 중 2번과 18번이 똑같은 4점으로 재심사한 결과, 18번을 3차심사대상으로 추가선정하고 나머지 5작품을 입선으로 결정함.

▶ 3차심사

대상작품 5점을 특점제로 하여 7점을 받은 11번을 최우수상으로 결정하고, 4점의 31번을 우수상으로, 나머지 4, 18, 22번은 장려상으로 결정함.

전인교육을 위한 ...

이종구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이민창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인교육을 위한 정소년수련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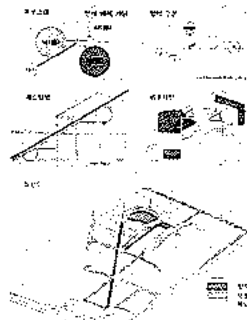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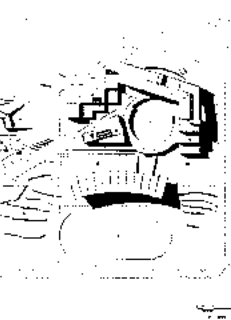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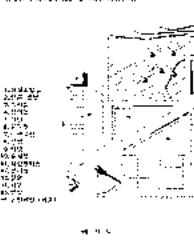


구분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1. 인건비	백만원	45,604	49,939	50,000
2. 재료비	백만원	1,528	1,528	1,528
3. 관리비	백만원	8,790	8,790	8,790
4. 기타	백만원	790	790	790
5. 총계	백만원	56,712	61,047	61,108
6. 예산	백만원	56,712	61,047	61,108
7. 실적	백만원	56,712	61,047	61,108

교수 김기호는, 장로 교인 4명(김○○, 오○○, 박○○, 이○○)과 박○○의 아내 김○○을 포함하여, 4개 집회를, 2주 일마다 분교에서 교제하고 있으며, 장로회 영구 회원 1명인 오○○ 외에 다른 장로 회원은 없게 된다.

이 전설 부처님 교회의 장로인 김○○ 박○○ 오○○ 박○○은 장로회 회원으로 등록하고 장로로 임명되어 2주에 한번씩 분교에서 교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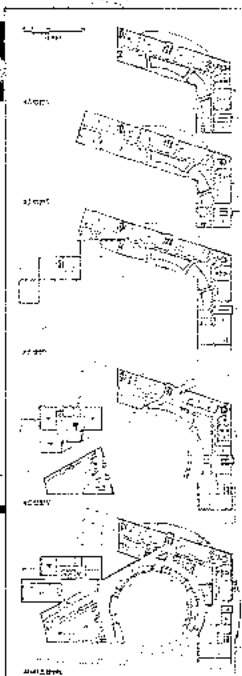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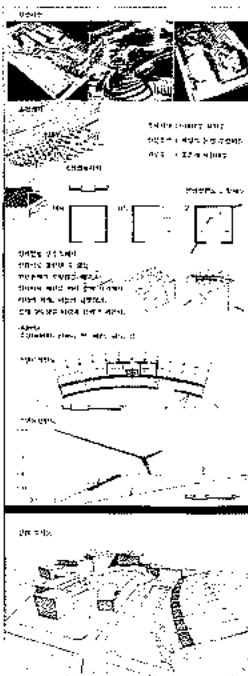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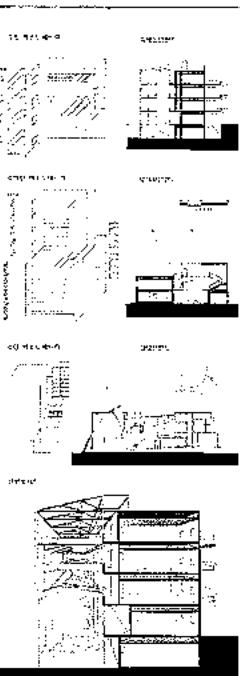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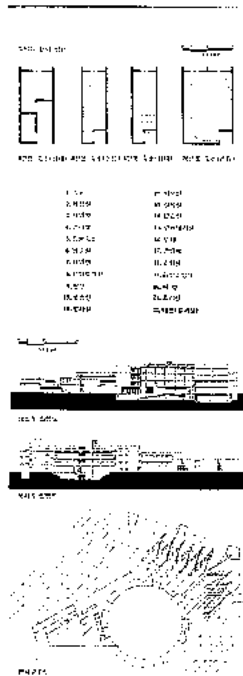
장로 김○○ 박○○ 오○○ 박○○은 장로로 임명되어 2주에 한번씩 분교에서 교제하고 있다.



수련관에 온 학생들이 알고 가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청소년들은 지식의 습득 뿐 아니라 그 지식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덕(德)을 쌓고, 또 신체를 단련함으로써 여전한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知), 덕(德), 체(體) 세가지 수련생활을 바탕으로 전체배치가 이루어 졌다.

각기 규모가 다른 수련원생들의 요구에 이 수련관은, 강의실의 크기나 온돌방의 그것을 가변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그 상황에 부응한다.

규모산정은 숙박동, 강의동, 강당 등은 500명 일시 수용 규모로, 그 밖의 식당, 목욕탕, 세면장 등은 각기 시간대에 다른 사용인원에 맞추어 적의조정, 낭비가 없이 효율적인 면적분할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 1차심사

총 응모작 179점을 대상으로 공모주제 이해도에 따라 감점방식으로 심사위원당 60작품을 선정하여 4점 이상의 63작품을 탈락시키고 2차심사대상으로 116점을 선정한.

▶ 2차심사

심사대상작품 116점을 계획의도와 전개를 중점으로 감정방식으로 5점이상의 점수를 받은 56작품을 선정 탈락시키고 나머지 60작품을 3차심사대상으로 결정함.

▶ 3차 심사

심사대상작품 60점을 독점제로 하여 13작품을 선정하고 이중 5점의 점수를 받은 1, 15, 85, 134번을 장려상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6점이상의 9작품을 4차심사대상으로 결정함.

한편, 3차심사에서 탈락한 47작품 중 각 시·도별 출품작을 분류하여 각 시·도회장상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입선으로 처리함.

▶ 4차 심사

심사대상작품 9점을 특별제로 하여 6점이하의 10, 18, 35, 42, 100, 110번을 장려상으로 선정하고 7점이상을 받은 44, 74, 133번을 최중심사대상으로 선정함.

▶ 최종심사

심사대상작품 3점을 무기명 투표로 하여 7점을 받은 133편을 최우수상으로 결정하고 44, 74편을 우수상으로 결의함.

學生部門 심사경위

'92 韓國建築展 審査評

建築士部門

92년도 한국건축전에 귀중한 작품을 출품해 주신 건축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아낌없는 격려의 말씀을 올리는 바이다. 동시에 출품된 작품중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된 작품과 건축사에 대하여 기쁨의 축하를 올리는 바이다.

금년도에 출품된 건축작품들을 볼때 전년에 비해서 질적으로 매우 향상 되었고 참신함을 느낄수 있었다. 이들 주옥 같은 65작품들을 심사해서 그들중 우수작 7작품을 선정 한다는 것은 심사위원들에게는 매우 힘겨운 일이라고 여겨지고 책임의 중대함을 통감해서 신중하고도 공정함을 잃지 않고 심사에 임하였다고 생각한다.

심사원칙으로는 서울과 지방의 작품들을 동일한 입장에서 보기로 하고 또한 건축물의 종류별 분류를 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였다.

출품된 65작품들은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역작가들이 디자인한 건축문화의 결정체들이라는 점에서 서로서로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어불성설로서 단지 심사위원들의 눈에 비친 상대적인 평가라는 데서 출품한 건축사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심사에 있어선 작품의 창의성과 그 건축물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한 작품성 여부 등에 대한 면을 중점적으로 보았으며

심사위원들 각자가 장시간에 걸쳐서 매작품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설명하고 토론을 하였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재료의 선택과 공법에 대한 합리성과 마관과의 일치 여부 및 자체와 부분의 조화 등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였다고 본다.

그리하여 수차에 걸친 단계적 무기명 투표방식에 의하여서 우수작으로 7개 작품을 뽑았으며 그 중에서 1작품을 대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작은 수원에 건축된 곡선동 동사무소 건물인데 이 작품은 그 규모에 있어서는 가장 소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디자인 수법이 매우 자유롭고 새로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서 동민들과의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며 행정건물로서의 경직성을 탈피한 창의적인 작품이라는 데서 심사위원 전원 일치하여 대상작으로 선정하였던 것이다.

매년 거행되는 한국건축전은 우리나라 유일의 기성 건축사들이 경연하는 축제의 장이라는 데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보는 바 장차도 무궁한 발전을 이룩해서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의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

서울대학교 교수 이 광 노

新人部門

이번 신인부문의 주제인 “지역문화회관”은 우리나라의 현시기에 잘 부합될 뿐만 아니라 신인들의 건축적 외욕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주제였다고 생각된다. 수준높은 좋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된점이 이것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소관계로 인해 총 31점의 출품작품중 10개 작품 밖에 선정하지 못한 것은 크게 아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점에서 앞으로 좀더 넓은 전시공간의 확보가 크게 요망된다.

학생부문의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불태 해체주의적 경향이 농후한데 비하여 신인부문의 작품들은 비교적 폭넓고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준 점은 하나의 좋은 대조를 보여주기도 한다.

심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각계 각 층에서 두루 위임되었기 때문에 작품선정에 있어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폭넓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번 심사의 특색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선정된 작품들의 다양한 성향이 이러한 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최명철 + 최문규 / 자선건축

“Stratification”은 심사위원들의 호감을 가장 많이 받았던 작품이다. 내부공간의 계획에 있어서는 다소 미비한 점이 없지는 않았으나 외부공간의 구성이나 건물의 매스구성에 있어서 발휘된 디자인 센스가 높이 평가 되었다. 이 작품은 전면광장을 통해 진입하게 하는 일반적인 건축계획과는 달리 개방성이 강한 중정을 통해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진입과정의 공간이 이 작품의 제목처럼 층화를 이루게 하여 다양한 공간의 변화를 느끼도록 구성한 점이 특히 높이 평가 되었다.

강옥현 / 원도시건축의 작품은 내부공간계획이 기능적이고 동선처리 등이 아무런 무리없이 명료하게 잘 계획되었으며 전면 광장계획 등의 외부공간 구성이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되도록 잘 처리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홀 부분의 매스 구성만을 다른부분의 구성과는 달리 경사를 이루게 한 점이 잘 조화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많은 심사위원들의 머리를 갸웃하게 하였다.

이재민 + 허영권 / 아람광장, TSC건축 + 그룹가건축의 작품은 부분적으로 보면 재미있고 공간이 가장 많은 좋은

작품이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공간들의 연계성이 다소 미비하여 아쉽게 보여졌다. 그러나 앞으로 크게 기대 되는 신인으로 평가된다.

이인범 + 심재경 / 단국대 대학원 건축과의 작품은 내외부의 공간계획이 모두 아무런 무리 없이 유연하게 잘 계획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태구성에 있어서도 다각형을 활용하여 윤택적으로 잘 구성한 우수한 작품이다. 이번 계획안이 실제로 건립을 목적으로 기획된 현상경기 였더라면 당선율이 가장 높았을 것으로 지목되는 작품으로 보여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면에서 어딘가 크게 매력을 끄는 점이 미약해서 우수작으로 선발되지 못한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이밖에도 우수한 작품들이 많았으나 지면관계로 일일이 품명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한다.

한국건축전의 신인부문에서는 주제와 대지 조건이 분명하게 미리 제시된 점은 참으로 잘 된 일이며 따라서 심사과정에 작품평가가 다른 건축전에 비하여 비교적 수월하였다. 그러나 출품된 작품 수준들이 전반적으로 볼때 균일하여 우열을 구분하기란 과히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앞으로 신인부문의 작품수준은 급격하게 향상될 것으로 보여져서 기대되는 바가 대단히 크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안 영 배

學生部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최한 92년도 「한국건축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하여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47개 대학에서 179점이라는 많은 작품이 출품되는 대성황을 이루게 된 것은 우리나라 건축계의 미래를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봅니다. 작품의 질에 있어서도 작년에 비해 월등하게 향상되었으며, 대부분의 출품작들이 특히 금년의 주제가 오늘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청소년 수련회관」이라는 취지를 잘 파악하여 주어진 넓은 자연대지에 순응하는 수련회관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각계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3단계로 나누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60작품의 입선작을 선정하였으며 이 작품들중에 다시 장시간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으로 최우수작 1점과 우수작 2점 그리고 장려상 10점을 엄선하였습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한양대 3년에 재학중인 김태훈, 정은성군의 「Teenage Community」는 청소년 수련회관에 대한 내면적 이미지 감각이 돋보이는 수작으로 특히 개인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에게 「공동생활의 장」의 인상을 심어주려 시도한 점, 공간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면서 조형적 질서를 추구한 점, 오솔길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수로와 조정계획 등을 특히 설계과정을 도식화한 점이 매우 좋았으나, 한편 도면의 표현방법이 비교적 미숙한 것은 오히려 3학년 학생이라는 솔직한 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였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고려대학의 박용성, 명세범군의 「산행 열차」는 건축적 언어로 작가의 의도를 충실하게 표현한 걸작입니다. 원형을 가로 지르는 중심축에 이기자기하게 넓은 공간을 기능에 따라 구획하고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엄격한 질서가 잡혀 있는 환경설계가 특히 눈에 띕니다. 동적공간과 정적공간의 교호적 전개, 수목의 배열 속에서 원형극장까지 이어지는 「물의 조경」등이 인간과 자연의 매개체로의 건축적 표현을 능숙하게 구사한 작품입니다.

또한 우수상으로 뽑힌 아주대학 3년의 장형순군의 「J. STORY」는 완성을 상상하는 원형을 모티브로 대담하면서도 원숙하고 세련된 테크닉을 구사한 작품으로 특히 뛰어난 걸작입니다. Sunken과 Bridge, 수목의 공간을 잘 조화시키면서, 역동적 공간구성과 기념성이 강하게 표출된 작품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상징적 기둥의 배열이 스톤헨지를 연상시킵니다.

이밖에 장려상을 받은 작품중에서도 눈에 띄는 작품이 많았습니다. 경원대의 이현욱, 정준수군의 「Forest & Light」는 자연에 순응하는 북도건축의 개념을 살린 순수한 구상과 솔직한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며, 고려대의 서승완, 최종석군의 「Approach」는 단순하면서 강렬한 조형미를 추구한 수작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연세대의 이종구, 이민창군의 「전인교육을 위한 청소년 수련회관」은 자연에너지 특히 자연채광을 도입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밖에 입선작품 이외에도 많은 작품이 전시장의 스페이스 관계로 아깝게도 낙선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계속 작품활동에 정진하여 더욱 수준높은 작품을 많이 출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이 지면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품의 표현기법에 너무 지나치게 기교를 부린 점, 모형제작에 과도한 비용지출과 매너리즘적 표현방법 등은 지양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축적 언어로서의 솔직한 표현, 디자인 전개과정, 작가 사상의 내면적 표현방법 등에 더욱 정진할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한국건축전」이 더욱 발전되어 추상적 작품세계보다는 현실성을 고려한 구상적 작품을 추구하는 「개성있는 건축전」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연세대학교 교수 이 경 회

전통과 문화적 동의

Tradition and Cultural Consensus

李廷根 / 건축사사무소 우리계획

by Lee, Jeong - Keun

1. 전통적자와 근대적자아

한국 사회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농업화와 도시화의 전개로 전국적인 인구분포의 재구성과 산업구조의 개편 등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오던 기존의 전통적인 생활공동체는 해체되어야만 했다. 생활에 요구되는 새로운 필요의 수용은 생활공간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생활환경의 구성에 있어 불가피하게 계속되는 변화의 수용은 생활공동체의 안정된 문화적 동질성이 유지되는 삶을 위해 허용될 수 있는 변화의 한도가 어느정도 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것은 전통과 변화의 상호교섭이라는 존재론적인 주제에 대한 의문에 우리를 인도한다.

경제와 사회의 제면에서 짧은 기간동안 엄청나게 빠른 변화를 겪어왔고 걸잡을 수 없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외중에서 전래의 생활공동체의 해체를 맞개던 우리사회 성원들이 가지는 전통에의 회귀에 대한 감수성은 자못 별다른 바가 있을 수도 있다. 허나 전통사회와 근대사회 혹은 전통인과 근대인으로 대비되는 개념은 일찌기 현대 과학문명의 선두주자가 된 서구사회의 문화에 접해서 새로운 문화의 수용과 자체의 변용을 서무를 수 밖에 없었던 서구이외의 문화권에서 당면해야만 했던 19세기 말 내지 20세기 초반의 문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문화권에서 다른 시대마다 어떠한 용어를 빌어 표현되던간에 한 사회에서 당시까지 하나의 틀을 갖추어 축적되어온 문화에 대한 새로운 문화의 물결은 기존의 틀의 안정적인 유지에 대한 위협이며 후자는 전자에 대한 강제 변화의 촉매였었다. 우리사회가 근대에 겪어야 했던 강력한 근대화와의 지향성과 이에 반사적으로 작용하는 전통사회에 대한 향수는 그 이전에도

우리사회가 겪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부닥쳐야하는 생활공동체의 집합적 자아의 양면을 이루는 전통적자아와 근대적자아의 상충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생활공동체 성원 각자의 속에는 자신을 하나의 사회인으로 물지워준 문화의 속성에 집착하려는 전통인과 새로운 문화의 가치를 수용하여 기존의 틀을 대체하려는 근대인이 공생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공동체 성원들에게 문화적 동질성과 지속성의 느낌을 전달하는 주요한 매체는 그 구성원들에게 역사적인 연계성을 가지는 주위와 생활환경이다. 역사적인 의미를 간직하는 환경과 그 안의 건물들은 현대의 시민들이 그들 자신의 전통적 뿌리와 만나게되는 상징적인 교차점이다.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이 견디어내기 힘들 정도로 진행되는 변화의 범위와 속도 즉 그들의 생활환경과 역사적 건물들의 파괴는 전통의 존재론적인 부정에 가까운 것이다. 역사적인 환경이나 인근에 새로운 건물들을 짓는 것도 역사적인 건물들과 그 환경의 직접적인 파괴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생활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반복적으로 그들의 근원에 회귀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유지해나가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환경은 일상의 생활속에 물질적으로 실현됨을 통해서 그들의 시원으로의 연결을 보장하는 세계의 중심에 해당한다. 한 생활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견디어낼 수 없을 정도의 속도와 범위를 가진 변화는 이 중심의 박탈을 의미하며 결국에는 그들의 삶과 근원사이의 단절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전통의 파괴이며 전통의 파괴는 그 생활공동체의 존재론적인 박탈이라 할 수 있다. 이 변화를 조절하고 역사적인 건물들과 그 환경의 파괴를 막기위해 보존과 보전이라는 강제적 과정이 도입된다. 역사적인 지역이나 그 인근에 새 건물들을 짓거나 새 대상물을 놓는것은 그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건축물로 인하여 역사적인 건물과 그 환경에 미치게 되는 영향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근간에 전통과 보존내지 보전에 대한 의미가 역사의 한 가운데 오늘의 삶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에게 사전적 의미 이상의 무엇을 뜻하는지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 그것은 경복궁의 복원과 더불어 거론되고 있는 옛 조선총독부 청사의 처리에 대한 일반인, 전문가, 문화계 인사와 담당 당국자들 사이에 일고 있는 토론과 발의가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서울의 북촌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50-100년 된 한식 가옥군을 보존하기위해 1984년에 설정되었던 한옥보존지구가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와 일부 전문가들의 건의에 따라 급기야는 보존지구의 해체에 까지 이르게되었고, 일부 건축가들은 보존지역의 개발계획을 시범적으로 제시하여 주민들 및 전문가들과 함께 역사지역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과 토론을 전개하기에 까지 이른 일련의 과정이다. 이 두가지 사안은 종결된 과거의 일이 아니고 아직도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기존환경과 새 건축의 관계가 자아내는 건축생성의 과정이다. 단지 두 지역은 우리의 역사적 사건내지 우리사회의 지나온 흔적을 원형대로 간직한 물증들을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 구 건축요소의 대립이 사회적인 관심의 표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위의 두경우의 활발한 논의의 전개는 한편으로 우리의 전통 또는 문화환경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높아진 인식이 보다 넓게 사회 성원들간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우리사회가 생활환경의 신, 구 대립에 있어 생활공동체 성원들사이에 문화적 동의를 창출해내는 성숙된 협의의 통로를 가지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었다. 생활공동체의 생활환경에 대한 문화적 동의에 이르는 통로를 열기 위해서는 전통에 대한 이해가 보다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연결된 속에서 추구되어야 하며 기존환경과 새건축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앞서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이해의 바탕을 마련한 이후에야 문화적 동의를 위한 과정에 대한 전망이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전통이라는 터부

한국 건축계에서 전통문제를 논의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마치 건축이라는 여정에 들어선 사람들이 거쳐가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는 돌무더기처럼 일단의 건축여행자들이 지날때마다 전통이라는 돌무더기는 커지기만 한다. 돌을 던짐으로써 액운이 떨어진다는 터부를 굳이 깨야할 이유가 없는 한 누구나 한두번씩은 돌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돌무더기를 지나서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전통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간에 이 터부에 대한 조바심과 썩썩한 구석을 치워버리고 좀더 자연스럽고 가벼운 마음으로 건축이라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통이라는 터부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 알몸을 들어낸 귀신의 모습을 보았다해서 전통을 다시 신비화하는 사람들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전통지향성이 궁극적으로 생활공동체 성원들에 의한 존재의 표출형식중의 하나인 한에는 인간사회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인위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신비화의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보아야겠다.

전통에 대한 신비화의 작업은 세가지 오류를 동반하며 진행된다. 첫째는 전통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하루하루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이라는 핵심을 빠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바로 전통에 대한 구구한 억측과 주장의 반복을 낳는다. 삶의 본질적인 문제와 격리된 논의가 가져야 할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두번째로 전통에 대한 논의가 일부 식자들 내지는 문회주의자들간에 폐쇄된 회로에서 맴돈다. 여염집 사람들 하나 하나에 관계된 삶의 문제를 외면한 원형의 무한 폐쇄회로를 맴도는 전통의 이해와

전통 논의가 발전적인 건축행위에 일조가 되지 못하고 하나의 터부로서 건축인들의 발목을 잡는 역기능을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터부로 변질하고 있는 전통이라는 신비체의 배일을 벗겨야 한다.

오늘 삶속에 살아있지 않고 죽은 생활공간을 전통이라고 주기적으로 되뇌이는 것은 마치 죽은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다.

논의는 인간의 삶의 세계에 진입할 확률이 적으며 삶과 분리된 신비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세번째 오류는 앞서 지적한 오류들의 당연한 귀결이다. 사회성원들의 삶과 유리된 채 폐쇄회로를 맴도는 전통 논의는 건축인의 실천단계로 이어지기가 어렵기 마련이다.

만약에 전통에 대한 논의가 오늘의 사회에서 사회성원들이 공감하는 건축행위를 고무하고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면 허구화된 신비체제로 몰아칠 수 없다. 다만, 전통논의의 과정이 오늘의 삶에서 격려된 채 생활공동체 구성원의 공감에서 외면하여 일부 폐쇄된 사회에서만 유용한 언어로 반복 재생된다면 하나의 실체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전통논의가 건축인들이 거북하게 여기는 터부로 변질하게 된다. 모든 터부는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동체적 삶의 본질과 유리되고 오늘의 현실적 삶에 방해가 되는 터부는 깨어져야 한다.

전통 논의가 발전적인 건축행위에 일조가 되지 못하고 하나의 터부로서 건축인들의 발목을 잡는 역기능을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터부로 변질하고 있는 전통이라는 신비체의 배일을 벗겨야 한다.

오늘의 삶속에 살아있지 않고 죽은 생활공간을 전통이라고 주기적으로 되뇌이는 것은 마치 죽은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지내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다. 전통이라는 위패를 모시고 지내는 건축인의 제사는 오늘의 삶을 담은 현재의 생활환경에 관한 문제를 푸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생활환경에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하구 많은 의식중의 하나일 뿐이다. 만약에 사랑채와 안채를 나누고 여러 마당으로 공간을 분할하는게 우리 건축의 전통이라 생각하거나 사찰건축이나 서원건축에서 보이는 공간의 위계적 변위 또는 목조 건축의 기법들이 우리 건축의 전통이라 말한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반문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동네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거나 우리 이웃들이 그러한 건축환경에서 살고 있거나 또는 건축전문인으로서의 건축행위 속에 그러한 건축공간이 만들어 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확실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위에서 예를 든 것들은 우리의 전통사회의 건축양식 혹은 전통건축양식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건축적 전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죽은것이 아니고 살아 있는 어떤 것이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들이 현재의 우리들의 삶과 결부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조상들이 살던 건축환경의 모습일 뿐이다. 만약에, 전통이 살아있는 것이고 전통적인 건축도 우리의 공동체적 삶속에 서식하는 생명체라면 이미 죽어버린 건축환경은 건축적으로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의 문화권 속에서 조상들의 피를 이어받아 살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가꾸어 오던

문화적 전통은 다 죽어 없어지고 육신만 살아 남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현대의 로봇처럼 인공두뇌를 살아끼울 수 있는 것이 아닌한 우리 선대의 문화적 전통이 모두 없어져 다른것으로 대체된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것 같다. 어떤 부분은 퇴화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이질적인 문화와의 습합을 통해 변형되거나 새로운 생활의 필요에 따라 이질화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것이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육신만 물려받고 정신은 물려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전통은 우리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살아남아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우리는 첫번째와 두번째 의문의 답이 서로 상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결코 전통은 완전히 소멸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한국건축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죽어 없어졌다 하는 것이다. 이 모순은 두개의 답중 어느 하나라도 틀렸거나 아니면 다른데에 연유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두개의 답이 다 맞다면 우리가 한국 건축의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진실이 아닐 것이다. 한국건축의 전통이 아닌 것을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안목이 모자라거나 짧은 기간동안 너무 변화가 심하여 어떻게 변했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경우다. 바로 전통은 불수도 없는 것이고 만질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떤 내재율이 있거나 위계적 질서 또는 내외공간의 상호관입 등 어느 문화권의 건축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일반화 하는데 대해 우리 건축인은 내심으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잘 보이지않는 것일수록 보이는 것으로부터 추출해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살던 건축공간을 보고 그것 자체를 한국건축의 전통이라 하거나 또는 그 옛 건축이 가지고 있는 건축공간의 구성원리를 오늘의 생활공동체 생활환경과 연계성을 간과한 채 한국건축의 전통이라고 정적으로 설명하려는데 한계점이 있었던 것 같다.

지나간 시기의 건축환경이 전통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생활공간속에 그리고 건축행위속에 조상들의 건축공간과의 연계가 어떻게 살아 남아 있는가 하는것이 한국건축의 전통을 설명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시기의 건축을 공부하는 것은 그것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건축의 전통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우리 생활공간에서 한국 건축의 전통을 찾아 내기 위한 작업중의 하나일 것이다. 오늘의 생활공간과 지나간 시기들의 생활공간을 생태적으로, 연속적인 현상으로 묶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한국 건축의 전통을 설명해낼 수 있을지는 우리 모두에게 숙제로 남겨두기로 해야겠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전통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항상 변하고 있고 생성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개방체계로서의 문화속에서 전통의 이해가 단답형일 수 없음은 자명하다 하겠다. 한국건축의

전통은 지나간 시대의 건축적 유산에있는 게 아니고 살아 있는 오늘의 생활공간속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 건축의 전통은 옛 건축에서 찾아질 수 없다. 단지 옛 건축은 오늘의 생활환경에 숨어 있는 한국건축의 전통을 비추어 주는 거울일 따름이다.

3. 전통의 수평적 차원

전통을 찾는 참 이유는 건축의 양식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지식인 또는 문화인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것도 아니며 어떤 객관적인 지식체계를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수적인 이유아 될 수는 있어도 전통을 찾고자 하는 본질적인 동기에는 못미친다. 이것은 오히려 여염집 사람들의 오늘의 삶의 문제에 직결된다. 우리자신들도 일상생활속에서 익히 체험하는 삶의 일면에서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외래 문화가 덮쳐와서든지 또는 도시산업사회의 변화의 속도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것이 변하는 속에서 지구적 삶에 뿌리를 내리려는 생활인의 본능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먼 여행에서 돌아오거나 하루중에 외출했다 귀가 했을때 우리가 익히 사용해왔던 방의 가구들이 다르게 배치되어 있거나 책상위의 책이나 물건들이 늘 놓던대로 놓여있지 않으면 생소해져 예전처럼 다시 제자리로 복원시키거나 참아서 변해진 상황에 적응하여 익숙해 지기를 기다려서 다시 원해질 수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에 의해 둘러쌓이지 않고서는 편히 살수 없다. 더불어 같이사는 사람들도 어떤 이유로든 나와 연관되어있지 않으면 소외감을 갖게 된다. 가까이든 멀리든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망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불안정하게 된다. 사람들이 공동사회를 이루어 살수 밖에 없는 것은 삶의 원초적 조건이라 하겠다.

공동사회의 성원들은 믿음과 의식, 제도와 생활방식, 가치체계와 기억 등을 서로 공유할 뿐만 아니라 전세대의 사람들과도 공유하는 바를 가질때 우리의 삶은 확고한 근거를 가지게 된다. 전통이란 인간존재의 문화적 차원에 해당하고, 인간 존재의 접합적 차원은 생활공동체로 확장된다.

건축에서 전통이라함은 생활공동체 성원간에 생활환경에 대한 공통의 교감하는 바가 있음을 전제로한다. 만약에 생활공동체 성원간에 전세대의 생활공간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면 서로 교감하는 바는 가장 확실하며 지속적이며 교감하는 범위의 영역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에서 생활공간에서 우리가 찾고자하는 전통은 인간존재의 집합적 및 문화적 차원에서의 필연적 요건이라 하겠다. 공동체적 삶의 존재는 수평적으로 현재의 이웃들과 연속되어 있으며 수직적으로는 앞서 산 사람들과 뒤에 올 사람들 사이에서 지속적이라는 사실에 연관된다.

사람의 생활공간 또한 공동체적 삶의 문화현상이라 할때 존재론적인 지평에서 수직적으로 지속적이며,

수평적으로 연속되어 있다 하겠다. 대체로 전통을 논의할때 시간의 수직적 진행방향 또는 시간의 단선적인 방향의 흐름에 치중하여 문화수용의 지속성으로 이해하여 온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통은 오늘을 같이 살아가는 공동사회 성원들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오늘에 설 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수직적인 속성을 가지는 문화현상으로 본 전통은 공동사회 성원간에 그에 대한 공감대를 오늘에 형성하고 있지않다면 죽지않고 삶속에 살아 있을 수가 없다.

소위 말하는 일부 문화주의자들, 학자들, 전문가들, 엘리트들의 고양된 의식속에서만 체제화되고 주장되는 전통은 일부의 희망 사항이고 바람일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삶속에 살아있는 생활공동체의 성원들간에 공유되는 의식속에 살아있지 않는한 어떻게 말해지는 전통도 그것은 허구이고 모형에 불과하다. 이것은 학문적 관심 이상으로 하루 하루의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들 하나하나에 결부된 절실한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인 것이다.

오늘의 도시산업 사회에서는 모든것이 안정된 삶의 준거틀을 형성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전통은 개개인의 생존의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집합적 수준의 생활공동체의 차원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생활공동체 내에서의 사람들의 관계는 물론 생활환경의 모든 면이 그속에 삶을 영위하는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과의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안정된 준거틀을 변하지 않는 어떤 것에서 찾고자 하기 마련이다.

종교적으로는 초월적 존재일 수 있고 문화적으로는 오늘의 생활상의 바탕이라 생각되는 지나간 시기의 전통문화이다. 문화적인 지속성이란 오늘과 단절된 과거의 유물에서 찾을 수 있는게 아니고 오늘의 생활속에서 찾아야 함을 잊기가 쉽다. 오늘의 삶속에 있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 남아 있는 전통적 생활환경의 유구에 살고 있다는 것과는 다르다. 또는 어느 개인이 전통건축을 소유할 수 있는것도 아니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사회성원들간에 생활을 통해서 공유하는 바가 있어야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아직도 간장이라는 조미료를 집집마다 쓰고 있으며 간장을 음식맛의 요소로하는 식생활이 일반화되어 있다면 이것은 전통적인 식생활의 일부가 오늘에 살아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만약 집집마다 아침밥을 먹지 않고 인스턴트 음식을 대부분의 가구에서 먹고 있다면 전래의 전통적 식생활은 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식생활의 전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집집마다 있게 마련이던 장독대가 오늘의 생활환경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면 전래의 전통적인 생활공간은 변해가고 있는것이며 슈퍼마켓의 간장병 진열대가 이 기능을 대신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지어지는 생활공간속에 장독대를 억지로 갖다 놓는다고 전통이 이어지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에게 오늘까지 남향선호 성향이 주거공간에 대한 관습과 실생활에서의 주거 선택의 우선 순위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전래의 전통의 생활공간 개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오늘의 콘크리트 건물에 포장을 한다면 이는 전통 건축양식의 건물일 뿐이지 몇몇이 그렇게 집을 지었다해서 오늘날에 전통 건축이 이어져오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것도 아니다. 이미 오늘의 생활속에서 용도폐기된 것을 복원한다고 전통이 살아날 리는 없다. 생활공동체 성원들이 오늘의 생활의 필요에 따라 채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복고취미는 될지언정 전통적인 삶은 아니다.

사회 구성원 대부분에게 오늘까지 남향선호 성향이 주거공간에 대한 관습과 실생활에서의 주거 선택의 우선 순위로 되어있다면 이것은 전래의 전통의 생활공간 개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오늘의 콘크리트 건물에 포장을 한다면 이는 전통건축양식의 건물일 뿐이지 몇몇이 그렇게 집을 지었다해서 오늘날에 전통건축이 이어져오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집의 재료와 모양이 매우 달라도 안방과 마루 및 건너방의 쓰임새가 지나간 시기와 동등한 관계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면 전통건축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의 수평적 차원에서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결코 시간의 수직적 또는 역사적 흐름속에서의 전통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여차피 수직, 수평의 차원은 전통의 의미를 구성하는 상보적 속성이다. 그러나 전통을 시간의 흐름속에 내재하는 변화의 관점에서만 바라볼때 전통이 뿌리를 내려야 할 땅을 잃게 된다. 그 땅은 바로 전통을 문제로 삼는 오늘에 삶을 이어가고 있는 생활공동체이다.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속에 살아 있지 않고 그들에 의해 공감되지 않는 것은 전통이라 불리울 수 없다.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의 문화적 동의를 도외시한 전통은 죽은 전통이고 따라서 그들의 삶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한국건축의 전통이라 할 수 있다.

4. 기존과 새것의 변증법

생활공동체에서 전통의 문제는 하나의 건물의 양식에 관한 문제일 수 없다. 한 생활공동체의 생활환경에 새로운 건축이 하나의 환경적 요소로 간섭할때 불가결하게 해결 되어야 할 것은 기존과 새로운 침입자 사이의 갈등의 해소이다. 이것은 반드시 근대와 구분되는 지난 시기의 건축환경을 일컫는 역사적 장소에 새건축이 들어서는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생활공동체의 생활환경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어떤 생활환경이던 시간의 축적이 동반되지 않은 단위 생활공간들의 집합체는 없다. 그래서 전통은 보편성의 지평에서 기존의 생활환경의 내용(Context)과 이 속에 새로 편입되는 생활환경요소가 가져게 되는 어떤 관계의 문제로 일반화 되어질 수 있다.

기존의 환경과 새 건축의 관계에 대한 평가는 그 생활공동체 성원들의 이해에 대한 이해에 좌우된다. 기존 환경속에서의 새 건축에 대한 해석은 집합적 수준에서의 문화적 동의에 버금간다. 문화적 동의란 이미 지어진 새 건물을 평가하는 것 뿐만아니라 앞으로 닥아올 건축적 간섭을 안내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주어진 환경의 성격이 그 간섭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면 기존의 환경은 하나의 절대적인 잣대로만 이해 될 수 없다. 새것과 기존간의 대화는 그들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재 해석이 요구된다. 하나의 확정적인 해석이 문화적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문화적 동의에 도달하기 위한 직절한 소동의 과정만이 의도적 개입과 그것이 생활환경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의 통제 조절에 관한 문제는 그 콘텍스트가 어떠하였었고 이것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의 양쪽 관점에서 정의 되어질 수 밖에 없는 콘텍스트의 지속성에의 적합한 간섭으로 귀결된다.

생활공동체 구성원간에 문화적 동의가 없이는 전통과 변화사이의 접촉의 과정은 방향을 잃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생활공동체의 생활환경의 형성에 있어 전통에 의존하는 것과 변화를 추구하는 것 사이의 적절한 교섭과정이 무엇이겠는가 정의해 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생활환경은 기존 환경에 지어지는 새로운 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고 재해석 되어질수 밖에 없다. 새로운 생활환경은 새건축 아니면 기존의 환경이라는 배타적인 관점에서는 적절히 평가 될 수 없다. 새건축과 기존환경의 관계에 대한 문화적 동의에 도달하는 과정은 생활공동체 성원들이 직접 간접으로 관여 하는 복잡한 과정을 포함한다. 우리는 편의상 그 과정을 무작위과정과 조직된 과정으로 구별할 수 있고 조직된 과정은 다시 자발적과정과 제도화된 과정으로 구분 할 수 있다.¹⁾ 여기서 무작위 과정은 비교적 조직되지 않고, 미지속적이며 다소 상황에 따른 개인들의 반사적 활동을 통해서 문화적 동의를 형성해가는 것을 일컫는다. 반면 조직된 과정은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집단적인 추구에 가깝다. 무작위 과정이 반드시 부의식적인 노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작위 반응이 축적되면 이 과정은 자발적 과정의 탄생을 자극하고 제도화된 과정을 이끈다. 제도화된 과정은 법적인 수단외 지원을 받는 모든 종류의 공공적 조직의 활동을 말하며 새건축과 기존환경의 관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평가하고 여론을 측정하고 결보고 홍보하는 체계화된 과정을 일컫는다. 자발적과정은 생활공동체에서 편이 아닌 입의 단체에 의해 또는 사회성원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활동을 말한다. 자발적 과정은 법적인 제도에 의해 받쳐지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화된 과정과 다르다. 비록 자발적 과정은 제도화된 과정보다 실천적 속성에 약할지 모르지만 제도화된 과정의 방향을 비판하고 안내자 역할도 해낸다. 이들 무작위와 조직 또는 자발적 과정과 제도화된 과정은 어느 한정된 경우들에서는 서로 대립적이기도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문화적 동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에서 상호 보완적이다.

생활공동체의 생활환경에서 기존환경과 새 건축의 대치 대립하는 상황은 반드시 대중매체를 통해서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어떤 특수한 경우들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행위 자체가 가지는 원초적 속성이다. 전통이 윤회되는 생활환경의 긴장상태는 생활공동체

생활환경에서의 건축환경의 신, 구의 대치라는 건축행위의 보편적 상황의 특수한 경우 일 뿐이다. 그러나 이 보편적인 문제의 주제를 더 명확히 들어내기 위해 우리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역사적 환경의 보존문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던 경우들로부터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검토해 볼 수 있다. 1967년의 무역박물관 신축때의 건축양식에 대한 시비, 1971에 있었던 경복궁안에 지어지는 국립 중앙박물관의 건축양식에 관한 논의, 1976년의 성산고가도로 설치로 인해 독립문의 위치 변경에 따른 여론, 1987년에 올림픽 공원내의 몽촌토성 일곽에 올림픽 문화행사의 하나로 유치하려 했던 국제 야외조각 전시회를 계기로 문화유산 파괴에 대한 비등한 여론의 비판 등의 사건은 전통건축 문화유산의 보존과 새로운 건축행위가 대치하여 벌어졌던 생활공동체 생활환경의 신, 구 콘텍스트의 교섭과정이었다. 이러한 계기들은 많은 대가를 치루었지만 생활공동체 성원들에게 생활환경에대한 의식을 높이는 데 일조를 했으며 문화적 동의를 찾아가는 방법을 성숙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987년부터 서울시가 주관하여 계속되고 있는 구 서대문 교도소의 사적지화 및 사적공원화 계획은 그 실천 단계에서 보존과 새로운 환경요소들의 도입이라는 양립시켜야만 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은 물론 각각의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사회 각 구성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문화적 동의를 도출하는데 있어 전에 비해 상당히 세련된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건화되었던 건축환경에서 전통보존의 문제 또는 보편적인 일반화된 개념으로 얘기하면 생활공동체 생활환경에서의 생활공간의 신, 구 대립의 문제는 우리에게 아직 문화적 동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성숙되어있지 못함을 말해준다.

위의 경우 모두에서 결여된 것은 공공대중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들 경우에 있어 논의에 관여한 대다수는 전문 직업인, 학자, 관리 등이었으며 이는 기존 생활환경속에서의 새 건축에 대한 평가가 도시 중산층의 가치관에서도 거리감을 유지한 채 일부 열은 전문가층에 국한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예로는 사건들의 전말이 보여주는 결과는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기존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사회의 전반에 걸치는 사회집단들의 지지없이 어렵다는 것이다. 협의의 과정이 회회 민주주의의 마저 허락되지 않는 폐쇄된 행정적 절차라는 짧은 통로안에만 머문다. 이것은 너더욱 풀 뿌리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예들은 사회 성원들이 그들의 생활환경안에 문화적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말해준다. 반면 식자들과 문화인들은 생활공동체의 갈망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었다. 무작위 과정은 자발적 보존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무작위 과정들의 즉흥적인 결합이 잘못된 제도적 과정을 보정하는 주된 동력이 되었었다. 자발적 활동들은

(註)
기존의 환경과 새 건축의 관계에 있어 문화적동의에 도달 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논의가 우리사회에서 사회문제화 되었던 사건들의 분석적 이해를 통해서 제기된 바 있다.
Jeong - Keun Lee, Process towards Cultural Consensus for New Buildings on Historic Sites (Thesis presented for The Symposium on Preservation and Modernization of Historic Cites, Beijing, China, 15 - 18 August 1990)

아직 제도화된 과정에 내치되는 상보적 힘으로 작용되지 못하고 오로지 제도화된 과정의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옥 보존지구와 몽촌토성 보존을 위한 시민들의 반응에서 자발적운동의 태동을 볼 수 있었다. 자발적 활동들은 아직도 개인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의 보호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는 듯 싶다.

바람직한 것은 무작위적 과정이 문화적 동일성에 대한 고양된 집합적 의식의 힘으로 자발적 과정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자발적 과정의 함양이 없이는 제도화된 과정은 사이비 문화적동의에 길들여지고 맞추어지는 것 같다. 무작위과정이 불확실하다면 제도화된 과정은 경직하기 마련이다. 자발적인 과정의 가시화는 신, 구의 대화속에 문화적 동의를 찾아내는 길을 조화롭게 조절해 줄 것이다. 상보적 과정들의 적절한 어울림이 유사 문화적 동의에 균형 감각을 불어 넣어야 한다.

5. 전통과 문화적 동의

우리는 전통에 대한 앞선 논의에서 전통의 문제는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오늘의 문제이며 다른 사람들이 살던 어떤 곳이나 지금 어떤 곳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생활공동체가 존재하는 이곳, 여기의 문제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전통은 어느 개인의 문제일수 없으며 더더욱 불특정 다수 개개인의 문제의 집합일수 없다. 이것은 오늘 여기에 삶을 영위하고 있는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전통은 모든것이 항상변하는 세계속에서 삶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생활공동체 성원들의 집합적 차원에서의 존재론적인 갈구의 표현이다. 따라서 전통은 시간의 연속성이라는 수직적 차원에서만 간파될 수 없는 오늘 여기에 사는 생활공동체 사람들의 수평적 차원에서의 공감의 문제이다. 이것은 또한 오늘 여기에 사는 생활공동체 다수의 사람들간에 공감의 요구 되는 수평축에서의 집합적 차원의 문제 일 뿐 아니라 수직축에서도 지나간 사람들이 살던 생활공동체와 오늘의 생활공동체 간의 집합적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기존의 건축환경과 새로운 건축의 관계라는 문제는 역사가 오래되었던 아니던간에 모든 생활공간에 동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옛 문화의 족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거나 역사적인 어떤 시기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생활환경이 있다면 그곳에 새로운 건축을 어느정도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가 등의 문제는 사회적인 여론의 초점이 되곤 한다. 근래에 일반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서울의 한옥보존지구의 지정으로부터 이를 다시 해제하기까지의 경과와 다시 이를 해제 하였을 경우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건축가들의 제안과 주민들의 반응, 전문가들의 견해 등등의 교환이있었다.

역사상 한 시기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환경의

최근에 한국의 문화계와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경복궁의 복원과 옛 조선총독부 청사의 철거 문제에 있어서도 호메오스타시스적인 기존환경과 새건축의 교섭을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물지우려는 경향이 나타났었다. 일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기존환경과 새건축 관계의 커다란 왜곡에 덧붙여서 우리도 악수에 악수를 거듭 덧 붙여왔다.

보존이라는 면과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대치하는 가운데 기존환경과 새 건축간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기존환경과 새 건축간의 관계에 대한 문화적 동의는 구태의연하게 상의하달식의 제도화된 과정속에 쉽게 구해질 수 없음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주민들 및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발적 과정의 대두는 비록 시간이 걸리고 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기는 하나 보다 안정되고 역지가 아닌 참된 문화적 동의에 도달하기 위한 건전한 틀의 형성을 보여준다. 기존의 건축환경과 새건축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관계는 긴장상태를 유발하고 긴장의 해소를 통해 새로운 평형관계에 도달하며 다시 새로운 갈등관계를 맞게되는 계속되는 호메오스타시스(Homeostasis)적 상황전개를 나타낸다. 호메오스타시스적 상황전개는 개방체계로서 상호의 과정들이 방해받지 않고 충분히 교섭되도록 그 균형된 교섭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존환경과 새건축의 교섭과정의 통로를 어느 한쪽에서 물지어 놓는다는 것은 폐쇄된 체계를 이루는 것이며 폐쇄된 체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활환경은 어느쪽으로도 불균형의 왜곡된 생활공간을 낳게 될 것이다.

최근에 한국의 문화계와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경복궁의 복원과 옛 조선총독부 청사의 철거 문제에 있어서도 호메오스타시스적인 기존환경과 새건축의 교섭을 하나의 아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물지우려는 경향이 나타났었다. 일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기존환경과 새건축 관계의 커다란 왜곡에 덧붙여서 우리도 악수에 악수를 거듭 덧 붙여왔다.

이러한 왜곡을 시정하는 것은 호메오스타시스적인 개방체계내에 관점들의 교섭관계를 유지시킴으로서 균형잡힌 문화적 동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달성되는 것이다. 하나의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문화적 동의의 윤곽을 틀지우려는 노력은 하나의 왜곡을 더 큰 왜곡으로 확대할 뿐이다.

제도적 과정에 편승하여 문화적 동의를 조작하려는 이데올로기를 견제하며 기존 생활환경과 새건축의 균형된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자발적 과정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부닥뜨리는 전통의 문제는 기존의 생활환경과 새건축의 관계를 미리 결정하려드는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아니며 생활공동체 성원간에 문화적 동의를 구하여가는 삶속에 이어지는 과정의 한 단면일 뿐이다. 문화적 동의에 도달하기 위한 자발적 과정을 발양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은 먼저 전통에 대한 근본시각을 아의 보편적 의미에서 찾는 것이다. 전통의 보편적 의미를 회복하는데 시급한 문제는 생활공동체 성원들이 가지는 집합적 자아로서의 전통에 대한 의식과 그들의 삶과 결부된 수평적 차원에서의 전통의 의미를 되살려 내는 것이다.

패러다임(Paradigm), 건축적 사고유형 및 디자인 특성 (1)

Types of Architectural Thought and
the Design Characteristics based on Paradigms

REPORT

吉成鎬 / (주)종합건축사 사무소 아키프렌 공학박사
by kil, Soung - Ho

1. 패러다임(Paradigm)과 건축적 사고유형
2. 건축적 사고의 제 유형과 디자인 특성 (1)
3. 건축적 사고의 제 유형과 디자인 특성 (2)
4. 건축적 사고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설계 경기 작품의 특성
5. 박물관·기념관 설계 경기 작품의 건축적 사고의 특성 분석
6. 공공청사 설계 경기 작품의 건축적 사고의 특성 분석
7. 한국 설계 경기 작품의 디자인 접근 태도와 전망

1. 패러다임(Paradigm)과 건축적 사고유형

I. 서론

「건축 표현의 문제를 왜 건축적 사고의 시각에서 이해하여야 하는가?」

건축 디자인 영역에서 공간 구성과 형태 표현의 문제는 건축가의 창조적 사고와 능력이 요구되는 과제로 항상 건축가의 관심과 탐구의 영역이 되어 왔다. 따라서 건축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통하여 새로운 공간 구성과 형태 표현의 가능성을 탐구하여 왔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접근을 제시하여 왔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들의 작품 세계의 특성과 성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여러 학자들은 건축가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표현의 다양성 문제를 양식, 이념, 주의, 경향(ism), 디자인 원리, 요소 등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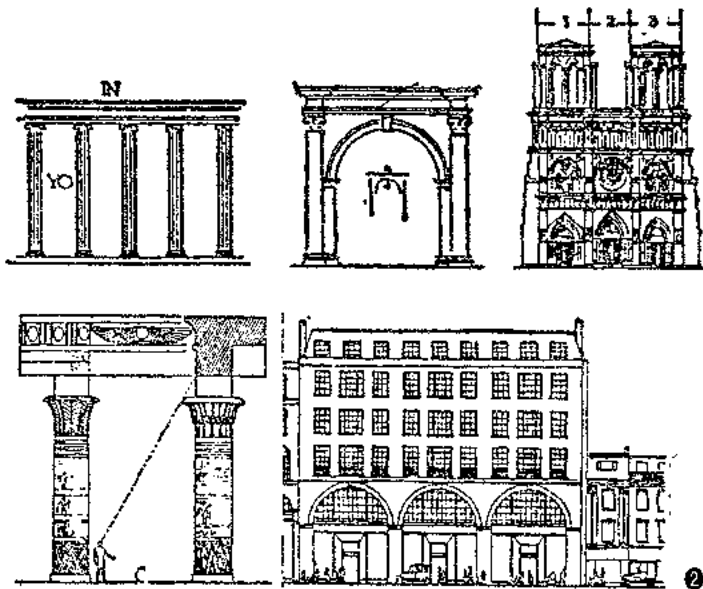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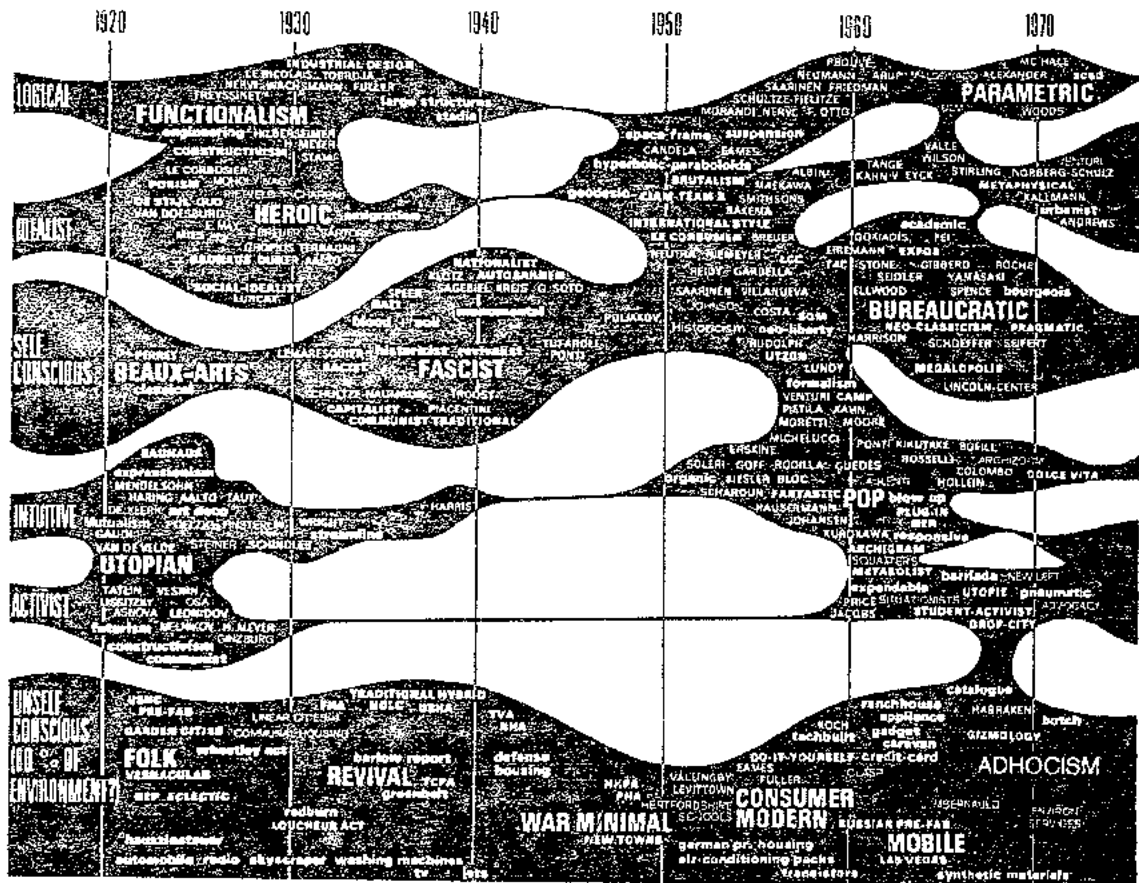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는 상당수가 형태론적 관점이나 공간론적인 관점에서 표현되어진 내용과 원리, 요소 등의 이해에 치중하고 있어 다분히 개념적, 이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가의 작품과 그 표현 특성의 다양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왜 동일한 주제의 표현에 대하여

건축가마다 다양한 접근 태도와 표현 형식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것은 건축가들의 사고의 특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의문점에 봉착하게 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를 단지 건축 철학의 영역으로 간주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까지 건축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할 때, 그들의 디자인 행위와 작품에 내재해 있는 공통적 사고틀의 모습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들 상호간의 작품 성향과 공통적 디자인 특성만을 이해하는 과정을 답습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건축가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공간 구성과 형태 표현의 다양성 문제는 코르뷔제, 알토, 라이트, 미스 등 근대 건축의 거장들이 표현의 수단으로 그 당시의 사회적·기술적인 제 조건과 프로그램상의 동일한 주제를 공유했음지라도, 궁극적인 표현의 의도와 개념은 서로 다르며 이것은 그들의 작품에 대한 접근이나 건축에 대한 선언문에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본 소고는 건축 공간과 형태 표현의 문제를 패러다임과 건축적 사고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건축적 사고 유형에 따른 디자인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건축 사조나 양식론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여러 건축가들이 공간 구성과 형태 표현을 위해 의지하고 있는 개념적인 사고의 틀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건축가의 건축에 대한 접근 태도와 작품의 디자인상의 특성은 건축가의 창조 행위의 배후에 깔린 사고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사고틀은 패러다임에 의해 지배를 받아 형성된다는 사실을 규명할 수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의 접근의 가능성은 라만(P. G. Raman, 1974)의 「디자인의 사회 심리학적 고찰(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Design)」,



로우(P. G. Rowe, 1987)의 「디자인 사고 행위(Design Thinking)」, 퍼스펙타 22호(Perspecta 22, 1986)의 「건축의 패러다임(Paradigms of Architecture)」, 람프그나니(V. M. Lampugnani, 1982)의 「드로잉에 나타난 20세기의 건축(Architecture of 20th century in Drawing)」 등의 문헌에서 쉽게 발견된다. 이 연구 문헌들은 건축가의 사고의 틀을 몇가지로 유형화 시키고 있으며, 특히 건축가의 건축적 사고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건축 표현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유익하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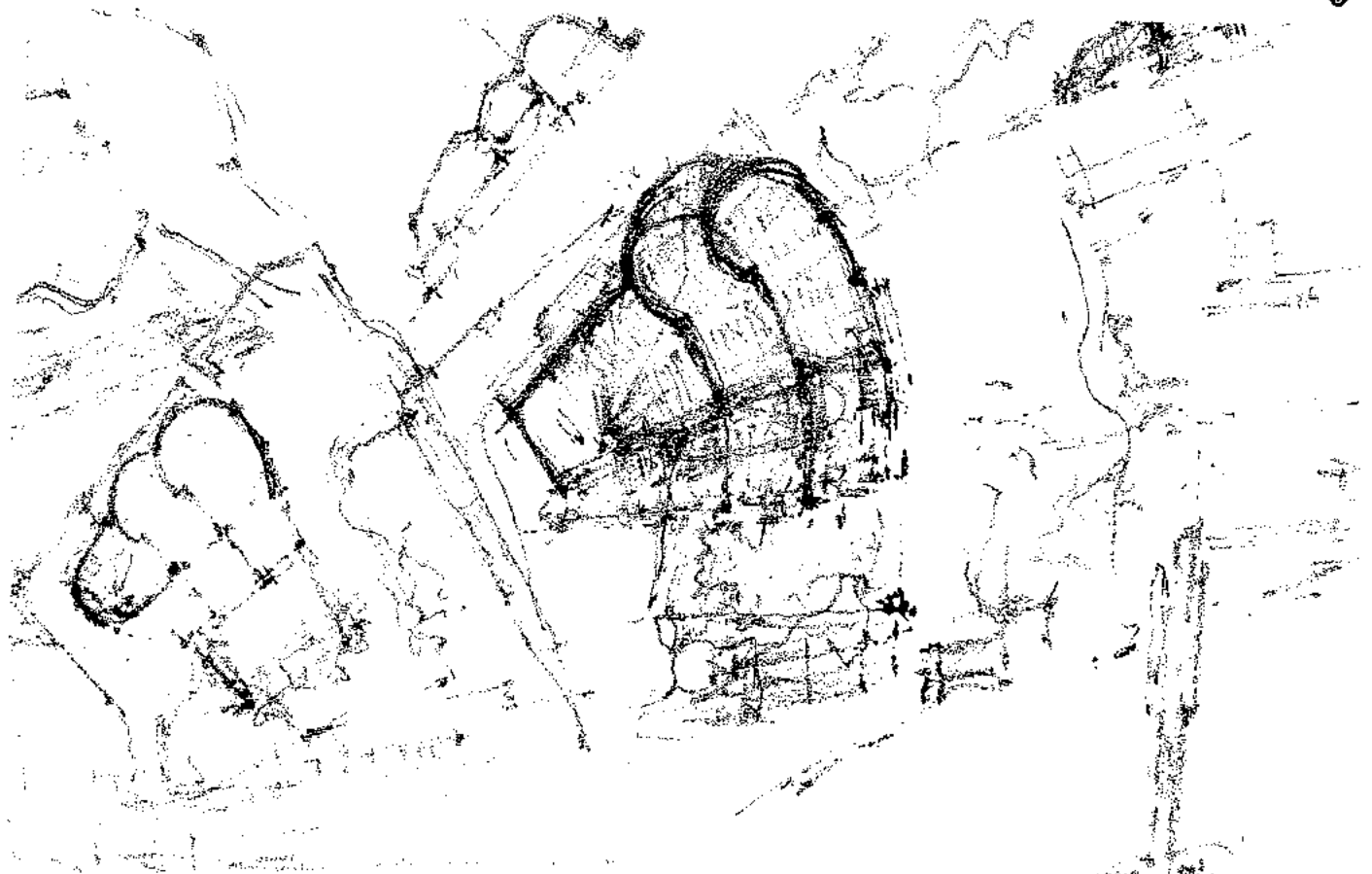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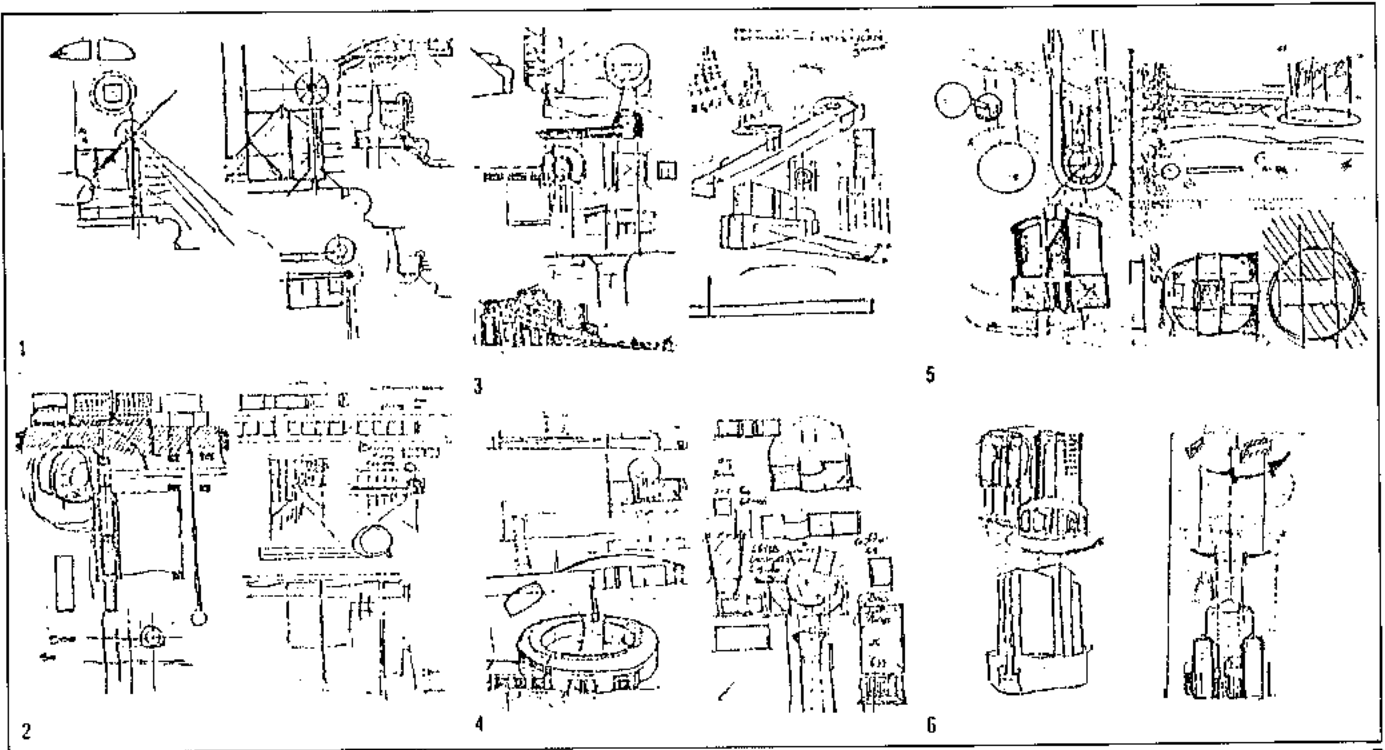
더욱이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할 때, 우리는 1960년 이후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온 현대 건축의 양상 속에서 새로운 디자인 접근의 중심 개념은 무엇이며, 이것은 건축적 사고의 특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 쉬름베크(E. Schirmbeck, 1989)는 「이념, 형태, 그리고 건축 : 현대 건축의 디자인 원리(Idea, Form and Architecture : Design Principle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에서 건축가 8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대 건축의 디자인 개념과 원리는 합리적 원리(Rational Principle)에서 심리적 원리(Psychological Principle)와 상징적 원리(Symbolic Principle)로 변화되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로버트 벤츨리(R. Venturi), 찰스 무어(C. W. Moore), 알도로시(A. Rossi), 마티아스 웅거스(O. M. Ungers) 등과 같은 건축가들이 이미 의미, 상징성 등의 문제와 함께 건축 공간 및 형태에 대한 인간의 지각 현상과 체형 방식을 디자인의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해 왔다는 사실은 건축적 사고의 변화와 그에 따른 디자인 접근 태도 및 작품 특성의 새로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또한, 건축적 사고 관점에서 표현의 문제에 대해 이해할 때, 한국 현대 건축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건축적 사고의 특성과 디자인 접근 태도를 체계적인 틀을 갖고 분석하는데도 유익하다는 점이다. 해방 이후 시행된 한국 설계 경기 작품은 시대적 흐름과 작품 유형에 따라 동일 주제의 해석과 접근 방식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 속에 담겨진 건축적 사고의 특성을 이해할 수가 있다.

- ① 1920~70년 시기의 근대건축의 흐름을 6가지 전통으로 해석하는 진화의 가지(Evolutionary Tree) 개념, 찰스젱스(1973)
- ② 디자인 원리, 요소의 관점에서 서의 형태구성의 분석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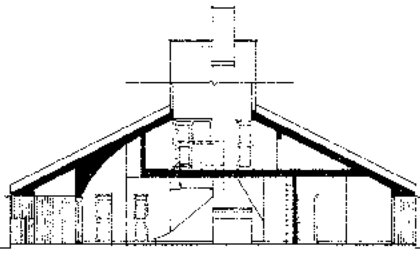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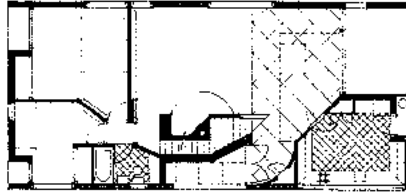
따라서 본 소고는 앞으로 연재될 전반부에서는 패러다임의 개념 도식에 기초하여 건축적 사고 유형을 체계화하고, 패러다임과 건축적 사고 유형 및 디자인 특성의 관계를 1900년 이후 서양의 근대 및 현대 건축가들의 이론과 작품을 분석하여 이해하고자 하며,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접근 시각과 분석의 틀에 의해 한국 설계 경기 작품에 나타나 있는 건축적 사고 유형의 여러 모습과 그에 따른 디자인 특성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 ③ P. G. 로우의 「디자인 테마의 탐구」 과정에 대한 분석의 예
- ④ 알바 알토의 「부노 세너스카 교회」를 위한 스케치 (1958-5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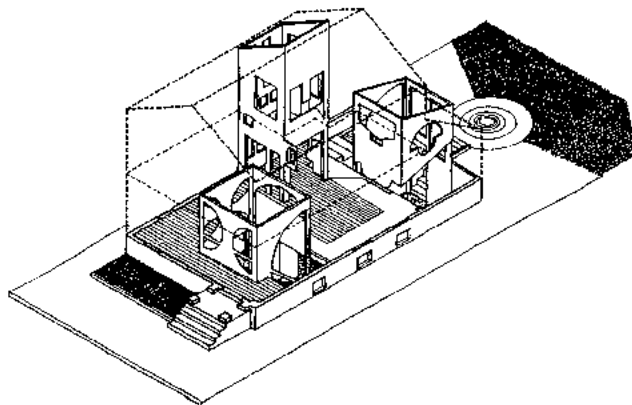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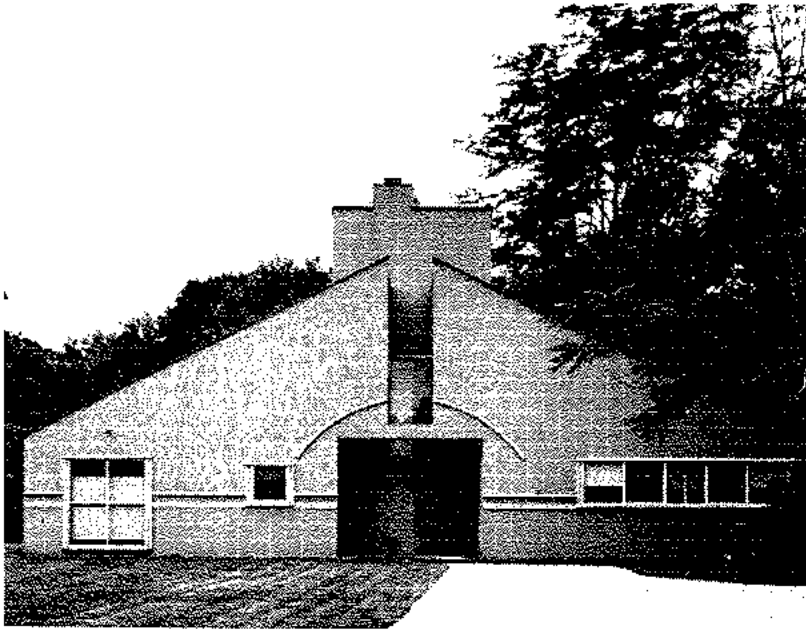
II. 패러다임의 개념과 유형

「패러다임, 그 의미와 특성은 무엇인가?」

토마스 쿤(T. Kuhn, 1952)은 역저 「과학 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⑤



Revolution)에서 과학 발전의 역사가 수세기에 걸친 과학자들의 연구 업적의 단순한 누적이 아니라 「과학혁명(1)→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 정상 과학의 전통 수립 → 변칙성 및 정상 과학의 위기의 출현 → 과학혁명(2)의 변증법적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과학사에서 발견되는 과학적 사고와 과학 혁명의 구조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 “패러다임”, “과학혁명”, “정상 과학의 위기”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패러다임을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진 해(universally recognized solution)”, “합의된 일치(consensus)”, “어느 영역에 있어서 어떤 시대의

⑤ 로버트 벤추리의 「벤추리 주택」 1962년

⑥ 찰스 무어의 「뉴헤이본의 무어 주택」 197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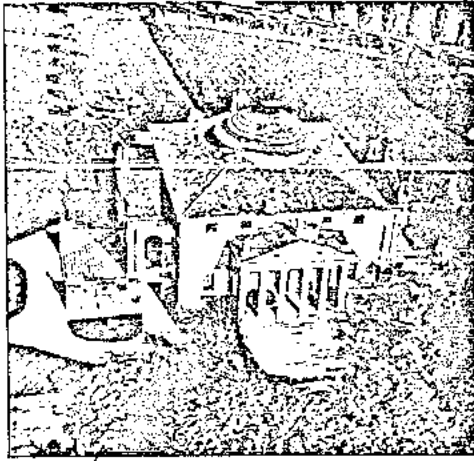
과학적 대상과학의 방법”이라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패러다임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과학적 성취를 의미하며, 어느 기간동안 전문가 집단에게 모형 문제와 해답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공통된 패러다임을 갖는 과학자들은 과학 연구에 있어서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갖게 되며, 소위 정상 과학(normal science)이라고 불리는 과학 연구 분야의 법칙, 프로세스, 전제에는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일련의 사고 방식으로서의 패러다임이 깔려 있다고 쿤은 주장한다. 하나의 패러다임은 과학자가 문제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며, 일련의 개념적, 이론적, 도구적, 방법론적인 강력한 입장 선택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공유된 신념을 가지고 연구하는 정상 과학은 여러 레벨에서 다양한 종류의 수수께끼 풀이(puzzle-solving)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어떤 문제가 그 패러다임에 의해 공급되는 틀 내에서 해결하기가 곤란하여 개념적인 위기에 직면할 때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이 개념적인 위기는 “비정상(abnormal)”, 또는 “혁명적(revolutionary)”과학의 원천이 되며, 이러한 위기를 따르는 비정상적인 공헌들은 결국 패러다임의 수정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정상 과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인도되며 패러다임의 변화와 확장 속에서 존속해 나간다는 사실이다.

쿤이 사용한 패러다임의 용어는 오늘날 과학사 뿐만 아니라 미학, 사회학, 문학, 심리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개념의 출현과 해석을 위해 채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용어의 개념은 건축의 표현 문제와 관련된 건축가의 건축적 사고의 틀을 규명하는 데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가 있다.

라만(P. G. Raman, 1974)은 건축 디자인 영역에서 새로운 개념이 출현하는 상황은 쿤이 과학 집단의 속성에 대해 기술한 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건축가들은 물리적 환경이 어떠해야 한다는 상호 모순되는 여러 연구가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물을 짓고 건축가로서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건축가들이 디자인과 디자인 행위에 있어서 ‘세계’를 관찰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는 자신의 방식을 계발시켜 왔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디자인 작업을 이해하는 건축가의 태도, 습관, 관찰 방식 등을 지배하는 패러다임과도 관련된다. 여기서 패러다임은 어느 집단사회의 사고 과정을 고무시키거나 지지하는 개념적 사고틀로서 작용하게 되며, 건축가의 디자인 접근 태도와 사고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문제를 탐구하는 건축가 집단의 특징의 사고 방식과 관련된 디자인 행위를 이해하는 데 패러다임이 매우 유익한 수단이 된다.

건축의 착상에서 하나의 모델이 어떻게 선택되며 그것이 디자인 과정에서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패러다임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는 예를 퍼스펙타 22호 「건축의 패러다임(Paradigms of Architecture)」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제임스 액커만(James Ackerman, 1986 : The villa as



20
Villa Rotonda, Vicenza,
c 1550, exterior, Andrea
Palla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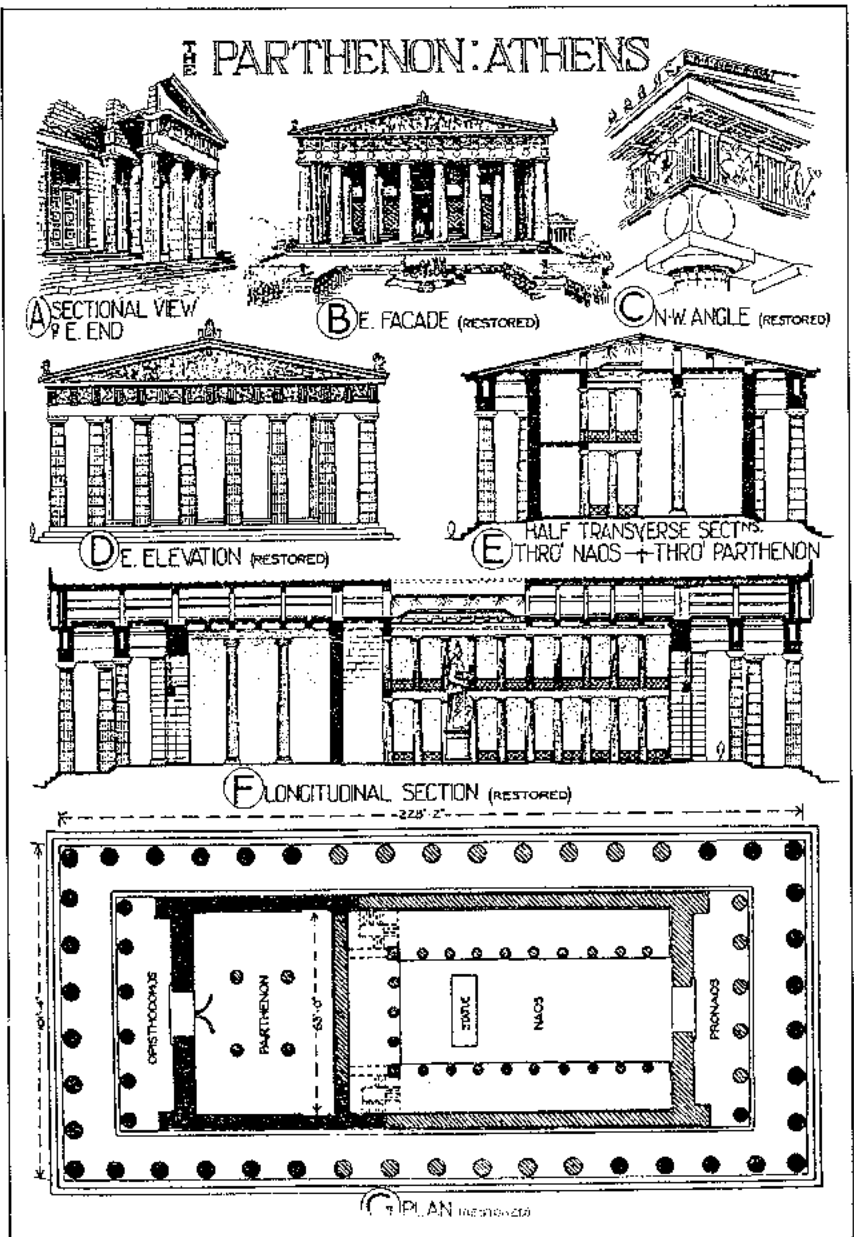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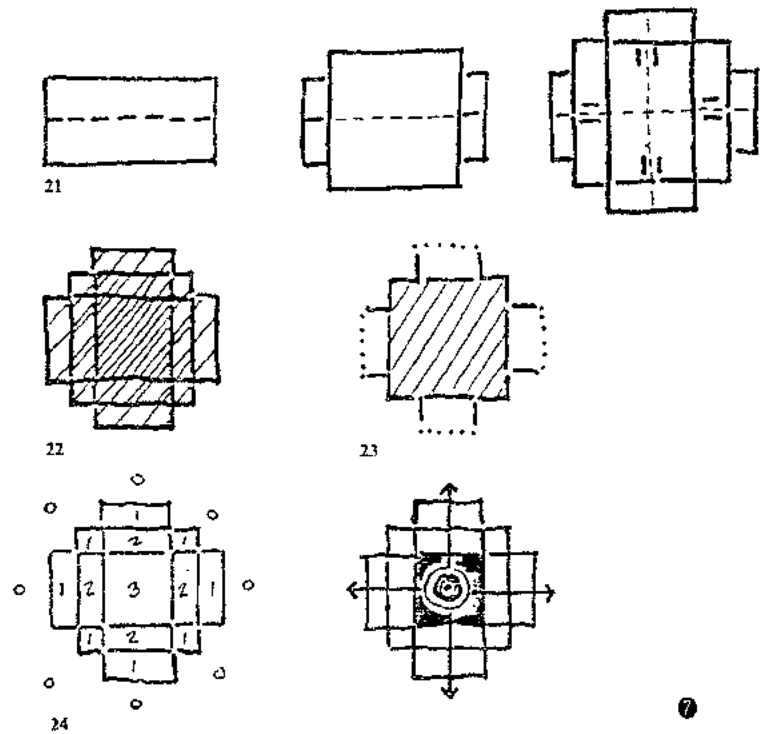
paradigm)은 패러다임을 건물 유형의 측면에서 정의하여 수세기 동안 프로그램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건축가의 무의식 속에 확고히 뿌리박혀 있는 개념으로 존재해온 빌라(villa)를 하나의 이상적인 패러나임으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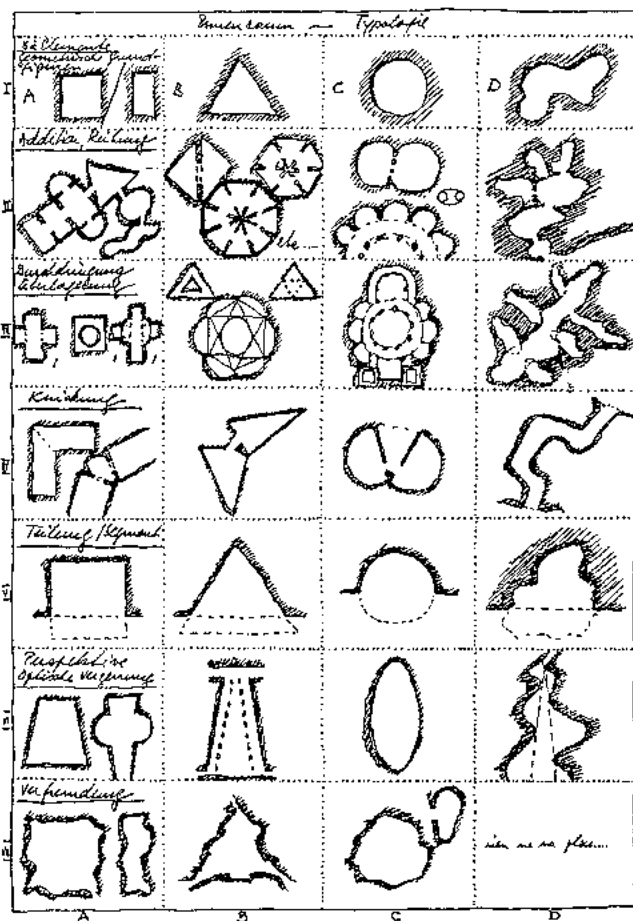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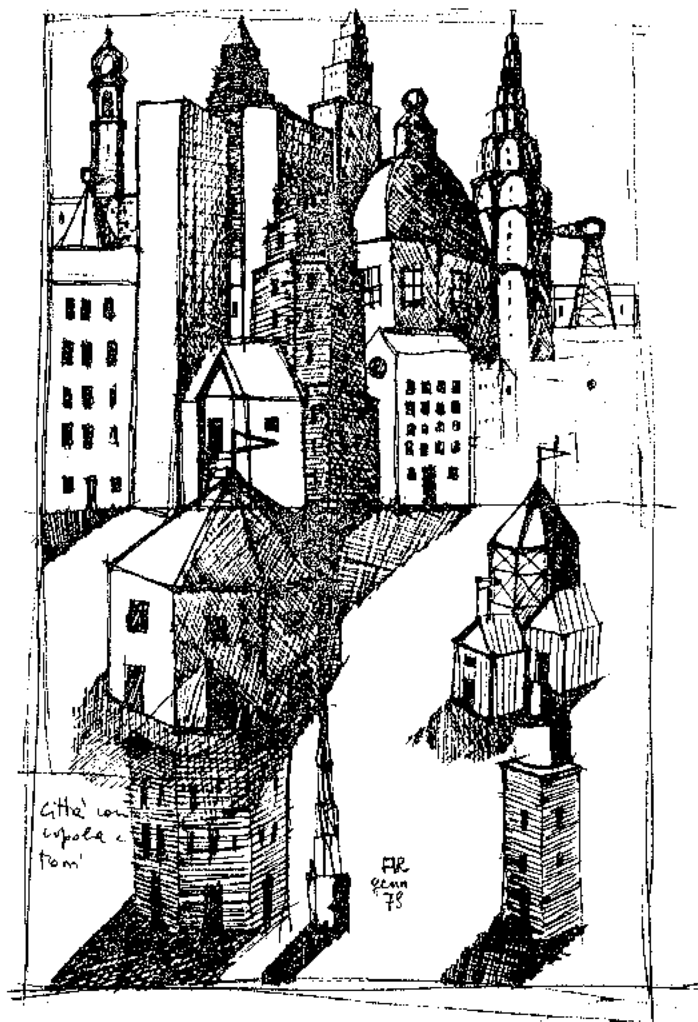
반면에 시저 펠리(cesar pelli, 1986 : Defining Paradigm)는 패러다임과 원형(archetype)의 의미를 구분짓고 있으며 패러나임을 이념의 차원에서 해석한다. 건축의 영역에서 패러다임은 하나의 패턴, 모범(model), 전형(example)을 의미하며, 건축의 패러다임적인 작품(paradigmatic works)은 전형적인 모범이 된다는 점이다. 반면, 원형(archetype)의 개념은 한 종류의 형태들이 그로부터 발전해 온 최초의 모범 형태(original model)로 정의된다. 이 점에서 파르테논(Parthenon)은 하나의 원형적인 신전(archetypal temple)으로 해석될 수 있다.

건축의 패러다임을 규명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결국 개념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양립 가능한 건축적인 문제에 해답을 제공해 준다고 보편적으로 이해되어진 것들—즉, 건물 유형(building type), 이념(idea), 이론(theory), 이미지(image) 개인(individual)의 역할—이라는 포괄적 의미의 해석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패러다임을 건물 유형의 관점에서 이해할 경우 건축의 창작과 표현을 특정의 유형, 즉 모범 형식의 모방과 변형으로 간주하는 경향에 빠지기 쉽다. 기억과 이미지로부터 유형화된 건축을 탐구해 온 알도로시(A. Rossi)와 건물의 유형학적 분류에 기초하여 접근하고 있는 레온 크리에(L. Krier) 등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유형(type)을 하나의 모범으로 보는 동일한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있으나 그 방법론적 접근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패러다임을 이론이나 텍스트(test)로 정의하는 경우, 특정 시대의 공인된 건축 이론서를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 삼게 되며, 저장 건축가의 저서나 이론을 중시하게 된다. 패러다임을 개인의 역량과 관련시켜 이해하는 경우, 한 건축가가 창조하여 공인된 어떤 건물, 개념, 이미지 등을 하나의 가치 기준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미스의 건축관을 "합의된 진실"로 받아 들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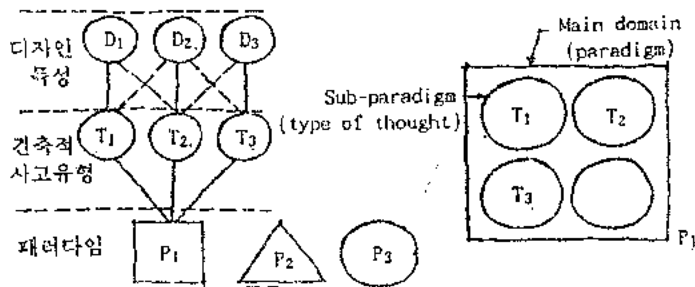
그러나 패러다임을 하나의 이론, 이미지, 텍스트, 개인 등의 영역으로 파악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개체적인 차원에 머무는 한계를 지니게 되며, 결국은 패러다임을 사고 형성의 틀로 보는 총체성을 상실하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러다임을 어느 집단 사회의 사고 과정을 고무시키거나 지시하는 개념적 사고의 틀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패러다임은 건축가 개인의 사고의 성향과 이에 따른 모형 선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식의 개념이나 디자인 원리, 요소보다 디자인 접근 방향을 지시하는데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아래의 도식은 건축 작품에서 분석되는 디자인 특성은 건축가의 건축적 사고틀의 여러 모형인 사고 유형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으며, 이 사고 유형은 패러다임에 의해 영향을 받아 건축 창조 행위의 배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여기서 몇 개의 사고 유형의 범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공통된 패러다임에 관련되어 나타난다. 이 하나의 주어진 패러다임은 홀럽(R. C. Holub, 1984)의 지적처럼 해석의 기법은 물론 해석의 대상까지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특정 패러다임에 기초한 건축적 사고 유형은 건축적 표현의 대상과 그에 대한 접근 태도, 방법 등을 한정하게 된다.

- ⑦ 안드레아 팔라디오의 「빌라 로툰다」 1550년
- ⑧ 원형으로 해석되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 (B. C 447-432년)
- ⑨ 알도 로시의 「쿠폴라와 탑이 있는 도시 이미지」 스케치
- ⑩ 레온 크리에의 「내부공간의 유형학적 분류」
- ⑪ 패러다임, 건축적 사고유형, 디자인 특성의 상관성 도식

야우스(H. R. Jauss, 1969)는 저서 「학문적 문학 · 연구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awechsel in der Literaturwissenschaft)」에서 패러다임의 재유형과 그 변화에 대한 현상을 상세히 고찰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60년대 이전까지의 문학 연구 방법론의 기초가 되어온 패러다임의 유형을 ①고전적-인본주의적 패러다임(Classical-Humanistic Paradigm) ②역사적-실증주의적 패러다임(Historicist-Positivist Paradigm) ③형식주의적-심미적 패러다임(Formalistic-Aesthetic Paradigm)으로 분류하고 그 이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수용미학적 패러다임(Rezeptionsästhetik Paradigm)을 제시한다. 야우스에 따르면, 앞의 3개의 패러다임은 연구대상의 측면에서 작품 자체의 분석에 치중한



작품내재적 연구 [①, ③]와 작품과 관련된 주변세계도 함께 관찰하는 작품 외재적 연구 [②]로 대별되며, 그 방법론의 시각에서는 크게 형식-심미적(formal-aesthetic) 자세[①, ③]와 역사-사회적 자세[②]로 대별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의 연구는 작품 내재적인 형식주의적 관찰방법과 작품외재적인 역사적 관찰방법 간에 존재하는 갭(gap)을 메워주지 못하며, 무엇보다도 역사적 인식과 심미적 인식을 위해 고유한 역할을 하는 독자(인간)를 빠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우스는 작가 또는 작품 중심적인 자세를 비판하고 독자 중심적인 작품의 이해를 강조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사고의 변화를 제안하고 있다.

〈아우스에 의한 패러다임의 분류〉

패러다임의 유형	고전적-인본주의적 패러다임	역사적-실증주의적 패러다임	형식주의적-심미적 패러다임	수용미학적 패러다임
방법론적 시각	서술미학 (형식적-심미적)	생산미학 (마르크스적-생산사적)	서술미학 (형식적-심미적)	수용미학 (독자중심적)

볼프강 이저(Wolfgang Iser, 1971)도 “작품은 독자의 독서 행위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언급함으로써 수용미학적 텍스트관과 작품관을 제시한다. 이저에 따르면 텍스트(text)는 작가가 창조해 놓은 작품을 의미할 뿐이며 작품(work)은 이것을 독자가 읽고 이해하여 재생해 낸 문학 텍스트를 의미한다. 즉, 텍스트가 “독자의 의식 속에서 재구성되어 다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수용미학적 관점을 따를 때 텍스트의 효과 구조와 독서의 경험 구조가 수용자의 심미적 경험에서 얹혀 짜여지는 가운데 심미적으로 구체화 되어지는 것과 같이 건축가가 만든 작품(텍스트)의 이해는 건축가가 아니라 수용자인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 작품 또한 수용자인 인간의 경험과정을 통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점에서 건축-인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증시하는 환경-행태 연구의 접근과 사용자 참여 디자인 방법론 및 인간의 체험 방식을 증시하는 건축가들의 건축디자인 접근은 건축 작품의 효과 구조 뿐만 아니라 인간의 경험 구조에도 관심을 보이는 수용미학적 패러다임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Ⅲ. 패러다임과 건축적 사고의 관계

「패러다임은 우리의 디자인 사고와 행위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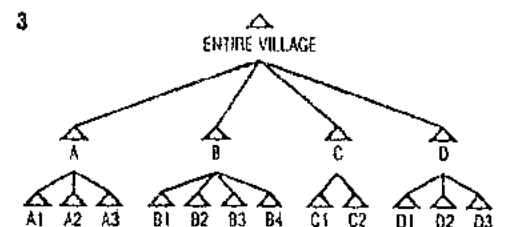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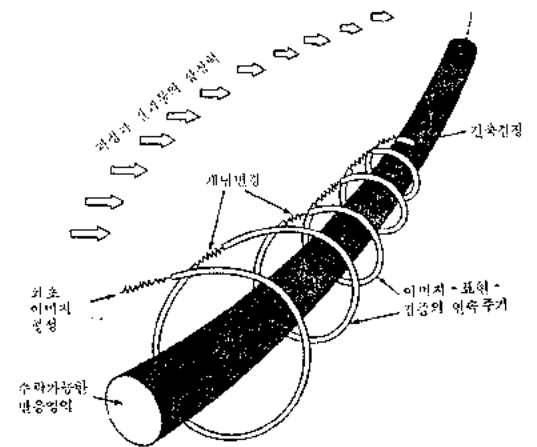
건축적 사고의 재유형을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논의하기 이전에, 여러 문헌들에서 언급되어온 건축 디자인 행위와 건축가의 사고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기존의 문헌들은 대별하면 건축적 사고의 특성을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절차적 측면에서 접근한 문헌들은 디자인 행위를 창작과 관련된 탐구행위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그 탐구의 근간이 되는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디자인 사고와 방법론을 체계화 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행위의 결과물인 작품보다는 디자인 행위사 처리되는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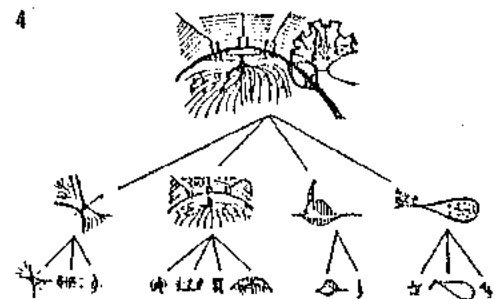
정보처리의 논리적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을 중시하게 된다.

반면, 내용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문헌들은, 건축가는 자신의 사고를 디자인 작품 형식, 드로잉, 스케치 등의 형태를 통해 디자인 행위와 사고 과정을 통합적으로 구체화 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디자인에 관련된 사고 과정이나 착상의 기본적 중심 개념들과 디자인 의도를 분석함으로써 건축적 사고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연구 문헌들(G. Broadbent : 1974, A. Snyder : 1978, B. Lawson : 1980, Hiller, B. Musgrove, J. and O'Sullivan : 1972, P. G. Rowe : 1987)은 예술가를 비롯한 건축가의 창작과정은 정보의 논리적 처리보다는 유추적인 발상과 先개념(Preconception)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으며, 따라서 후자의 접근 방법이 건축 작품과 관련된 건축적 사고의 특성을 아는데 보다 유익함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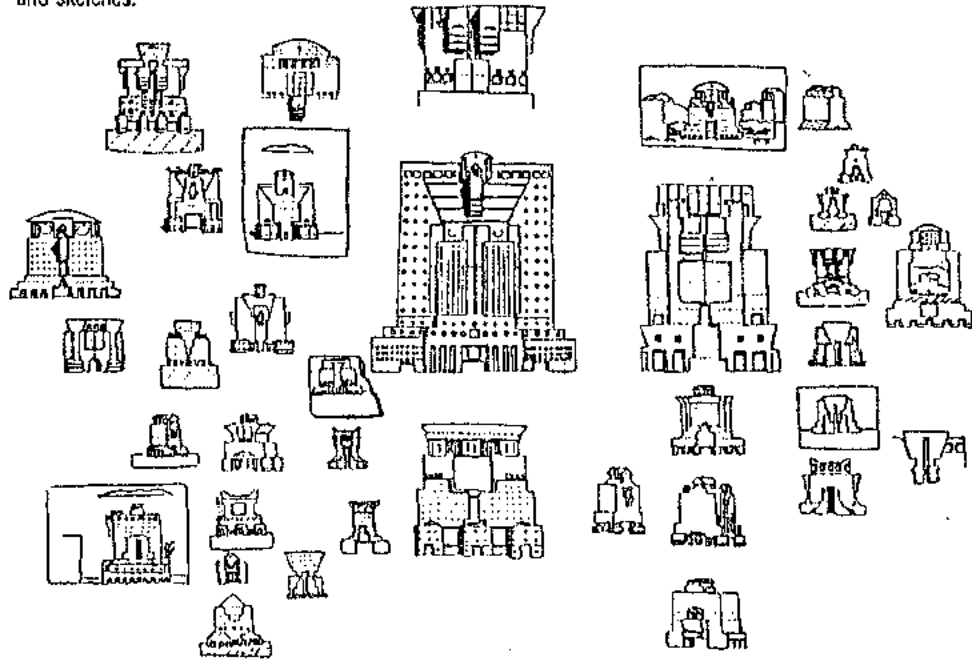
A1 contains requirements 7, 53, 57, 59, 60, 72, 125, 126, 128.
A2 contains requirements 31, 34, 36, 52, 54, 80, 94, 106, 136.
A3 contains requirements 37, 38, 58, 55, 77, 91, 103.
B1 contains requirements 39, 40, 41, 44, 51, 118, 127, 131, 138.
B2 contains requirements 30, 35, 46, 47, 61, 97, 98.



- ② 나선형의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 ③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형태의 합에 관한 고찰」 논리적 프로세스의 개념적 도식

27
Excerpts from Alexander's procedure in *Notes on the Synthesis of Form*.

The Portland Public Services Building in Portland, Oregon, by Michael Graves (1979-1982): model and sketches.



로우는 저서 「디자인 사고행위(Design Thinking)」에서 디자인 사고행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3가지 접근 방식 즉,
 ①디자인 문제라는 직접적인 상황(context)에서 얻어지는 정보에 의거하여 접근하는 방식,
 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로 건축가의 심장속에 떠오르는 어느 특정 형태(pre-form) 즉, 유형(type)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③이 두개의 개념이 상충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채택되는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건축가의 디자인 문제해결 행위의 특성을 건축에 대한 전제와 욕구에 의존하는 건축가의 타입과 이와는 달리 주어진 디자인 문제에서 발견된 제약 조건에 체계적으로 대처해 얻어지는 정보에 의지하는 건축가의 타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타입의 사고 특성은 탐구에 대한 두 가지 영역과 관련된 건축적 해석의 입장과 관련되어 나타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사실주의적 해석(naturalistic interpretation)의 입장을 지니는 건축가는 건축을 인간과 세계의 가설화된 사회와의 관계에서 고찰하여 건축의 외적 영역과 관련시켜 해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외적인 정보는 디자인의 합리적 사고의 중요한 바탕이 된다. 이와는 달리 추론적 해석(referential interpretation)의 입장을 지니는 건축가는 건축을 건축 자체와 그 구성요소들과의 관계로 파악하여 자율적인 영역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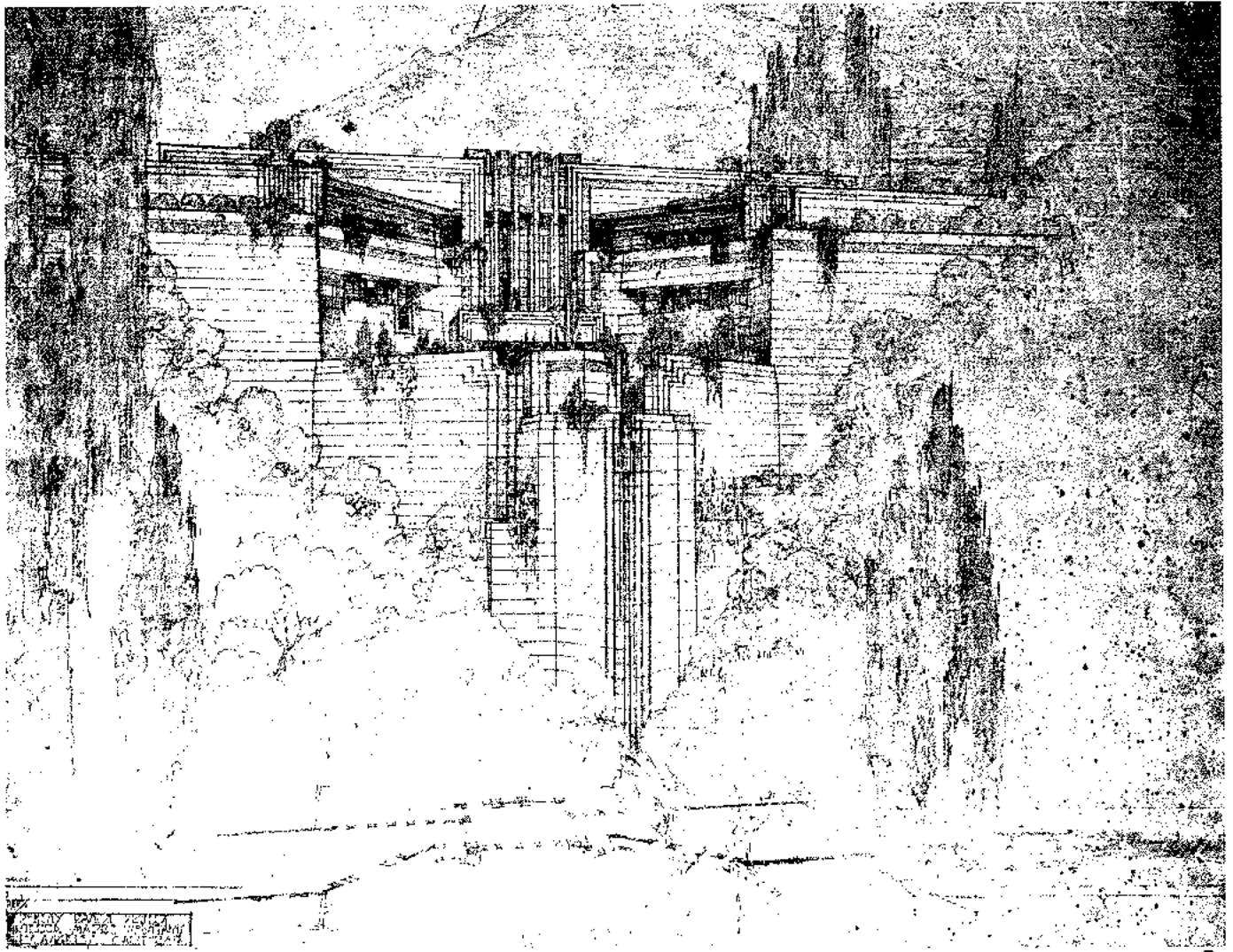
브로드벤트(G. Broadbent, 1973)는 「건축 디자인 방법론(Design in Architecture)」에서 건축가들은 3차원 형태를 도출하기 위해서 실용적 디자인(pragmatic design), 인습적 디자인(iconic design), 유추적 디자인(analogic design), 규범적 디자인(canonic design) 등의 4가지 유형의 디자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직관적 유추는 창조성의 중심 메카니즘으로 작용한다. 창조적인 건축가는 인습적 디자인을 기피하고 유추적 디자인의 경향을 보이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건축가는 규범적 디자인이나 통상 실용적 디자인의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콜린스(P. Collins, 1978)는 「근대 건축의 이념의 변화(Changing Ideals in Modern Architecture)」에서 건축가는 형태들을 직관적으로 생각하며 그 이후에 이 형태들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변증법적 사고과정은 그의 건축 철학에 의해 지배 받는다. 그에 따르면, 건축가는 과학자처럼 합리화 과정에 의하거나 또는 시대정신(Zeitgeist)의 작용을 통해서 최종적인 형태 창조에 도달하지 않으며, 음악가나 화가처럼 금지되지 않은 직관에 의해서 형태 창조에 이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왜 다른 형태보다 어느 하나의 특정 형태, 재료, 시스템이 선택되는가 하는 문제는 철학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규명될 수 있는 과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는 근대 건축의 외관에서의 변화 현상(Henry-Russel Hitchcock)과 근대 건축의 정신적 근원에 대한 분석(S. Giedion)의 입장과는 달리, 어떠한 형태가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념(idea of what forms may appropriately be selected)의 분석을 중시하고 있으며, 현상을 작품 자체의 역사보다는 건축에 대한 이념(혹 사고틀)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다. 램프그나니는 「드로잉에 나타난 20세기의 건축」에서 건축가의 드로잉 작품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건축가의 사고 특성의 다양성을

④ 마이클 그레이브스의 「포틀랜드 공공건물 계획안」 스케치 (1976-82)

- ① 모델로서의 자연의 신비
- ② 주관적 표현의 분출



- ③ 이성의 미학
- ④ 기술의 환상
- ⑤ 전통의 분위기

⑥ 새로운 자율성의 추구 등과 같은 중심적 개념으로 유형화하여 분류한 후 이것에 기초하여 건축가의 작품에 나타난 표현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이상의 문헌들은 인간의 사고 패턴에 대한 이해로부터 건축적 사고의 특성을 여러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다양한 용어로 기술하고 있으며, 건축가의 디자인 행위와 관련된 어떤 공통된 사고의 틀이 존재함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건축가의 사고의 틀은 그들이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 해석의 방식은 패러다임과 관련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의 본질과 명제는 무엇이다”라는 건축가의 정의와 그의 디자인 접근대도에는 그의 건축적 사고의 모형이 되는 패러다임의 한 측면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건축의 본질에 대한 정의와 해석의 여러 입장들을 검토 할 때 더욱 명백하게 설명된다. 많은 이론가들(B. Zevi : 1957, S. Giedion : 1967, Van de Ven : 1980)은 건축의 본질적 표현의 주제와 대상이 공간과 일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건축가의 창조행위와 표현의 문제를 공간개념의 형성과 구성 개념들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건축의 중심적 개념을 공간으로 보는 이들의 입장은 건축을 정신적인

객관화의 총체성으로 보는 정신사적인 접근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반 드 벤(Van de Ven, 1980)은 근대건축의 중심적 개념인 공간개념은 작품속에 구현 되어진 정신, 이념, 또는 형이상학적인 것의 형상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것은 헤겔이 언급한 “진리의 현현(顯現)”으로서의 속성을 띠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스 반 데어로에가 “건축은 시대정신이 공간으로 변환된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시각을 잘 보여주는 경우이다.

이와는 달리 건축표현의 궁극적인 목표를 형식(형태)과 표현의 창조에 있다고 보는 입장들은 그것이 지니는 미적인 특질을 중시한다. 따라서 이 심미적 특질과 관련된 규범적 원리와 이것을 통해 전달되는 표현적 의미를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공간 자체보다 형식미를 중시하는 이러한 관점은 르 꼬르뷔제, 필립 존슨, 알도 로시 등과 같은 건축적 특성에서도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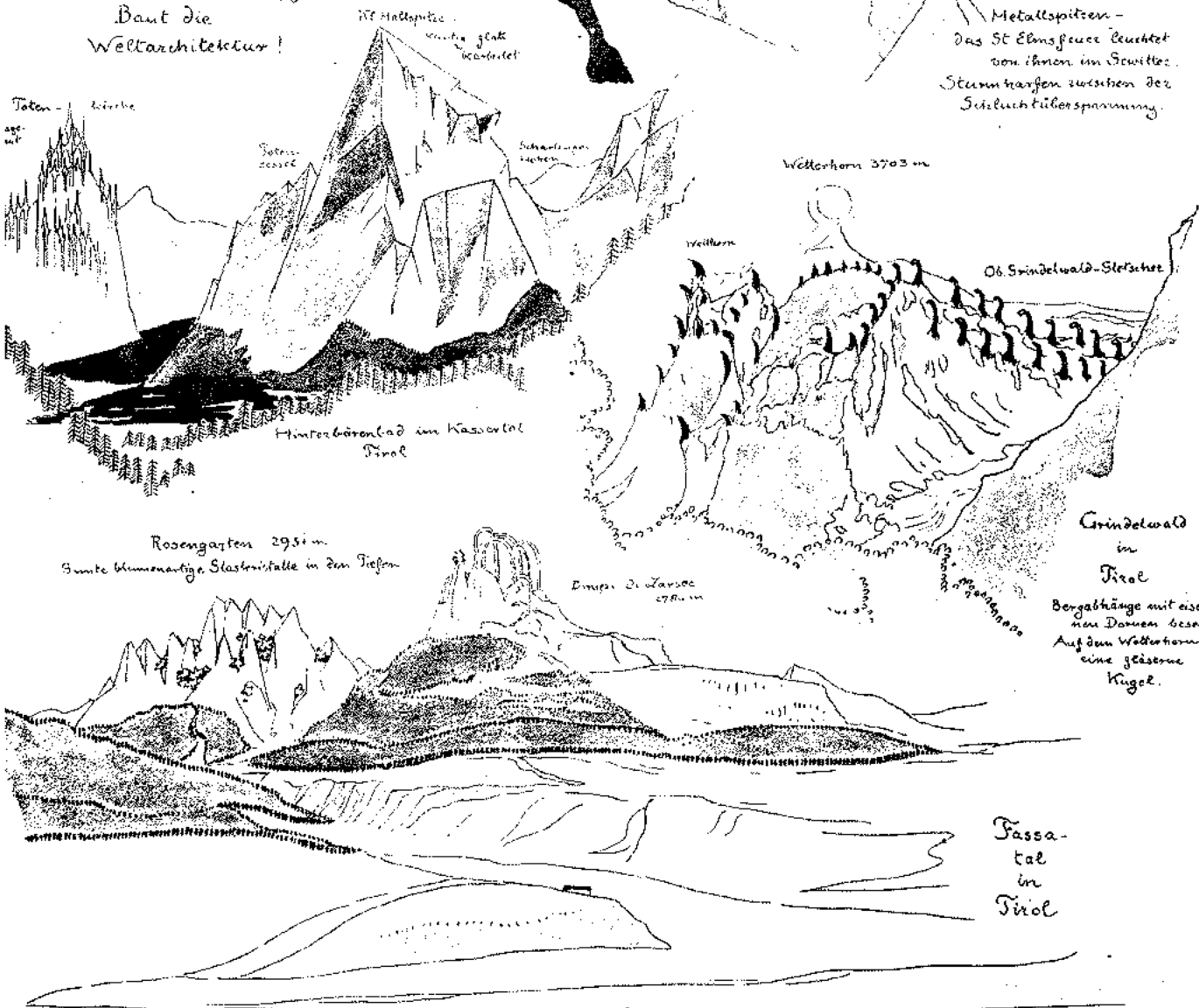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는 또한 건축의 표현문제를 편념적 공간이나 미적 형식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이원론적인 분류개념을 넘어서, 인간의 다양한 현실적 요구와 삶을 수용하는 기능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구성개념들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입장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루이스 설리만)”, “형태와 기능은 하나이다(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건축은 기능 × 경제성의 산물이다(한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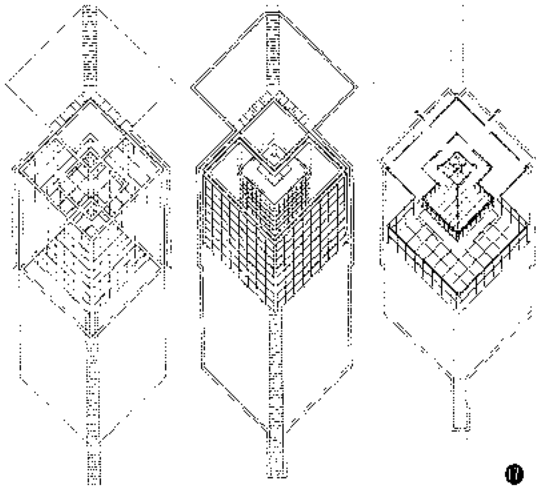
⑬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주택 계획안」 스케치 (1906)

최근에는 건조 환경과 그에 반응하는 인간-행태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이해하여 건축을 “행태로서의 건축”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디자인 개념들을 제시하는 입장이 주목되고 있으며,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수용미학적 패러다임이라는 새로운 사고의 특성을 보여준다. 건축과 인간의 심리학적 현상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들은 쉼마(schema), 이미지, 心像, 기억, 認知, 行態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에 기초하여 디자인 사고의 확장을 시도한다. 이러한 의미가 내포된 디자인 개념이나 원리들은 로버트 뱀츨리, 찰스 무어 등과 같은

Fassa-
tal
in
Tirolo





건축가들의 작품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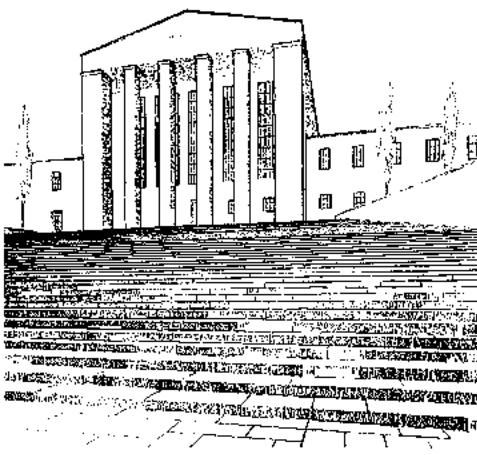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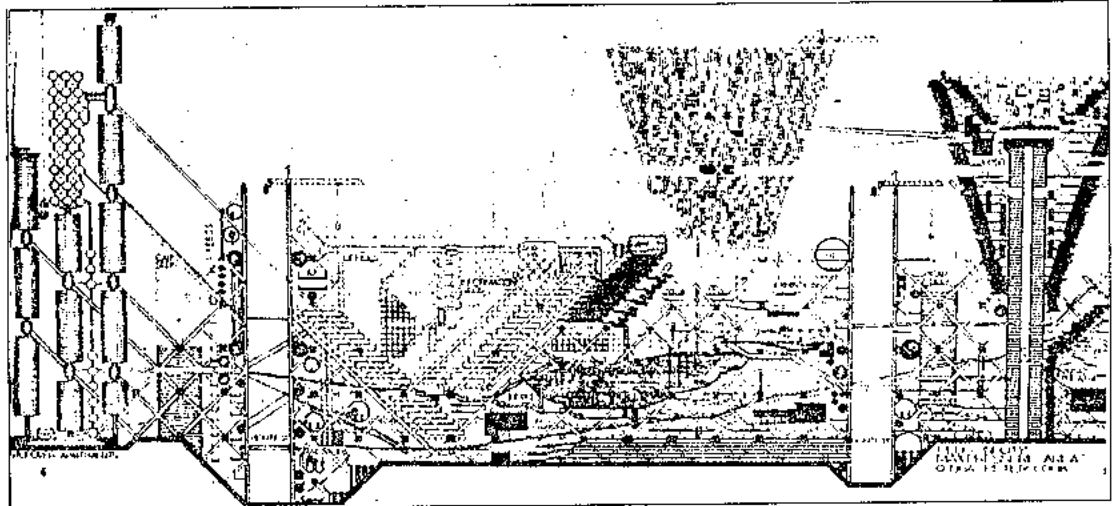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건축의 본질적 표현의 주제와 대상을 공간과 그 형식의 구현, 형식(형태)과 표면의 창조, 기능의 개념과 그 구성개념들의 체계화, 새로운 구조 개념과 기술적 기능성의 표현, 쉼, 이미지, 심상, 기억, 인지, 행태 등의 개념에 기초한 “행태로서의 건축” 등으로 상이하게 정의하고 접근하는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입장들은 특정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사고의 동일한

모형에 의해서 해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접근태도, 방법 등의 상이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건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체화 되어야 하는가?”하는 물음은 건축가가 건축을 해석하고 이에 접근하는 태도 및 방법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되는 분석의 체계, 용어 등의 개념이 다르게 설정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의 선택된 패러다임이 해석의 기법은 물론 해석의 대상까지도 만들어 낸다는 점과 건축적 사고의 다양성은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IV. 건축적 사고유형의 분류

「건축적 사고유형은 어떻게 체계화 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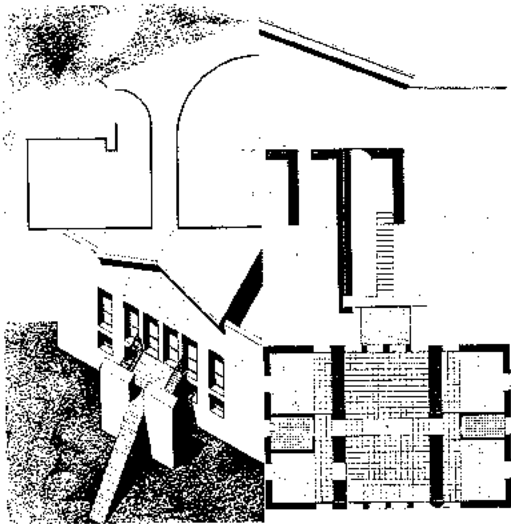
패러다임은 집단적 차원에서 공통된 ‘의견일치’라는 의미를 지니며, 그 집단 구성원의 사고성향과 건축운동의 특성을 지시한다는 사실을 앞절에서 살펴 보았다. 그라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건축가 자신의 사고의 성향과 이에 따른 모형 선택에 영향을 주어 건축적 표현문제에 관여됨을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건축론에서 다루어져 온 양식의 개념이나 원리가 건축가의 디자인 작품특성과 성향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유용하지만, 쿤이 언급한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 ① 피터 아이젠만의 「주택 계획안」 개념도(1968-70)
- ② 아키텍트의 「플러그-인 시티」 계획안
- ③ 헤인리히 테세노우의 「계획안」 스케치(1910)

건축가의 사고와 건축작품의 디자인 특성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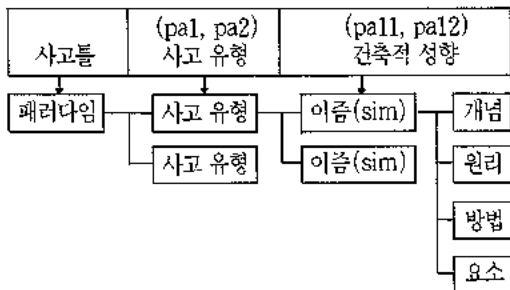
그러나 건축가의 사고와 표현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주제를 표현하는데서 나타나는 여러 건축가들의 다양한 사고의 틀을 총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적 사고와 개념은 건축가로 하여금 어떤 특정의 형태표현의 성향을 나타내게 하는 속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사고유형은 건축가가 공간구성과 형태의 표현을 위해 개념적 틀로써 의지하는 표현모델의 성격을 띠는 건축적 사고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고 틀의 공유는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거나 새로운 건축운동을 제시하는 집단으로 정착하며 당대의 건축적 패러다임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철학적 사조와 관련되어 전개 되어온 특정시대(1750~1950년)의 건축사조를 낭만주의, 복고주의, 합리주의로 분류하고



20 브루노 라이클렌의 자율적 형태 구성 개념(1975)

고전적-인본주의적 패러다임의 범주에는 문화 산물로서의 건축의 개념과 고전적 규범원리의 재생을 중시하는 유형학적 사고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역사적-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의 범주에는 건축의 외적 상황과 내재적 본질로부터의 출발을 중시하는 기능적 사고유형과 구조-재료 지향적 사고유형으로 분류된다. 형식주의적-심미적 패러다임의 범주에는 대상 자체의 자율적 형식구조와 표현성을 중시하는 기하학적 사고유형과 심상적 사고유형으로 설정 가능하며, 수용미학적 패러다임의 범주에는 인간-건축 환경 상호간의 관계성과 인간의 체험 구조를 중시하는 인지-행태 지향적 사고유형을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기존의 문헌에서 -ism(경향)으로 서술되어 온 건축운동과 디자인 개념, 원리, 방법론적인 특성들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특성을 파악한 콜린스(P. Collins)의 분석은 건축적 사고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건축운동이 전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유사한 학파, 건축운동, 이즘 등으로 계보화 되는 건축가 집단들은 서로 공통된 사고의 틀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러 건축사가들이 명명한 건축운동이나 이즘들은 건축적 사고의 다양성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건축적 개념이나 원리, 방법, 법칙, 의도 등은 이러한 건축적 사고유형에 따라 지향되는 속성들로 표현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도구로 작용한다. 이들 개념과 용어를 위계화 하고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 될 수 있다.



이러한 도식화 과정은 패러다임과 관련된 건축적 사고의 구체적 모습과 그에 따른 디자인 접근 방법상의 다양한 차이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익하다. 여기서는 건축가의 다양한 사고틀을 체계화하기 위해 야우스가 제안한 패러다임의 도식적 범주에 기초하여 6가지의 사고 유형을 제시하였다.

〈패러다임의 建築的 思考類型의 分類〉

패러다임	사고유형	이즘(ism)	개념(concept) 원리(principle) 법칙(rule) 방법(method, means)
고전적- 인본주의적 패러다임(pa)	유형학적 사고유형(pa ₁)	역사주의(pa ₁₁) 절충주의(pa ₁₂) 복고주의(pa ₁₃) 토착주의(pa ₁₄) 고전주의(pa ₁₅)	규범적용 양식 비례법칙 고전언어, 구문법적 구성 장식, 의미, 상징
역사적- 실증주의적 패러다임(pb)	기능적 사고유형(pb ₁) 구조-재료 지향적 사고유형(pb ₂)	기능주의(pb ₁₁) 유기주의(pb ₁₂) 풍토, 지역주의 (pb ₁₃) 기술주의(pb ₂₁)	기능분석, 합목적성 부분과 전체의 관계성 지역적 맥락, 실용성, 토착재료, 기술
형식주의적- 심미적 패러다임(pc)	기하학적 사고유형(pc ₁) 심상적 사고유형(pc ₂)	조형주의(pc ₁₁) 구성주의(pc ₁₂) 표현주의(pc ₂₁) 환상주의(pc ₂₂)	기하형태, 형식미 감정적 충동
수용미학적 패러다임(pd)	인지-행태 지향적 사고유형(pd ₁)	탈기능주의(pd ₁₁)	의미, 상징, 행태적 체험

다음 호에서는 건축가의 사고유형별로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건축적 사고의 의도, 대지 해석의 입장, 역사참조 및 맥락의 수용태도, 평면형식 및 공간구성체계, 형태 및 외관 표현 등에서의 다양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서술해 보겠다.

참고문헌

- Collins, Peter(1965, 1978), Changing Ideals in Modern Architecture : 1750 - 1950, Montreal : McGraw - Queen's Univ. Press
- Kuhn, Thomas S.(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과학혁명의 구조)」 조성(역), 서울 :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1989
- Lampughani : Vittorio Maghago(1982), Architecture of the 20th century in Drawing, New York : Rizzoli
- Parkins John, Rosenblatt Paul, Sage Jennifer (eds.) (1986), Perspecta 22 : The Journal of the Yale School of Architecture :

- Paradigm of Architecture, New York : Rizzoli
- Raman, P. G. (1974),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Design", (ed.) Basil Honikman, Cognition and Perception, New York : Environmental Design
- Rowe Peter G. (1987), Design Thinking,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 Schirmbeck (1987), Idea, Form and Architecture : Design Principle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Trans.) Cowan, Henry J.,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병원건축개론

A Survey of Hospital Architecture

REPORT

鄭賢和 / (주)원도시건축 · 공학박사
by Cheong, Hyun - Wha

금회에는 우리들이 병원건축의 계획 및 설계를 담당할 때 알아두어야만 하는 병원의 전체구성계획의 기본적인 지식을 병원관리와 지역의료, 부문구성, 설비 등으로 나누어 개략적으로 설명해 본다.

1. 병원관리의 의의와 병원계획

병원에 있어서 의료의 움직임이란 최소한도 의사 한사람과 환자 한사람이 존재하면 성립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료의 원형은 「1인의료」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양적 · 질적으로 확대되어 업무를 분담하여 행하고 있는 것이 현대 병원의료의 모습이다. 거기에는 전문의료업무를 분담하는 여러가지 직종이 있어, 각각 서로 다른 장소에 흩어져서 전문적 진료 · 간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우선 어떤 기능이 거기에 존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건물의 내부구조가 정해지지 않으며, 그 부서의 인원 및 설치되어지는 기계 · 기구가 정해지지 않으면 장소의 크기를 정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것들의 흐름이나 부문상호간의 관계 및 업무의 흐름이 정해지지 않으면 병원내부의 Layout도 정해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들은 그 「효율성」에 바탕을 두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건축」은 「병원관리」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되며 병원건축계획을 논하기 전에 병원관리에 대한 원론적 해명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의학의 지식없이 는 의료의 흐름은 파악될 수 없으며 간호학의 지식 및 약학의 지식없이 는 각각의 간호의 흐름, 약제의 흐름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의료관리, 간호관리, 약제관리라는 것은 그것들이 단지 의학, 간호학, 약학이라는 영역의 지식과는 전혀 다른

병원이라는 용기 속에서 행해지는 「관리의 지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관리」를 전혀 무시해도 의료의 실천은 성립할 수 있다. 「거기에 환자가 있기 때문에 진료한다」라든지 「간호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의료 및 간호는 성립하므로 관리하는 것이 별로 중요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2차세계대전종료 후, 그때까지 일본의 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의료관리는 거의 공백의 상태에 있었다. 6 · 25동란이 끝난 후인 1950년 후반에 미국의 의료제도 및 의학교육이 도입되면서 병원관리학에 기초를 둔 병원의 합리적 · 과학적인 운영방법이 소개되었고 이러한 요구들을 병원계획 및 설계에 적극 반영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진료 및 서비스수준과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종래, 병동 및 진료과별로 분산되어 있던 급식, 세탁, 소독, 멸균, 혹은 방사선진단, 검사, 병력보관의 기능을 「중앙화」시킴에 따라 병원의 형태가 현대화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또한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는 과학광학기술과 의학의 접목으로 인해 진료간호기술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보공학기술이 병원의료에 기여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한편 병원이 말을 역할도 전세계적으로 진료라는 차원에서 탈피하여 크게 민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병원건축계획은 사전에 그 관리운영방식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점을 병원의 클라이언트측도 설계자측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경우나 상호간의 Communication이 부족한 경우 및 설계기간이 짧아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완성된 병원이 불만족한 결과로 되어버리고말 때가 많이

- ① 자동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본 병원관리체통도
- ② 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있다.

병원관리라는 분야의 변화가 건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예를 든다면 앞서도 언급한 「中央化」일 것이다. 평균업무의 중앙화가 최초로 행하여졌다. 이전까지 각 병동 및 외래각실, 수술실 등에서 분산적으로 행하여지던 평균업무를 한곳에 집중시켜 처리하게 되면서 생긴 것이 「중앙평균실」이었다. 이것은 업무의 중앙화에 따른 효율의 향상뿐만 아니라 대량처리에 의해 가능하게 된 설비의 대규모화에 따른 효율향상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필요성에 의해 중앙검사실, 중앙수술실, 중앙방사선실 등 집중화 하는 것이 유리한 기능을 중앙화하게 되었으며, 건축계획의 Layout, 동선처리, 규모계획 등이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외래진료부의 「진료시간 예약제」, 「진료실의 공동이용제」 등과 같은, 운영방식의 변화도 병원규모계획 및 설수 등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게되어 병원계획시에 콜라이언트 및 전문직종의 종사자, 병원관리자 등과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2. 지역의료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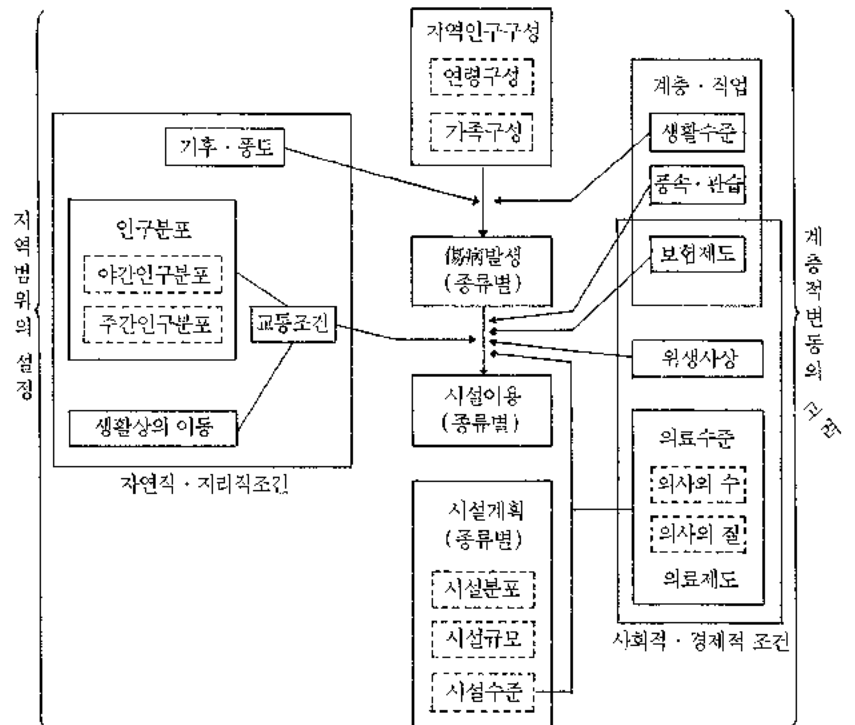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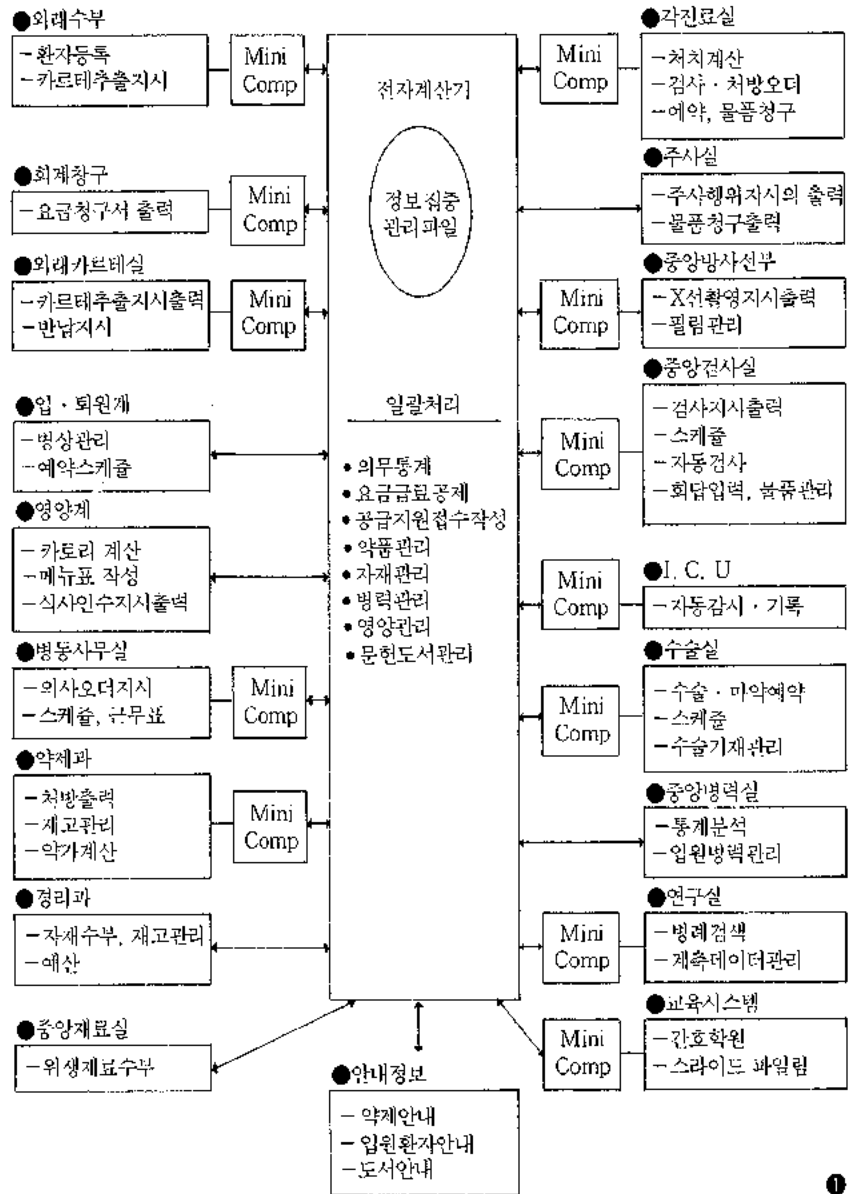
병원은 금후, 병의진료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 질병예방 · 리해빌리테이션, MSW(의료사회사업) 등을 포함한 포괄의료의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움직임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계획대상 병원은 지역의료보건의료시설이라는 일련의 시설체계 중에서의 그 역할을 분명히 부여받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병원이 위치하는 지역의 인구변동추계, 의료수요, 진료권, 지역의료시설간의 Network 등을 정확히 설정하여 그 시설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서 입지의 선정, 입원기간과 Bed회전율에 의한 규모계획 및 의료수준의 설정, 부문의 면적구성, 외래환자수와 규모 등을 설정하여야만 한다.

일례로 병상수 산정만의 예를 보면 일반적으로 $Bed수(B) = \text{신입원환자}(N) \times \text{평균입원기간}(L) \div \text{평균병상이용율}(U)$ 로 병상수를 계산하는 방법이었다.

일본의 어떤 통계치를 참고하면 $B = \text{인구}10\text{만명에 } 687\text{명}$, $N = \text{인구}1\text{천명에 } 32\text{명}$, $L = 62\text{일}$, $U = 81\%$ 로 되어있다.

국가나 그 시설의 조건에 따라 입원기간이 크게 차이가 나며 -미국의 경우는 일본의 1/2정도가 나겠지만 입원기간의 설정은 병원계획상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 1) 입원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환자의 진료보다 요양생활면의 비중을 높게 고려한 건축계획이 필요하게 되며,
- 2) 입원기간이 긴 환자가 많으면, 병상을 장기간 점유하게 되어 전체로 보아 Bed회전율이 나쁘게 되며,
- 3) 입원기간을 어떤방법으로든지 짧게했을 때에는 그만큼 진료부분의 비중을 높게해야 하는 등의



상관관계가 있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여 보험제도가 정착되었을 때나 고령화사회가 되어 만성적 장기환자가 증가할 때에는 입원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경향이 있게 된다. 따라서 병상회전율이 낮아지게 됨으로 그에 따른 병상수의 증설등 규모변동에 대응해야만 한다. 지역의료수요의 변화는 병원의 규모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먼저 지역적 의료수요에 대해서 정량적인 파악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병원은 문제점은 하나의 의료시설이라는 레벨에서라기보다는 지역적 장기보건의료계획의 차원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의료시설이라는 스펙트럼 속에 정확한 단위시설로써 위상이 정확히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계획의 프로세스와 기본방침

일반적으로 병원계획은 1) 수요계획, 2) 지역계획, 3) 건축계획, 4) 운영계획으로 구성되며, 건축계획은 1) 기획 2) 기본설계 3) 실시설계 4) 건설공사 5) 개원준비 6) 평가환원으로 나눈다. 보통 기획, 계획단계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지기 때문에 기획단계에 통상적으로 조사되어야만 하는 항목은

- 1) 필요병상수, 시설목적의 설정
- 2) 입지조건 : 소음도와 Bed당 대지면적 등으로,

독일의 기준을 보면 소음도는 일반병상은

40 DIN-phon이하, 신생아병상은

30 DIN-phon이하이며, 대지면적은 부급상 일반Bed당 75m²이상으로 되어 있다.

- 3) 필요직원수의 결정
- 4) 요구 프로그램의 작성
- 5) 설계화-소요실 프로그램
- 6) 운영, 관리방식의 계획-기구·조직의 프로그램, 기능 프로그램 등으로 나눌수 있다.

중소병원(200~300병상)의 경우에 보통 기획 및 기본설계에 1년, 실시설계에 4개월정도로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또한 설립운영단체의 성격에 따라 계획 및 설계의 방침이 다를 수 있으나, 기획단계의 초기부터 병원 각부문의 대표들로 조직된 마스터 플랜위원회가 설계자와 빈번한 토의와 검토를 행하여 관리운영과 설계의 기본방침을 설정하여야 한다. 현행의 의료체계 중에서 200Bed정도의 중·소 규모의 병원이 광범위한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재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운영방식을 기초로한 계획의 기본방침을 반드시 설정해 둘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항목별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세부사항을 검토해 나가야 된다.

일례를 들면,

a) 한정된 간호력을 최대한도로 살려 효율과 질이 높은 환자서비스를 위해서는 어떠한 간호방식과 병동구성을 하여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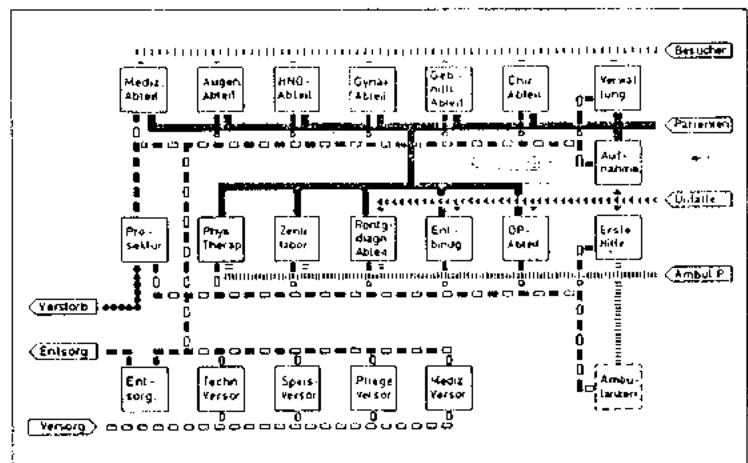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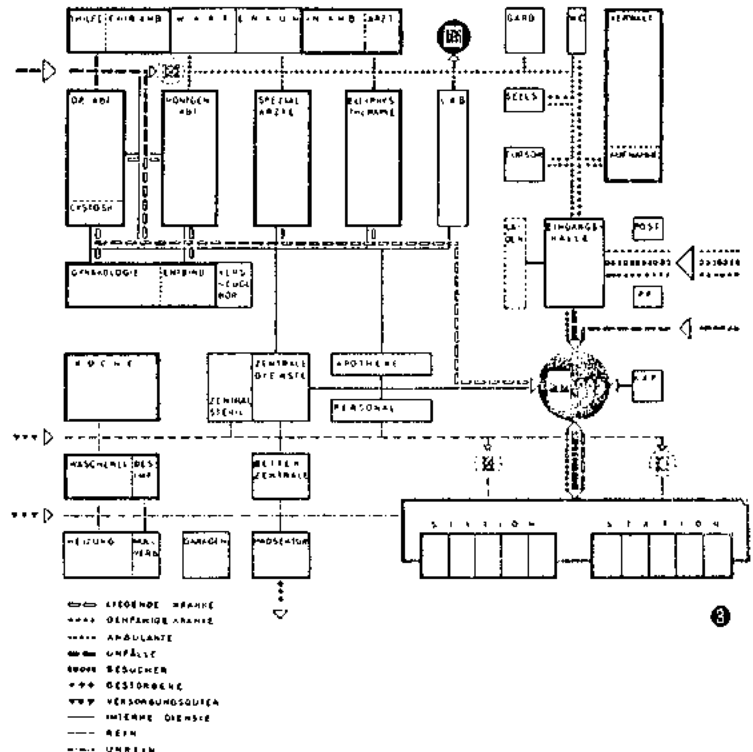
b) 효율이 높은 관리·운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에 관련된 물품관리·정보처리방식으로 어떤 시스템을 택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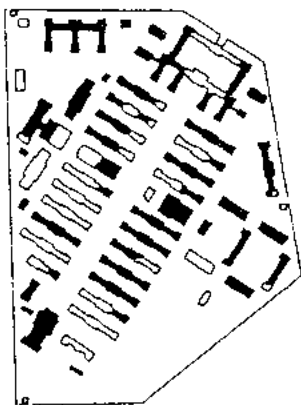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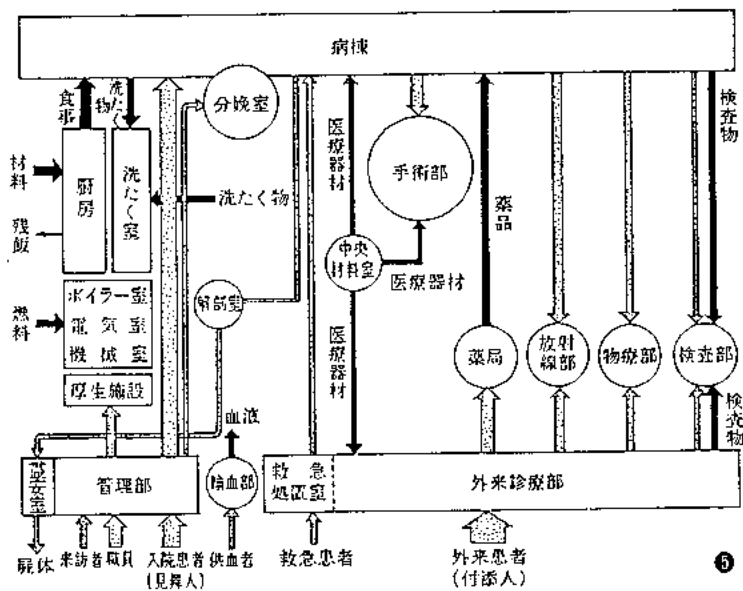
- ③ 독일의 병원 기능도 (Dr. H. W. Meyer)의 도식
- ④ F. Labryga의 도식
- ⑤ 일본병원의 부문구성 도식
- ⑥ 시설배치의 변천 (Rudolf - Virchow - Krankenhaus in Berlin)

c) 외래서비스의 향상과 면적의 유효이용을 위해서는 환자의 흐름과 관련업무의 체계 표준전달 및 공용처리실의 설치의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대목표를 설정하고 다시 구체적인 소항목의 목표를 구분 설정한다.

4. 병원의 전체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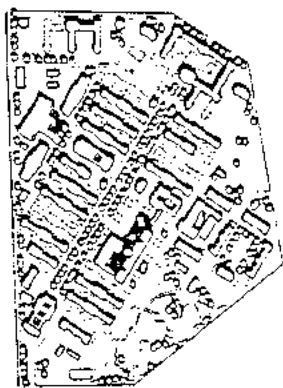
병원은, 병동부처럼 거주시설적 공간, 외래진료부와 같이 공공시설적 공간, 수술부와 같이 생산시설적 공간의 복합체라고 말해진다. 환자·직원·방문객 등 이용자도 다양하고, 작업내용이 서로 다른 다수의 실들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체로 병동부, 외래진료부, 진료부분, 공급부분, 관리부의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각의





Leipzig Hospital in 1948

1. Zustand 1948.
Die geometrischen Flächen zeigen
unveränderte (unveränderte) und
sehr stark veränderte Bereic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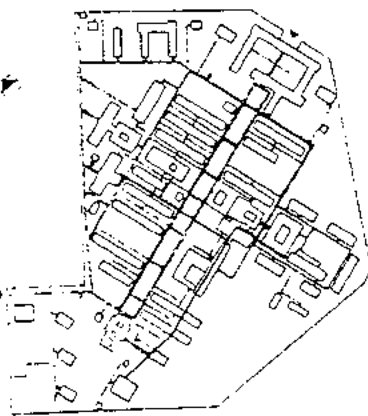


2. Zustand 1961.
Das Bettenhaus
für die chirurgischen Abteilungen
ist fertiggestellt



3. Zustand 1964.
Neubau innerhalb der Zielplanung

- A Bettenhaus Chirurgie
- B i. Hilfe
- C Wachstation
- D Bettenhaus Strahlen-Abteilung
- E Bettenhaus Chroniker-Abteilung
- F Schwesternheim
- G Bettenhaus Innere Medizin



4. Innere Verbindungswege.
Gerasterte Flächen zeigen
den Oberflächenverkehr, schwarze
Linien die Tunnelverbindungen

부분별로 나누어 각실의 계획을 생각하는 방법이 알기 쉽다.

의료수요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항상 증개축의 필요성이 요구됨으로, 건물의 수평, 수직의 배치, 구성, 치수, 구조, 설비, 마감 등에 대해 이러한 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부분의 관련을 충분히 분석하여 대지조건과 전체의 주Axis에 따라 장래의 증개축에 대비한 상가마스터플랜에 의해 대지의 조성, 이용계획, 건물의 형상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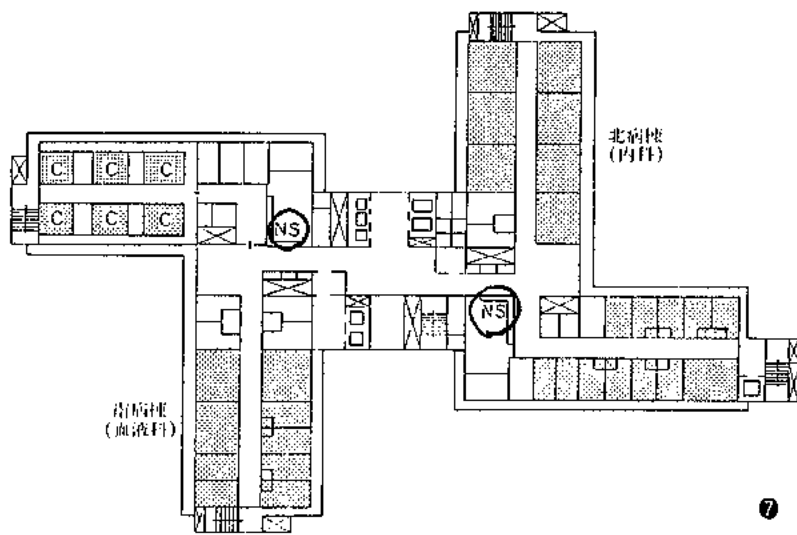
5. 입원간호업무의 계획

입원간호는 병원의 기본기능이다. 근대 병원계획의 확립된 최초부터 근대병동계획은 간호사가 담당하는 병상수(간호단위)의 설정을 가장 중요시하여 왔다. 전문간호사가 적었던 19세기의 영국에서는 병동내의 전업무를 간호부장이 파악가능하도록 30Bed를 간호단위의 기본으로 하였다. 간호업무가 복잡화된 오늘날에는, 그 규모를 더욱더 축소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병동설계에 있어서 간호단위는 50Bed정도의 간호단위규모를 요구하는 추세이나 이러한 요구는 간호노동조건, 기본간호료지불방식에서 채산성을 높이기위한 경제적인 인원배치일 뿐, 환자의 증상에 대응한 간호업무량의 변화에 의한 단위의 설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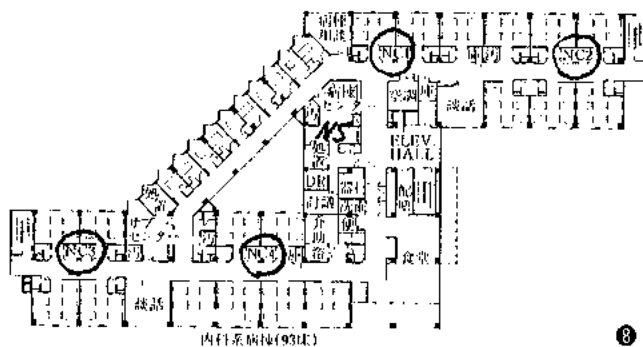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50Bed규모의 간호단위에서는 간호부장 밑에 두팀으로 나누어 "담당환자별분업"을 주체로 하면서 일부 "업무내용별분업"으로 간호업무를 처리하는 예가 많이 보인다. 결국, 1팀이 맡는 25Bed전후가 사실상의 「간호단위」로, 전체 50Bed는 「관리단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방법의 하나로 Nurse Corner를 각팀별로 갈라서 두는 방법이 최근 논의되어 일부병원에 적용되고 있다. 간호업무의 거점인 간호근무실을 종래와 같이 한곳에 모아두는 것보다 각팀별로 기록·준비·물품보관이 가능하도록 분산배치 하는편이 효율적인 것이라는 생각이다.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할때 갑자기 용구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멀리있는 간호근무실까지 번번하게 움직이게 된다. 준비나 기록을 담당하는 Nurse Corner를 병실군의 주변에 분산배치하고, 통합근무실인 Nurse Center를 한곳에 집중배치하는 방법으로, 간호동선을 단축시키고, 병실체제시간이 연장되어 환자애의 직접적간호가 쉽게 가능하게 되며, 특히 간호의 원점인 환자의 관찰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종래의 진료과별 병동구성에 대하여, 1950년 미국에서 제창한 PPC(간호도별병동구성)은 환자의 상태에 대응하기 쉬운 간호관리방식이나, 우리나라에서는 ICU(집중치료간호단위)를 제하고는 PPC는 거의 실현되고 있지않아 PPC간호관리의 실행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급후 PPC 개념에 의한 간호태세, 병동형태를 확립하여 병동규모의 유연성, 적응성을 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7



8

6. 입원환자의 생활시설

입원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주위와의 격리 또는 장래에의 불안등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게 된다. 물리적·심리적인 환경에의 적응력이 낮아진 환자의 피로방지, 환경적 자극에 대한 조정 등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병동은 환자의 생활의 장소이다. 환자의 행동능력을 조사하면 예상이상으로 많은 환자가 식당 및 변소 등을 자력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병명, 간호도, 행동능력, 연령 등의 상이점 및 생활면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사·세면·배설 등의 생활기본행위에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주성이 높은 병동계획이 필요하다.

최근의 병원에는 병동각층에 환자식당이나 Day Room을 설치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기나 가구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환자분위의 병동구성을 꾀하고 있다. 각 병실의 입구에는 세면소나 蓄尿가 가능한 변소등이 설치 되어있다. 호텔이나 여관에도 변소를 각실변소로 설치하고 있는 요즘에 건강인보다 보행에 지장을 갖고 있는 환자가 병실로부터 30~40m 떨어진 「공동변소」를 이용하도록 한 병원이 많은 것은 이상하다고 판단된다. 가능한한 각병상에서 가까운 곳에 변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早期離床을 촉진하는 치료효과도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와같이 병원의 공간-특히 병동부-은 입원환자의 생활시설로써 환자를 주체로한 구성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7 NS의 배치의 실례

8 NS와 NC의 병행 배치실례

9 IC단위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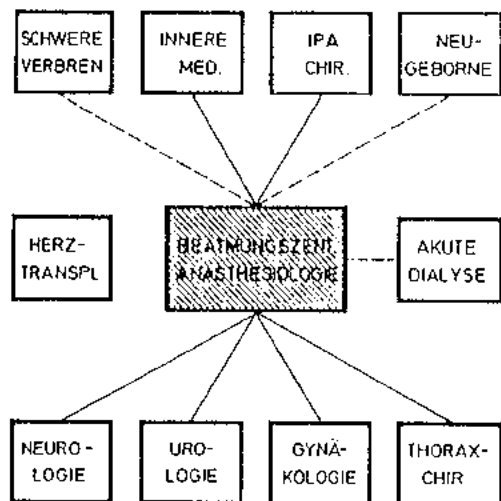


Abb. 1. Die Intensivpflegestation im Verantwortungsbereich der Anästhesiolog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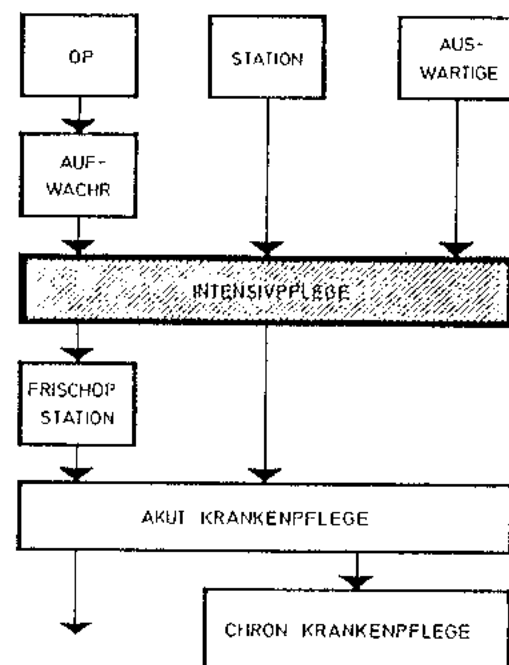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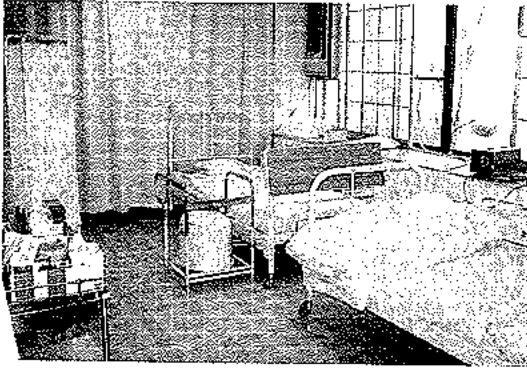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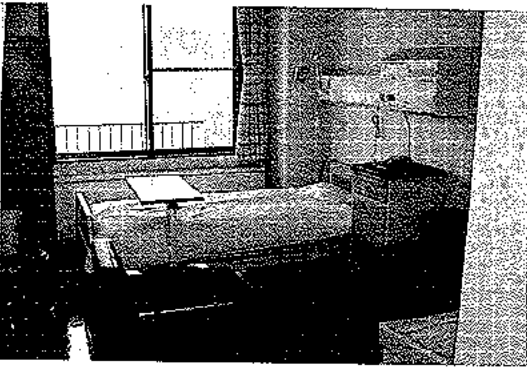


Abb. 2. Abgestufte Krankenpflege unter Einbezug der Intensivpfle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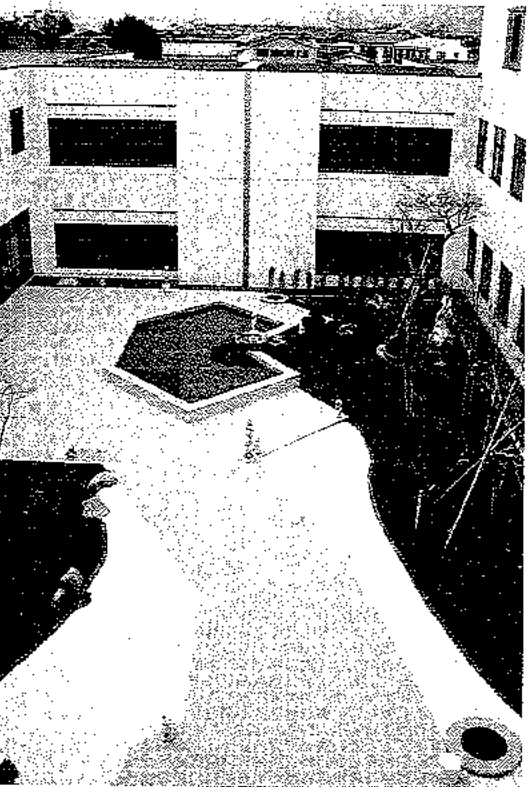
9



10



11



12

7. 물품관리공급시스템

병원내부에서는 다종다양한 수많은 물품들이 각 부문간에 반송된다. 우선, 청결과 비청결의 영역을 명확히 파악하여, 관련부문간 또는 부문내의 동선단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품의 관리·반송시스템 및 정보의 관리·전달시스템에 대응 가능하도록하고, 이동기구에 대한 건축적 배려를 하여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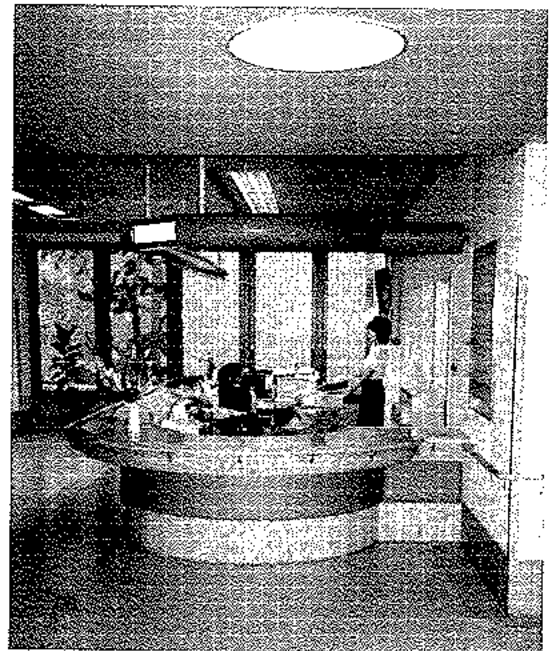
병원내부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관리와 공급을

일원화·전문화하는 방법으로 SPD(중앙재료물품부 ; Supply, Processing & Distribution)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이곳을 거점으로 하여 전용 Cart와 Tray를 사용하여 병동의 Nurse Center 및 병원내의 각부에 설치된 Tray Rack에 공급한다. Cart 와 Tray는, 定数·定時의 공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에 따라서는 세트의 교환·보충 및 임시청구의 방식을 병행한다. 이 방법은 각 부문의 의료종사자가 본래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업무효율이나 환자서비스가 향상되고, 운영면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재고의 삭감, 작업순서의 표준화 등, 능률향상을 꾀할 수 있다. 병원내의 멸균기제도 SPD에서 같이 취급하도록 하고, 수술부나 혈관 造影室등의 층이 나를시에는 청결·비청결 등으로 전용리프트를 분리하여 설치하며 반송에는 그대로 멸균가능한 전용Cart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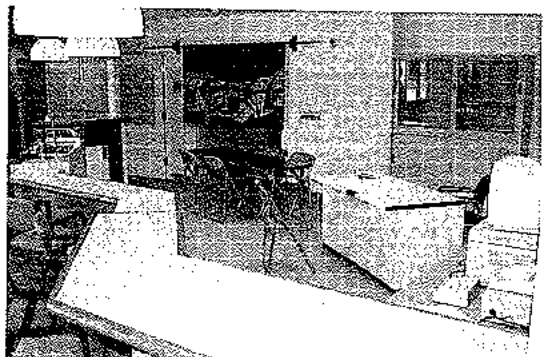
8. 외래부문

외래부에는 처음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이 누구나 알기쉽도록한 공간구성이 필요하며, 대기 시간의 단축, 진료에의 불안·무서움을 완화시킬수 있는 환경의 제공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진료업무가 오전중뿐만 아니라 경우가 많아서, 각실의 이용률이 낮고 집중율이 높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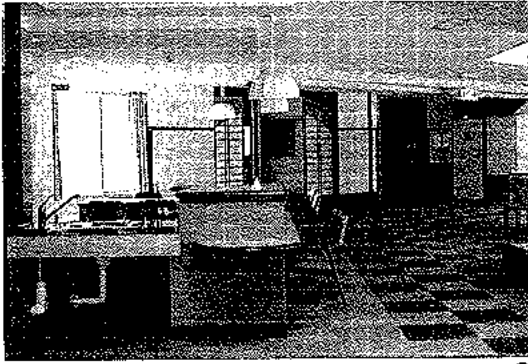
- ⑩ 입원실(2인실) : 청호지문으로 따뜻한 분위기 연출
- ⑪ 입원실(1인실) : 1인실은 조망이 좋은 곳으로 되어있다.
- ⑫ 병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중정
- ⑬ 병원수부 : 오픈 카운터로 친근하게 디자인
- ⑭ Nurse Counter의 변형



13



14



15

사무·약국·각 진료과의 수부 등을 알기쉽게 Open Counter로 하며, 유도 Sign의 디자인에도 특별한 배려를 한다. 또한 회화·조각 등을 전시하거나, 꽃가게 등을 대기실 가까운곳에 배치하여 알기 쉽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바닥에 타일카펫 등을 깔고 슬리퍼를 착용하여 청결감과 따뜻함을 도모한다든지, 각 진료과 및 각 층의 색조를 바꾼다든지, 고유의 명칭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은화한 인상을 주는 공간구성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어질 수 있다. 또한, 공동적인 장비를 갖고있는 안과·이비인후과 및 소아과를 제외한, 일반진료각과에서는 표준진찰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유효할 것이다. 외래진료실은 내과계와 외과계로 나누어 진료과목, 환자수, 의사의 상근·비상근의 숫자 등을 검토하여 진료실을 할당한다든지, 일반외래는 오전중에 예약, 전문외래진료는 오후로 하는 등의 진료실의 유효이용을 적극적으로 꾀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내과계·외과계별로 처치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혈압측정·주사·체혈·채액 등은 내과계중앙처치실에서 행하여지지만 검사체의 반응을 용이하게하기 위해 검사실을 인접시키는 방법 등이 유효하다.

만성적인 혼잡과 滞在시간이 길어지는 결점을 갖고있는 외래부는 그 건축적조건이 병원의 운영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室구성과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등 소프트웨어적인 개선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9. 진료부문

검사·방사선·수술 등 최근의 진단치료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진료부문의 계획은 진료행위에 필요한 물품배치, 작업동작공간, 진료상의 환경조건, 의료기기배관 등의 취합, 방사선차폐, 방사선물질오염, 원내미생물감염, 폐기물오염 등의 방지 등 정확한 건축적·설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진료부에서는 위생적 환경이 특별히 요구되며, 원내감염방지는 절대적 조건이다. 잘 오염되지 않고, 청소하기 쉬운 재료를 선택하여 디테일을 만들며, 명확한 Zoning과, 공조Duct, 위생배관설비에도 오염방지를 위한 배려를 하여야만 한다. 단, 오염방지를 위해 선택된 비침투성 재료는 흡음성이 낮기때문에 위생적 환경과 거주성 높은 환경이라는

상반된 조건이 있으므로 각실의 용도에 따라 우선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원환자가 이용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수술실 등은 병동부에 가까운 위치에, 외래환자도 이용하는 방사선·검사·리해빌리테이션등의 부문은 외래환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는 등의 Zoning의 구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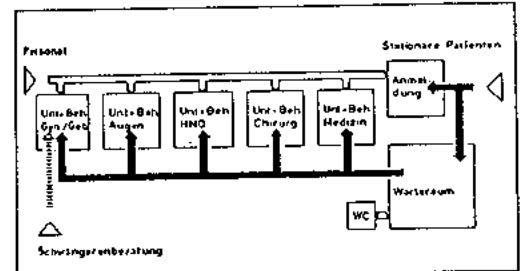


Bild 14. Funktionsschema der allgemeinen Untersuchungs- und Behandlungssysteme. In Ländern mit anderer Struktur des Gesundheitswesens (z. B. England und Schweden) werden in diesen Gruppen auch ambulante Patienten untersucht und behandelt.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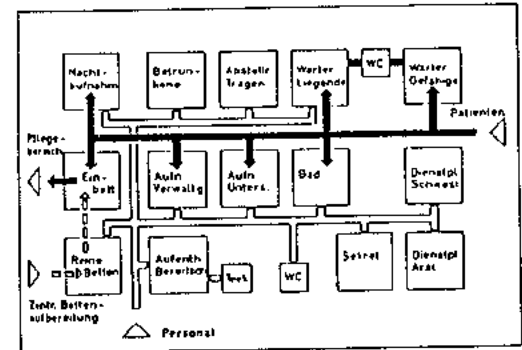


Bild 19. Funktionsschema der Aufnahmeabteilung. Nicht dargestellt sind die wünschenswerten engen Beziehungen zur Unfallversorgung, Erste Hilfe und zur Verwaltung.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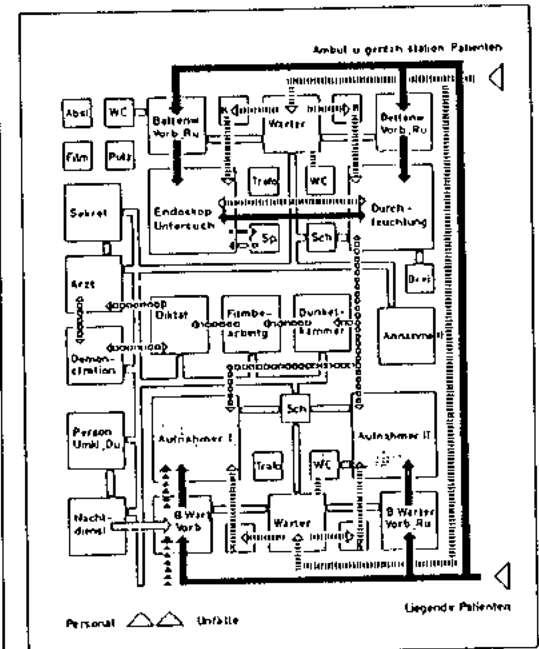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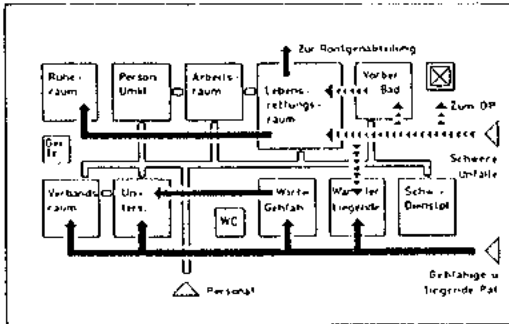


Bild 17. Funktionsschema der Röntgendiagnostischen Abteilung. Aus Gründen der Übersichtlichkeit ist auf die Darstellung einiger Materialwege verzichtet worden: Filmabnahmen (Linie aus Quadranten) werden nach der Demonstration im Mondarchiv (Annahme) aufbewahrt. Krankenpapiere gehen zur entsprechenden Untersuchungs- und Behandlungseinheit oder zur Station zurück. Alle Befunde wandern ins Hauptarchiv. (K. = Kabinen, Sch. = Schallraum, Sp. = Spülraum)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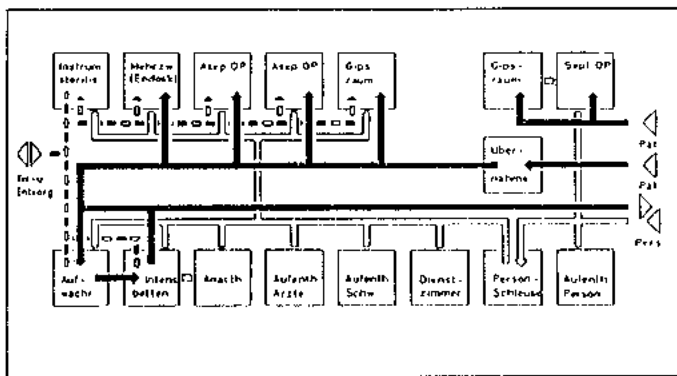
10. 설비계획

병원설비의 목표는 환자의 **요양환경**을 보다
안전·쾌적하게 하며, 진료활동을 **능률화**하는데 있다.
기술수준의 진보에 따라 설비도 복잡고도화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본래의 목적을 잊지않는 균형을 갖춘
설비계획이 채택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병원은



bid 15. Funktionsschema der Unfallversorgung (Erste Hilfe). Die hier dargestellte Trennung der Patientengruppen (schwere und leichte Unfälle) dient der Verdeutlichung des jeweiligen Funktionsablaufs. Bei entsprechender räumlicher Gliederung kommt noch mit nur einem Eingang aus. — Die Zusammenordnung der Unfallversorgung mit der Aufnahmeabteilung und der chirurgischen Untersuchungs- und Operationsabteilung in Bild 2, bid 10 — Bild 15) bedingt eine prinzipielle Veränderung der funktionalen Beziehungen. Das gilt besonders im Falle notwendiger Empörungen, i. B. bei Warte-, Personal- und Arbeitsräumen (Ger., = Geräte Tr., = Tragen).

19



BM 16. Funktionsschema einer anfalligen Operationsabteilung. Für diese Anordnung ist charakteristisch, daß Hin- und Rückweg des Kranken über denselben Flur laufen. Auf ihm bewegen sich außerdem Ärzte und Personal. Zusätzlich dient er dem An- und Abtransport steriler und unsteriler Materialien. Der mit einer solchen Verteilung der Wegearten verbundenen Gefahr der Hospitalinfektionen muß mit Schleusen für Patienten und Personal möglichst schnellstm. Abtransport der unsterilen Materialen begegnet we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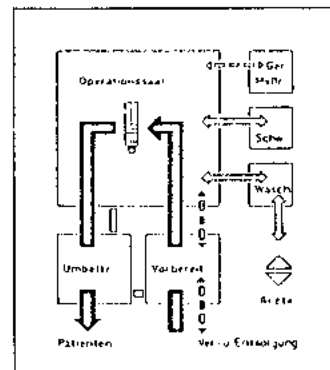


Bild 17. Funktionsschema der Operationsaal-Einheit einer einstufigen OP-Abteilung. Zu jeder OP-Sozial-Einheit – in Bild 16 nur durch ein Quadrat angedeutet – gehören neben dem eigentlichen Operationsaal die dargestellten Nebenräu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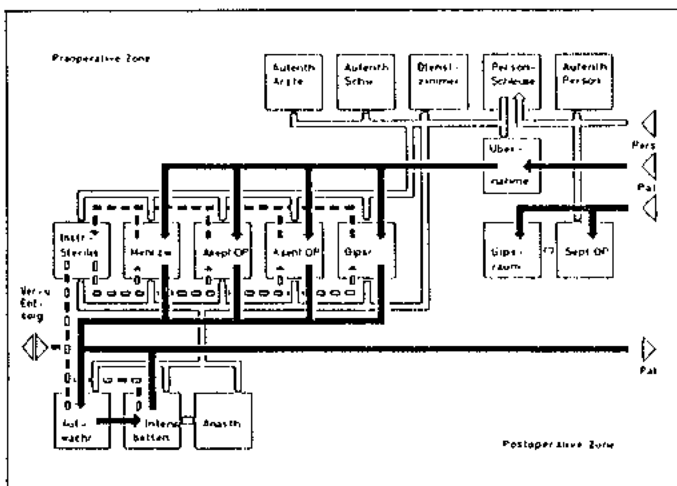


Bild 18. Funktionsschema einer zweiflügeligen Operationsabteilung. Mit der Doppelflügelung werden zwar nicht alle, aber doch die unvermeidlichen Kreuzungen von Personal- und Materialwegen vermieden. Gleichzeitigkeit der Besatzungsfrequenz der Flüre. Präoperativer Fluor: Krankenankommlung, Zu- und Abgang der Ärzte, Abtransport des unoperierten Materials. Postoperativer Fluor: Abtransport der operierten Patienten zum Aufwachraum, zur Intensivpflege oder auf die Station. Zu- und Abgang des Hilfspersonals, Anlieferung des Anästhetikums — Die zentrale Raumgruppe ist von den operativen Räumen völlig getren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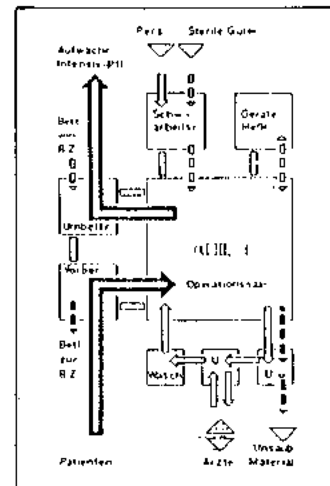


Bild 19. Funktionsschemata der Operationsaal-Einheit einer zweiflügeligen OP-Abteilung. — Die Arzte vollziehen beim Umkleiden u. Waschen folgenden Kreislauf: sauberer Umkleideraum (U) → Waschraum — Of-Saal — unsauberer Umkleideraum (U u.) — sauberer Umkleideraum (B.Z. = Beltzentrale)

24시간 가혹하게 사용되어지는 건축물이므로, 불충분한 보수관리로 인하여 급속히 시설의 기능저하, 성능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고가의 병원설비의 유효이용을 위하여 정기점검에 따른 조기발견, 수리·교환 등의 시설관리운영지침의 작성 등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병원은 그 기능의 특수성때문에 특히 설비면에서는

- 15 로비의 풍경 (노인병원의 실례)
 16 F. Labryga의 가능성(일반진료실)
 17 입원수부
 18 구급부
 19 방사선부
 20 수술부

病院 (病床數)	檢 査 部			放 射 線 部				手術部	分娩部	藥局	中央 材料 室	리해 발리 부	特殊 治療 室	計
	檢體 檢査	生理 檢査	小計	診斷	治療	核醫 學	小計							
A (63)	68 3.1	7 0.3	75 3.5	67 3.1	— —	— —	67 3.1	128 5.9	— —	104 4.8	42 1.9	26 1.2	— —	442 20.4
B (100)	84 2.3	73 2.0	157 4.2	157 4.2	— —	— —	157 4.2	240 6.4	50 1.3	79 2.1	73 2.0	— —	— —	756 20.3
C (140)	227 3.8	99 1.7	326 5.5	244 4.1	— —	— —	244 4.1	309 5.2	112 1.9	132 2.2	108 1.8	178 3.0	— —	1,409 23.8
D (180)	243 3.6	122 1.8	365 5.4	221 3.3	— —	— —	221 3.3	284 4.2	68 1.0	102 1.5	96 1.4	116 1.7	— —	1,252 18.6
E (200)	335 3.1	91 0.8	426 3.9	340 3.1	— —	106 1.0	446 4.1	468 4.3	94 0.9	325 3.0	178 1.6	133 1.2	— —	2,070 19.0
F (279)	583 4.7	86 0.7	669 5.4	454 3.7	64 0.5	267 2.2	785 6.4	425 3.5	73 0.6	231 1.9	214 1.7	207 1.7	— —	2,604 21.2
G (281)	554 4.6	114 0.9	668 5.5	396 3.3	247 2.0	229 1.9	872 7.2	579 4.8	91 0.8	285 2.4	173 1.4	579 4.8	— —	3,247 26.8
H (306)	410 3.2	197 1.5	607 4.7	400 3.1	108 0.8	— —	508 3.9	533 4.1	122 0.9	345 2.7	202 1.6	202 1.6	— —	2,519 19.5
I (322)	794 6.1	395 3.1	1,189 9.2	677 5.2	— —	— —	677 5.2	522 4.0	160 1.2	389 3.0	157 1.2	— —	— —	3,094 23.9
J (348)	528 3.2	170 1.0	698 4.3	355 2.2	243 1.5	285 1.7	883 5.4	592 3.6	93 0.6	549 3.4	213 1.3	300 1.8	— —	3,328 20.3
K (352)	547 4.0	106 0.8	653 4.8	581 4.2	295 2.1	— —	876 6.4	582 4.2	145 1.1	267 1.9	178 1.3	— —	— —	2,701 19.6
L (374)	548 3.5	163 1.0	711 4.5	500 3.2	237 1.5	— —	737 4.7	512 3.3	102 0.7	256 1.6	160 1.0	— —	— —	2,478 15.8
M (387)	675 3.3	465 2.3	1,140 5.5	675 3.3	152 0.7	96 0.5	923 4.5	822 4.0	145 0.7	318 1.5	337 1.6	— —	— —	3,685 17.9
N (443)	928 3.9	261 1.1	1,189 5.0	840 3.6	306 1.3	85 0.4	1,231 5.2	1,345 5.7	181 0.8	594 2.5	285 1.2	238 1.0	— —	5,063 21.4
O (458)	504 2.6	249 1.3	753 3.8	685 3.5	303 1.5	178 0.9	1,166 6.0	697 3.6	54 0.3	460 2.4	181 0.9	424 2.2	— —	3,735 19.1
P (939)	2,151 4.2	846 1.7	2,997 5.9	1,563 3.1	948 1.9	544 1.1	3,055 6.0	1,952 3.8	162 0.3	955 1.9	851 1.7	699 1.4	173 0.3	10,844 21.2
Q (986)	2,450 4.2	430 0.7	2,880 5.0	1,169 2.0	919 1.6	430 0.7	2,518 4.3	1,833 3.2	1,089 1.9	2,361 4.1	609 1.1	430 0.7	948 1.6	12,668 21.9
R (1,002)	2,314 4.6	887 1.8	3,201 6.3	887 1.8	940 1.9	874 1.7	2,701 5.3	2,320 4.6	427 0.8	988 2.0	425 0.8	559 1.1	747 1.5	11,368 22.5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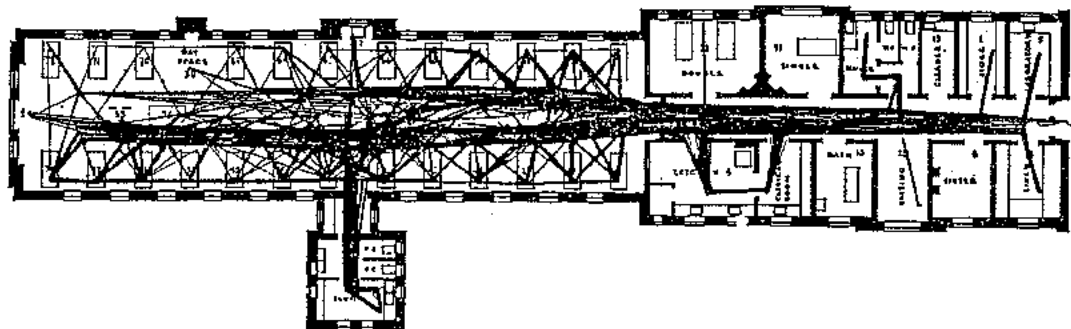
부문별 이용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따라 공조 및 기타방식의 시스템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외래진료부는 주간만—병원에 따라서는 거의 오전중에만—이용하는 부문이 있는데 대하여, 병동부처럼 24시간 연속해서 사용되는 부문 수술부처럼 예정표에 의해 사용되는 부문이 있는데 대하여 분만부처럼 이용시간이 주야구별없이 불특정시간에 사용되는 부문이 있다. 당연히 이러한 활동시간의 다른 따라 가장 적절한 Zoning과 적합한 설비방식의 선택이 필요하다.

최근의 병원은, 여러가지 분야에서 특수한 치료환경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온도 및 습도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인공기후실이라든지, 공기청정도를 극도로 높힌 Bio-Clean수술실이라든지, 기압이 정상치보다 수배가 높은 고기압치료실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고도의 기술에 의해 만들어내는 인공환경이지만 시점에 따라서는 치료기계의 일부로서 볼수도 있다. 따라서 현대적병원의 설비는 미품으로서의 기기와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근본적인 병원설비의 목표는 쾌적한 입원·진료환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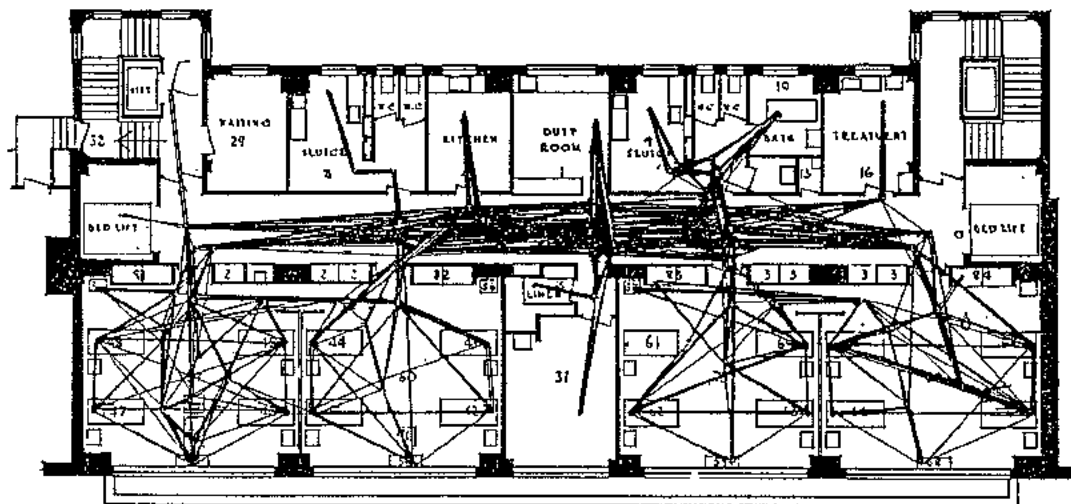
④ 중앙진료부의 면적 배분례 (상단은 실면적 (m²), 하단은 비율(%))

만들어내는 것에 있으므로 설비의 기초적인 면을 중시한 시스템의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병실내의 악취나 병원특유의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복도에서 급기하여 병실에서 배기시키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야간이나 중간기의 운전정지를 대비하여 냄새가 특히 많이 나는 부분의 배기를 다른 계통으로 구분하며, 병동전체의 필요환기량을 보완하여 Running Cost를 절감하면서도 충분히 양호한 공기환경을 도모하는 방법을 찾아내어야만 할 것이다.

설비설계에 있어서 말단적인 문제중에 콘센트나 각종설비의 Outlet의 위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진료는 물론 간호에도, 기타 각종의 병원활동에도 수많은 기구가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기구의 대부분은 설비배관에 직접 연결됨에 따라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병원계획을 담당하는 사람은 각부각실에서 사용되는 기계·기기류에 대하여, 단편적인 리스트가 아닌 모든 기기 리스트—설치된 것이든 설치되지 않은 것이든 망라적으로—를 전부 준비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이 리스트는 발전하는 의료기기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 수정되면서 최신판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22



23

11. 평가연구

병원건축은 최초의 계획·설계의 의도가 그대로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완공후에는 사용자, 계획자, 간호·진료종사자 등의 팀에 의해 이용실태가 조사·분석되어 그 성능의 평가를 계속해나가야만 한다. 특히 새로운 시도의 운영방식이나 공간계획·배치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평가하여 개선안을 보완해야만 한다. 이러한 작업은 feedback되어 새로운 계획의 기초적 자료가 되는것이다.

- ② 병원건축의 조사연구실례
(간호사의 움직임)
(프랫트 포드 병원)
- ③ National 병원

12. 마지막에

병원건축계획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병원의 활동 및 입원환자의 요양생활은 그 병원건축계획 및 설계의 양질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받게되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건축이 갖추어야 할 기능성, 효율성, 거주성 등은 진정한 의미의 의료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더더구나 한번 건설되면, 쉽게 개축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필요로 하게되는 기능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 및 설계 되어져야만 할것이다.

21세기 건축을 향하여

Go toward the 21C Architecture

비저너리 아키텍트 / 닐 디나리

Neil M. Denari

번역 / 이용재(프리랜서)

닐 엠. 디나리는 1957년 텍사스의 포트워스에서 출생
1980년 휴스턴대학에서 건축학사학위 취득
1982년 하버드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과학철학 부전공)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뉴욕시에 거주하면서 일련의 실험적인 계획안들과 현상설계안 발표(컬럼비아대학에서 강의도 병행)
1987년 뉴욕예술재단이 수여하는 아티스트 펠로우쉽 수상
1986년 자신의 스튜디오 코르-텍스(COR-TEX) 설립
1988년 이후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면서 사우스 캘리포니아 건축대학에서 강의

I. 닐 디나리의 철학적 기제들

-레베우스 우즈-

"매일 자신의 자유와 존재를 새로이 정복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

-J. W. 폰 괴테(파우스트 중에서) -

차가운 객관성 아래 작업하는 닐 디나리는 불가사의하고 신비하고 위험하고 수수께끼로 가득찬 세계를 창조한다. 그런 황량한 랜드스케이프를 가득채우고 있는 기념비적인 구조물들은 긴장과 운동(movements)을 통해 생명력을 수혈 받는다. 로스앤젤레스나 도쿄, 런던, 뉴욕이라는 명칭의 랜드스케이프들은 자주 지구 전체의 지도로부터 수준점 입면들이나 다양한 수평선들 그리고 창조적이고 연관적인 직선들을 꼬집어내서 세계를 혼합해 내지만 그것은 아직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곳은 아주 새롭고 원초적인 세계이면서 익숙한 지질학에 근거하고 있어서 우리 현실과 어울리지만 사실 그것을 인식해 내기는 어렵다. 아무도 그곳은 인간의 거주처가 마련된 건축-기계들(the architecture-machines)의 창조물에 가깝다.

디나리가 꿈꾸는 세계는 단순히 일상적인 건축가의 협소한 관심사가 반영된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정지된 세계가 아니다. 디나리는 오히려 건축의 상호작용을 통해 폭넓은 세계를 조망한다. 그가 꿈꾸는 차갑고 기계적인 세계(COSMOS MECHANICOL)는 그야말로 인간의

스케일을 넘어서는 우주 그 자체이다. 철학적 건축가인 디나리의 비전은 가시적이면서 불가사의한 형태학과 이벤트를 꿈꾸며 자율적인 랜드스케이프를 투사한다.

언뜻 보기에 도면들로 표현되는 그의 담화들은 무정하리만치 냉철하다. 냉담함과 고요함으로 가득찬 그의 랜드스케이프와 담화예의 구성요소들은 서로 아주 교묘하게 연관성을 무시한다. 그로 인해 그 열정과 힘은 원초적인 심오함이나 심지어는 섬뜩하고 숭고하기 조차한 경외의 기대를 갖게한다. 그의 건축에 황량하게 등장하는 빛과 그림자는 랜드스케이프의 지도에 그래픽적 그물로 표현된다. 그같은 설득력있는 설명체계 사이에는 당연히 개념적 모순이 존재한다.

디나리의 텍스트에서 이 논증은 엔트로피와 결합사회, 지식같은 추상적인 개념들과 의미와 시냅스가 괴리된 현세의 확고한 이미지들을 유쾌하게 혼합시킴으로써 독자의 직관적인 맥박에 의해서만 이해가 가능토록 한다. 전체적인 논조는 고집스런 일관성을 유지한다. 하지만 내용은 그것을 다시 부정하는데 그것이 의도적인 연출임은 물론이다.

디나리가 발명한 세계는 역설과 신비한 선언으로 가득찬다. 여기서 건축은 힘의 도구이자 그 원천이다. 랜드스케이프를 지배하는 불완전한 계층의 상형문자들에 의해 그것은 개념적으로만 이해될뿐이다. 그 힘의 연출은 지적이고 본질적이며 강력하고 일관된 사고만이 이런 강요된 건축적 매스와 복잡성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 힘은 또한 육체와 정신을 통일적으로 보는 구식의 관점에 의해서 보다는 지적, 물리적 감각의 결합을 통해서 정신적 속성을 갖는다. 이 정신은 독특한 모멘트로 무장된 형식을 통해 숭고함을 획득한다.

태양은 불연속적인 정밀도를 가진 빛과 어두움을 건축에 던진다. 각기 상이한 스케일의 공간과 시간, 지구, 하늘, 그리고 특이한 성과를 갖는 별들조차도 결코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

그림자처럼 일시적이고 특이한 지질학적 관계를 창조한 "ELEV 208.16"은 "하우스-No. 4N"의 전면 표피를 관통한다. 이 축조적, 지질학적 체계의 분열은 정확한

동시발생 모멘트의 공존에 의해서는 폐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시적인 자연은 모멘트에 의해서만 연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형식화하기 위해서 그것은 서로 밀접하게 접합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은 어떤 체제든 한번에 동시발생되지 않는다고 믿는 우주적, 지구적 총체성의 개념을 방해한다. 그러나 이 운영법(modus operandi)과 윤리학적, 존재론적 모멘트는 상대주의 이론에서 주장되는 영속적으로 변화를 계속하는 관성프레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전체화된 세계를 넘어서는 자유의 세계에서 개념적인 간극을 가로지르는 일시적인 관계의 이미지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다.

디나리의 건축은 전적으로 기계미학에 근거한다. 형식적이고 양식적인 목적을 위해 기계미학을 도용하는 다른 건축가들과 달리 디나리는 역사적 유유나 건축적 창조의 축조를 세련화시켜 나가면서 기계들을 창조해낸다. 그는 이제까지 무시되어온 역사로부터 내적 필연성을 찾아나간다. 그가 보기에 역사적 건축은 상투적인 문화적 연관성에 너무 얽매어왔다. 그래서 그의 기계는 반비합적이고 중성적이며, 차갑고, 철학적이며 반도덕적이다. 또한 그의 기계는 정치와 시사성을 초월한다. 그것은 익명적이며 중성적인 지구력을 정복하기 위한 지적 탐구의 필연적인 도구이다. 문화와 역사의 건축이 이같은 복종과 저항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까다롭고 위험스런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무력하다. 기계는 말이 없지만 디나리는 건축으로서의 그 기계에 조심성과 정교함을 끌어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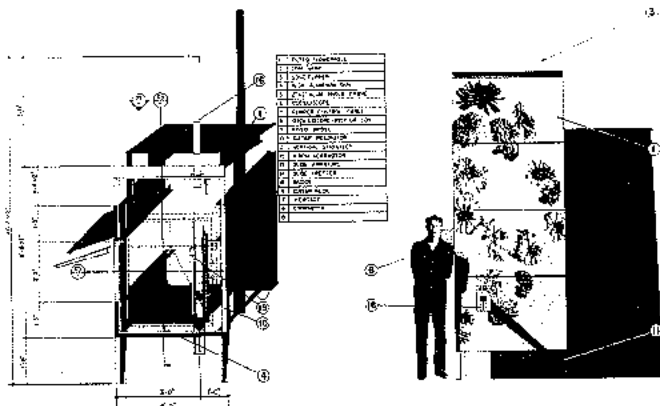
그는 기계의 무연성과 침묵성 그리고 자율적 일관성(프로젝트 전체를 관통하는 유기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건축-기계들이 미묘한 변이와 변형에 의해 자체의 소멸점으로 함몰되지 않도록 저항하게 한다. 또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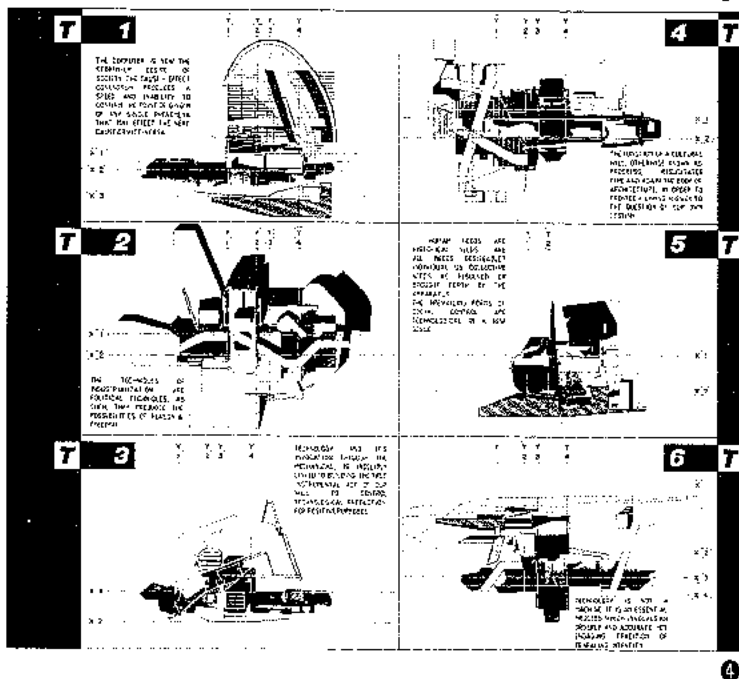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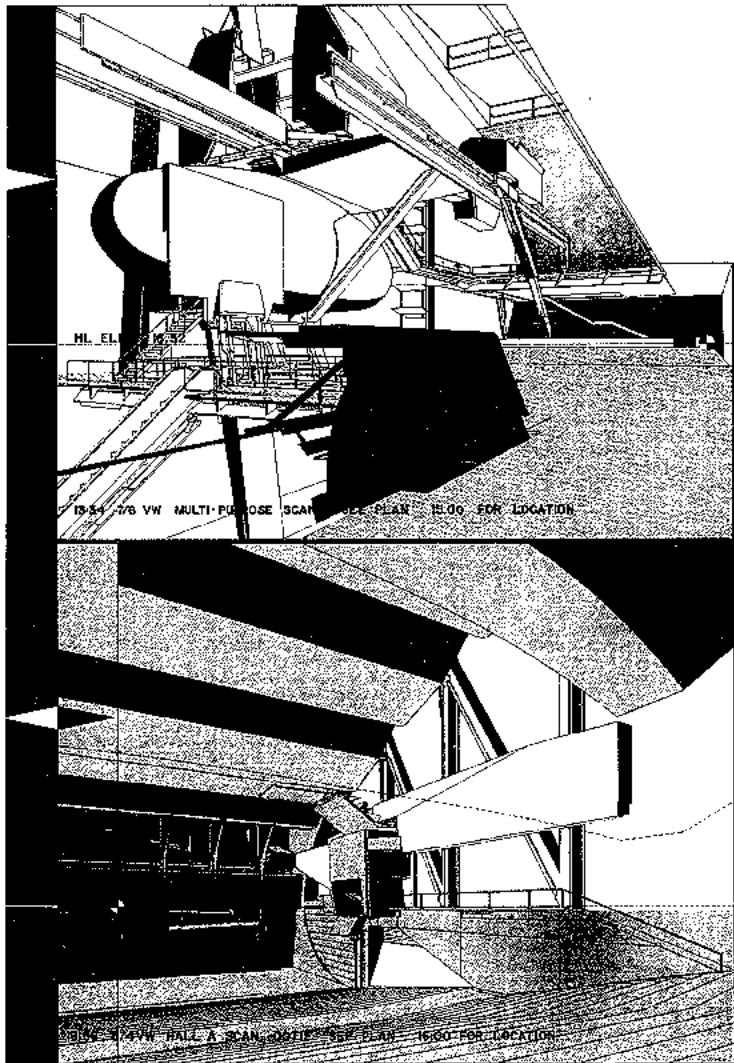
기계들은 능률과 규칙성만을 강요하는 데카르트의 불럭이나 고전회랑에로의 소멸도 거부한다. 결국 지성인의 묵인하에 완벽한 합리적 질서를 충족시킨다거나 단순화된 자연의 전체화된 이상에 종속되고마는 디나리의 사고와 작업에서 이 지성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회의하여 쉬운 확신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의 건축-기계들은 기성품의 무한한 생산라인에 일렬로 늘어서기를 거부할뿐 아니라 쉬운 소비에 저항하는 만큼 고집스럽게 공간과 시간상의 온신에도 저항한다. 그 기계들은 다만 지속적인 운동속에서만 존재가 허용된다. 그 기계들의 현존과 아이덴티티는 그것의 불안정성이나 물리적, 문화적으로 할당된 공간상의 분리성, 불합리성, 자율성, 기이함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역설적이며 신비하고 괴상하고 자율적인 기계들은 그 기능들이 완벽하게 통제되거나 예측되지 못하는 한 위험할 수 있다. 인공두뇌학의 용어법에서 기계들은 연속적인 피드백을 계속하는 내적 컴플렉스를 갖는다. 그 기계들의 출력은 단일의 예정된 기능에만 따르는 일반기계들과 달리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입력의 산물이다. 여기서 입력과 출력은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 예견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의 거주처를 꿈꾸는 기계, 특히 건축-기계들은 유전적으로 예측불가능하며 끊임없이 현상과 제도권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디나리의 건축-기계들은 인간의 의지나 조정과 독립적으로 인간의 삶에 위안을 준다.

동경포럼 현상설계안인 GODZERO : COSMOS MECHANICCOOL은 디나리의 프로젝트중 가장 야심적이고 공격적이며 자율적이고 위험스런 건축-기계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리 결정된(프로그램화된) 기능들-오디토리엄, 로비, 갤러리, 엔트런스, 회의실들-을 지시한다. 그렇다만 이들





용어들이 문맥내에서 뜻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 그 기능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디나리의 디자인은 왜소화되고 만다. 동경포럼 현상설계의 당선작인 비놀리의 스킵에서 메시브한 데카르트류의 큐브들은 입력과 출력이 정확히 예견되는 외연의 인습성을 완벽하게 반영한다. 그러나 「고드제로」의 도면에서 내부공간(내적상태)은 6,

7, 8 등으로 명명된다. 인습적인 현상에서 볼때 그런 명칭은 추상적이고 낯설기만 하다. 또한 그 기능들은 자율적 공간과 형태의 복합성을 반영한다. 더구나 그것들은 현대의 진부한 효용성이나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연속적인 피드백 매커니즘의 산물에 불과하게 된다.

디나리의 디자인은 분명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는 기존의 효용성과 의미체계에 의문을 제기할뿐 아니라 그것의 권위조차 인정치 않기 때문이다. 「고드제로」가 보여주는 정상상태에 대한 위협은 「그러나 그의 건축-기계는 건축이 아니다」는 기존 건축계의 반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습적인 이해범주에서 볼때 어찌면 그의 그것은 건축이 아닐수도 있다. 컬럼비아 대학의 강연에서 디나리는 「고드제로」와 「고드질라」간의 유사성을 재미있게 설명한다. 어떤 학생은 문명화된 형태의 모델들과 비교해 볼때 그의 건축은 예측 불가능한 원시적인 괴물이라고 공박하기도 한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가 행하는 도시의 파괴행위는 인간상황의 훼손성과 새로움의 출현을 위해 아예 파괴할 없게 됐다. 송고함이나 아트(본능적 충동의 근원)의 카타르시스에도 폭풍처럼 접근해가는 신호들은 슈퍼에고의 결박으로부터 에고와 탈출을 유도한다. 「고드제로」와 「고드질라」는 이제 순간적인 변화의 전조이자 도구인 대규모 메트로폴리스의 중심을 내외부로 자극한다.

그러나 「고도트」처럼 「고드제로」도 비위잡을 상징하는 존재론적 메타포이다. 이같은 수동적인 의미들의 공허화는 자유와 자율성의 출현을 위해 필요하다. 대형탈곡기계인 「고드제로」는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액티비티와 존재의 유형을 담을 새로운 영역을 준비하기 위해 관례와 선-개념의 예측성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위안이 되는 전체성의 후기-신화적 환영과 이제는 구식이 된 문화적 엄함과 거주처의 내적 랜드스케이프를 병행히 한다. 본래적으로 세계를 건축화하는데 따르는 위험들은 자율 자체의 비위잡은 영역내에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정신 그 자체가 직면한 공허함이 주는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어야 비로서 예측성은 발명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널 디나리의 디자인들은 그의 빛나는 발명성을 선명히 드러내 준다. 그의 이런 용기는 우리에게 희망일 수 있다.

II. 양지역학의 건축

-널 디나리-

나의 작업은 과학과 기술간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어떻게 자연세계의 물리적 법칙들이 기술적인 해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물리적 오브제인 건축이 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상황에 관한 새로운 의미들을 그려내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지나치게 과학에 경도된 현실과 일상세계를 추정해볼 수 있을까? 이 세계관은 철학적(연구의 과제로 의문을 주로 사용하는) 그리고 독단적(실제적인 탐구가 가능하도록 확실성에 기초한 기술을 사용하는)양상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 양자세계에서의 뉴턴의 형태문제-

“우리는 주제를 정하지마자 양식의 문제를 배워야 한다.”

-칼 R.포퍼

이 문제는 처음에 건축에서의 형태만들기가 문화적으로

결정되어 오던 관례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어떻게 사물들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와 물질과 오브제들의 현상을 설명해 주는 자연과학을 해명하면서 자리잡았다. 이같은 주장은 일상세계로부터의 과학의 이탈을 암시하거나 과학적 엘리트의 믿기지 않는 추측과 신비로운 본능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사실 자율적이고 순수한 과학과 기술의 궤도들이 20세기에 집중됨에 따라 자유롭고 정형화된 방식으로 자연세계를 해명하던 근대물리학은 완전히 실패했을뿐 아니라 공식화된 문화의 왜곡없이 이 문제를 사고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금세기초반의 근대물리학의 발전과 그에 수반된 아방가르드의 등장이 단순히 동시발생했다거나 정치적, 예술적이었다는 추측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거기서 만들어진 생산품은 과학적 시대정신의 구체화이거나 양자세계가 제시한 형식과 이미지에 따른 근대과학의 혁명에 대한 해명일 뿐이다. 상대주의나 보수적 프롤레타리아 같은 선동세력들을 제외한다면 그것은 이 문제의 중심과제를 해결하려는 건축에서의 형태만들기에 대한 비타협적인 산물에 불과한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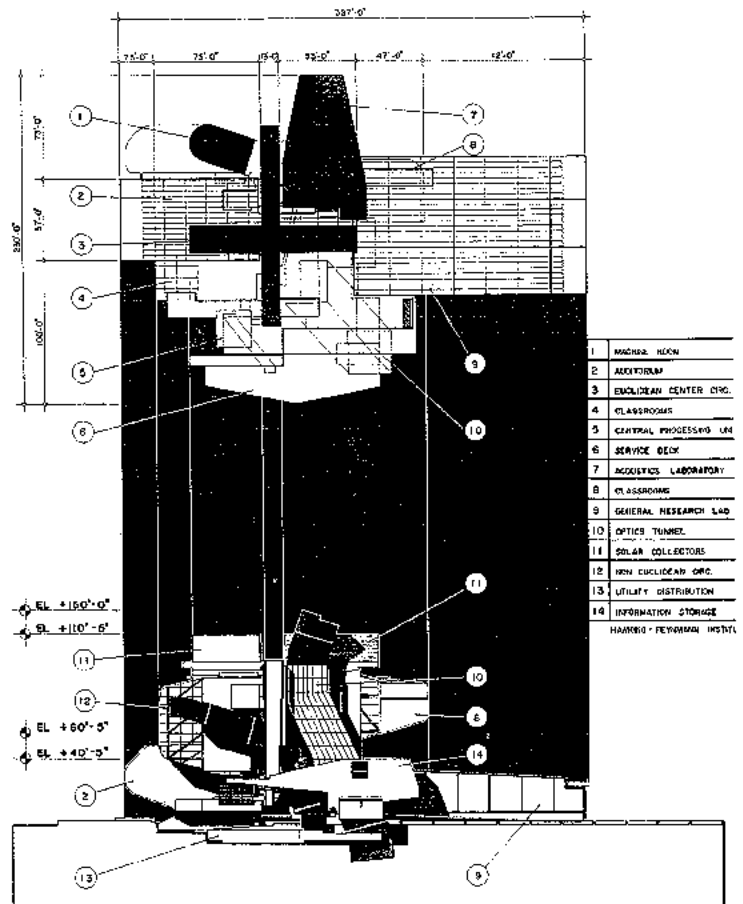
물리학과 철학에서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독일, 1901-76)는 이렇게 말한다. “양자이론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교훈으로 남긴다. 뉴턴역학의 개념들은 자연계의 사건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며 뉴턴법칙은 틀림없이 옳지만 그것이 이론을 진보시킬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전자현상은 뉴턴역학의 개념에 의해 정확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근대과학은 우리 자신의 신체를 포함한 오브제들과의 관련이나 건축스케일의 「일상성everydayness」문제와 연관된 「스케일, 사이즈, 위치, 식별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중력에 근거한 건축의 오브제는 자연계의 뉴턴역학에 따르며 데카르트의 기하학 체계의 「평면성planarity」에 따르는 구성적인 오브제는 철학적으로 「외부와 연계된 오브제extended object」로 설명될 수 있다. 상대성이론(극대)은 양자역학(극소)과 상반되는 극성을 가지며 그 매개점에 자리잡은 건축은 그 어느쪽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고전건축이 뉴턴역학과 공모하여 과학과 문화의 결합을 유도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현대에 이루어진 물리적 중심으로부터의 사물의 추출은 그 「새로움New」이 문화가 별려놓은 기이한 부담을 해소하도록 했으며 더이상 고전세계가 균제적 균형을 평정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건축이 새로운 과학과의 연대가능성을 모색하려면 새로이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재정의는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든 그것은 문제틀적이면서 이해가 용이해야 한다.

1) 상징의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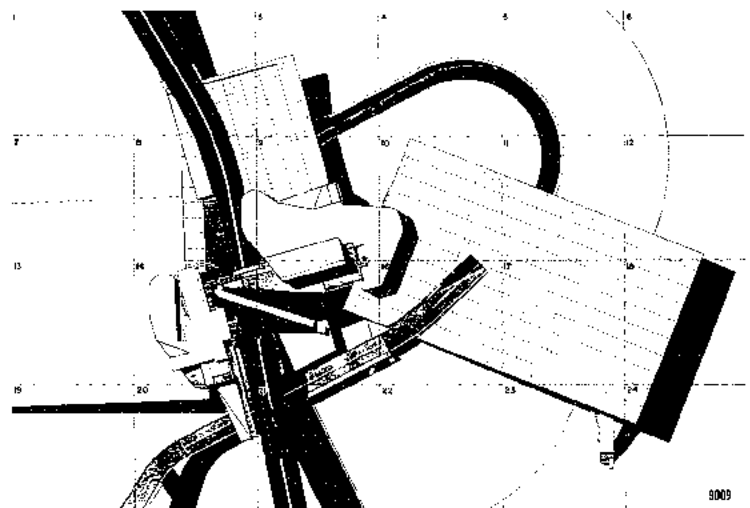
양자세계의 해명을 위해서는 물질의 파동과 입자운동의 불가해한 속도 그리고 원자구조의 극미스케일과 물질적, 공간적 상황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혼돈의 시각적 모델들을 통해 등장한 불확정성의 표현인 불완전한 기하학과 다의적 형식들은 소립자구조의 스칼라적 재현이다. 주로 자체의 중량때문에 이런 현상에 나타나는



FIELD

FEYNMAN INSTITUTE for EXPERIMENTAL LABORATORY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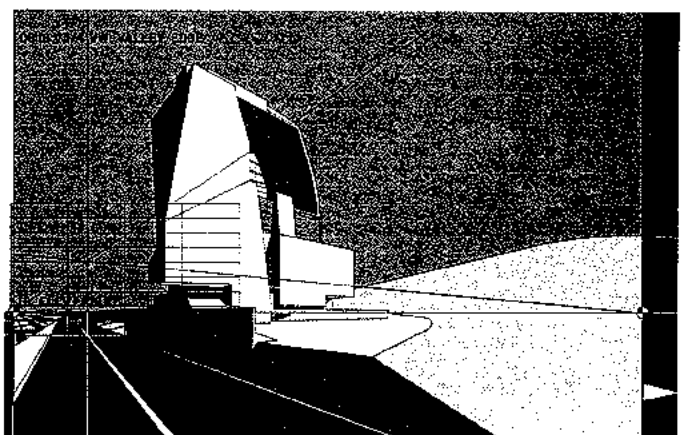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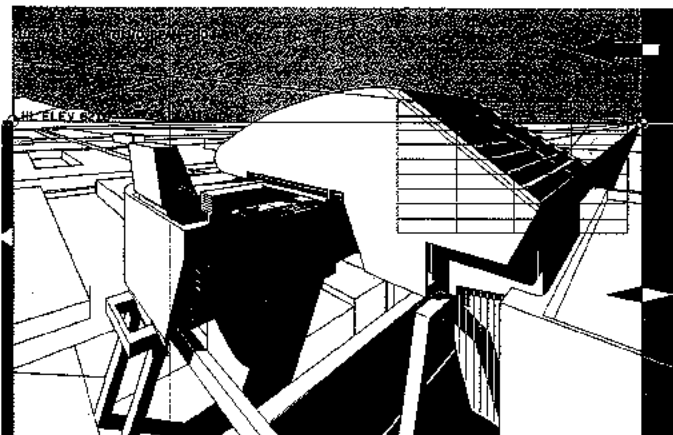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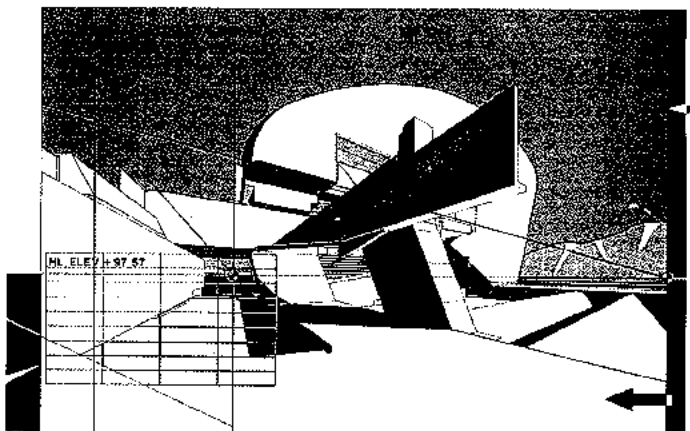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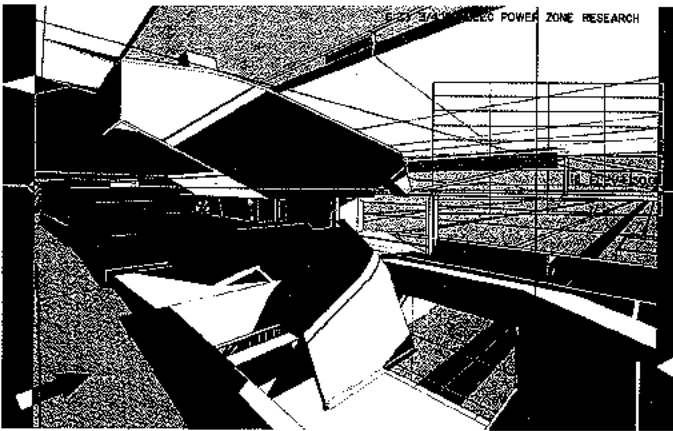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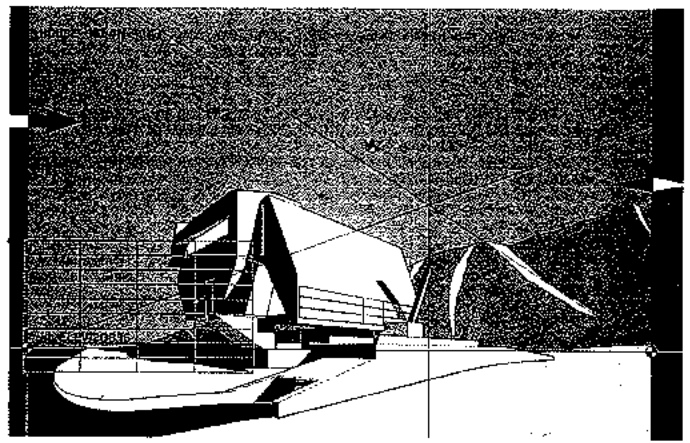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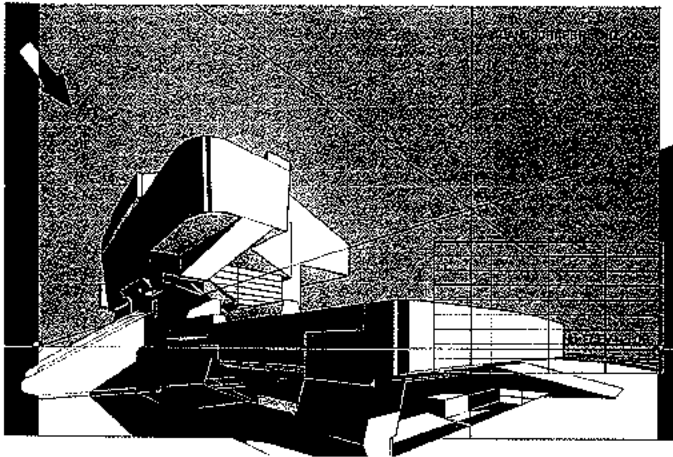
5



9009

6

- ① CP-8706 폭발적 음향 테스트 오디오 비주얼 빅 기타
- ② 프로젝트 No. 8805 웨스트코스트 게이트웨이 현상설계안
- ③ 프로젝트 No. 8910 동경 인터내셔널 포름 현상설계안 (자작입선)
- ④ 프로젝트 No. 9008 그라포르즘
- ⑤ 프로젝트 No. 8806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이론물리학 실험연구동
- ⑥ 프로젝트 No. 9009 프로토타입 · 랜드스케이프
- ⑦ 프로젝트 No. 9005 로스앤젤레스 프로젝트



건축의 기존 결합들은 최소구조나 경량의피같은 고도의 공학적 해결책을 요구한다. 그러나 상징성이 기술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가? 그리고 건축이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될 수 있을까?

기술이 전자역학이라 불리우는 커뮤니케이션과 컴퓨터기술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비상징성UN - SYMBOLIC」에서 발견되는 양자표현의 축진재료 사용되듯이 그것을 이런 장치들의 근본적인 작동보우드로 사용케하는 것이 양자세계이다. 사실 현상 그 자체와 적합한 하드웨어의 직접적인 연계사이의 간극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그결과 형식이 배제된 표현이 도출됨으로써 우리는 다만 오브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그것의 작동체계와 그 부산물의 의미를 증폭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예를들어 전자공학은 의도적으로 컴퓨터의

플라스틱제 커버(컴퓨터의 하우스)같은 용기를 만들어 커버와 기능, 인식과 속임수간의 일상적인 모순을 유발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규범적인 반동모우드의 시각화를 부정함으로써 인식의 상실을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상징의 배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전혀 다른 오브제 해독의 신화를 만들어 냈다. 이 패러독스는 과학 기술중심주의로부터 문화중심주의로의 상징적 전이를 의미한다. 에너지처럼 상징성도 자체적으로 소멸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다만 반도체 전이를 소자처럼 대체되거나 최소화될 뿐이다. 이것이 건축에서의 상징성의 배제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건물-오브제 고유의 특성과 공간 거주자의 세계(유클리드기하학에 의해 정립된), 전자세계를 전부 동일시하게 되지는 않겠는가?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비유클리드

기하학(유클리드 기하학에서 평행선의 공리를 부정한 기하학)에서 주장하는 공간의 곡률(곡선이나 곡면의 굽은 정도)을 연구함으로써 가능할까? 실제 건물스케일에서 이 문제가 공간의 곡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이 오브제를 엮어서 인위적인 인텔리전트 빌딩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건축은 하드웨어를 위한 커버나 대규모 스케일의 하우스를 고집하여 두 시스템간의 안정된 거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 절차들은 모두 상상력이나 기술로부터 도출해낸 엄청난 표현적 내용물이다. 이런 실험적 연구의 결과물로서 건축적 새로움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만약 비-뉴턴역학의 형식만들기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이 문제에 접근해간다면 자율적 미학의 논의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욕망desire」에 따르는 이 부산물은 현대의 가능성의 세계를 지향하는 기술과 상상력의 매개자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욕망 > 상징성

2) 중력의 배제

유별났던 지난 50여년동안의 물리학의 발전에 따라 세계의 양식적인 현상을 새롭게 설명하려 하지만 특히 건축은 세계를 시각화하는 위대한 불후의 도전이었다. 하이젠베르크와 닐스 보어(덴마크, 1885-1962)가 원자세계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언어체제로 만든 수학적행렬은 정지된 현실은 인정했지만 객관적 실재는 부정했다. 설명언어인 수학은 임의적인 해석의 주위를 떠도는 상상된 수백만개의 「테니스볼들 tennis balls」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학보다는 상상력의 산물인 건축이 이 테니스볼들에 더 가깝다. 물리적 현실에 나타나는 시각적 직관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관찰하고 선택하는가에 의존한다. 중성자 확정장의 시각물인 테니스볼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구조를 모델화한 것이다. 다시말해 인식의 변화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테니스볼 그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미학적 건축오브제의 가치가 눈에 보이지도않는 현상의 현존을 계속 주장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의도나 커뮤니케이션, 지식의 발전주의를 어디인가 자리잡아줄 수 있다면 그 요소들은 형식의 상징적 차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중력의 극복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어떤 제트비행기의 보조날개를 보면 중력과 공기의 흐름이 이같은 작용을 함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시각적으로 논리적인 응용형식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술적 해결책은 필연적으로 아름다움을 수반한다. 뉴턴역학에서 날개같은 기계들은 시각적 수단을 통해 본래의 목적을 표현한다.

공간부유에 관계된 모든 오브제들은 같은 특성을 가진다. 고정된채 움직이는 유동성의 오브제들인 건물, 개, 비행기, 나무들은 모두 공간의 곡률효과를 따른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구면 기하학으로의 변환은 이들 오브제의 기하학을 굴절시켜 각 오브제에 비추된 에너지 양의 차이를 명확히 해준다.

-중력은 기하학이다. 중력 = 기하학 이라면 반기하학 = 반중력에 따르며 반기하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반중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

2. 새로운건축의 위협

새로운 건축은 사회적 논쟁에 의해 요구되지도 않는 불필요한 오브제에 불과한가? 그것은 어쩌면 이제까지 본적도 없는 이 미학이거나 폐기된 용도를 위해 탄생된 고립적 형식일지도 모른다. 이제까지 건축은 전통에 너무 시달려 왔다. 만약 새로운 건축을 꿈꾼다면 모든 오브제의 역사나 그것에 의해 도태되는 현실과 투쟁해야 한다. 아이디어나 이념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은 모두 건축의 몸체안에 자리잡아야 한다. 이 새로움의 동기는 원래 잘못 유도된 욕망에 불과하다 발명의 행위만이 추측과 만들기의 불연속적 열정을 하나로 집중시킬수 있다.

3. 스펙타클

세계를 기계처럼 작동시키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은 전쟁에 의해 정치화되거나 기계의 친숙함을 통해 사회화 되어 갔다. 일상생활의 요구와 핵전쟁의 위협사이에는 사이즈와 밀도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 눈부신 과학적 발견과 그 기술적 완숙도에 따라 벌어진 역사적 사건들은 사회적 스펙트럼을 만들어낸다. 또한 특별한 질병의 종말이나 새로운 에너지 형식의 발전 등은 어떤 특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논리적으로 투쟁해 왔다. 그같은 배경하에 보무르의 인습적 기계장치(봉피두센터)와 도시근교의 무한한 기계장치를 비교해 볼때 건축의 스펙타클은 사이즈보다는 밀도의 영향을 받는듯 하다.

4. 중립성대 자율성

“컴퓨터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제국 모두에서 통용되고 사이클로트론(이온가속기 / 전기를 띤 입자를 도너츠형의 통속에서 회전시켜 차츰 에너지를 크게하는 장치)가 전쟁지지자나 평화주의자 모두에 유용한 도구인것을 볼때 기술은 중립적”임을 알 수 있다고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는 지적한바 있다. (1차원적 인간에서 인용)그로인해 결정론적인 도구성과 자비로운 추측의 세계는 하나로 통합된다. 문화와 조직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욕망은 기계사용에 투자된 기술의 도움으로 성취된다. 그것은 기계가 지배와 통제에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기술의 목적은 이름답고 쾌적한 현실을 만들어내는데 있으며 그런 이유로 “중립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처럼 테크놀러지의 급속한 진보는 세계내의 의지를 항상 대변한다. 그리스시대 이래 언제나 기술적인 제약이 문명세계를 그리고 숭고한 기독교는 반기술적인 세계를 만들어 왔다. 기술의 진보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조화로운 삶의 총체적인 조화를 추구해 나갔다. 한때 브두벨레스키같은 위대한 건축가가 교회로 짓는데서 발생하는 공학적 어려움을 해결해냈듯이 그같은 건축가가 지금도 존재한다면 문화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에 몰두할 것이다. 따라서 브두벨레스키의 돔과 U-2는 하이테크를 지향하는 오브제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적합성은 오늘날 편리성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A+U : 91년 3월호>

삼척시 종합문화회관

Samcheok Cultural Center

崔相龍 / 예림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Sang - Yong

대지위치 : 강원도 삼척시 성남동 1 - 5번지의 15필지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공원지구

도로현황 : 폭 20.0m(북서측)

용도 : 관람집회시설(공연장 / 집회장)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프러스

대지면적 : 22,582.0m²

연면적 : 5,239.28m²

동별면적 : • 대공연장동 - 3,576.9

• 소공연장동 - 555.9

• 회의, 전시관동 - 986.1

• 야외음악당 - 70.9

• 수위실동 - 16.1

• 정사동 - 33.5

건축면적 : 3,456.06m²

건폐율 : 1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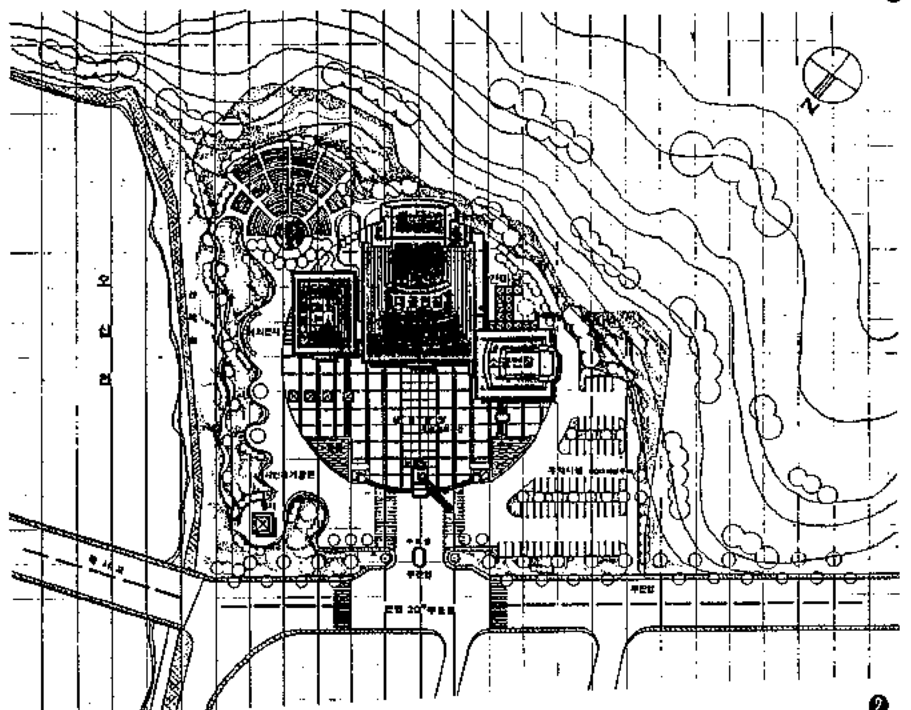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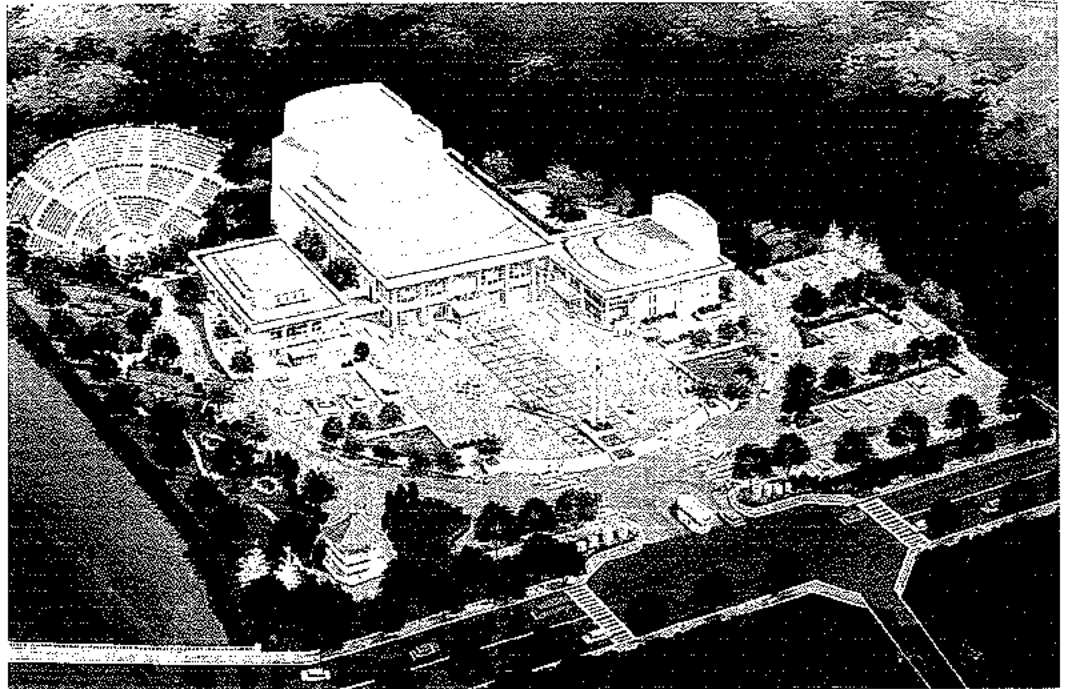
용적률 :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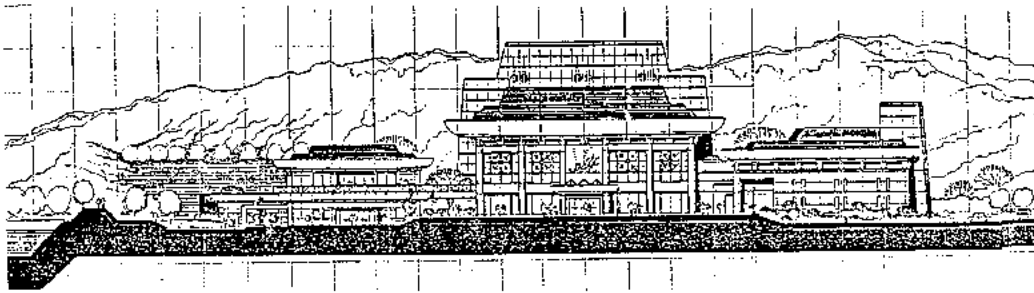
대지상황

정철의 (송강가사)의 본고장인 삼척의 죽서루는 태백순령을 넘어 관동 8정의 제1경으로서, 고전적 이미지를 그대로 포용하고 있으면서도 거대한 시멘트 공장지대가 도시의 경제적 문화적 여건을 지배하기도 하는 곳이다. 죽서루를 대항하는 문화회관 부지는 동해로 흐르는 오십천 강줄기와, 부지 주변의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원 부지와 장차 신시가지로 연계되는 20M의 도시의 이미지를 갖는 장소성과 상징을 갖고 있다.

배치 및 시설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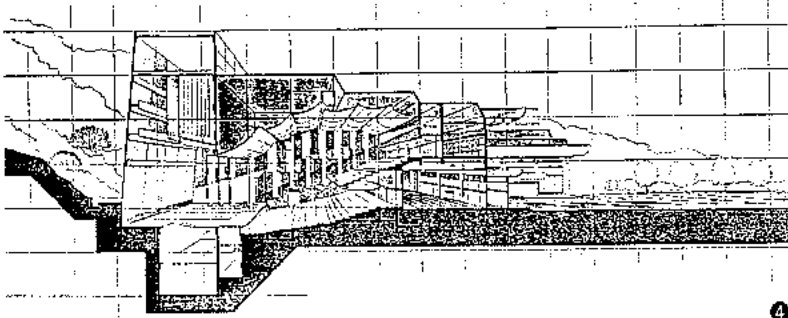
-보행 접근성,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진입 및 장래 시설의 확장계획, 장소적 상징성에서 나타나는 거대함과 시설의 공동화 현상 등 기존 대도시의 문화회관 시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시민이 갖고 있는 기존 부지에 대한 인지도 즉, 오래된 익숙함은 그대로 보존한다는 원칙아래 오십천 둑길의 낭만을 녹지 휴게공원으로 연계시키고, 지세를 이용하여 산비탈 오솔길은 야외공연 시설로 계획하였다. 8각정의 죽서루 정자(궁도장) 위치에 휴게정자를 배치하여, 죽서루의 보존성과 함께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시설 공사의 단계적 분리 가능성과 기능별, 관리운용 동선 체계, 건축조형적 체계에 부합되는 원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 수평 축의 설정은 곧 도시축(Urban Axis)과 시각축(View Axis)을 내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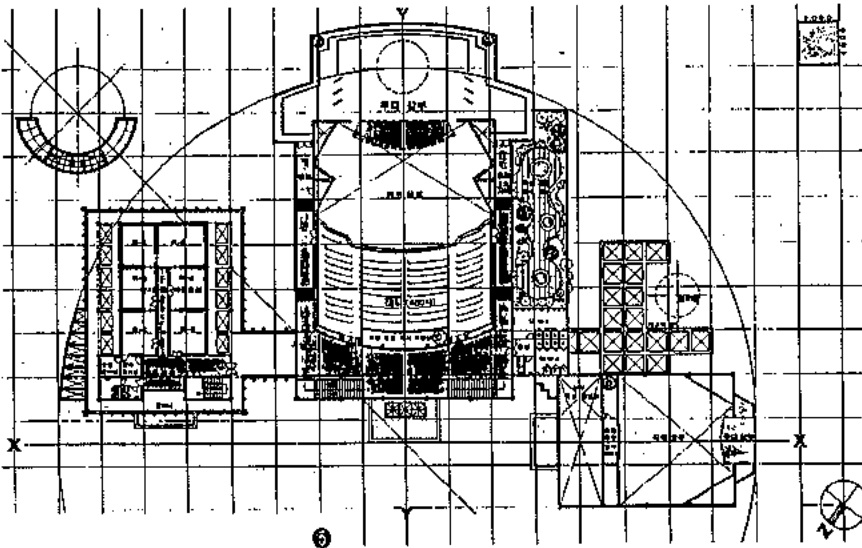


- ① 전경 투시도
- ② 배치도
- ③ 정면도
- ④ 대공연장 주단면도
- ⑤ 2층 평면도
- ⑥ 1층 평면도
- ⑦ 조경공간 구성도
- ⑧ 기능계통도
- ⑨ 이용관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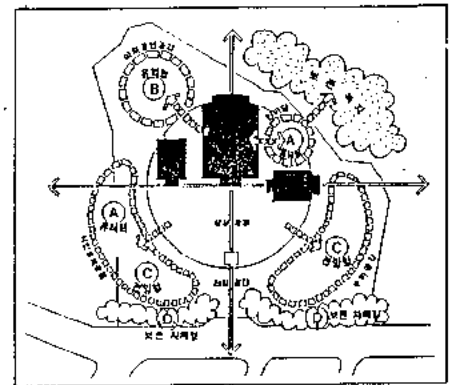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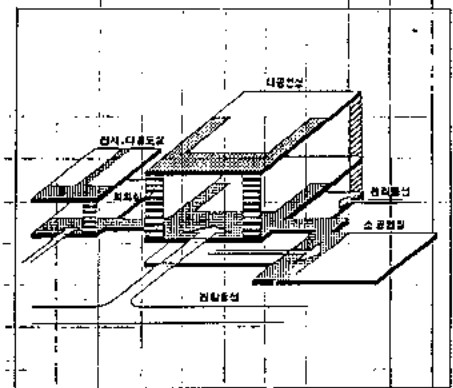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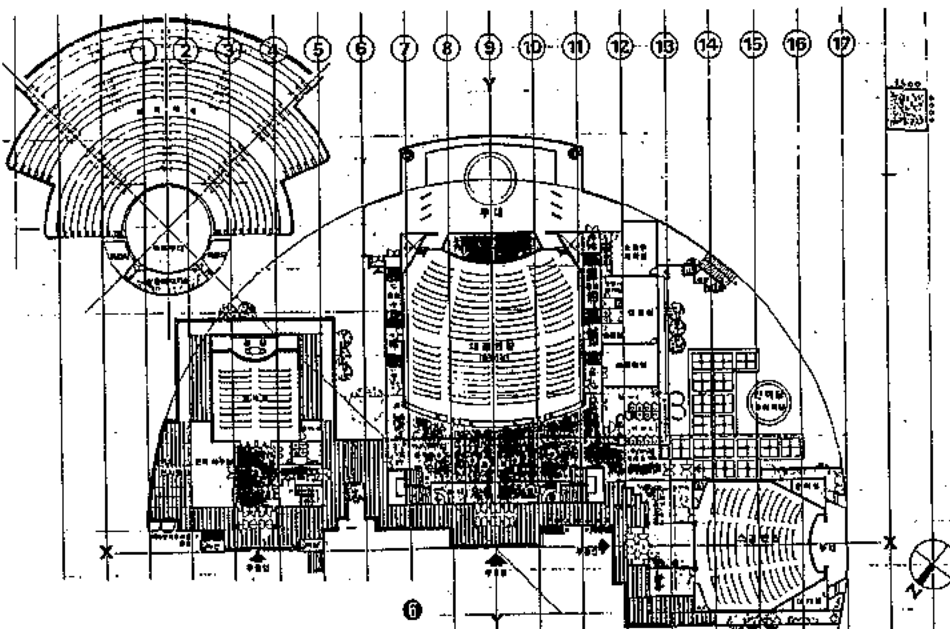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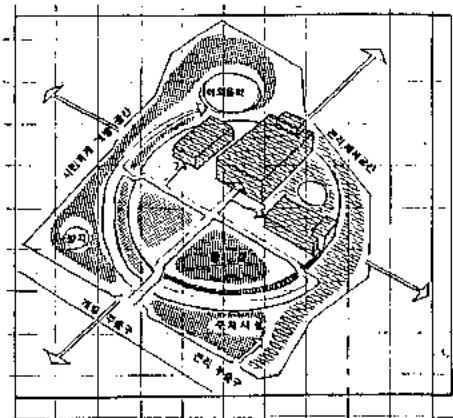
⑦



⑧



⑥



⑨

1992년 2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2월분 1천8백14만6천8백58m²보다 40.31%(7백31만4천1백21m²) 감소한 1천83만2천7백37m²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 2월누계 2천5백65만7천3백97m²보다 34.61%(8백87만8천7백58m²) 감소한 1천6백77만8천6백39m²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전월 1월분 5백94만5천9백2m²보다 82.19%(4백88만6천8백35m²) 감소한 1천83만2천7백37m²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狀態)

(연면적 기준 - 전년동월비)

(단위 / m²)

구분	분	1991년도	1992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대전	602,553	1,121,531	518,978	86.13%
	강원	262,873	324,429	61,556	23.42%
감소지역	서울	3,143,211	1,358,571	(1,784,640)	-56.78%
	부산	769,948	565,549	(204,399)	-26.55%
	대구	1,890,808	401,816	(1,488,992)	-78.75%
	인천	425,009	336,452	(88,557)	-20.84%
	광주	304,268	176,401	(127,867)	-42.02%
	경기	4,416,796	3,409,709	(1,007,087)	-22.80%
	충북	449,127	347,679	(101,448)	-22.59%
	충남	537,504	248,169	(289,335)	-53.83%
	전북	957,203	187,513	(769,690)	-80.41%
	전남	612,306	306,459	(305,847)	-49.95%
	경북	1,292,432	817,213	(475,219)	-36.77%
	경남	2,111,569	1,190,563	(921,006)	-43.62%
	제주	371,251	40,683	(330,568)	-89.04%
합계		18,146,858	10,832,737	(7,314,121)	-40.31%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増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 m²)

종별	1월분	2월분	증·감	비율(%)
단독주택	474,468	548,187	73,719	15.54%
다세대주택	127,350	124,556	(2,794)	-2.19%
연립주택	169,811	68,722	(101,089)	-59.53%
아파트	2,528,793	6,552,303	4,023,510	159.11%
근린생활시설	879,692	1,365,042	485,350	55.17%
종교시설	37,559	40,602	3,043	8.10%
의료시설	48,719	2,837	(45,882)	-94.18%
교육연구시설	208,131	159,100	(49,031)	-23.56%
업무시설	228,959	492,047	263,088	114.91%
숙박시설	54,712	62,376	7,664	14.01%
공점	649,544	674,555	25,011	3.85%
기타	538,164	742,410	204,246	37.95%
계	5,945,902	10,832,737	4,886,835	82.19%

市道別 全國圖書申告 概況 (2月分)

시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면적	연면적	건수	면적	연면적	건수	면적	연면적	건수	면적	연면적
서울	1,489	1,619	1,314,601	85	92	43,970	0	0	0	1,574	1,711	1,358,571
부산	859	1,018	457,830	94	120	80,773	41	47	26,946	994	1,185	565,549
대구	468	507	371,311	161	175	16,133	31	34	14,372	660	716	401,816
인천	313	359	318,057	20	21	9,044	20	21	9,351	353	401	336,452
광주	267	295	165,448	32	33	8,788	7	7	2,165	306	335	176,401
대전	277	468	1,074,766	28	35	30,092	55	55	16,673	360	558	1,121,531
경기	1,205	2,001	3,307,313	106	131	54,201	81	81	48,195	1,392	2,213	3,409,709
강원	355	428	301,209	70	75	17,652	20	22	5,568	445	525	324,429
충북	415	531	312,737	96	132	30,554	36	37	4,388	547	700	347,679
충남	311	353	204,659	77	80	20,228	20	39	23,282	408	472	248,169
전북	214	254	163,553	63	72	17,145	14	14	6,815	291	340	187,513
전남	327	430	262,734	96	143	39,634	13	13	4,091	436	586	306,459
경북	525	676	755,044	109	142	35,457	41	35	26,712	675	853	817,213
경남	897	1,184	1,119,111	121	160	51,685	35	38	19,767	1,053	1,382	1,190,563
제주	140	163	33,539	73	73	7,144	0	0	0	213	236	40,683
합계	8,062	10,286	10,161,912	1,231	1,484	462,500	414	443	208,325	9,707	12,213	10,832,737

市道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2月 合計分)

구분 시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	2,181	2,393	1,749,223	133	145	63,276	0	0	0	2,314	2,538	1,812,499
부산	1,836	2,515	1,335,457	227	286	124,967	85	94	46,986	2,148	2,895	1,507,410
대구	617	691	579,216	307	328	24,170	69	74	53,011	993	1,093	656,397
인천	529	638	490,790	31	36	61,996	41	45	26,123	601	719	578,909
광주	402	447	207,207	64	71	17,030	16	16	4,962	482	534	229,199
대전	365	564	1,224,904	50	57	58,667	112	113	31,725	527	734	1,315,296
경기	2,123	3,268	4,473,973	180	219	83,375	173	173	124,026	2,476	3,660	4,681,374
강원	557	691	456,138	113	140	33,930	36	38	8,000	706	869	498,068
충북	781	939	427,553	149	211	50,387	95	98	11,067	1,025	1,248	489,007
충남	572	643	433,404	145	150	50,202	34	53	26,838	751	846	510,444
전북	328	391	251,117	91	104	40,255	35	35	11,156	454	530	302,528
전남	686	866	436,139	185	261	109,154	39	39	12,114	910	1,166	557,407
경북	855	1,109	1,064,640	201	246	112,463	63	57	75,118	1,119	1,412	1,252,221
경남	1,487	2,064	2,093,726	217	334	84,684	72	75	40,952	1,776	2,473	2,219,362
제주	197	256	160,486	119	119	8,032	0	0	0	316	375	168,518
합 계	13,516	17,475	15,383,973	2,212	2,707	922,588	870	910	472,078	16,598	21,092	16,778,639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2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3,461	3,593	508,296	406	435	35,616	31	32	4,275	3,898	4,060	548,187
다세대주택	248	285	122,005	24	24	2,418	1	1	133	273	310	124,556
연립주택	43	60	66,830	5	5	1,847	1	1	45	49	66	68,722
아파트	163	1,431	6,544,196	4	12	916	5	6	7,191	172	1,449	6,552,303
근린생활시설	2,853	3,000	1,220,857	339	357	70,743	221	224	73,442	3,413	3,581	1,365,042
종교시설	44	56	27,082	33	37	12,104	3	3	1,416	80	96	40,602
의료시설	1	1	980	2	3	372	2	2	1,485	5	6	2,837
교육연구시설	39	60	124,916	20	25	22,652	26	26	11,532	85	111	159,100
업무시설	127	139	417,120	33	35	51,432	22	22	23,495	182	196	492,047
숙박시설	25	26	47,203	10	10	597	4	6	14,576	39	42	62,376
공장	294	602	506,516	156	257	126,429	43	66	41,610	493	925	674,555
기타	764	1,033	575,911	199	284	137,374	55	54	29,125	1,018	1,371	742,410
합 계	8,062	10,286	10,161,912	1,231	1,484	462,500	414	443	208,325	9,707	12,213	10,832,737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2월 合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5,485	6,136	961,102	656	739	54,531	74	76	7,022	6,215	6,951	1,022,655
다세대주택	507	603	248,298	45	45	2,820	6	6	788	558	654	251,906
연립주택	80	143	236,568	9	9	1,920	1	1	45	90	153	238,533
아파트	299	2,070	9,058,471	10	20	5,452	7	8	17,173	316	2,098	9,081,096
근린생활시설	4,774	5,027	1,976,740	619	646	118,391	435	443	149,603	5,828	6,116	2,244,734
종교시설	85	110	52,224	61	69	21,133	10	10	4,804	156	189	78,161
의료시설	6	6	12,817	10	15	36,961	3	3	1,778	19	24	51,556
교육연구시설	74	101	233,774	55	65	92,856	62	62	40,601	191	228	367,231
업무시설	181	193	613,941	53	67	68,281	37	37	38,784	271	297	721,006
숙박시설	33	34	50,114	17	19	5,446	20	22	61,528	70	75	117,088
공장	610	1,151	982,412	296	488	266,032	88	115	75,655	994	1,754	1,324,099
기타	1,382	1,901	957,512	381	525	248,765	127	127	74,297	1,890	2,553	1,280,574
합 계	13,516	17,475	15,383,973	2,212	2,707	922,588	870	910	472,078	16,598	21,092	16,778,639

開 會 辭



오윤동 회장

존경하는 전국 대의원 여러분 !

오늘은 결산을 중심으로 현당면과제에 대한 대책과 내일을 위한 발전적인 사안들을 토의하고 결정코자 하오니 일찬 회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대의원 여러분의 깊은 배려에 힘입어 그동안 협회의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제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더욱 협회 발전을 위하여 정진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 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사안들은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의원 여러분 !

정부가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대폭 제한함으로써 우리 회원들의 사무소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드리고 있는데 대하여 실로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번 조치는 우리 건축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서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어려운 과제로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해량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협회는 정부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적 경제난국 극복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조금만 더 참고 협조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

아같이 안타까운 오늘의 우리 현실을 전적으로 정부당국에만 책임지울수는 없다고 생각되며 우리도 전문건축인으로서 시대적 양심에 입각한 현실적 진단과 정책 제시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은 반성의 기회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금까지는 이기적인 욕구와 일방적인 주장들이 얹혀서 각종 건축부조리와 불협화음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잃고 외면당할수 밖에 없었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회원 모두가 화합하는 가운데 보다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의견으로 발전하여 협회를 통해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정부당국으로부터 환영받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으며 건축에 관련한 모든 정책을 앞서 제시하고 올바르게 이끌어감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성숙한 모습의 협회와 건축사상을 심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 여러분 !

전국 모든 회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은 건설부에 의해 전문 개정(안)이 마련되어져서 오는 4월 3일 본 협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편익 위주로 머지않아 개정되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 26 회 정기총회시에도 말씀드린바 있는 단독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 조정문제도 지난 3월 18일 건설부장관님을 단독면담한 자리에서 제차 건의드린 바 있어 곧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쳐서 조정되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

10년전 1천8백여 회원에 불과했던 우리 협회가 지금은 3천8백여 회원을 포용하면서 여러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협회는 보다 높은 곳에 서서 더 멀리 바라보며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비난과 비방을 일삼는다면 결코 우리의 앞날은 밝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묵묵히 자기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어떠한 거센 도전도 헤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속에 잠재해 있는 힘의 결속을 다져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를 잠음합니다.

1992. 3. 27

會 長 吳 雲 東

致 辭



건설부 장관 치사를 대독하는
이상웅 차관

대한건축사협회가 창립된지 4반세기를 지나오면서 3천8백여회원을 지니고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크게 발전시켜 오신 회원 여러분과 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

건축물은 국민의 생활공간인 동시에 이 시대의 문화수준을 재는 척도이며 역사적 문화적 산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국 곳곳에서 세워지는 모든 건축물이 여러분의 설계와 감리에 의해서 그 질이 좌우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역할과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건축물을 하나하나 설계하고 감리를 할 때 이러한 사명을 한사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화 자율화 그리고 국제화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서 지난해 건축법을 국민 편의위주로 전면 개정하였고 금년에는 그 시행령 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행 건축사법령도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일선행정기관의 행태도 국민 편의위주로 전환해 나가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건축계가 당면하고 있는 인력과 자재의 절약 그리고 공사비의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면서 건축설계 분야 등의 대외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기술개발, 외국 기술진과의 합작 등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여러분이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경우 이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건축사 여러분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 관련제도를 부단히 개선할 계획입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지난해에 정부가 불가피하게 취한 건축제한조치의 연장에 대해서 여러분의 대승적인 협조와 이해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 기회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시면서 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건축부조리의 추방과 불법건축물의 예방에 앞장서 주시고 특히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과 활기찬 사회기풍 진작을 위한 일하는 풍토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이 자리가 건축사 여러분의 시대적 소명을 되새기고 건축문화발전에 항도적 역할을 다짐하는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 3. 27

建設部長官 徐 榮 澤



개막 테이프 커팅 풍경

본 협회가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발전과 새로운 건축풍토 조성 및 후진양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92 한국건축전 개막식이 지난 3일 오후 3시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있었다. 이날 개막식에는 吳雲東 회장을 비롯한 건설부 주요인사, 조경회 예술의 전당 이사장, 장석웅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등 많은 건축관계 인사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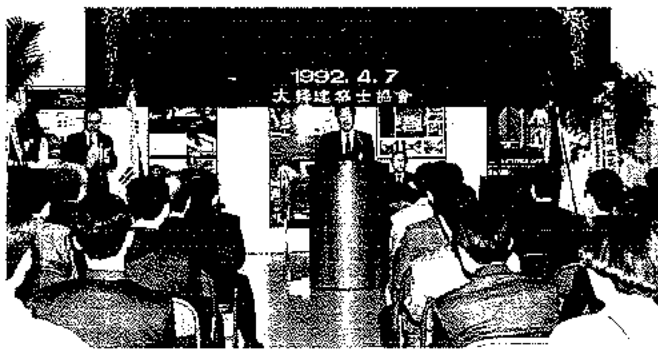
본부임원,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막을 올렸다.

한편, 지난 7일 실시한 시상식에서 吳雲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92 한국건축전은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건축문화를 주도하는 대표적 행사로서 일반인의 건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은 물론, 기성 건축인에게서는 끊임없는 자아개발 욕구를 심어주는 한

편, 우리 건축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인·학생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새로운 인재양성의 산파역할을 다해왔으며, 금년 전시회는 시대발전에 따른 건축육구의 충주 노력은 물론, 종합예술로서의 건축을 올바르게 표현하려는 새로운 시도와 함께 우리네 삶 속에 더불어 숨쉬는 건축을 구현하려고 노력했다.」

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4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공개된 본 전시회에는 건축관련인 및 건축전공 대학생, 일반인 등 하루평균 3천여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 건축계 및 일반인들의 「韓國建築展」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시상식 전경



내빈들에게 작품을 설명하는 오문동 회장



건축사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김의성 회원



신인부문 최우수상 시상 광경

'92년도 제2회 臨時總會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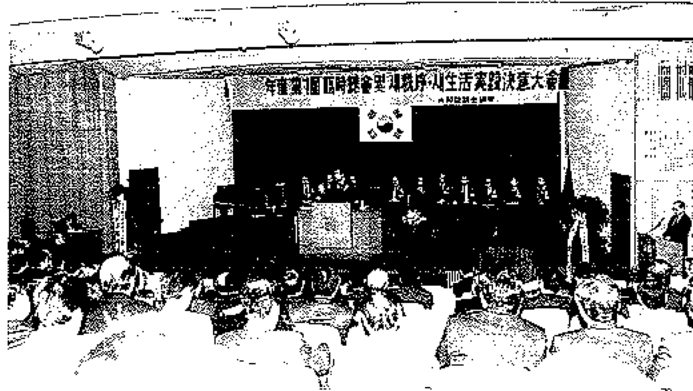
'91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처리와 건축사 연금규정개정(안) 승인 등을 위한 '92년도 제1회 임시총회가 지난 27일(금) 본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재적대의원 398명중 3백 2명이 참석한 이날 부의안건의 주요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 '91회계년도 일반회계 수지결산(안) 승인
 - '91회계년도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
 - '92회계년도 건축법령연구소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
 - '92회계년도 건축사연금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
 - '92회계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
 - '93회계년도 실적회비 전국징수율 결정
 - 실적회비 전국징수율 0.5%로 결정
 - 건축사 연금규정 개정(안) 승인
 - 원안 폐기
- 한편,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91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처리를 위한 각 시·도건축사회별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주요 부의안건을 처리하였다.
- 각 시·도건축사회별 임시총회의 주요안건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건축사회

- * 일시 : 2월 27일 (목)
- * 장소 : 본 협회 강당
- '91회계년도 일반회계 수지결산(안) 승인
- '91회계년도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
- 대의원 보선
- 회장 및 해당분회장에게 위임
- '92회계 세입결손시 예산 일시차입에 관한 건(기타사항)
- 간사회에 위임하여 결정키로 함.



임시총회 전경

▶ 부산건축사회

- * 일시 : 2월 28일 (금)
- * 장소 : 해운대 파라다이스 비치호텔
- '91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 임의적립금 사용 승인

▶ 대구건축사회

- * 일시 : 2월 28일
- * 장소 : 대구 파크호텔
- '91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 '92회계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

▶ 인천건축사회

- * 일시 : 3월 5일 (목)
- * 장소 : 건축사회 회의실
- '91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 '92회계년도 경정수지예산(안) 승인

▶ 광주건축사회

- * 일시 : 2월 28일 (금)
- * 장소 : 광주건축사회관 회의실
-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 '92회계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

▶ 대전건축사회

- * 일시 : 2월 28일 (금)
- * 장소 : 프린스 관광호텔

- '91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 대의원 1인 선출
- 임근수(조형종합건축사사무소)
- 임기 - '92년 10월까지

▶ 경기건축사회

- * 일시 : 2월 27일 (목)
- * 장소 : 수원 부라운 관광호텔
- '91회계년도 일반회계 수지결산(안) 승인
- '91회계년도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

▶ 강원건축사회

- * 일시 : 2월 29일 (토)
- * 장소 : 건축사회 회의실
- '91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 '92회계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 제안설명중 인건비에서 건축사사무소를 타 시·도건축사회로 일부 수정후 원안대로 승인

▶ 충북건축사회

- * 일시 : 2월 27일 (목)
- * 장소 : 충북건축사회 회의실
- '91회계년도 결산서 승인

▶ 충남건축사회

- * 일시 : 2월 25일 (화)
- * 장소 : 대전 프린스호텔

- '91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 전남건축사회

- * 일시 : 2월 25일 (화)
- * 장소 : 광주 추선서관
- '9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 승인
- '92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 총예산(안) 규모내에서 일부 항목간 금액조정키로 하고 승인

▶ 전북건축사회

- * 일시 : 2월 27일 (목)
- * 장소 : 전주 코아호텔
- '91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 경북건축사회

- * 일시 : 2월 28일 (금)
- * 장소 : 경주 힐튼호텔
- '91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 '92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

▶ 경남건축사회

- * 일시 : 3월 3일 (화)
- * 장소 : 건축사회 회의실
- '91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 '92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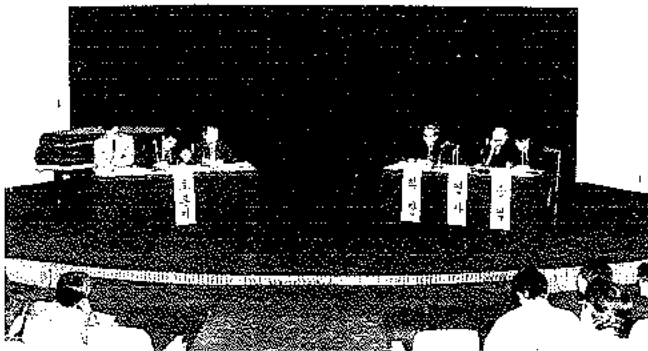
도시설계 강연회 개최

본 협회에서는 우리나라 건축 문화의 발전과 제도상의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지난달 30, 31일 양일간에 걸쳐 독일 슈트트가르트 대학교의 교수이며 독일내에서 독특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Prof. Dr. Michael Trieb을 강사로 초청하여 “독일의 도시설계”에 관한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도시형태론”과 “실례를 통해서 보는 도시설계”라는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강연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독

일이 그동안 수많은 변혁기를 거쳐오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과거의 동독지역인 ‘슈트랄준트’와 ‘포츠담’을 중심으로 한 도시설계의 실례를 통해 분단이전의 찬란한 역사와 분단시기의 전통을 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맥락을 어떻게 소화하고 해결하였는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회원 및 건축관계인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이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독일의 도시설계」에 관한 특별강연회



특별 강연회 전경

건축법령 토론회 개최

본 협회 건축법령연구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의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코자 지난 3일 본 협회 대강당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회 회원을 비롯한 건축관계인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속에 5개의 과제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토론회의 각 과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제 1 과제 - 국민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 소규모 건축물 등의 신고대상 확대
-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의 일괄 신고제리

- 건축법 적용상의 예외 인정제도 마련
- ▶ 제 2 과제 - 건축기준의 조례위임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강화
-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규제체제의 개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방법의 개선
- 대지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지기준의 조정
-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의 조정
- ▶ 제 3 과제 - 건축물의 품질관리제도의 강화
- 중간검사 강화
- 공사감리의 내실화

- 건축설비의 설계 및 감리방법 개선
- ▶ 제 4 과제 - 건축물의 구조·방재기준의 개선
- 건축물의 구조기준의 보완
- 구조안전의 확인대상의 조정
- 건축물의 방재상 적용할 용도

분류 신설

- ▶ 제 5 과제 - 도시미관제고 및 토지의 절약적 이용 도모
- 도시설계 제도의 보완
- 건축물 및 용작물의 완화
- 건축물 높이 제한 조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



토론회 전경

신임상근부회장 취임

본 협회는 지난달 12일 제 3 회 이사회에서 본협회 상근부회장에 박경환(朴景煥)氏를 임명하였다.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순호 부회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신임 박부회장은 부산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30여년동안 건설공무원으로 공식 생활을 시작하여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장, 도시국장, 해외건설국장 등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건축행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다.



朴景煥

- 1935년 1월 10일 생
- 부산대 영문과 졸업
- 건설부 부산청장 역임
- 원주청장 역임
- 도시국장 역임
- 해외건설국장 역임
- 대전청장 역임

서울건축사회장 지방국세청 방문

서울건축사회 이문우회장은 지난달 25일 서울지방 국세청 소득세과를 방문하여 협회현황 및 현재 건축사가 처해있는 전반적인 입장설명과 아울러 건축사의 수입금액 신고시 과세적용에 있어 공정성 있고 합리적인 수입금액 신고기준을 적용하여 줄 것등을 건의하였다.

또한 건축사 소득표준율에 있어서 건축관련 유사업종보다 소득표준 기본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현행 세율의 기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관세부서에서 연구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함과 아울러 소득표준 기본율 인하문제에 관해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국세청에 건의하기로 협의하였다.

제10회 서울시 건축상 발표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21까지 서울시청 지하보도 전시실에서 제10회 서울시 건축상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이번 건축상의 금상에는 (주)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신국범)에서 출품한 영등포 민자역사 및 롯데 백화점이 선정되었으며, 은상에는 연남동 주택 아뜨리에와 한국통신공사 서울사업본부 전자교환운용 연구단이 선정되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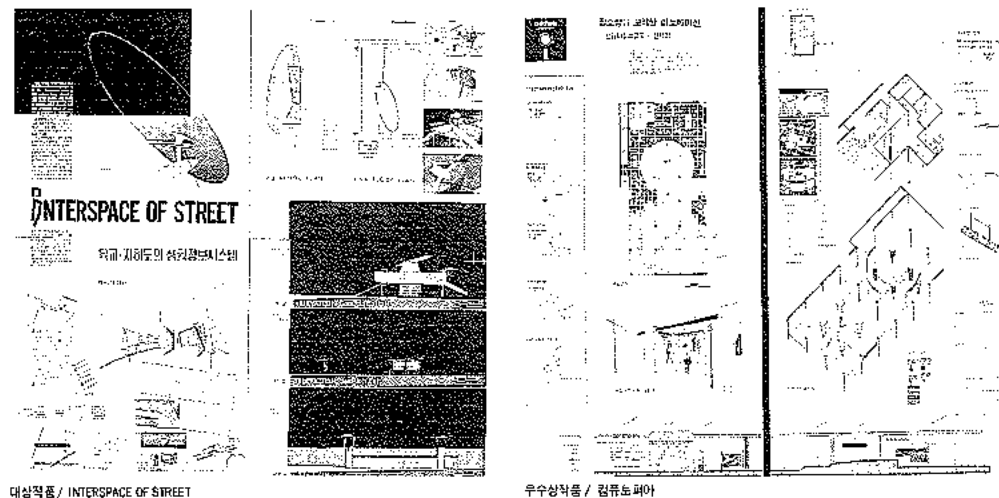
시 상 구 분	작 품 명	설 제 자	소 속
금 상	영등포 민자역사 및 롯데 백화점	신 국 범	(주)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은 상	연남동 주택 아뜨리에	김 영 섭	종합건축사사무소 의진·분화·동인
	한국통신 서울사업본부 전자교환운용 연구단	김 정 식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동 상	한국은행 강남전산센터	이 영 화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벽산 125	김 수 근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국립영화 제작소	김 기 용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
장 려 상	(주)일신방직사옥	윤 승 중 변 용 민 현 식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진화랑	최 병 철	구름가건축 도시연구소
	보라매 병원	정 종 영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제5회 한국인테리어 디자인 대전 수상작 발표

가인디자인그룹이 국내 인테리어 디자인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주최한 “제5회 한국인테리어 디자인 대전” 수상작이 발표되었다. 지난 4일 접수마감을 한 결과 총 51점이 응모하여 9일 김원석((주)테크노 대표), 김정우((주)탐인터내셔널 대표), 오영근(호서대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주제, 계획, 독창성, 실현성, 표현방법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대상 1점 및 우수상(1점), 특선(5점), 입선(11점)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5월 1일(금) 오후 2시에 강남 「INDECO」 전시장에서 있을 예정이며, 전시는 5월 1일부터 4일까지 「INDECO」 전시장에서 개최 할 예정이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시 상 구 분	작 품 명	출 품 자	소 속
대 상	INTERSPACE OF STREET	이 재 국 외	전국대 실내디자인학과
우 수 상	컴퓨터도파아	김 은 외	상명여대 실내디자인학과
특 선	EXPERIMENT ON CLIFF	김 인 식 외	홍익대 건축학과
	겨라에서 시간과 만나기	김 영 범 외	호서대 응용미술학과
	성장하는 주택	조 규 형 외	동양공전 건축과
	VISUAL AFTER IMAGE	백 연 우 외	전국대 실내디자인학과
	지하공간의 아이덴티티	성 록 외	경원대 건축학과

신 입 회 원



韓彦泰(54年)
영남대 건축
(주)우양건축(종합)
서울 강남 역삼 637-46
553 - 8849



金斗鎭(43年)
인하대 건축공
하나건축
충남 천안 성정 622-4
62 - 5878



金正洙(57年)
서울산업대 건축공
화정건축
서울 영등포 당산 129
632 - 8038



趙龍吉(50年)
한양대 건축공
삼도건축(종합)
서울 서초 방배 1001-8
585 - 0126



田化成(44年)
서울대 건축공
하나그룹건축(종합)
서울 서초 방배 752-16
595 - 4976



姜貞鎬(38年)
한양대 건축공
다우그룹건축(종합)
서울 강남 도곡 452-4
571 - 0858



權相文(42年)
한양대 건축공
(주)유신건축(종합)
서울 강남 역삼 832-40
562 - 7549



李鍾憲(44年)
경기실전 건축공
오현·삼전축(종합)
서울 송파 송파 7-2
424 - 6996



李良雨(47年)
대전공고 건축
풍산건축
서울 성북 삼선 274-1
928 - 3330



金淸根(51年)
홍익대 건축
로가, 이상, 고관(종합)
서울 서대문 연희 100-10
335 - 7251



韓光鎬(58年)
강원대 건축
산건축(종합)
강원 춘천 중앙로 2가 1
56 - 2994 ~ 6



李乘官(58年)
한양대 건축공
신무림·해인건축(종합)
서울 송파 방이 36-9
424 - 3788



李禎九(60年)
원광대 건축
(주)기린국건축(종합)
서울 서초 방배 811-1
591 - 1237



李在雄(51年)
부산대 건축
(주)천일건축(종합)
서울 강남 포이 209-18
578 - 2921



金榮翊(57年)
한양대 건축공
신무림·해인건축(종합)
서울 송파 방이 36-9
424 - 3788



姜性浩(58年)
중앙대 건축공
한솔건축(종합)
서울 강서 화곡 1098-12
692 - 8826



安承鐵(53年)
한양대 건축, 토대학원
반도건축(종합)
서울 서초 방배 1022-3
588 - 0685



李錫景(48年)
영남대 건축
경건축
경기 시흥 대야 380-7
494 - 6644



宋錫昌(42年)
한양대 건축공
창신건축
서울 강남 포이 236-18
579 - 6042 ~ 3



李世英(59年)
연세대 건축공
의전·건축문화·동인건축
서울 영등포 여의도 44-22
782 - 1908



玄炳錫(54年)
서울산업대 건축공
구로건축
서울 구로 구로 103-11
858 - 9740



金成民(60年)
성균관대 건축공
으뜸원건축(종합)
서울 송파 송파 19-8
415 - 2215



李泰永(58年)
명지대 건축
가교건축
서울 마포 상수 136-1
325 - 2364



郭豪鎔(57年)
성균관대 건축
아람광장, 티에스 씨(종합)
서울 종로 동숭 1-100
744 - 8222



吳泰鉉(57年)
부산공업대 건축
세종건축
부산 금정 부곡 3동 23-13
515 - 9477



申相德(53年)
고려대 건축
남산건축(종합)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26
771 - 0367



尹泰鎬(50年)
한양대 건축공
환경건축(종합)
서울 송파 송파 20-5
418 - 3623



金榮權(58年)
고려대 건축
예전건축(종합)
서울 강남 역삼 823-42
553 - 0680



張時昌(34年)
한양대 건축
종합건축(종합)
서울 종로 낙원 109-1
765 - 0835



徐錫淵(47年)
연세대 건축공
홍일건축
경기 과천 철산 220-2
617 - 0581



鄭奉燮(51年)
한양대 건축
線기획건축
서울 강남 청담 59-10
516 - 8941



崔準正(43年)
부산대 건축
영지, 성보건축(종합)
서울 서초 방배 851-2
534 - 5088



金相景(52年)
연세대 건축, 서울대학원
예전건축(종합)
서울 강남 청담 31-10
574 - 4277



洪完基(60年)
인하대 건축, 서울대학원
다원건축(종합)
서울 서초 서초 1606-3
588 - 1402



李鎔善(52年)
한양대 건축
선기획건축
서울 강남 청담 59-10
516 - 8941



陳景旋(47年)
전남대 건축공
미진, 시민, 시진, 보광(종합)
광주 북구 중흥 694-10
527 - 7774



梁浚模(61年)
성균관대 건축
성우건축(종합)
서울 용산 신계 6-31
706 - 1442



黃龍淵(53年)
한양대 건축, 동대학원
대원, 성동, 유창건축(종합)
서울 성동 자양 220-149
457 - 9465



鄭徹奎(58年)
서울대 건축, 동대학원
두정건축
서울 종로 구기 95-13
353 - 8768



金興秀(47年)
서울대 건축
남산건축(종합)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26
771 - 0367



李 燦(55年)
고려대 건축
덕유건축(종합)
서울 송파 방이 111-8
417 - 2275



柳時衡(61年)
한양대 건축, 동대학원
사원건축(종합)
서울 강남 논현 3
517 - 8501



權純政(60年)
서울대 건축, 동대학원
아래아건축
서울 마포 공덕동 256-13
703 - 0416



河長成(57年)
연세대 건축, 동대학원
참건축
서울 마서초 양재 2-16
579 - 1587



劉俊鎬(59年)
한양대 건축
시원건축(종합)
서울 강남 논현 3
517 - 8501



金英徹(54年)
서울대 건축, 동대학원
정림건축(종합)
서울 종로 충신 60
648 - 1273



金成日(62年)
한양대 건축
덕유건축(종합)
서울 송파 방이 111-8
417 - 2275



朱秀一(45年)
한양대 건축, 연세대학원
주수일 건축
서울 동작 노량진 2동 231
514 - 8844



李喆弘(52年)
서울대 건축, 동대학원
남산건축(종합)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26
771 - 0367



金慶洙(56年)
서울대 건축, 전북대학원
원건축(종합)
서울 강남 삼성 153-29
568 - 8575



高樂浩(62年)
전북대 건축, 同대학원
원건축(종합)
서울 강남 삼성 153-29
568 - 8575



崔炳雄(54年)
한양대 건축
신무림, 해인(종합)
서울 송파 방이 36-9
414 - 2209



崔素榮(59年)
인하대 건축
대영건축
인천 남구 주안 203-19
864 - 5749



金炯旭(56年)
삼척공전 건축
다래건축
강원 강릉 금학 84-2
44 - 3816



柳權浩(54年)
천안공고 건축
유건축
서울 관악 봉천 1664-3
873 - 0456



吳熙淳(59年)
영남대 건축
대진건축
경북 경산 중방 331-17
82 - 0303



金建陽(49年)
인천공고 건축
선건축
인천 남동 만수 916-8
437 - 4395



鄭斗基(51年)
대전공전 건축
카스, 송우(종합)
서울 서초 방배 450-16
522 - 0104



李柱承(57年)
동아대 건축
도감건축(종합)
부산중구 중앙 4가 84-15
466 - 1161



卓基奉(59年)
부산공전 건축
유일건축
전남 순천 남정 141-3
467 - 9199



李灌熙(59年)
홍익대 건축
예창건축
서울 마포 도화 205-14
714 - 7742



孔舜九(60年)
홍익대 건축, 同대학원
팀, 지성, 프로텍(종합)
서울 강남 신사 572-3
545 - 6078



金容燮(57年)
경남전문대 건축
조형건축
부산 동구 초량 3동 1154-3
467 - 9199



金成洙(57年)
동신실전 건축
고려건축
전주 완산 고사 2가 313-2
253 - 0547



朴運榮(48年)
인천전문대 건축
현신건축(종합)
서울 서초 반포 67-1
534 - 9242



吳永根(56年)
춘천공고 건축
동화건축
강원 원주 원동 59-28
731 - 2150



朴泰莊(58年)
계명대 건축
남양건축(종합)
대구 수성 범어 3-19
741 - 1544



崔奇孝(58年)
한양대 건축
한주건축(종합)
서울 강남 삼성 114-11
569 - 4292



金鍾潤(53年)
계명대 건축, 영남대학원
세원, 미주, 대송(종합)
대구 중구 삼덕 2가 106-17
423 - 0843



李宗遠(60年)
계명전문대 건축
동성, 동우건축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3
756 - 9755



李鉉哲(59年)
경남공전 건축
한림건축
경남 진해 평안 3-5
44 - 6666



李雨龍(53年)
영남대 건축
세원, 미주, 대송(종합)
대구 중구 삼덕 2가 106-17
422 - 5713



韓德濟(58年)
경북공전 건축
영산건축
대구 동구 신암 4동 1767
958 - 5264



宋東積(56年)
부산대 건축
성우건축
부산 부산진 부전 485
809 - 3150



尹成云(58年)
안양공전 건축
경일, 청림(종합)
수원 권선 인계 1027-7
36 - 4222



金聲浩(55年)
서울시립대 건축
진양, 인우, 삼호(종합)
인천 북구 부평 441-35
513 - 9442